2016
향토사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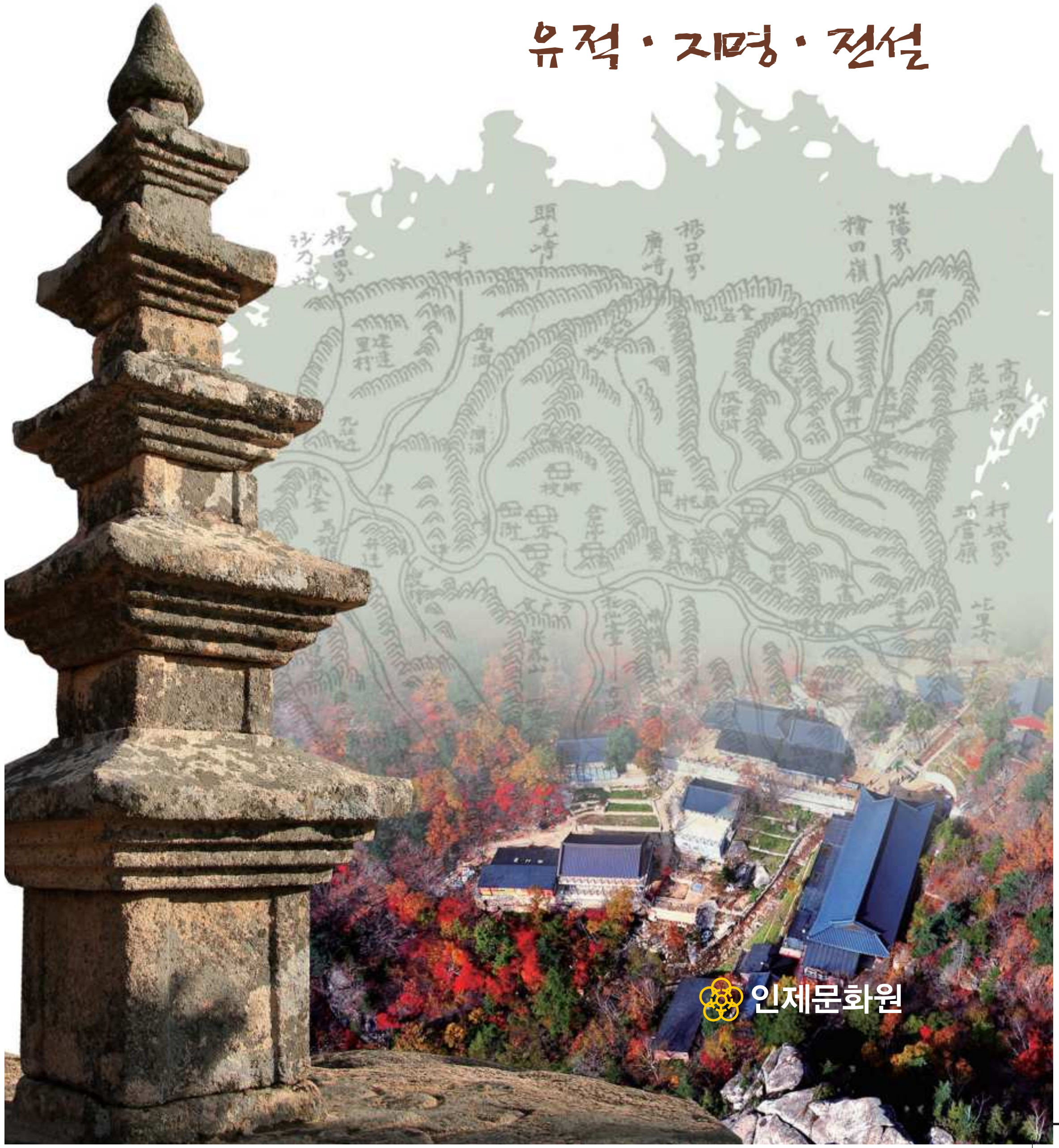
인제의 옛이야기
유적 · 지명 · 전설

인제문화원

2016 향토사료집

인제의 옛이야기

유적 · 지명 · 전설



인제문화원

인제의 옛이야기

유적 · 지명 · 전설

인제의 옛이야기

유적 · 지명 · 전설

2016 향토사료집

인제문화원

발간사

전통문화를 아끼며 사랑하자

인제문화원장 **남덕우**

인제문화원에서는 다양한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수집 정리하여 보존 계승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또는 문헌을 통해 새롭게 채록하여 책으로 발간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선인들이 열심히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들은 인제를 빛낸 분들의 업적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교훈을 주는 신선한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6년에 인제문화원 주관으로 신설한 인제향토사연구소가 있습니다. 인제향토사연구소 위원은 인제를 진정 사랑하는 향토애로 똘똘 뭉친 분들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숨겨진 향토자료를 찾아 인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제향토사연구소의 여건이 녹록치 못한데도 불구하고 활동은 활화산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제향토사연구소의 노력으로 『인제군 유적 · 지명 · 전설』을 지난 2007년에 이어 새롭게 증보판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새로 발굴하고 다듬어서 지난 모습보다 더 많은 인제의 문화유산을 담았습니다. 이 책은 인제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 더욱이 인제 발전의 초석이 되어 잘 사는 인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제인들이 애향심을 드높이고, 젊은이들이 인제에 대해 알고 보다 훌륭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훌륭한 책을 내게 된 것은 모두 인제향토사연구소의 노력 결과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8월 8일

목 차
Contents

발간사

제1장 | 인제군의 연혁과 역사환경

1. 연혁 13
2. 역사환경 14

제2장 | 인제군의 유적

1. 향교, 한계산성, 만해기념관 19

향교 21
한계산성 23
만해기념관 26

2. 사찰(寺刹), 암자(庵子), 교회 27

백담사 29
백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부복장유물 31
백련정사 33
오세암 34
봉정암 36
석황사 38
보덕사 39
장수사 40
강화사 41
보현사 42
인제 천주교 성당 43

3. 사지(寺址) 45

한계사지 47
영시암지 50
축성암지 52
원명암지 53
용궁사지 54

4. 석탑(石搭), 미륵(彌勒) 55

봉정암 5층 석탑 57
상동리 3층 석탑 및 광배 58
운흥사지 운막암 석탑 59
한계사지 남3층 석탑 60
한계사지 북3층 석탑 62
갑둔리 3층 석탑 63
갑둔리 5층 석탑 65
합강 미륵불 67
원대리 석탑 69

5. 비각(碑閣) 71

도암 이재 선생 유허비 73
마의태자 유적지비 75
김부 대왕당 77
려조평장사 박원굉 묘비 79
절충장군 심준학 지묘 81
고려대광문화평정사 춘천 박공 원굉 선생 신도비 82

6. 대(臺) · 정(亭) · 루(樓) · 단(檀) 85

장수대 87
합강정 89
경로정 91
설악루 92
영소루 93
강원도 중앙단 94

7. 정려각 97

열녀 전주 김씨 정려각 99
열녀 삼척 김씨 정려각 100
효행 이영순 정려각 101
효열부 순천 김씨 정려각 102
효열부 강릉 김씨 정려각 103
열녀 김해 김씨 정려각 104
열녀 전주 이씨 정려각 105
열녀 평창 이씨 효열비와 분묘 107

8. 시비 · 불망비 · 선정비 · 기념비 · 표석 109

박인환 시비 111
만해 한용운 시비 113
덕산리 기근 수재민 구제 만세 심봉호 불망비 114
참봉 유재구 불망비 115
5인 부사 선덕 불망비 116
조위순 청덕 불망비 117
이일철 영세 불망비 118
이용선 영세 불망비 119
양교회 불망비 120
김경균 청덕 불망비 121
한진동 불망비 122
홍유순 애민 선정비 123
기린면장 방범주 선정비 124
이재화 선생 경로 송덕비 125
인제군 장학재단 설립 기념비 127
황덕신 기념비 128
황장금표 129
퀸 대령 가의 명비 131
군축령 표석 133
내린천댐 건설 반대 기념 조형물 134

9. 전적비 137

충혼탑 139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탑 141
전사경찰 위령비 142
인제 지구 전투 전적비 144
충혼비 145
현리 지구 전투 전적비 146
순직 장병 충혼비 148
무명 용사 충혼비 150
백인엽 장군 송덕 기념비 151
오덕준 장군 송덕비 152
장병 추도비 153
매봉·한석산 전적비 155
백골병단 전적비 157
칠성탑 159
군축령 충혼비 160
남전리 충현비 162
남전리 위령비 164
저10야전군 사령부 지지 기념비 165
남북통일로 표석 166
38교 표석 167
연화동 공비 전적비 169
리빙스턴교(빨간다리) 171

10. 산성 173

한계산성 175
합강산성 178
서화리산성 180
성재성 182

제3장 | 인제군의 지명

1. 우리나라의 지명 187

가. 지명조사의 연혁 189
나. 지명의 특징 190
다. 지명의 실례 190

2. 인제군 지명의 변천과정 193

가. 지명 195
나. 인제군 옛 지명의 일부를 찾아서 196

3. 읍면 지명 221

인제읍 223 | 남 면 244 | 북 면 260
기린면 276 | 서화면 289 | 상남면 299
역대 행정 구역 약도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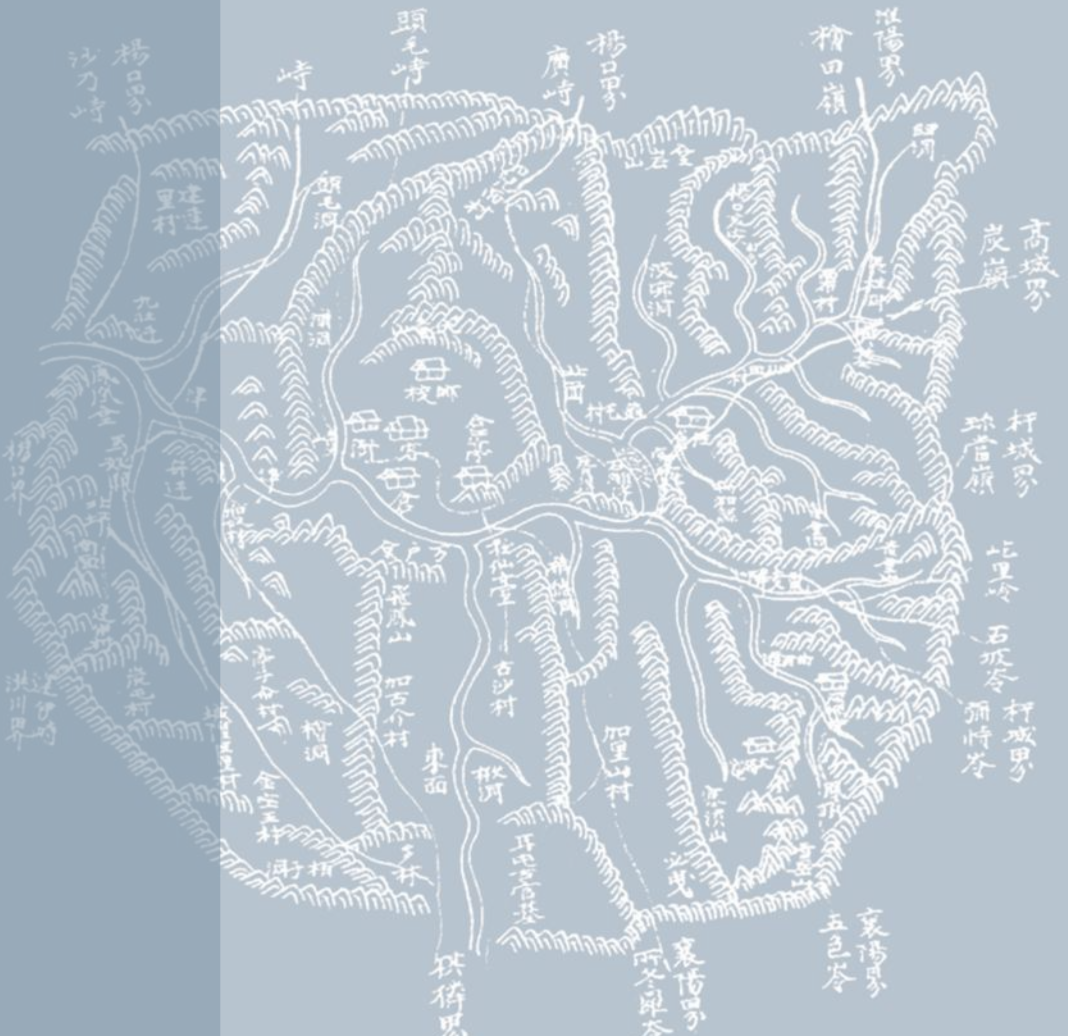
제4장 | 인제군의 전설

1. 인제읍 319
2. 남 면 332
3. 북 면 344
4. 서화면 350
5. 기린면 354
6. 상남면 362

· 잊혀지는 내고장 유래 _ 368

제1장

인제군의 연혁과 역사환경



1 연혁

고구려때는 저족현, 오사회현이라 하였고, 현의 소재지를 서화에 두었다.

통일 신라시대에는 희재현이라고 고치고, 양록군(지금의 양구군)의 영현으로 삭주(지금의 춘천)의 관할하에 두었다.

고려시대에 인제로 개칭하여 처음에는 춘주(춘천)에 속하였다가 후에 회양에 속했고, 1389년(공양왕1)에 현으로 승격되면서 감무를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1413년(태종13)에 현의 소재지를 인제로 옮기면서 현감을 두고, 1895년(고종32) 춘천 유수군이 춘천부로 승격되면서 이에 예속된 인제현이 되었다.

1896년에 인제가 군으로 승격하였다.

1906년(광무10) 현내면을 군내면으로 고치고, 춘천군의 기린면과 강릉군의 내일리, 내삼리 2개면을 편입하였다.

1916년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군내면과 동면을 병합하여 군내면으로 내일리와 내삼리 등 2개면을 병합하여 내면으로 하고 1916년 군내면을 인제면으로 고쳤다.

8.15광복과 더불어 국토가 양단됨에 따라 38선 이남의 내면, 남면 및 기린면의 일부가 홍천군에 편입되었고 인제면, 북면, 서화면 및 기린면의 일부가 북한에 속하게 되었다.

1963년 해안면은 서화면의 1개리가 되었고 1973년에 행정구역 개편 에 따라 서화면 해안을 양구군 동면으로, 춘성군 북산면 수산리를 남면으로 편입하였으며, 1979년에는 인제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그 후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의 1개읍 4개면으로 이루어져있었다.

1983년에 전국행정구역 조정으로 상남 출장소가 상남면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의 1읍 5개면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현실에 임하고 있다.

2 역사환경

인제지방은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터를 잡고 생활해 왔다. 이는 북면 월학리 구미동 지역의 지석묘가 몇해전에 일곱기가 나타나 있었던 일과 돌칼, 돌화살촉 등의 발굴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고대의 강원도는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을 대별해서 濊와 貊이라는 부족국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영서에 속하는 인제는 맥(貊)국에속해 있었다.

이후 고구려가 강원도를 다스렸으나 신라 진흥왕 때에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여 백제는 한강 한류를 점령하고 신라는 죽령 이북 10개군(강원도)를 점령함으로써 인제는 신라의 영토에 속하게 되었다.

신라 637년(선덕왕6)에 군사상의 요지로 牛首州(춘천)에 군주를 두어 다스렸는데 이때에 楊麗郡(양구)의 속현으로 하고 인제는 희재현으로 개칭하고 서화는 신라 경덕왕때 치도현 기린은 종전과 같이 基知郡으로 불렀다.

신라 말에 인제는 궁예의 태봉국의 영토가 되기도 했다.

고려 995년(성종14)에는 4군도호부로 나누고 관내를 10도로 분할하여 삭방도를 설치하면서 함경도와 강릉일대를 구분하여 명주도라고 칭하고 춘천과 철원등지를 구분하여 춘주도로 개칭하였다.

이때 인제는 춘주도에 속하였으며 1389년(공양왕1)에 현으로 승격되어 감무를 두었다.

조선 태종 13년 지방제도를 개혁하면서 춘주군을 춘천으로 개칭하고 1415년에 춘천도호부로 승격되자 기린현이 춘천도호부의 속현으로 있었다. 1895년(고종32)에 전국을 23부 331군으로 관제를 개정 공포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23부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13도로 개편하고서 영동의 강릉부와 영서의 춘천부를 통합하여 강원도라 칭하고 춘천에 감영을 두었다. 인제는 이때 군으로 승격되었다. 1906년에는 춘천군에 속해있던 기린면은 인제군으로 편입되었으며 인제군 현내면을 군내면으로 개칭하였다.

당시 도에는 감찰사, 군에는 군수를 두었으며 같은 해에 각 면에 집강(執綱:現面長)을 두었다.

일제시대 때인 1914년에는 전국 317군을 12부 218군으로 재조정함에 따라 동면을 군내면에 통합시키고 1916년에는 군내면을 인제면으로 개칭함에 따라서 인제, 북, 남, 기린, 서화면 5개면으로 재편성하고 기린면의 미산과 용연동이 강릉군 내면이 이속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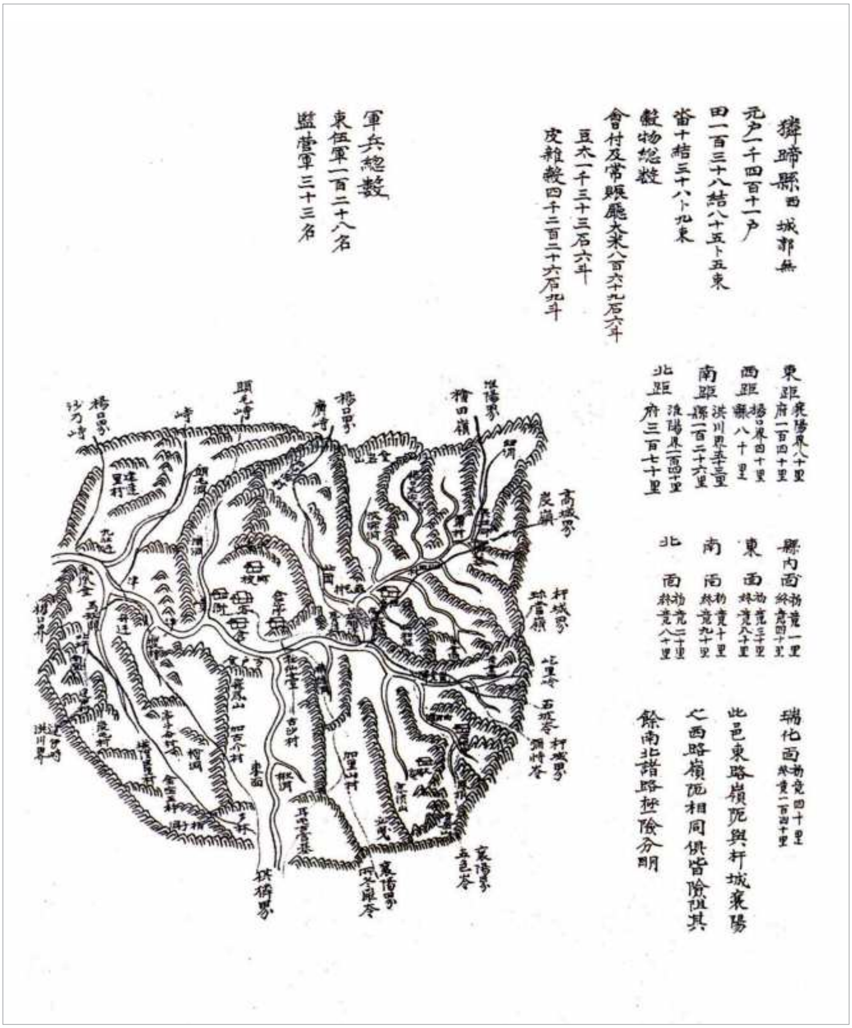
조국의 해방과 함께 국토가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양단되자 인제군은 내면 전지역이 홍천군 내면으로 편입되었고 인제면의 원대, 남면의 7개리와 기린면의 진동리, 북리의 일부, 하남, 현리, 서리, 방동, 상남리 5개리를 병합하여 홍천군에 편입, 신남면이 되었다.

한국전쟁 때에 인제군은 중동부전선의 요충지로써 격전지였다.

1951년 매봉, 한석산 전투에서 9사단 30연대가 인민군 12사단을 격멸하여 인제 일대를 제압하는 성과를 올리는 전투가 되었고 커다란 희생을 치른 현리지구 전투도 있었다.

한편 이러한 인제지구 전투의 사상자 가운데 유엔군으로 참전한 리빙스턴(Livingstone) 중령의 이름을 딴 리빙스턴교가 뒤에 건설되었으며 휴전 후에는 군정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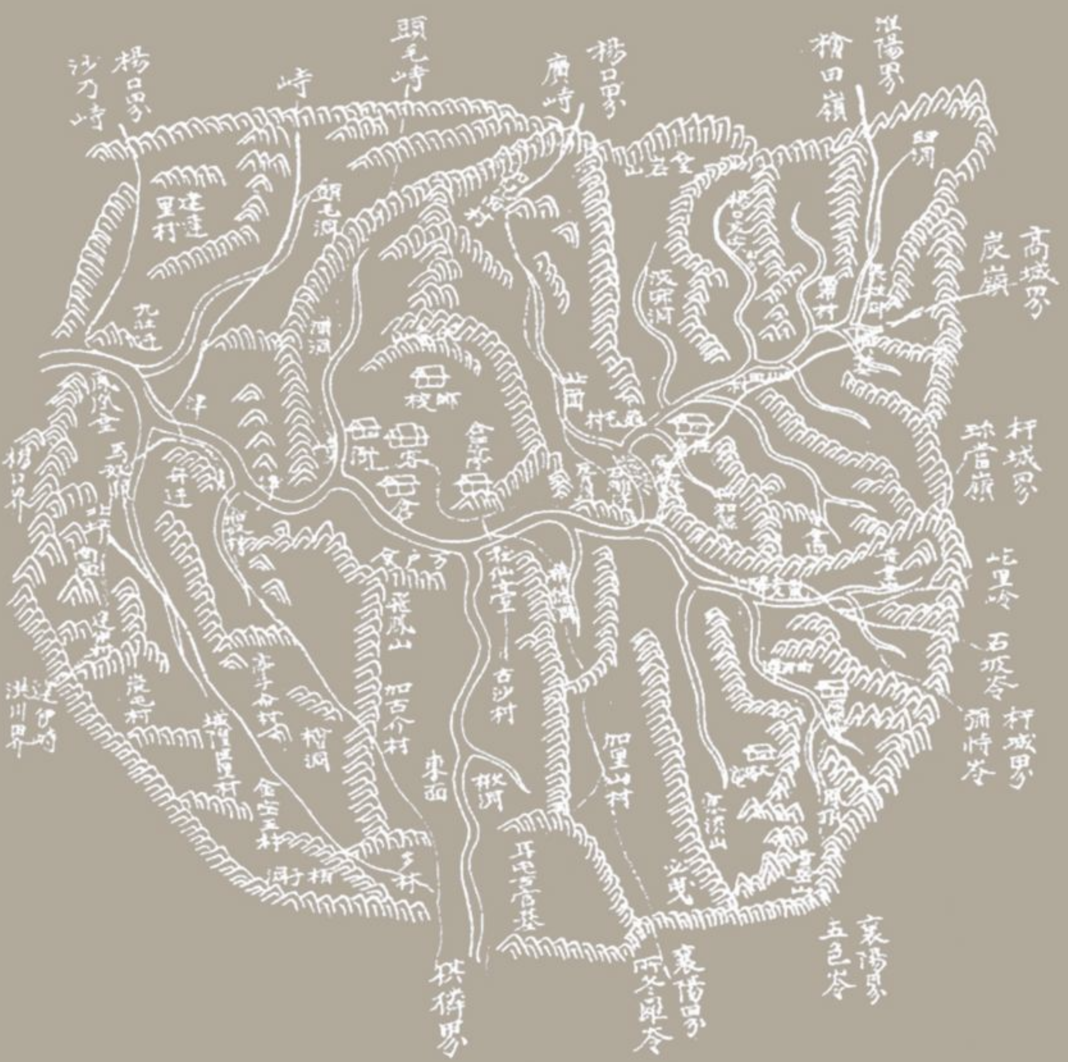
전쟁이 끝난 후 서화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제지방의 영역이 회복되어 오늘날의 인제군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


麟蹄縣 西 城郭無
元戶一千四百十一戶
田一百三十八結八十五卜五束
畓十結三十八卜九束
穀物總數
會付及常賑廳大米八百六十九石六斗
豆太一千三十三石六斗
皮雜穀四千二百二十六石九斗
軍兵總數
東伍軍一百二十八名
監營軍三十三名
此邑東路嶺阨與杆城襄陽之西路嶺阨相同俱皆險阻其餘南北諸路夷險分明

인제군 고지도(해동지도)

제2장

인제군의 유적



1

향교 · 한계산성 · 만해기념관

향교 鄕校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건립 1480년 이전(추정)

인제 향교의 정확한 건립연대는 기록이 남지 않아 알 수가 없는 현실 이다. 「동국여지승람」이 최초로 간행된 1481년 그 이전에 이미 전국 각 지방에 향교가 있었음을 통해 참조가 되며 또한 1471년에 간행된 「경국대전」 이전 외관직조에 지방 향교에 고수 및 훈도를 파견하였다는 기록 이 있고, 「동국여지승람」 인제현 편에 훈도가 배치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1480년 이전을 보아지며, 광해 2년 경술에 현감 이빙이 중건하고 광해 7년 을묘에 현감 구인기가 군의 서쪽으로 이건하였으며 순조 4년 갑자에는 현감 홍혁이 군의 동쪽으로 이건하였다. 또 소화 갑술(1934)에는 수해로 인하여 군수 정하형이 지금의 자리로 옮겨 지었다.

그 후 6.25사변 때에는 대성전만 남고 모두 타 버린 것을 1954년 수복되자 이승춘 군수와 평창인 이종익(1897~1975 : 일제시대 인제5대 면장) 유림 대표를 비롯한 유림들의 주선으로 명륜당이 중건되었고, 1966년 밀양인 손원삼(1896~1972) 유림대표를 비롯한 유림들의 정성으로 동서제를 증건하였고 익년에는 대성전 중수 3문루를 증건하는 등 변천과정이 많았다.

한계산성 寒溪山城

소재지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1

지정일 1973년 7월 31일

지정번호 강원도 기념물 17호

한계산성의 지리적 위치는 옥녀탕 계곡을 따라 위로 약 3km 지점이 며 제일 낮은 지역이 해발 700m, 높은 지역이 해발 1,200m에 이르는 산 계곡의 남쪽에 남문을 마련하고 양쪽으로 쌓아 올렸다.

한계3리 북쪽인 해발 1,430m의 안산 8부 능선인 해발 1,100m 되는 곳에서 시작된 성벽은 남쪽으로 점차 내려가면서 쌓았고, 성골(또는 옥녀탕 계곡)을 흐르는 계곡물을 동서로 가로질러 막은 후 다시 동쪽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그 동쪽 끝 해발 1,200m 되는 산꼭대기를 지나 안산의 8부 능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1.8km 이르는 길이를 따라 축성하였다.

한계산성은 폭 5m, 높이 10m, 길이 70m가 윗부분의 돌만 흩어진 채 거의 완전한 옛 모습대로 있으며 천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청태가 낀 벽석에서 역사의 흐름을 새롭게 해주고 있다. 넓이 2m, 높이 3m의 성문은 뒷부분이 흙으로 막혀 있는 것을 1986년 6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2일까지 강원대학교 지표 조사단(단장 : 최복규) 1차 지표 조사에 의하여 파내어 뚫어 놓았다.

한계산성에 관하니 기록이 명확히 기입된 것은「고려사」〈열전〉조 휘에 관한 사료에서 발견된다. 그에 따르면『… 明年暉黨自稱官人蒙古兵來攻寒溪城防護別監安洪敏率夜別沙擊盡殲之…』이라 있어 “고종 46년(1259)에 조휘의 무리가 고려 관인이라 스스로 칭하며 몽고병을 이끌고 한계산성을 공격하였는데 방호별감으로 있던 안홍민 장군이 야별초를 이끌고 나가 싸워 모두 섬멸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계산성에서 안홍민 장군이 이끄는 고려 야별초가 몽고군을 섬멸하는 전적을 올린 한계산성 전투가 벌어진 시기는 고종 46년 (1259)의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고려사」〈세가〉고종 46년 1월의 기록에『四十六年春正月 … 丁來蒙古攻城州岐巖城夜別沙率城中 人與戰大敗之東眞寇金剛城遣別抄三千人救之戊年以鄭芝爲四北面兵馬使金允候爲東北面兵馬使』라 있는 것으로 보아 고종 46년 1월 3일에 몽고군이 평안남도 성주(지금의 성주)를 침략하였으며 바로 금강성을 계속 침략하자 별초군 3천명을 보내어 구하였고, 같은 달 14일에는 정지를 서북면 병마사로, 김윤후를 동북면 병마사로 삼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계산성 전투도 같은 해 1월 중순경에 벌어졌으리라 짐작된다.

그 밖에 한계산성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1)《세조대왕실록》〈지리지〉인제현편에『寒溪山石城二在縣北十五里上城周回七百二十九步有一泉旱則渴下城周回一天千八百七十二步 有三河水合流爲一小溪長不竭』이라 있어 한계산성은 둘이 있는데 인제현 북쪽15리에 있으며 위 성의 둘레는 729보로써 샘이 하나 있으나 가뭄때 고갈되며 아래 성의 둘레는 1,872보로써 세 골짜기의 물이 하나의 계곡을 이루었는데 고갈되

지 않는다 하였다.

2) 중종 25년(1530)에 편찬된《신증동국여지승람》인제편에는『寒溪山古城石築周六千二百七十八尺高四尺內有一井今半頹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둘레 6,278척, 높이 4척 안에 우물이 하나 있고 반은 퇴락하였다는 것이다.

3) 영조 41년(1764)쯤에 편찬된《여지도》인제편에는『古跡寒溪古城石築周回六千二百七十八尺高四尺內有二井今則頹破』라고 있어 길이와 높이는《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나 성 안에 우물이 2곳 있다고 하여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4) 현종 9년(1843)에 편찬된《인제현 읍지》고적편에『寒溪古城石築周回六千二百七十八尺高四尺內有二井今頹落』이라고 있어《여지도서》의 기록과 같아 그것을 참고하였다고 생각한다.

5) 고종 2년(1864) 김정호 선생이 편찬한《대동지지》인제편 성지 조항에『寒溪山高城 東五十里 周六千二百七十二尺有大泉』이라고 있어 인제현에서 동쪽으로 50리 지점에 있으며, 둘레는 6,272척으로 다른 자료보다 2척이 작으며 높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성 안에 큰 샘이 있다고 하였다.

만해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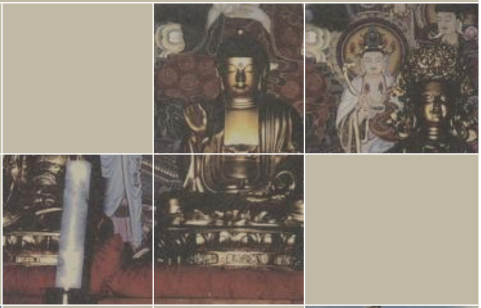
소재지 인제군 북면 용대 3리

건립 1997년 11월 9일

인제군 북면 용대 3리 백담사에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본부』 만해 기념관이 건립되면서 만해 사상을 총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만해 한용운 선사가 불교 유신론을 쓰고 민족 시집 『님의 침묵』을 창작한 백담사는 1997년 11월 만해 기념관 만해당, 만해 연구원 등이 완공되면서 겨울 동안 1만여 명의 참배객들이 찾는 등 역사 기행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만해 기념관은 만해의 출가 및 수 행, 3.1운동 옥중 투쟁과 계몽 활동, 문학 활동, 신간회 활동을 분야별로 담고 있고, 유품으로는 육필 원고, 저서, 초간본, 문학세계 사상을 조감한 각종 논문 · 평전 등 8백여 점이 전시돼 있다.

2

사찰(寺刹)·암자(庵子)·교회



백담사

백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부복장유물

백련정사

오세암

봉정암

석황사

보덕사

장수사

강화사

보현사

인제 천주교 성당

백담사 百潭寺

소재지 인제군 북면 용대 3리

건립 1457년

지정번호 사찰 143호

인제군 북면 용대리 외가평에서 동남쪽 계곡 8km지점에 조용히 흐르는 냇가를 앞으로 하고 뒤로는 잣나무가 울창한 평면지대에 터를 잡고 있다. 전신사찰을 살펴보면 신라 28대 진덕여왕 원년(647)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북면 한계리 한계사의 고찰이다.

한계사는 신문왕 10년(690)에 화재를 당해 성덕왕 18년(719)에 중건 하였으나 또, 원성왕 원년(785)에 소실되어 같은 왕 6년에 한계사 아래 30리 지점으로 옮겨 운흥사로 이름을 고쳤다.

그 후 운흥사도 고려 성종 3년(985)에 화재로 옛터의 북쪽 60리 지점으로

옮겨 심원사라 이름을 짓고 세웠다.

그 뒤 다시 소실되어 절을 옮겨 새로 짓고 선구사(1433)로 명명하였 다가 또 옮겨 영취사(1466) 등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조선 세조 3년 (1457)에 현재의 백담사로 옮겨 왔다고 한다. 그 후 영조 48년(1772)에 또 소실되자 3년이 지난 영조 51년(1775)에 최붕, 태현 등의 힘으로 절을 세우고 심원사라 하였다. 그러나 정조 7년(1783)에 다시 백담사라고 개칭하여 역사를 되풀이한 사찰은 1912년 고성군에 있는 건봉사의 말사로 1915년에 또 소실되자 1921년에 인공선사가 세웠다. 그러나 6.25동란으로 다시 소실되자 1957년에 재건 후 현재에 이르는 등 역사적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보로는 자장율사의 유물로 소종 1좌와 인조 때(1632) 설정대사에게 하사한 7층 소형옥탑이 있다. 특히 3.1운동 때 33인 중의 한 분인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사가 머리를 깎고 수도한 유명한 곳이다.

백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부복장유물

소재지 인제군 북면 용대 2리

지정번호 보물 제 1182호

이 불좌상은 영조 24년(1748)에 만들어진 것으로 나무를 깎아 만들었으며 크기는 87cm정도이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들고, 왼손은 다리 위에 올려 놓고,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손, 모양(수인:手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미타 부처의 손 모양이다.

아미타 부처는 서쪽의 극락세계에 살면서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부처이다. 머리에는 마치 소라처럼 오른쪽으로 빙빙 돌려진 꼬불꼬불한 머리카락(나발:螺髮)이 선명하다.

불상머리 꼭대기의 커다란 상투구슬, 표정 없는 얼굴, 가슴 위를 가로 지르는 내의표현 등은 조선시대 후기 불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 이다. 불

상의 내부에서 이 세상을 만들게 된 배경과 만든 시기를 알 수 있는 발원문(發願文) 4장과 노란색 저고리, 보자기에 싸여진 유리와 수 정 등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들은 이 불상의 가치를 높여 주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후기의 복식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백련정사 白蓮精舍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상동 5리(수리골)

건립 1971년 2월 19일

이 사찰은 3국을 통일한 후에 불교가 국교를 진호한 성교로써 터전을 닦게 됨에 따라 신라시대에 들어서 창건하였다고 하나 그 연대는 미상이 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상동 5리 세칭 수리골에서 북방 2km지점인 지하에서 샘이 용출하여 그 천수가 계곡을 형성한 것에 유래하여 천곡사라 이름하였다 한다.

구한말에 들어서 용출점에다 암자를 건립하고 이 사찰을 신수리사로 이름하였다. 1950년 6.25로 인하여 재화로 휩쓸려 애석하게도 완전 폐허화되었다. 1966년 중수하고 천곡사(川谷寺)로 개칭하였다. 1968년 평안북도 정주태생인 강석천(1928~) 스님이 정주하여 천일 관음 신수를 봉행하고 백연암으로 개칭하고 현 암자를 건립한 후 백련정사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비전을 비롯 관음원(48평)과 한전시설 외 음소재지에다 포교당을 개설하고 신도 교화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신도 600호를 상회하고 있다.

오세암 五歲庵

소재지 인제군 북면 용대 2리

건립 644년

인제군 북면 용대리(내가평)에서 동남쪽으로 약 8.5km를 오르면 백담사가 있다 백담사에서 영실암을 지나 6km를 가면 바로 오세암이 나온다. 이 오세암은 백담사의 속현 암자로 당초에는 박달나무로 2층을 지어 관음암이라고 하였는데 신라시대 설악산에 불원을 개척한 자장율사가 장경을전하고 구운의 대도를 찾고자 선덕여왕 13년(644)에 창건한 암자이다.

이조 인조(1643)때 명승인 설정대사가 이를 중건하여 오세암이라 개칭하였는데 그 연유는 설정대사의 질아가 오세로 여기서 견성득도하여 동국제일 선원오세암이라 하였다는 설과 세조(1456)때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이 속세를 벗어나 대도를 갖고자 이곳에 단발 입산하여 오

래 있었던 탓으로 오세신동의 칭호를 따서 오세암이라 하는 설이 있다. 그 후 고종 을축년(1865)에 백하스님이 재차 중건하였고, 남호대사가 해판 대장경을 봉안하였으며 매월당 유상도 있었으나 6.25동란으로 천년 국보를 애석하게도 소실되었다.

봉정암 鳳頂庵

소재지 인제군 북면 용대 2리

건립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봉정암 암자는 백담사의 속암자로써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자장율사가 입당하여 세존사리를 얻어와 5층 석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했다고 하며, 설악산의 대소사 암중 제일 먼저 창건되었고 또한 전국 불교 사찰 및 암자 중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신라시대의 불교문화가 번창함에 명승이 전국 요지에 사찰과 암자를 설립하므로 속세에서 떠나 깊은 삼의 사찰과 암자를 찾아 수도를 닦는 세인이 많아졌으며 봉정암에도 고승 원효대사가 다녀갔다. 그 후 고종 때 명승 보조국사가 고종 13년(1226)에 중수하였고, 이조 중종 13년(1518)에 유적스님이 재중수하였다. 그 후 인조 10년(1663)에 설정스님이 다시 중수하고 8.15에 춘

계스님이 주지로 있었다.

이 암자는 산세가 좋고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암자를 둘러싸고 있어 자연 경관 또한 어디에 비할 바가 없다. 시조작가 노산 이은상은 봉정암 에 올라 다음과 같은 시조를 음영하였다.

깊은밤 이 산골에 들라는 저 물소리
구구절절 기묘한 진리로다
인간에 기똥설법은 모두 헛것이었다
물소리 마음 속을 긴골 이뤄 흐르나니
밝으신 달마저 마음위에 비췄나니
이대로 지녀 돌아가 고이고이 잠들리라.

석황사

소재지 인제군 북면 한계 3리

건립 1973년

본래 석황사는 인제군 북면 한계 3리 장수대 밑에 있었으나 국립공원 내에 무허가 건물로 있었기에 철거되어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으며 현재 주지 스님은 정관월(경옥) 스님과 정원 스님 두 분이 불도를 드리며 신도를 넓혀가고 있다.

매년 4월과 8일과 10월 보름에 백일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이 때에는 관내 및 원거리에서 많은 신도들이 찾고 있다.

건물로는 법당과 주위에 산식각 및 요사체가 있다.

보덕사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서 1리

건립 1965년

기린면 현리 강 건너 창암산 밑에 자리잡고 있으며 뒤로는 창암산 산세가 높이 솟아있고 앞으로는 맑은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어 휴양지로 매우 좋은 곳이기도 하다. 1965년도 현재의 이해운(말우) 주지 스님이 정착하여 보덕사라 명하고 불도를 닦으며 법도를 넓혀와 관내 선독 수가 약 3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관내에서 찾는 신도들도 많이 찾아와 불공을 드린다.

보덕사는 태고종이며 이해운(말우) 주지 스님은 경상도 사람으로 55세의 나이에 매년 정월달에 신정 불공을 드려 선도들의 1년 신수를 풀어주고, 입춘 때에도 불공을 드려 삼재풀이를 풀어주며 3월 3일, 4월 8일, 5월 단오, 칠월 칠석, 9월 9일 동지날 등 정기적으로 불공을 드려 신도들이 많이 찾고 있다. 주위에는 법당을 비롯하여 산신각, 종각, 요사채 등의 건물이 있다.

장수사

소재지 인제군 남면 신풍리

건립 1958년 9월 9일

장수사는 1958년 9월 9일 남면에 거주하던 신도 김학선씨(68년도 사망 · 신남리에 거주하였던 조만윤씨의 모친)가 여러 신도들과 더불어 건립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현재의 김대진 주지 스님이 승계를 하였으며, 우측 사찰 옆에다 산신각과 용왕각 그리고 객실 등 건물을 마련하였다.

신남에서 홍천 방향으로 국도를 따라 약 1km쯤 오다가 우측 장지골 계곡 1km를 오르면 장수사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 주위의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특히 바위 틈에서 나오는 석간수라는 물은 만병의 특효가 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다. 신도가 약 50여명이 되고 특히 일요일을 기하여 인근 군부대 장병들이 많이 찾아와 불도를 닦고 있다.

강화사 降華寺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상동 1리

건립 1990년 4월

인제군 인제읍 상동 1리 기룡산 밑에 자리잡고 있는 대한불교 천태종으로 앞산으로는 봉황새가 나르는 모습의 비봉산이 높이 서있고, 그 밑으로는 소양강 상류의 맑은 물이 구비구비 돌아 유유히 흐르고 있다. 원래는 1968년부터 1대 신도회장인 이규화씨(사망)가 인제읍 상동 4리에 거주하면서 인제 지역에 법도를 전하며 신도를 넓혀왔다. 이 후 신도회장 이규화씨는 사망하였고 다른 사람이 회장직을 맡으며 법도를 지켜오다가 1990년 4월 이곳에다 강화사를 건립하게 되었다. 현재에는 신도 회장 박일섭씨를 비롯 신도 3백여명과 함께 매월 21일 정기적으로 법회를 가지며 신도를 넓혀가고 있다.

보현사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남북 2리

건립 1946년 3월 15일

인제읍 남북 2리 도로에서 객골 계곡으로 약 600m쯤 오르다 보면 좌측 산밑에 위치하고 있다. 1946년 3월 15일 박도학이라는 주지가 처음 절을 짓고 법도를 지켜왔으며, 앞에는 소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있는데 물맛이 좋고 여름 한철에도 매우 차가워서 이곳을 아는 인근 지역 주민이 물을 담아가서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사찰의 규모는 아주 작으며 박도학 주지는 불도를 지켜오다가 1987년 음력 6월 28일 운명하여 보현사 앞에 빈소를 모셨다.

인제 천주교 성당

소재지 기존 원고에 소재지 빠짐

건립 기존 원고에 건립일 빠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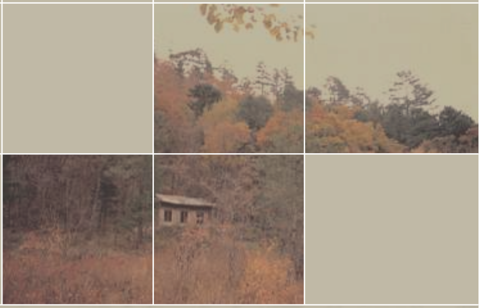
본당 창설 당시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 생겨난 본당으로 최초에는 지금의 성당 뒤편 공터에 천막을 설치하여 임시로 사용하여 오던 중 화재로 전소되자 3군단 미군부대 교우들의 지원으로 지금의 성당 후편에 콘크리트 가건물을 설치하여 1957년 5월까지 임시성당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초대 임요한 신부(아일랜드 출신)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 총 공사비 25,000달러를 지원 받고, 부지는 당시 홍천 본당의 간도마 신부가 지원하여 구입했다고 조선희(필립보) 신부가 증언하였다.

설계는 오 후배르또 신부가 하였으며 6.25동란 시 폭격으로 사면의 벽체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을 기초 콘크리트를 그대로 이용하여 1957년 11월 27일

준공을 보게 되었다. 본당의 규모는 연면적 135평으로 길이 35m, 폭 14m, 높이가 9.3m, 종탑의 높이는 약 20m이며 현재까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아름답고 우아한 성당이다. 지금 성당 전면에는 십자가 예수상이 세워져 있으나 재로가 나무로 되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부식되어 1979년 8월 15일 석고로 새로 안치하였고 성모상은 1989년 7월15일 1,100만원을 들여서 완공하였다.

3

사지(寺址)



한계사지
영시암지
축성암지
원명암지
용궁사지

한계사지

소재지 인군 북면 한계 3리

지정일 1982년 11월 3일

지정번호 강원도 기념물 50호

인제군 북면 한계 3리 장수대 주차장 좌측 언덕(동부산장 뒤)이 바로 한계사지로써 신라 제28대 진덕여왕 원년(647)에 명승인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 창건 후 5차에 걸쳐 재화로 용대리로 옮겨 현재의 백담사 된 것이다. 백담사가 소유한 한계사에 관한 일부 기록은 다음과 같다.

《백담사(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사적》

『일천육백칠사년 〈신라진덕여왕원년정미〉 자장법사일사를 설악산 한계리에 창하야 명을 한계사라하고 미시상삼위를 조성 봉안하다.

선시일천육백칠십일년 〈선덕여왕십삼년갑진〉 자장이 봉정암을 창하고 오층탑을 건하야 불사리를 봉안하고 또 관음암을 창하였다가 후삼년에 한계사를 창하니 봉정암과 관음암은 사의 속암이 되니라.

일천칠백사년 〈신라문무왕십칠년정축〉 원효대사 봉정암을 중수하다.

일천칠백십칠년 〈신라신문왕십년경인〉 한계사 일재하다.

일천칠백사십육년 〈신라성덕왕십팔년기미〉 한계사를 중건하다.

일천팔백십이년 〈신라원성왕육년경오〉 사승종연, 광학, 상동, 령희, 법찰 설흡 등이 한계사를 고기의 하삼리지에 이건하고 명을 개하야 운흥사라 한다.

이천십일년 〈고려성종삼년갑신〉 운흥사 일재하다.

이천십사년 〈고려성종육년정해〉 사승동훈, 준희 등이 운흥사를 고기의 북육십리지에 이건하고 양원사라 개명하다.

이천이백십년 〈고려명종십삼년계묘〉 보희국사 일봉정암을 중수하다.

이천사백오십구년 〈조선세종십사년임자〉 양원사일재하다.

이천사백육십일년 〈조선세종십육년갑인〉 사승 의준, 해섬, 취웅, 신열, 재익, 재화 등이 양원사를 동하삼십리지에 중건하고 선귀사라 개칭하다.

이천사백칠십년 〈조선세종이십오년계해〉 선귀사일재하다.

이천사백칠십사년 〈조선세종이십구년정묘〉 선귀사를 고지의 서일리지에 중건하고 영취사라 개명하다.

이천사백팔십삼년 〈조선세조원년병자〉 영취사일재하다. 매월 김시습이 관음암에 래하여 발을 단하고 치를 의하니라.

이천사백팔십삼년 〈조선세조이년정축〉 사승 재익, 재화, 신열 등이 영취사를 고지의 상류이십리지에 중건하고 백담사라 개칭하다.

이천사백칠십년 〈조선인조이십년계미〉 설정이 관음암을 중건하고 오세암이라 개칭하다…』

앞의 자료를 참고한다면 한계사가 창건된 연대는 현재 북면 용대리에 소재하고 있는 백담사의 전신사찰로써 신라 진덕왕 원년(서기 647)으로 되어 있다. 그때의 고승인 자장율사는 3년 전에 봉정암과 관음암을 짓고 다시 한계

사를 창건하여 아미타삼존불을 봉안하였다는 것이다.

그 뒤 신문왕 10년(서기 690) 불에 타서 다시 성덕왕 18년(서기 719)에 중건하였으며 또, 원성왕 원년(785)에 소실되어 같은 왕 6년에 한계사 아래 30리 지점으로 절을 옮겨 운흥사로 이름을 개명했다고 한다.

그 후 운흥사도 고려 성종 3년(985)에 불에 타서 예부터 북쪽 60리 지점으로 옮겨 심원사라 이름 붙이고 그 뒤에도 절이 소실되어 옮기고 절 이름을 선구사(서기 1433), 영취사(서기 1466) 등으로 바꾸다가 조선 세조 2년(서기 1457) 현재의 백담사로 옮겼다고 한다.

이 절터에 현재 남아있는 주춧돌, 기단석, 석조물들의 제작 수법이나 형태가 다양하고 여러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아 절이 있었던 1200여 년 동안에 통일신라시대 초기에 만들어졌던 원래의 모습이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석조물에 훌륭한 솜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부분 통일신라시대 때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절터 남쪽의 축대 쌓은 수법은 통일신라시대 때의 것임을 명백히 해 준다. 이 절은 몇 차례 화재가 있었고 그 때 따라 중창을 하였으며 먼저 있었던 탑, 석조물, 주춧돌을 이용하여 건축하였다고 본다.

영시암지 永失庵址

소재지 인제군 북면 용대 2리

건립 1468년 추정

백담사의 부속암자로 세조 14년(1468)에 삼연 김창흡이 창건하였으며 백담사에서 동북쪽으로 계곡을 따라 4km 오르는 지점에 있다. 누구나 설악산하면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명산으로 잘 알고 있으며 특히 백담 계곡은 사계절 모두가 자연 경관이 빼어나 봄부터 가을까지 관광객 및 등산객이 줄을 지어 다녀가는 명승지이다.

영시암지는 평평한 넓은 터에 앞으로는 맑은 계곡이 흐르고 있고 남쪽에는 조원봉이 높이 솟아 있으며 서쪽으로는 청룡봉이 보이며 뒤로는 수림이 우거진 아담한 곳이다. 삼연 김창흡은 숙종 15년(1689) 2월에 있었던 기사환국으로 부친 김수행이 사사당하고 시국이 어수선해지자 어지러운 세상과 영구히

인연을 끊기 위해 더욱 효심이 지극한 한을 드리고 사시산색을 구경하며 눈물로 이곳에 머물러 암자를 영시라 이름짓고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다.

『永失庵記』에 의하면 그 후 6년이 지난 어느날, 이 암자 뒤 골짜기에서 범에 물려간 일이 있어 삼연은 인정을 생각하고 이곳을 떠나 수청산으로 가고 이곳을 호식동이라 불렀다 한다.

1691년 설정선사가 가시덤불 속에 묻힌 이 암자를 민망히 여겨 여러 대사들과 도감찰사 그 밖의 공의 덕을 사모하는 모든 선비들과 주민들에게 재물을 거두어 암자를 재건하고 불상을 안치하였는데 법당이 24간, 비각이 1간이었다고 한다. 그 후 1925년 기호 스님이 중수했다가 6.25동란의 재화로 소실되었다. 구전에 의하면 영시암의 기둥 높이가 덕수궁보다도 높다고 하여 조정에서 낮출 것을 종용하여 기둥을 잘라서 낮추었다고 한다. 또한 이 곳에 삼연 김창흡의 유허비가 있었으나 6.25로 인해 회신되었다.

축성암지 祝聖庵址

소재지 인제군 북면 용대 2리

건립 1884년

백담사의 부속 암자인 축성암은 북면 용대 2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담사에서 동남쪽으로 12km 지점으로 3시간의 보행으로 찾아갈 수 있다. 수렴동으로 가다가 영시암터 못미처 큰 귀때기곡이 남쪽 서부 능선에서 가장 높은 봉으로 여기서부터 계류가 비롯되고 이 아래로 축성암이란 작은 암자가 있었는데 고종 21년(1884)에 한암이 창건하였으나 1919년 폐허되었다. 이 암자 뒤로는 감투봉이 장관을 이루었고 작은 귀때기곡의 많은 폭포가 글자 그대로 풍치를 돋워 주고 있다.

원명암지 圓明庵址

소재지 인제군 북면 용대 2리

건립 1676년

백담사 부속 암자로 북면 용대 2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백담사 동북쪽 8km로 약 2시간을 보행하면 원명암자터를 볼 수 있다. 백담사 계곡은 어디를 가나 자연 경관이 좋아 손색이 없겠으나 특히 옛 사지와 암자터를 보면 주위의 경관 여건이 보면 볼수록 좋다. 이 원명암지도 현재는 건물이 소실되어 잡초가 무성하나 터가 넓고 주위 경관이 매우 좋다.

숙종 병진년(1676)에 설정이 창건하고 1897년 중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용궁사지

소재지 인제군 상남면 상남 2리

건립 1970년 9월 1일

인제군 기린면과 상남면 지역에 봉두사, 보명사, 부수사라는 작은 사찰이 있었으나 6.25전란으로 인해 봉두사와 부수사는 폐허가 되고 보명사만이 남아 있었으나 재정난으로 사찰 운영이 안되어 건물만이 현존하게 되었다. 1970년 9월에 박봉례 주지가 170만원을 들여 이곳에 용궁사를 건립하여 신도들에게 법도를 전해주고 있다가 4년 전에 없어져 건물만 남아있다. 지금은 자포대라는 곳에 문안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법도를 넓혀가며 사찰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

4

석탑(石搭)·미륵(彌勒)

봉정암 5층 석탑

상동리 3층 석탑 및 광배

운흥사지 운막암 석탑

한계사지 남3층 석탑

한계사지 북3층 석탑

갑둔리 3층 석탑

갑둔리 5층 석탑

합강 미륵불

원대리 석탑

봉정암 5층 석탑

소재지 인제군 북면 용대리 76

지정일 1971년 12월 16일

지정번호 도 유형문화재 31호

산자수려한 내설악 북면 용대 2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악산의 대소 암자 중 제일 먼저 창건한 백담사 귀속 암자인 봉정암 서측 석대상에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자장율사가 입당하여 세존사리를 얻어 와서 5층 석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했다고 한다.

이곳은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산을 찾는 등산객이 줄을 잇다시피 하고 있으며, 특히 이 5층 석탑 주위를 빙빙 돌면서 두 손을 합장하고 마음을 경건하게 가지며 안녕과 소원 성취의 소망을 빌면 뜻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한 이 넓은 석대 위에 세워진 것과 균형미가 일품이다.

상동리 3층 석탑 및 광배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산 1번지

지정일 1975년 2월

지정번호 도 문화재 자료 34호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기룡산 기슭의 수리골 계곡을 따라 북방 2km 지점인 백연정사 주위에 있으며 원래는 인제군 남면 신남리에 있는 암자에 있던 것을 소양댐 건설로 수몰될 것을 우려하여 이곳으로 옮겨왔다.

제작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작품으로 보이며 모형은 2층 기단 위에 세워진 방형 3층 석탑인데 2층까지만 있고 그 뒤에 구형으로 깎은 화강암을 올려 놓았다.

1층 옥신의 높이와 2층 옥신의 높이가 비슷한 것이 특정이며 폭은 위로 약간 줄어 들었으며 옥대의 받침은 얇고 낙수면은 두껍다.

운흥사지 운막암 석탑

소재지 인제군 북면 한계 3리

건립 790년경 추정

이 탑은 인제군 북면 한계 3리에 있으며 원형은 찾아볼 수가 없고 탑신 일부만 산재되어 있다. 690년 신문왕 10년에 한계사가 소실되고 719년 성덕왕 18년에 다시 중창하고, 785년 원성왕 1년에 다시 전소되어 790년 원성왕 6년에 현지에 이전 건립하고 "운흥사"로 개칭한 기록으로 보아 제작 연대를 790년으로 추정한다.

한계사지 남3층 석탑

소재지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 1번지
건립 통일신라시대 초기 추정(8세기말~9세기초)
지정일 1998년 4월 6일
지정번호 국가 지정 문화재 1275호

인제군 북면 원통에서 동해안의 양양으로 통하는 44번 국도를 따라 한계령 방향으로 가다보면 옥녀탕 휴게소를 지나 장수대에서 동쪽으로 약 500m 언덕 위 한계사지 내에 있다.

백담사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에 의하면 한계사가 창건된 연대는 신라 진덕왕 원년(서기 647)으로 고승인 자장율사가 3년 전에 봉정암과 관음암을 짓고 다시 한계사를 창건하여 아미타삼존불을 봉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현재 남아있는 2기의 3층 석탑과 각종 석조물 등의 제작 형식과 수법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말~9세기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84년 8월 31일 인제군에서는 강원대학교(발굴 책임위원 최복규 교수)에 발굴 용역을 체결하여 조사를 착수하였는데 이때 지대석을 제외한 탑재는 모두 현재 동부산장 서쪽 뜰에 옮겨져 복원되어 있었다.

다시 한계사지 조사팀은 1년에 걸쳐 1995년도 9월에 복원을 마쳤는데 이때 현 위치로 옮겨 복원을 하여 놓았다.

조사팀이 지대석 밑의 고인돌을 조사하려고 주위를 발굴하였을 때 1945년 이전에 일본의 아사히 양조주식회사가 만들었던 맥주병 (“ASAH”하고 병밑에 새겨져 있음)과 함께 사리함 조각에 출토된 점으로 보아 일본인들이 사리함을 꺼내기 위해 도괴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크기는 다음과 같다.

3층 옥개 높이: 32cm 너비: 88.5cm 옥신높이: 15.8cm 너비: 52.5cm

2층 옥개 높이: 32cm 너비: 92cm 옥신높이: 21cm 너비: 55cm

1층 옥개 높이: 34.5cm 너비: 107.5cm 옥신높이: 57cm 너비: 64cm

상대갑 높이: 18cm 너비: 139cm

하대갑 높이: 17cm 너비: 187.7cm

지대석 높이: 10cm 너비: 228cm

한계사지 북3층 석탑

소재지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 1번지
건립 통일신라시대 초기 추정(8세기 말~9세기 초)
지정일 1998년 4월 6일
지정번호 국가 지정 문화재 1276호

인제군 북면 원통에서 한계령으로 가는 44번 국도를 따라 약 14km를 오르다 보면 안산 밑에 장수대가 있는데 장수대에서 북쪽으로 약 500m 지점에 한계사지가 있다. 이 한계사지 서북쪽 언덕 위로 45km 되는 곳에 있는 탑으로 금당지 앞의 탑(남측탑)과 양식이 비슷하여 통일신라시대 초기 8세기 말~9세기 초에 같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985년 9월 강원대학교 발굴 복원 조사팀에 의하여 이 탑도 현재 모양으로 복원되게 되었다. 이 탑도 복원 전에는 동부산장 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다시 제자리에 복원하게 되었으며 일본인들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도굴관계로 일부가 심히 마모되어 있다. 크기는 남측 3층 석탑과 비슷하며 화강암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남측 석탑과 북측 석탑 등의 유물은 통일신라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제작 수법과 형식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당시 불교 예술의 한 단면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갑둔리 3층 석탑

소재지 인제군 남면 갑둔리 598번지

건립 연대미상(고려시대 추정)

인제군 남면 갑둔리 598번지에 위치하는 3층 석탑으로 건립 연대는 고려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이 탑의 높이는 2층 옥개와 3층 탑신을 제외하고 2.18m로써 소실된 부분을 복원하더라도 약 2.5m 규모를 넘지 못한다.

이러한 규모는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3층 석탑에 비하여 작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기단부에서 하층 기단의 간략화, 양식화와 상류 기단 중석의 높이에 비한 폭의 외소함 등은 전형적인 석탑 양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탑의 건립은 인근의 갑둔지 5층 석탑과 함께 이 지방의 당시 석탑 건조 양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의 탑신에 있어서 1층에 비해 2, 3층의 높이가 급격히 줄어든 점이나

옥개석의 두꺼운 우동과 반전 등은 탑의 건립 시기를 고려 말기까지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 탑의 탑신부는 현재 1층 탑신만 별석으로 있고 1층 옥개석과 2층 탑신이 단일 석재로 되어 있으며, 3층 옥개석과 그 상부에 노반, 복발이 단일 석재로 구성되어 있다. 2층 탑신은 1층 탑신의 1/5 정도로써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1, 2층 탑신은 각각 양측에 우주를 새기고 있다.

1층 탑신의 이끼 분포로 보아 상하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해제시보다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옥개석은 둔중하며 전각의 반전이 심한 편으로 각각 3층의 갈형 옥개받침을 갖고 있으며 상부에는 1층의 탑신 고임을 두고 있다 상륜부에는 노반과 복발만이 남아 있으며 가운데 찰주공이 있다. 소실된 부분의 복원은 남아있는 1층 탑신과 옥개석, 2층 탑신과 3층 탑신의 체감 비율로 미루어 2층 옥개석과 3층 탑신을 추측할 수 있다.

1층 옥개석과 2층 탑신의 1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실된 3층 탑신 또한 2층 옥개와 1석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갑둔리 5층 석탑

소재지 인제군 남면 갑둔리 산 69번지

건립 1993년 6월 3일

지정번호 강원도 문화재 자료 117호

이 석탑은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 117호로 인제군 남면 갑둔리에서 김부리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남쪽으로 약 500m 정도 떨어진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2중 기단 위에 세운 5층 석탑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의 파손 상태가 매우 심하다. 원래 무너져 있던 것을 1987년에 지역 주민과 갑둔리 향토사 연구원 이태두씨(당시 갑둔초등학교 교사)에 의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현재 이 탑의 높이는 지대석을 제외하고 3.32m이며 하측 기단의 면석에는 2개씩의 안상을 장식했으며, 상층 기단의 면석에는 양쪽에 모서리 기둥을 두었다. 탑신부 1, 2, 3층의 몸돌(목身石)과 5층 지붕돌은 새로 만들어 보충하였

는데 정확한 고증을 거치지 못해 조잡하고 뾰족하여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원래의 모습은 3층 지붕돌과 4층 몸돌을 한 돌로 붙여서 만든 점으로 볼 때, 1층 몸돌만을 따로 만들고 지붕돌과 그 위의 몸돌을 붙여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상륜부는 앙화와 보륜이 남아 있으며 탑 앞에는 연꽃 무늬가 장식된 배례석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 탑은 우리나라 석탑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탑이다. 상층기단의 동쪽 면석에는 발원문과 『太平十六年丙子』는 연대가 새겨져 있어 이 탑이 고려 정종 2년(1036)에 건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탑은 발원문의 내용 중에 『금부수명장존(金富壽命長存)』라는 구절 때문에 그 동안 『김부탑(金富塔)』으로 불리면서 마의태자를 추존하는 세력들이 세운 탑으로 알려져 있다. 『금부』가 『김부』로 읽히면서 마을 이름(김부리)과 경순왕 전설을 탑과 관련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원문의 내용은 다른 발원문과 마찬가지로 부귀와 장수를 비는 뜻이며 마의태자와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본다.

이 탑의 재료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다.

합강 미륵불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군청 내)

건립 1680년경

이 미륵은 인제읍 합강리 합강정 밑의 산 언덕에 세워져 있던 것을 44번 국도 확장 개설로 합강정 야산이 깎여 도로가 새로 생기고 합강공원이 정리됨에 따라 인제 군청 내로 이전하여 세워 놓았다.

구전에 의하면 약 350여 년 전 방명천이라는 목상이 목재를 뗏목으로 묶어 합강으로 운반하여 왔는데 어느날 밤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 “내가 이 강물 속에 묻혀 갑갑하기 짝이 없으니 나를 건져 달라.”고 해서 친구 되는 김성천에게 부탁을 하여 물 속에 들어가 보니 수 척이 되는 석주가 광채를 띠고 있었다. 이를 건져내서 미륵불을 만들어 조그마한 누각을 세우고 모신 후 일이 뜻대로 되어 거부가 되었다고 한다.

예전 합강정 밑에 있을 때에 누가 관심을 두지 않아 잘 보존되지 못하였으며, 아이를 못 낳는 주부들이 이 미륵코를 떼어 먹으면 아이를 낳는다고 하여 한때는 미륵불 코가 군데군데 떼어져 나가기도 하였다.

원대리 석탑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절골)

건립 연대미상

관리기관 인제군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절골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절골 입구 도로에 서 약 2km 이상 계곡으로 올라가야만 탑이 있다. 이 탑은 기단이 2개 탑신이 4개로 총 높이가 약 1m 50cm미만으로 탑치고는 아주 작은 탑 이다. 두 번째 기단에는 조그만 불상이 그려져 있어 그 옛날 이곳에 절이 있었을 적에 있었던 탑으로 추측이 된다.

또한 탑신 하나는 귀퉁이가 마모 되어 있고 맨 위의 탑신 꼭대기에 얹혀있는 부분이 없어졌으며 오랜 세월에 바위 이끼가 많이 끼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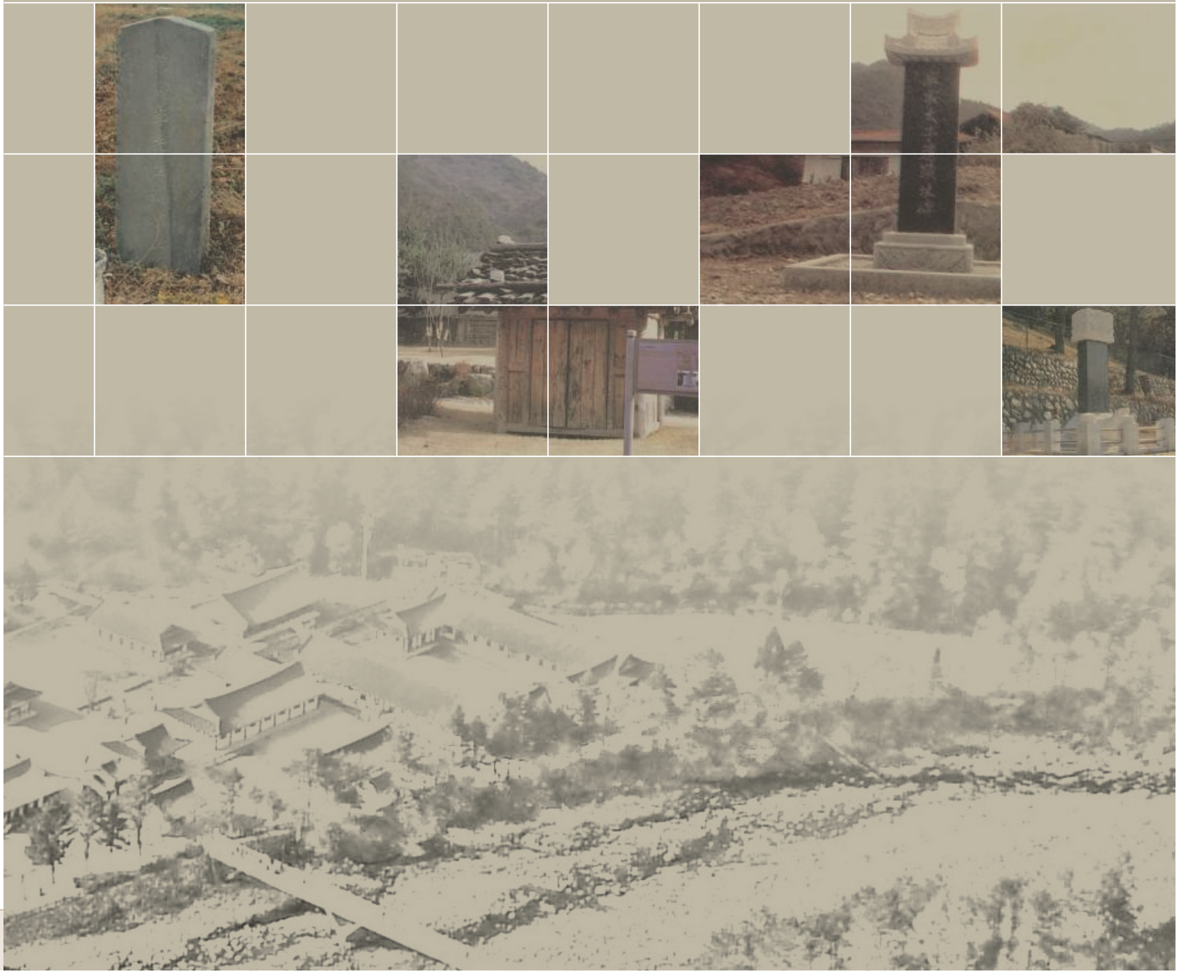
탑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각으로 철파이프 방책 울타리가 둘러져 있고 탑 옆에는 아주 오래된 옛날 절이 있었던 때에 기왓장 조각이 여러 개가 놓여져

있었다.

또한 주위의 절터로는 그리 넓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옛날 조그만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2006년 7월 인제지방의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수해복구가 절터 위에까지 진행되고 있어 차량이 많이 넘나들고 있다. 그러므로 탑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5

비각(碑閣)



도암 이재 선생 유허비

마의태자 유적지비

김부 대왕당

려조평장사 박원굉 묘비

절충장군 심준학 지묘

고려대광문화평정사 춘천 박공 원굉 선생 신도비

도암 이재 선생 유허비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상동 3리(군청 내)

건립 연대미상

도암 이재 선생 유허비는 높이 143cm , 너비 57.5cm, 두께 21.5cm의 화강암으로 전면에 "陶庵李先生遺墟碑"라 음각되어 있으며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제자들과 인제 현민들이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6.25사변 전에는 합강 2리 기룡산 밑에 1천84평의 밭 위에 비각과 함께 세워져 있었으나 6.25사변 때 비각은 타버리고 비석만 남게 되었다 한다.

도암 이재 선생은 숙종, 경종, 영조 때의 학자로 서화에도 능했으며 진사 이만장의 아들로서 1702년 알선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참판? 한성부윤 우윤에 이르러 균전사(均田使)로 영남에 내려가 시급한 토지 정책을 진술했다가 벼슬을 박탈당했다. 1720년 경종이 즉위하면서 예조참판, 도승지대, 사헌 이조참판을 거쳐 홍문, 예문, 대제학, 한성판윤의 정

부 좌우참판 등을 역임했다. 노론이 집권한 후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으나 사양했다고 한다. 1721년 신임사화(辛壬士禍)때 노론파의 거두인 숙부 이면성이 처형되자 난을 피해 인제 고을에 와서 수년 동안성리학자로 전념하였다 한다.

마의태자 유적지비

소재지 인제군 남면 신풍리

건립 1987년 10월 31일

마의태자 후손 부안 김씨 대종회에서 1987년도에 건립한 유적지비로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길을 바꿔 동쪽으로 약 40리쯤 가면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 마의태자 신전대왕각에 이른다. 성이 김, 휘가 일, 자가 겸용인 태자는 신라 56대 경순왕과 죽방왕후 박씨 사이에서 왕의 9남 3녀 중 첫째 왕자로서 917년에 태어났다.

927년 공의 아버지 김부가 신라 56대 왕이 되자, 공도 태자로 책봉되고 이어서 시중 김유렴의 딸 김영란을 태자비로 맞았다.

경순대왕 9년에 이르러 후백제와 고려의 세력에 눌려 국력이 쇠약해지자

왕은 나라를 고려에 양국하려 하였다. 이때 태자가 나서서 천년사직을 하루 아침에 남에게 줄 수 있느냐고 반대했으나 왕의 뜻대로 나라는 왕건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태자는 어머니 죽방왕후를 모시고 자신을 따르는 충신 열사들과 처자를 거느리고 개골산에 들어가 망군대와 한계산성을 쌓고 조국 신라의 광복 투쟁에 전념하였다.

신라 유민들에 의해 대왕으로 추대된 태자는 나라가 망한 것을 자책하고 조국 광복의 결의를 굳게 하기 위하여 삼베옷을 많이 입었으므로 마의태자 또는 마의대왕이라 하였다.

항려 유적지 한계산성, 갑둔의 5층 석탑, 김부리의 옥새바위, 대왕각, 대왕정, 술구미재, 다물 장병총 등이 지금까지 남아 공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태자가 승하하시자 유민들은 신전대왕각을 세워 위패를 모시고 해마다 음력 5월 5일과 9월 9일에 제사를 지냈는데 천년이나 계속 됐다. 공은 태자비 김비와 사이에 네 아들을 두었다. 맏아들은 기로(箕輅), 둘째는 교(較), 셋째와 넷째는 출가하여 보림대사와 보현대사라 하였다.

태자가 승하하자 큰아들 기로공은 정원대사의 법명으로 부안 벽산 울금 바위에 찾아가 신라를 부흥 시켜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려 부령 땅에 뿌리를 내리니 그 자손들은 마의태자를 시조로 모시고 부령 김씨를 창씨하여 대성으로 번창했다. 곧 춘은 부령부원군 고려 평장사가 되었다.

둘째아들 교는 통천 김씨 시조, 작신은 부여 김씨 시조가 되었다. 공의 자주독립 정신은 후예들에게 이어져 이들이 고구려의 옛 땅 만주대륙을 되찾는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다.

부령후예 종원 삼가 씀

측면에는 扶安金氏始祖麻衣太子金鎰後 김양호 立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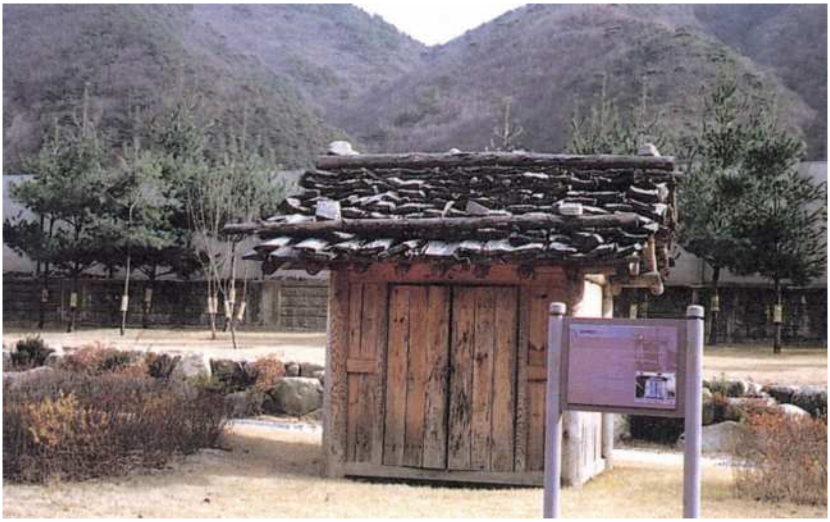
건립추진 : 扶安 金氏 大宗會

단기 4320년 10월 31일 건립

김부 대왕당 金富 大王堂

소재지 인제군 인제군 인제읍 상도 4리

건립 연대미상



상남면 김부 1리에 있는 대왕당을 이전의 형태로 복원한 것이다.

상남면 일대에 널리 전승되는 인물 신앙의 한 형태이다. 제사일은 매년 5월 5일과 9월 9일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지냈다. 젯물은 그 해의 형편을 보아 제비가 넉넉할 때에는 소나 돼지를 잡기도 하였다. 술, 포, 과일 등을 마련하고 단오에는 취떡과 미나리 적, 중양절에는 시루떡이나 절편을 준비했다. 단오 취떡은 김부대왕이 생전에 즐겨 드시던 것이기 때문에 대왕님께 올리는 것이라 한다. 대왕당 제사의 절차는 마을의 나이 지긋한 초헌관이 초를 켜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잔을 올리는 형식이다. 초헌관이 잔을 올리고 마을 사람이 편안하고 농사 잘 짓도록 지켜주십사하는 축원을 올리

고 나면 참석한 사람들이 절을 한다. 대왕당 제사에는 소지를 올리지 않는데 김부대왕은 어디까지나 마을의 어른이지 신령님이 아니기 때문에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대왕당에 위치한 김부리는 군사훈련장으로 편입되면서 마을이 해체되어 마을 차원에서 전승되던 대왕당 제사의 맥은 끊어지게 되었다. 대왕당의 역사상이나 가치로 볼 때 이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므로 박물관 개관과 더불어 오랜 전통의 맥을 잇고자 하는 염원에서 형태로 이전 복원하였다.

(청태 2년 을미(935) 10월에 신라의 국력은 약해지고 행세가 위태로워져 스스로 나라를 보존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무렵 경순왕은 신하들과 함께 국토를 들어 고려 태조에게 항복함을 의논하니 여러 신하들은 옳으니 그르니 패가 갈려 의논이 시끄럽게 끝나지 않았다.

이때 왕태자(일익=마의태자)는 말했다.

"나라가 보존되고 명망 됨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는 것 입니다. 마땅히 충신과 의사들로 더불어 민심을 수습해서 힘이 다한 후에야 그만 둘 일이지, 어찌 천년이나 전승해 온 나라를 남에게 쉽사리 내어 줄 수 있겠습니까?" 왕은(경순왕) 말했다.

"나라가 외롭고 위태함이 이와 같으니 형세가 보존될 수 없다. 이왕 강해질 수도 없고 또한 약해질 수도 없으니 죄 없는 백성들은 참혹하게 죽임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시랑 김봉휴를 시켜 국서를 보내어 태조에게 항복하기로 청했다." 이에 왕태자는 일천년 신라 사직을 그대로 내놓을 수 없다하며 비빈(妃嬪)과 수 십명의 수족 병을 거느리고 김부리에 와서 머물렀다고 한다.)

려조평장사 박원굉 묘비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기린면 현리(진산태봉)

건립 승정기원후 200년 추정

본래 공의 묘소는 현재 묘소로부터 서남방 약 천여 보 지점 하마로(현 3군단 자리)였으나 소양강 댐 건설로 인하여 수침 지역(관대리)에 있던 제3군단 사령부가 이전 기지로 확정됨에 1972년 7월 24일 현 위치로 이장되었다.

공은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41대 손이며 고려 삼중대광 충성부원군의 공 춘천 박씨 시조 박항 선생의 장남이다. 고려 고종 33년(1246년) 춘성군 장본(현 발산리)에서 태생하였으며, 고려 원종 때 문과급제하여 중서문하성에 선보되었고 충열왕 5년(1279) 3월에 내사문하성의 평장사(정2품=장관급)가 되었다.

공은 선친의 충효 유덕으로 왕을 충성으로 모시다가 조정을 떠나고자 하

시니 왕아 당시 춘주군 속현인 인제 기린 지방의 만호를 임직케하여 기린에서 동해안 양양 지역에서 침입하는 왜적을 물리쳐 오다가 1310년에 서거하셨다. 승정 기원 후 200년이 지나서 후손들이 높이 210m 두께 20cm 가량의 200자 석각으로 비문을 새겨 세웠으나 장구한 세월 속에 지금은 글자가 마멸되어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절충장군 심준학 折衝將軍 沈闒俊 지묘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현 1리

건립 1990년 10월 4일

청송심씨 도총제공파 인제읍 덕산 공 후손(青松沈氏 都總制公派麟蹄邑德山公後孫)19세손 심준학(沈俊鶴)은 조선시대 무반관계(武班官階)의 정 3품인 당산관(堂上官)인 절충장군(折衝將軍)의 벼슬을 지냈으며 그의 묘지는 숙부인 변씨(淑夫人邊氏)와 합장으로 인제읍 덕산리 부대 연내안에 있다.

묘지(墓地)앞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글씨가 비바람에 마모 되어 잘 읽을 수 없으나 후면에는 장자 계천, 차자 계선, 삼자 사천의 이름이 새겨져있고 숭정기원후경신삼월일립(承幀紀元後庚申三月日立)에 건립으로 음각되어있다.

후손으로는 현재 인제군 서화면 서화2리 29세손인 심병관씨와 인제군 북면 원통6리 28세손인 심관묵(인제축협상무)씨가 있다.

고려대광문하평장사 춘천 박공 원굉 선생 신도비

高麗大匡門下平章事春天朴公元浤先生神道碑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현 1리

건립 1990년 10월 4일

명하노니, 이곳은 고려대광문하평장사춘천박공원굉선생의 묘역이로소이다. 공께서 서거하신 지 육백팔십여 성상이라 옛 비문은 오랜 세월의 흐름으로 활획이 마멸되어 근독하기 어렵게 되었다 하더이다. 이에 다시 새로 신도비를 세움에 평소 친애하는 공의 후손이 소생에게 비문을 선하라 정하시니 다시 없는 광영이라 사양치 못하고 응락하였으니 큰 걱정이 앞설 뿐이오이다. 본래 공의 묘소는 현재 묘소로부터 서남방 약 천여보지점 하마로민생원이었으나 소양강 댐 건설로 인하여 수침지역 내에 주둔하던 육군 제삼군단 사령부의 이전 묘지로 선정됨으로 서기 일구칠이년 칠월 이십사일(음 유월

십사일) 현재 확정로 예를 다하여 이장하였다 하더이다. 고려사 및 유한지와 춘천 박씨 보사연원의 기록을 살피노니 공의 위는 원굉이시며 후에 광열로 개명하셨다고 기록되었으며 고려 고종-삼십삼년(일이사육) 항 춘성군 장본(현 본산리)에서 탄생하시니 당시 충효가 특출하시었던 고려 삼중대광 춘성부원군 문공 춘천 박씨 시조 박항 선생의 장남이시다. 공은 신라 시조왕 박혁거세 경명왕(한중영)의 칠남 강남대군(한언지)의 십이세손이시니 혁거세왕의 사십일세손이시다. 공은 고려 원종때 문과 급제하시어 중서문하성에 선보되시었더이다. 당시 고려는 몽고의 삼십 여년에 걸친 침탈에 시달렸고 마침내 몽고는 일이칠일년 국호를 원이라고 치더니 일본을 정벌하기 위하여 고려로 하여금 많은 병력과 군기 차량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였더이다. 원의 일본 정벌은 해로 원정으로 일이칠오년 일차 정벌에 실패한 후 이차 정벌을 계획하고 고려에 강요하는 물자와 병력의 확보를 보장 받기 위하여 고려의 대가 자제를 달로화적 하여금 인질로 원나라에 입조케 하였는데 충열왕 오년(일이칠구) 삼월 정사일에 공께서는 김방경 장군 등 이십오인 중 한사람으로 원에 입조하시었더이다. 이에 충열왕은 이들에게 삼등 벼슬(정이품직)을 초수하였더이다. 일이할일년 오월에 원의 이차 정벌도 실패로 돌아가는 난세였으나 공께서는 부친은 도와 애국정도와 논리도덕으로 이를 극복하시는데 생명불사로 헌신하였나이다. 공은 충열왕 이구년 오기라는 사람이 아첨으로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왕의 부자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충성있고 선량한 자를 제정함으로 오기의 건증가 모두 부정한 계책들임을 왕께 고하여 이를 시정케 하였나이다. 공께서는 선친의 충효도덕으로 왕을 충성으로 모시다가 조정을 떠나고자 하시니 문무를 겸비하신지라 왕이 당시 춘천부 속현인 인제 기린 지방에 만호로 임직케 하셨으니 동해안 양양지방으로부터 침입하는 왜관을 물리쳐 오시다가 충선왕 이년에 서거하시었더이다. 공은 문무를 겸비한 능관이시니 당세에는 나라에 충신이시며 서거 후에는 이 지방의 수호신으로 후세 사람들이 받들어 예경하니 묘소앞을 지나는 도로가 「하마로」로 명명되었다 하오이다. 배위는 나주 정씨이시며 벽상삼한 삼중대광문청공

정하신의 따님이시다. 자손으로는 아드님 안구께서 예문관판원사(대제학)을 지내셨고 손거실께서는 사복사정을 지내셨으며 증손 의공께서는 상서병부판사를 지내시는 등 후세에도 삼대에 걸쳐 급제하고 입신양명 이현부모함이 끊이지 아니하였더이다. 공께서는 예조판사를 지내신 아우원비를 두셨으며(묘 춘성군 북산면 청평리) 외척으로는 고려판사를 지내시고 안노 김씨 시조이신 김지구, 경주인학부원군 문충공일제현과 그의 여식 서민왕혜비, 개성인락랑부윤군왕. 문화인문와군유진과 그의 아드님 영의정 유연현 등을 비롯한 많은 인재들이 공의 자손들이시니 이는 필시 공의 훈덕을 이어 받았음이리라. 공의 시대는 먼 옛날이 되었으나 산천이 웅려하고 신령스러운 서기가 있으니 공의 은택이 후손에게 충만하게 내리실 것이며 자손의 창성함과 그 영광이 헤아릴 수 없으리라. 비문이 있고 없는 것이 공의 유덕과 유훈에 관계하리오마는 이는 금석에 새기어 지워지지 않을 진대 산히 소생이 부족한 글을 쓰게 됨을 송구하게 여기고 해가 될까 염려되오이다. 자손만대 보전되어 오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봉축하기를 기원할 따름이오이다.

신라 기원 이 사년 경오 유월 십구일
국립 강원대학교 총장
경제학박사 이춘근 근저
평장사공 삼 세 묘손 광인 근저

단기 사삼이삼년(서기일구구) 칠월 오일
춘천 박씨 종중(월교파) 근립

6

대(臺)·정(亭)·루(樓)·단(檀)

장수대
합강정
경로정
설악루
영소루
강원도 중앙단

장수대 將帥臺

소재지 인제군 북면 한계 3리

건립 1959년 10월 1일

설악전투의 대승을 기념하고 인근의 대승폭포, 옥녀탕, 가마탕, 한계산성, 하늘벽을 찾아드는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세워진 한식 건물은 규모로 보나 건물의 우아함으로 보아 근래에 보기 드문 훌륭한 산장(48평)이다. 더욱이 기암괴석과 낙락장송이 우거진 속에 위치하고 있다. 제 3금강이라 부를 정도로 아름다운 설악산을 배경으로 자리잡은 이 산장은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사찰을 통하여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장수대란 이곳에서 6.25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그 옛날을 회상하며 전몰장병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뜻에서 명명한 것이며 제3군단장인 오덕준 장군의 후의로 설악산의 개발을 위하여 건립되었다.

장수대

오덕준

금강산이 좋다하되 장수대에 비할소냐
구슬바위 푸른나무 구름높이 둘러쌓여
백척폭포 떨어지니 자양강물 소리친다

▲북면 한계 3리 장수대의 자양천 교량 건너편 산형의 자연석(1.8×1.4m)에 1958년 10월 제3군단장 소장 오덕준 장군이 음영하고 석각한 것이다.

합강정 合江亭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합강 2리

건립 1998년 9월 25일

합강정 정자는 이 고장에서 유서 깊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소양강 상류인 내린천 물이 기린 방면에서 흘러내리고 서화천 물과 한계천 물이 원통에서 합류하여(인북천) 다시 내린천과 합류된 데 연유하여 명명된 경차로써 이조 중엽부터 합강정이라 불러오고 있다. 숙종 2년 병진 (1676)에 현감 이세억 재임 시(1675~1677)에 현 위치 아래에 합강정이라 세워졌었다.

합강정은 수리적인 위치로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하여 이조 시대에는 제례가 있을 때마다 강원도 26관의 관원(지금의 지사, 군수)이 모두 이곳 합강정에 모여 큰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지고 있다. 수차에 걸쳐 화재를 당했고 6.25 당시 유실된 것을 1971년 10월 제23대 군수인 주우영 군수때 재증수하

고 환경을 정화시켜 내려오다가 1997년 도로확충 공사로 헐렸다가 1998년 9월 25일 이승호 군수가 재건축하여 준공을 보았다. 합강정에서는 매년 군민의 날인 9월 9일 합강문화제를 기하여 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제례를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경로정 敬老亭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남북 2리

건립 1958년 5월 18일

1958년 5월 18일에 준공된 경로정은 제3군단장인 오덕준 장군이 군내 노인 회원들의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하여 약 8평의 규모로 건립하였다. 군축령을 오르다 좌측으로 약 50m 들어가는 낮은 산줄기 등산에 터를 잡아 건립된 경로정은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인제읍 시가지를 넓게 볼 수 있으며, 절벽 밑으로는 소양강 상류 물줄기가 굽이 돌아 흐르고 있어 한층 경관을 이룬다. 여름이면 관내 노인을 비롯한 젊은 사람들도 이곳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인제를 찾는 사람들도 또한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떠난다. 건물이 오래된 관계로 1985년 인제군에서 중수하여 시멘트 바닥인 것을 목재바닥으로 만들었고 난간을 세워 놓았다.

설악루

소재지 인제군 북면 한계 3리(한계령 정상)

건립 1971년 12월 27일

960m의 한계령 정상(옛날에는 소동령이라고 불렀음)에 있으며 원래는 108개 계단으로 오르게 되었던 것이 한계령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계단은 없어지고 한계령 휴게소 뒷편으로 오르게 되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로 「雪岳樓」 현판이 걸려 있는 이 곳은 남설악쪽으로 오색약수, 오봉사, 만경대, 선녀탕, 만불동, 옥녀폭포 등이 있고 내설악으로는 십이선녀탕, 한계고성, 옥녀탕, 하늘벽, 구곡담, 오세암, 축성암, 봉정암, 장수대, 영시암, 백담사 등 명승지가 있어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으며 여름철에 이곳을 오르면 더위를 잊고 시원한 바람이 정신을 맑게 해준다. 한계령은 1966년에 착공 6년만인 1971년 12월에 국방부가 맡아 완공하였으며, 이 공사로 7인의 장병이 순직하여 960m의 정상에 위령탑을 건립하여 놓았다.

영소루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상동 1리

건립 1967년

인제군 인제읍 상동 1리 향교 대문을 아래로 하고 2층 목조로 된 8평 정도의 건물이다.

사방으로 경관이 좋은데 높게 지어 교화교육 사업과 풍류객들이 즐겨 찾는 지혜로운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영소는 이조 초엽에 이 고장을 영소현으로 부른데 연유한 것이며 이 건물은 1967년 인제 제30대 엄대현 군수의 재임 중에 건축하였다. 교육사업의 장으로 인제문화원에서는 1985년도 학생들에게 한문공부와 서예지도를 이곳에서 실시하였고, 그 후 향교에서도 학생들에게 한문과 서예교육을 추진하여 왔다.

강원도 중앙단 江原道 中央檀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산 221-13

건립 조선초기 19세기 말

중앙단은 조선 시대 각 도의 중앙에서 전염병이나 가뭄을 막아내고자 억울하게 죽거나 제사를 받지 못하는 신을 모시고 별여제(別礪祭)를 지냈던 제단이다. 조선 시대 여제는 국가에서 자연신에게 지내는 제사 중 소사에 해당하는 제사로 정종 2년(1400)에 지방에 주현까지 행해졌다.

임금이 봉행하는 여제단은 궁성 밖 불교, 동교 · 서교에 설치되었고 주현의 고을에서는 주로 관아 북쪽의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구릉지에 제단이 만들어졌다. 제사는 매년 청명, 7월 15일, 10월 1일, 3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냈고 역병이나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는 시기와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별여제를 시행 하였다.

여제가 국가와 지방에서 정례적으로 행해진 것은 농경중심의 사회였던 조선 시대에 가뭄이나 전염병 등 재난의 원인이 제사를 받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죽어 원한 맺힌 신들 때문이라 생각하여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 위로함으로써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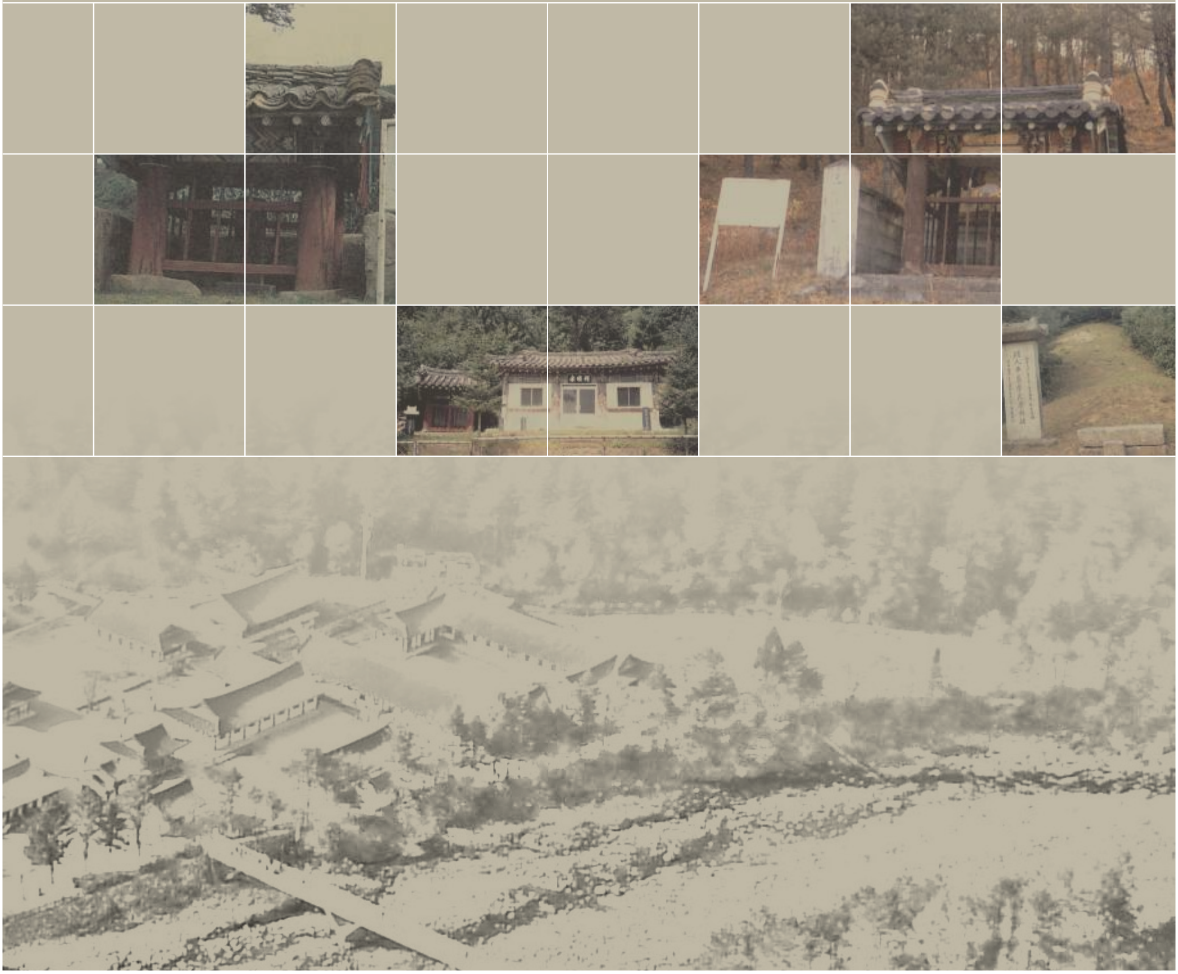
국가적인 차원의 제사인 경우 임금이 직접 재물을 짓고 친히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으며 지방 군현의 경우는 대부분 수령의 주관 하에 지내도록 하였다. 증보 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영조 18년(1742)에 왕명에 의해 별여제가 각 도의 중앙인 강원도의 인제, 경상도의 상주, 충청도의 공주, 전라도의 광주 등에서 시행 되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인제읍지(1743) 단조조에 기록된『합강정 뒤쪽에 있는 중앙단』은 영조 18년(1742)에 각 도의 중앙에서 행해진 별여제 제단의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원도지(1941)와 관동읍지의 기록에 의하면 중앙단은 강원도의 중앙인 합강정 뒤쪽에 설치되어 1843년 전후까지 동서의 수령들이 모여 강원도의 별여제를 지냈던 것으로 보이나 1901년경에는 소실되어 터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1년 7월 24일에 복원 된 현재의 중앙단은 가로, 세로 6.51m의 정방형 사각평면 형태의 화강석으로 만들어 졌으며 국조의례와 18세기 건축표준 척도인 영조척(營造尺)을 적용하여 문화재 수리, 복원 준칙에 의하여 복원 되었다.

7

정려각



열녀 전주 김씨 정려각

열녀 삼척 김씨 정려각

효행 이영순 정려각

효열부 순천 김씨 정려각

효열부 강릉 김씨 정려각

열녀 김해 김씨 정려각

열녀 전주 이씨 정려각

열녀 평창 이씨 효열비와 분묘

열녀 전주 김씨 정려각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귀둔 1리

건립 1931년

인제읍 귀둔 1라 마을 앞 삼거리 동남쪽에 소재하고 있으며 1931년에 건립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실되었던 것을 전주 김씨의 유복자 사촌인 김상수(1914~)등의 4형제 협력으로 1959년에 재건한 정려각이다. 김해인 김용권의 처 전주 김씨 열녀는 남편이 중환으로 고통받자 조석으로 정성껏 봉양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약효의 효험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녀는 유복자를 낳게 되었으며, 그 후 유복자와 같이 살면서 개가하지 않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세상을 떠난 남편을 불쌍히 여기며 백발이 되도록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자 이에 감탄한 조선 총독부로부터 열녀 표창을 받았다. 석비에는 "烈女 金用權 妻 全州 金氏 之碑, 明洙, 1965年 3月 日立"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열녀 삼척 김씨 정려각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건립 1638년

이조 시대 병조참판을 지낸 조옥립의 처 삼척 김씨 정려각으로 원대리 안삽재에 있다. 이조 인조 14년(1636)에 남편인 조옥립 장군이 경기도 양주군 풍양현에 살고 있을 때 청국이 침입하여 관군을 통솔하고 싸우다 대세가 불리하여 인제읍 원대리에 은신하여 살게 되었다. 그러나 적들이 은신처를 알아내어 찾아와 삼척 김씨 양손에 쇠로 구멍을 뚫는 등 갖은 고문을 했으나 끝내 굴하지 않자 적들은 김씨를 장작더미 위에 눕히고 불을 질렀다 한다. 그 순간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며 뇌성이 천지를 진동하여 적들은 천벌을 받아 멸망하고 김씨는 불속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그러나 10여 일 후 시달린 상처로 사망하였다 하는데 조정에서는 이 충성심에 감탄하여 열녀라 하사하고 열녀문을 건립하였다 한다. 비각에는"幼學 趙玉立妻烈女三陟金氏之門"이라고 쓴 현판이 있다.

효행 이영순 정려각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현 5리

건립 1850년

인제군 기린면 현 5리 조룡고개 좌측 아늑한 곳에 정려각이 있다.

평창인 이영순은 이조 시대 순조 29년(1829) 4월에 가희대부, 사조 참판겸 지의금부사를 역임하였으며, 항상 정의와 도리에 따라 매사를 처리하고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행이 남달리 지극하여 당시 조정에서 정각을 내렸다고 한다.

효열부 순천 김씨 정려각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북 3리

건립 1932년 10월

기린면 북 3리 하답 국도변에서 동북쪽 500m 지점인 흙고개에 소재하고 있다.

昭和 7년 任甲(1932) 10월에 건립한 이두영의 처인 효열 순천 김씨의 비각으로 전후면에는 “李頭榮妻 孝烈夫人 順天金氏碑 昭和七年壬甲七月日”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효열부 순천 김씨 비각문은 통천대부 군부주사를 역임한 평산인 심현대가 쓴 400자 가량의 현판이 걸려 있어 당시 효열부로서의 내용을 소상히 전해주고 있다. 증손인 이용우 (1928~)가 보호 관리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개수 보존되어야 하겠다.

효열부 강릉 김씨 정려각

소재지 인제군 상남면 미산 2리

건립 1908년

강릉 김씨(1845~1905)는 출가하여 친정 부모를 멀리하고 시부모를 섬긴 효부로서 남편인 김형인(1846.10.9~1866.8.24)이 세상을 떠나자 혼자서 백수가 되도록 수절을 지킨 효열부이다.

아들 철규의 친필인 “孝烈婦彌人 江陵金氏之閣 孔夫誕生2475年8月 子進士澈圭”라는 현판이 있고 비석 전후면에는 “夫金寧人今烱仁孝烈婦江陵金氏旌閭閣 子進士澈圭”라고 기록되어 있다.

열녀 김해 김씨 정려각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방동 1리

건립 1920년

정선 전씨의 가문에 16세 때 출가해 온 김씨(1844~1918)는 21세가 되자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지만 남편은 불치병으로 자리에 드러눕자 여성으로 감히 엄두도 못내는 일로 단지주혈 하는 등 지성껏 간호하였으나 약효의 효험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상례를 법도에 맞게 하고 3년간 시묘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수가 되도록 온갖 신산 고초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정절을 지키다가 74세를 일기로 작고하니 이 효행이 특이하여 1915년 조선 총독부에서 정각을 명하여 성균관 명륜장을 받았다.

김씨는 남편의 기일 때마다 지렁이 기름을 모아 불을 켰으며 중년에 이으러 득몽에 남편이 나타나 환담을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전씨 가문에서 정려각을 건립하였으나 1951년 6.25 당시 벼락으로 인하여 소실되어 그 자취를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직계인 손녀가 방동 2리에 현존하고있다.

열녀 전주 이씨 정려각

소재지 인제군 상남면 상남 3리

건립 1900년 10월 상순

이 비각은 고종 37년(1900) 10월 상순에 권직상 군수가 당시에 이옥녀의 정절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정려각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宗鍾彦이 글씨로 된 장려본기가 붙어 있으며 그 원문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민영통의 처 이씨 나이 열일곱에 그 지아비가 죽자 3년상을 치루고 첫 기일에 음식을 끊고 마침내 남편의 뒤를 따라 죽으니 조정에서 그 정절을 가상하여 열녀 정려각을 그 마을에 세우도록 하니 사인 김용규라는 선비가 내게 그 기문을 지어 달라는 부탁을 해와 구삼반제에 이 글을 지었으니 가로되 여자로써 그 남편에게 정열함은 마치 신하가 임금에 충성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함과 같아서 곧 그 본분을 다함이니 소위 열녀라 할 정도로 그 본분을 다하는 자가 어찌 쉽게 있으리오.

옛날에 위의 공처는 그 지아비가 죽으니 따라갔고, 또 달리 위의 하후령의 딸은 그 지아비가 죽으니 머리털을 잘라서 다시 개가하지 않겠다는 신표를 삼았으니 이러한 일이 시로 읊어서 전파되고 역사의 기록에 올라서 백대에 두드러진 드문 정절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한 죽음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바르게 일깨우고 거듭 밝히어 널리 본을 보임이니 이런 연유로 충신이나 효자에게 정각을 세우게 하듯이 열녀에게도 정려각을 세우도록 함이 모두 같은 이치이다. 사대부로서 예절을 지키기로 집안에서라면 이미 어릴 때부터 이런 행실에 관해 더러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해서 몸에 익히기도 할 것이니 놀라운 일로 일컬을

것이 아니라고도 하겠지만 이제 이 이씨로 말하면 시골에서 자라서 선비에게 시집가 서울로 떠나갔으니 아주 깊은 산골에 나이도 어렸으니 어찌 귀로 듣고 눈으로 본바 있어 이렇게 함이랴.

이는 곧 그 타고난 천성이 그 큰 근본을 잘 지켜 왔음이니 시부모를 성심껏 모시었고 공경하여 남편을 섬겨서 앞뒤 모든 처사가 그 근원에서 같이 만나니 이는 천성이 그러함이지 억지로 꾸며 하지 못하는 일이다.

죽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크게 꺼리는 바이니 이씨는 어찌 그것을 준별해 알지 못하였을 것이랴. 그 본심은 조정에서 표창되기를 바라서 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또한 그 고을이나 마을에서 칭송을 듣고자 한 죽음도 아니다.

다만 여자로써 배운 바가 정절을 지키는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만약 이 마음을 그대로 옮겨 임금을 섬기면 곧 충성이 되고 부모를 섬기면 효도가 되는 것이다.

이씨 부인의 죽음은 어찌 그 한낱 가엾은 일이라고 하랴. 이미 한번 죽은 뒤에 가히 그 깨끗한 부녀로서의 정절을 백대에 드러내 후세를 격려하는 본보기가 된 것이다.

조정에서 이씨 부인을 위해 정려각을 세우게 하였고 이미 정녀를 세워 그 정절을 현찬한 뒤에 가히 훌륭한 사회 기풍을 세워 오늘에 칭송함이 있게 되었으니 조평 세상의 무릇 모든 군자들은 이 정녀각을 보고 몸소 본 받도록 할 것이다.

庚子年(음력) 10월 上旬

송종언 씀

열녀 평창 이씨 효열비와 분묘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북 3리(궁동 뒷산)

건립 1943년 3월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1870년경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서 평창 이씨 효자 가문 후손으로 태어난 열녀 평창 이씨는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예의가 바르며 부모와 이웃 어른에게 지극히 효심과 친절을 다하며 엄격한 가정 교육으로 자라났다.

그 후 성장하여 부모 곁을 떠나 강원도 횡성 장씨 가문으로 출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때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세 전으로 추정되며, 어떠한 중매와 연고로 횡성 땅 장씨 가문으로 출가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시가 장씨 가문의 세족 내력을 보면 시부는 인동 장씨로 경주판관을 지낸 장순원씨이고, 시모는 성주 이씨이며 슬하에 4남매를 두었는데 장남이 익상

씨, 둘째 아들이 덕선씨, 셋째 아들이 기상씨, 넷째 아들이 창섭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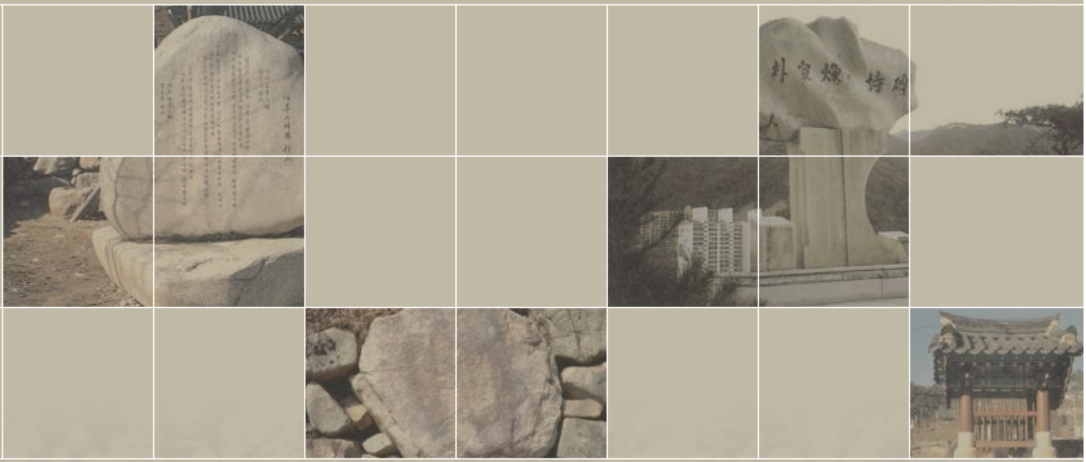
열녀 평창 이씨는 장씨 가운의 둘째 아들 덕선씨를 남편으로 맞아 시집을 가서 살게 되었다. 어느 날 시부와 남편이 나쁜 전염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여 나름대로 한방을 찾고 수소문하여 높고 낮은 산을 헤매며 좋다는 약초는 캐고 뜯어다가 탕을 재워 간호를 하였지만 효력없이 남편을 잃게 되었고 또한 시부를 잃게 되었다.

이때 자기 손가락을 잘라 운명 직전의 시부 입에다 피를 넣어 드려 3일을 더 회생하였다가 운명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효심이다. 이 사실은 포상 내용과 사위가 세워 놓은 효열비문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예법을 준수하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시부 3년상, 남편 3년상, 도합 6년상을 지냈다고 역시 포상내용에 나타나 있다. 포상은 1922년 임술 8월에 유림 계통인 「공부자 성적도 오륜행실 중종간 소(孔夫子 聖蹟圖 五輪行實 重鍾刊所)」에서 그의 지극한 효성을 뒤늦게 알고 포상을 전달하였으며, 1943년 계미 3월에는 사위 이승호씨가 묘소 앞에다 효열비를 세워 놓았다.

8

시비 · 불망비 · 선정비 · 기념비 · 표석



박인환 시비
만해 한용운 시비
덕산리 기근 수재민 구제 만세 심봉호 불망비
참봉 유재구 불망비
5인 부사 선덕 불망비
조위순 청덕 불망비
이일철 영세 불망비
이용선 영세 불망비
양교회 불망비
김경균 청덕 불망비
한진동 불망비
홍유순 애민 선정비
기린면장 방범주 선정비
이재화 선생 경로 송덕비
인제군 장학재단 설립 기념비
황덕신 기념비
황장금표
퀸 대령 가의 명비
군축령 표석
내린천댐 건설 반대 기념 조형물

박인환 시비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합강이(합강정 공원 내)

건립 1988년 10월 29일

박인환 시인은 인제가 낳은 시인이며 불운한 시대에 태어나 31세라는 젊은 나이로 요절했지만, 그가 남긴 수 십편의 시는 이 나라 모든 이의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고 한국 문학사에 큰 획을 그어 놓았다.

그의 대표작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짙은 애정을 갖게 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인제 군민은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활짝 꽃 피우지 못한 시혼을 달래고 영원히 그와 함께 하기 위하여 작은 정성을 모아 시비를 건립하는데 동참하게 되었다.

시비를 건립하기 위하여 당시 문화원장 이었던 김진용씨를 위원장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학생과 사회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의 동참 속에 모금을 하

고 군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 일천칠백오십팔만원의 예산으로 건립을 하였다. 시비는 자연석으로 박인환 시인의 “구름”이란 시의 이미지를 살린 구름 모양의 자연석으로 전면에 “박인환 시비”를 음각하고 후면에는 “세월이 가면” 시를 음각하였다. 처음에는 군축령 및 아미산 공원에 건립하였으나 도로 확장으로 현 위치인 98년도 가을 합강 공원에 이전 건립하였다.

만해 한용운 시비

소재지 인제군 북면 용대 3리(백담사)

건립 1991년 6월 29일

설악산 백담사는 만해 한용운이 입산 출가(1904)하여 득도(1905)한 유서 깊은 사찰로 만해가 불교 유신론을 탈고하고 산내 암자 오세암에서 진리를 깨쳐 "오도송"을 읊었으며 참사람의 소리로 "님의 침묵"을 집필한 곳이다. 한용운의 「깨침의 소리」는 역사 의식과 시대 정신의 철저한 증인이요, 민족이 나아갈 바 지표를 제시하고 몸소 실천에 옮긴 기미년의 쾌거였으며, 그 동안 우리들의 무관심으로 내설악 깊은 골짜기에 묻어 두고 있었던 역사의 산실에 초석을 놓아 길을 가는 모든 나그네들과 함께 그의 삶을 다시 생각하고 그의 정신을 이 시대에 구현하고자 만해를 좋아하는 사람들 "한국 불교 푸른 마을회"에서 정성을 모아 돌을 깎고 글자를 새겼다.

일면에는 만해의 친필 "오도송"을 새기고 다른면에는 "나룻배와 행인"을 음각하였다.

덕산리 기근 수재민 구제 만세 심봉호 불망비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건립 1707년 6월(康熙四六年月)년 3월

건립자 인제읍 덕산리 주민

청송심씨도총제공파(靑松沈氏都總制公派)19세손 심봉호(沈逢浩)는 1685년 생으로 인제읍 덕산리에서 살다가 1706년에 이 고장에 큰 수해가나며 이재민이 생겼는데 갖고 있는 재산으로 이재민 모두를 구제하여 주어 다음해인 1907년 6월 이 고장 주민들이 「德山里飢饉水災民總人萬世不忘碑」를 건립 하였다. 이 불망비는 덕산리 한양동에 건립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약 1km 위 쪽 정자각 옆에 세워져 있으며 후손으로 현재 인제군 서화면 서화 2리 29세손인 심병관(인제문화원 이사)씨와 인제군 북면 원통 6리 28세손인 심관묵(인제축협 상무)씨가 있다.

참봉 유재구 불망비

소재지 인제군 상남면 하남 1리

건립 1911년 3월

인제군 상남면 하남 1리 도로변에 있는 비각으로 문화인 31대손인 재구(初寒 龜烈)는 생존시에 이 고장의 빈민들에게 베풀어준 선정의 뜻이 거룩하여 去思碑로 1911년 3월에 건립한 것이다.

8.15해방과 6.25전쟁 등으로 일부 파손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하남국교 용관직(1924~)을 비롯한 유지들의 발기로 보수해 놓았다. 재구(1732~1822)는 조선 태조(이성계) 신곡왕후한의 제응참봉을 거쳐 호조판서에 올랐으며 후손으로 34대손인 만선(1916~)이 후평동에 살고 있었고, 선친의 수지를 비롯한 고문서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

5인 부사 선덕 불망비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현리(노인회관 내)

건립 조선말기

인제군 기린면 현리 노인회관 경내 우측 담 밑에 列立되어 있는 오인 부사의 선덕 불망비이다. 조선 말기에 이 고장은 춘천의 속현으로 행정 구역이 되어 있었으며, 이 당시에 부사로 지낸 바 있는 조위순(?), 이일철(?), 홍유순(1846), 이용선(1854), 김경균(1875)의 선정의 뜻을 높이 치하하고 오래 전하고자 당시 현민에 의해 건립하였다.

원래 기린면 현 4리에 진다리를 비롯한 도처에 산재되어 있던 비석들을 1975년 민영모 경위와 현 3리 강윤희 등의 인사에 의해 이곳에다 列立해 놓아 있었는데 도로정리로 인하여 노인회관 내 운동장 옆으로 옮겨 놓았다.

조위순 청덕 불망비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현 3리

인제군 기린면 현리노인회관 경내 우측 담 밑에 놓여있는 이 비는 1413년 이 고장이 춘주(지금의 춘천)의 속현으로 있을 당시 조위순 부사가 현민에게 베푼 선정의 뜻을 오래 오래 전하고자 현민이 건립하였다.

5인 부사 선덕 불망비 중 하나로 전면에는 “행부덕 조공위순 청덕선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랜 세월이 흐름에 비의 석각된 글씨가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않아 관리 보존이 아쉽다.

이일철 영세 불망벼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현 3리

인제군 기린면 현 3리 기린 초등학교 입구 좌측에 세워 놓은 5인 부사 선덕 불망비 중 하나이다. 이 석비는 이 고장이 춘주(지금의 춘천)의 속현으로 있을 당시 이일철 부사가 현민에게 베푼 선정의 뜻을 오래 오래 전하고자 현민이 건립하였으며 전면에는 "행부사 이공일철 영세 불망비"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용선 영세 불망비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현 3리

인제군 기린면 현리노인 회관 경내 우측 담 밑에 세워 놓은 5인 부사 선덕 불망비 중 하나이다. 이 석비는 이 고장이 춘주(지금의 춘천)의 속현으로 있을 당시 이용선 부사가 현민에게 베푼 선정의 뜻을 오래 오래 전하고자 현민이 건립하였으며 전면에는 “행부사 이공용선 영세 불망비”라고 기록되어 있다.

양교희 불망비

소재지 인제군 상남면 김부 2리

건립 1930년 9월 1일

인제군 상남면 김부 2리 비둑재 기슭인 백자동 노변에 있는 석비로 1930년에 건립하였으나 현 위치에다 이건한 학파 양교희 선생의 불망비이다. 학파 선생은 선지가 강직하고 신의가 두터운데다 한학에 능한 청주인으로 생전에 후세들의 육영사업에 진력하다가 세상을 뜨자 그 귀덕을 깊이 추모하기 위해 제자들의 성금으로 건립하였다.

석비에는 "鶴坡先生楊公敎熙傳學不忘碑 孔夫子誕降二千四百八十一年庚午九月一日"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종손인 양홍근(1924~)이 남면 부평리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학파 선생의 작고하신 음력 10월 11일에는 제자들에 의해 시제를 올리기도 하였다.

김경균 청덕 불망비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현 3리

인제군 기린면 현리 노인 회관 경내 우측 담 밑에 세워 놓은 5인 부사 선덕 불망비 중 하나이다. 이 석비는 이 고장이 춘주(지금의 춘천)의 속현 되었을 때 현민에게 베푼 선정의 뜻을 오래 오래 전하고자 현민이 건립하였으며 전면에는 "행부사 김공경균 청덕 불망비"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진동 불망비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방동 1리

건립 1883년 9월

건립연대는 문헌이나 구전으로 밝히지 못하나 고종 20년(1883) 9월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성에서 출생하여 살다가 학문을 깊이 닦고 이곳 방동리에 이주하여 살면서 배움의 길이 어렵고 살기 어려운 여건 속에 사는 촌민을 위하여 이웃에게 글과 삶의 도움을 준 유학자이기에 그 후 그에 대한 영세불망비를 세운 것으로 추측된다. 비의 전면에는 “幼學韓晉東永世不忘碑” 후면에는 “出家貧 兒村民 助補大稅 豈不忘一尺石面 流傳千秋 基功難記 日月華麗 光績九年癸未九月日”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대의를 위해 투신한 고귀한 공은 천추에 빛날 것이다.

홍유순 애민 선정비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현 3리

인제군 기린면 현리 노인 회관 경내 우측 담 밑에 세워 놓은 5인 불사 선덕 불망비 중 하나이다. 이 석비는 이 고장이 춘주(지금의 춘천)에 속현 되었을 때 부사를 역임한 그 선정의 뜻을 길이 전하고자 현민에 의해 건립되었다. 전면에는 “행부사 홍공 유순 애민 선정비”라고 기록되었고, 좌측에 “병유 시월 일’이라고 기록되었다. 이 비는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석각되어 있어 글씨가 흐리게 보이고 있어 관리 보전에 아쉬움이 있다. .

기린면장 방범주 선정비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현 3리

건립 1947년 12월

인제군 기린면 현리 노인회관 경내 우 측담 밑에 소재하고 있다. 온양인 방범주(1881)는 기린면 제8대, 10대 면장 외에 내면 면장과 3회의 도평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27년간 학교 증설과 건설분야에 업적이 많아 그 선덕을 길이 전하고자 면민들에 의해 1947년 12월에 건립되었다.

비의 전면에는 "故麒麟面長 方範疇 去思碑" 후면에는 "面行政 二十七年 農民就籍 安堵如舊 學校增設 道路開拓 頌囗立石 去後益思 檀紀四二八年十二月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방면장의 후손에는 장남 방임섭과 차남 방오섭이 있었다.

이재화 선생 경로 송덕비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상동 1리

건립 1983년 5월 18일

평안도 태생인 이재화씨는 항상 망향심에서 월남 이후로부터 자선 사업과 사회 봉사 정신에 젖어 있는 분으로 사회에 많은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1983년 5월 18일 사재 사천팔백만원을 들여 현대식 2층으로 노인회관을 기공하여 인제읍 노인회에 노인들의 휴식처로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주었고, 1989년에는 남북리 노인회관 건립 기금으로 이백만원을 협조하였으며 또한, 원통노인회관 수리 비용으로 일백만원을 협조하였으며 매년 명절 때면 노인회원들에게 금일봉과생필품을 협조하는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기에 인제 노인회에서 그의 큰 공로와 미덕과 봉사정신을 높이 받들어 후세에 귀감이 되기 위하여 노인회 마당 한편에 송덕비를 건립하였다.

비문 전면에는 "李載華先生 敬老頌德碑"라고 석각되었고, 후면에는 "이재화선생은 경로정신이 투철하여 물심양면으로 항시 노인들을 수호하였고 또 우리 여생의 안식처인 회관을 건립하였으므로 그 미덕을 영세불망하고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기 위하여 비를 건립함. 일구팔삼오월 십팔일 인제군 지부장 변용성 근저"

인제군 장학재단 설립 기념비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군청 정원 내)

건립 1989년 9월 16일

가난 속에 배우고자 하는 이가 많아도 학문의 길이 순탄하지 못하고 가르치려 하는 부모가 있어도 학자금이 부담스러워 상급 학교 진학이 여의치 못한 걱정에 뜻을 펴지 못하던 중 1989년 원단에 부임한 고제현 군수가 가난과 낙후를 벗는 첩경은 장차 애향의 중심이 될 인재 육성임을 강조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지역 주민의 호응을 얻어 4월 하순 1차 회동하여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인당 일백만원씩 출연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목표액을 웃도는 일억이천만원을 모금, 적립하게 되어 7월 28일 인제군 장학재단 인가를 얻게 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인제군 남면 신남리에서 국제여관을 경영하는 이국한씨와 인제군 북면 설악생수 회사의 협조로 설립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

황덕신 기념비

소재지 인제군 상남면 상남 3리

건립 1937년 2월 6일

황덕신은 평소 집념이 강하고 소탈한 사람으로 일제 시대 산림 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평소 마을 일에 앞장서서 일을 처리하여 공헌을 하였다는 구전이 있다.

특히 마을사람들이 나무를 하다 일본인에게 잡혀 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내어 주고 하였다는 말이 전해온다. 그 이후 마을사람들의 정성으로 이 비를 건립하였다 한다.

황장금표 黃腸禁標

소재지 인제군 북면 한계 3리(큰절골)

건립 조선 중기 추정

조선 중기 무렵 한계리 일대의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석에 음각으로 새긴 표석이다. 황장목은 나무 중심부에 누런 부분의 황심을 가진 소나무로써 조선 시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하였던 수종이다. 강원도에서 황장금표가 발견 된 곳은 북면 한계리 외에 영원군 수주면 두산 2리 황장골과 법흥 1리 사자산,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치악산 구룡사 입구 등이다. 황장목은 심재의 비율이 커 궁궐의 건축자재 왕실의 관재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하였다. 영조 2년(1746)에 간행된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국가에서는 황장목이 있는 산에 산직(山直)을 두어 관리하였고 감관(監官)이 이를 감독하였으며 나무를 벨 때는 경차관(敬差官)을 보내 직

접 관리 하게 하였다. 경상도 전라도는 10년에 한번 강원도는 5년에 한번 날을 택하여 경차관을 임명해 보내 황장목을 베도록 하였다』

벌목된 황장목은 합강리 앞 우소에 접적 되었다가 뗏목으로 엮어 춘천을 거쳐 서울까지 운반되었다.

황장금표에는 다음과 같이 글이 음각되어 있다.

黃腸禁山
自四古寒溪
至東界二十里
(황장을 금하는 산이며, 서쪽으로 옛 한계에서부터 동쪽의 경계는 이십리까지이다.)

퀸 대령 가의 명비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남북 2리

건립 1957년 7월

인제읍 상동리 소재지에서 군축령 방향으로 가다보면 남북 2리 객골 입구 좌측 국도변에 자연석으로 되어 있다.

6.25 직후 1959년 7월 남면 관대리에 육군 제3군단이 주둔하고 있을 당시 미 수석 고문관인 퀸 대령이 한미 친선과 우호의 증진을 위하여 10.37평 되는 가옥을 허만부(1922~)이라는 난민에게 선사하고 이 사실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하여 이곳에 건립한 기념비이다.

자연석비에는 다음과 같이 음각되었다.

소개의 말씀

이 집은 퀸 대령의 집이라고 합니다. 제3군단 미 수석 고문관 퀸 대령께서 한미 친선과 우호의 증진을 위하여 난민에게 선사한 것이다.

INTRODUCTION

This house is designated as colonel Keane's houses.

Senior Advisor to III hoperbilic of Korea corps, colonel William M. Keane, Presented to the poor for the improvement of good-will and friend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epubic of Korea.

군축령 표석 軍築嶺 標石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남북 2리

건립 1958년 12월 4일

군축령은 남면 남전리와 인제읍을 잇는 고개로써 원래는 가넷고개로 불리워 왔으며 도로포장 확장공사 이전만 해도 우측 산모퉁이 위로 차도를 내어 왕래하였던 것을 수복 이후 남전 2리(가로리)에 운교대와 하교대의 군부대 주둔과 이주민이 많이 정착하여 편의를 구축하고 도로 이용 계획에 따라 군부대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1958년 12월 4일 개통한 국도 44번선이다.

그 당시 도로 확장공사로 땀 흘리며 노력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승을 기리기 위하여 대자연석(0.6×1.5m)에다 전면에는 "군축령" 후면에는 "軍築嶺"이라고 석각하였다.

내린천댐 건설 반대 기념 조형물

작품명 내린천 너 영원하라!

건립 내린천 영구 보존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

조각 조각가 이원경

건립일 2005년 1월 30일

취지문

그해 여름 정말 위대했습니다.

약속의 땅 미래의 희망인 내린천은

하늘이 내린 생태 환경의 보고이며

자손 만대에 영구히 물려주어야 할 민족의 자연유산입니다.

자연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임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땅 우리강산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어 왔는지
이미 뼈 아프게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환경만이 희망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수장이 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댐 건설을 단호히 반대하며
한국 환경 운동사 주민 운동사에 빛나는 역사로 기록될
내린천 반대 운동에서 보여준
인제 군민의 성숙한 환경 의식을 높이 기리고
댐 건설 백지화의 큰 뜻을 살려
우리 모두의 희망인 내린천을
영구히 보전하고자 하는
인제 군민의 자랑스런 의지를 보인
여기
내린천 영구보존 상징 조형물을 건립합니다.
내린천이여 영원하라!

인제군수 김장준/인제군의회 의원 박삼래/내린천 영구보존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방효정/내린천 댐 건설 반대 인제군 투쟁위원회 위원장 이기순/내린천 사랑 보존회 회장 전성열

9

전적비

충혼탑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탑
전사경찰 위령비
인제 지구 전투 전적비
충혼비
현리 지구 전투 전적비
순직 장병 충혼비
무명 용사 충혼비
백인엽 장군 송덕 기념비
오덕준 장군 송덕비
장병 추도비
매봉·한석산 전적비
백골병단 전적비
칠성탑
군축령 충혼비
남전리 충현비
남전리 위령비
제10야전군 사령부 지지 기념비
남북통일로 표석
38교 표석
연화동 공비 전적비
리빙스턴교(빨간다리)

충혼탑 忠魂塔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상동 5리

건립 1964년 11월 3일

1964년 11월 3일 인제읍 상동 5리 기룡산 밑 618평 부지에 당시의 이길웅 인제군수가 박경원 강원도지사의 후원과 서종철 제3군단장의 지원을 받아 건립한 충혼탑으로 크기는 높이가 5.2m, 둘레가 3.4m이다.

탑의 전면에는『1950년 6월 25일 이 나라 온 국민은 다같이 원수의 붉은 무리들을 막아내기 위하여 목숨을 잃었으며 109위의 이 고장의 젊은 혼들도 거룩한 수호신이 되었다. 해마다 6월이 오면 이 제단 앞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또한 유가족들이 애통하는 울음소리 하늘을 진동한다. 아~ 호국신으로 산화하신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의 넋은 군민들 가슴마다 되살아나며 길이길이 빛나리라』

후면에는『본 탑은 6.25 동란으로 인하여 호국의 수호신으로 산화한 영령을 길이 추모하고 겨레와 더불어 구국 신념을 고취하여 이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다같이 염원하는 주민의 뜻을 묶어 이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1964. 11. 3

건립 인제군수 이길웅

후원 강원도시자 박경원

지원 제3군단장 육군중장 서종철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탑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남북 2리

건립 2000년 10월 31일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을 맞아 민간인 신분으로 조국을 위하고 향토를 지키기 위하여 관내에서는 민족자결동지회, 청년향토방위대, 매봉산 결사대를 조직하여 결사항거 투쟁하다가 가신님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고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인제군 지부와 자유수호 희생자 유족들은 위령탑 건립을 추진해 오던 중 투철한 안보관과 남다른 애향심을 가지신 인제읍 상동4리 대한통운 인제군 출장소를 경영하신 이재화 선생의 성금으로 1995년 인제읍 남북리 군축령 입구 우측산 자락에 1차 건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44번 국도 확포장공사로 부득이 철거되어 몇 해를 보내면서 재건립을 추진해오던 중 이승호 인제군수로부터 부지를 제공받고 이재화 선생의 2차 성금으로 2000년 10월에 준공하게 되었다.

전사경찰 위령비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남북 2리(가넷고개 또는 군축령 정상)

건립 1992년 6월 18일

전사경찰관 양춘길, 사봉환, 김흥도, 장오봉, 김경선, 김해동, 김동석, 심임흘

36년간 일본식민지 통치의 질곡 속에서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해방되었으나 그 기쁨도 잠시 이 지역을 통과하는 38선을 경계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방과 더불어 창설된 국립경찰은 38선 경비를 담당하면서 북한 공산당의 학정을 피하여 월남하는 수많은 양민을 보호하고 빈번한 공산국의 도발에 그때마다 분전하며 저지하여 왔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공산군이 불법남침하여 전면전쟁을 일으켰으나 한국군의 반격 작전으로 3개월만에 38선 이북으로 패주하므로 인제

경찰서장 경감 최동규 외 56명이 수복된 인제 지역의 치안 업무를 수행코자 동년 10월 19일 11시 30분에 관대리에 이르자 북한공산군의 기습을 받아 용감하게 싸웠으나 이 싸움에서 양춘길 경사(당시 계급 순경) 등 8명이 아깝게도 전사하였다.

이분들이 가신 뒤 40성상이 지난 오늘날 민족분단 비극의 역사 속에 호국경찰의 수난사가 잊혀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즈음하여 이러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산화하신 경찰관의 명복을 빌고 가신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기 위하여 위령비를 세워 호국 영령들의 넋을 깊이 기리고자한다.

1992. 6. 18

위령비 건립추진위원

경찰서장	이택순	생존자	심재필
군수	반종한	생존자	심영호
교육장	지영식	생존자	윤오병
농협지부장	이경일	생존자	심영만
경우회장	원현성	생존자	유제남
도의원	변완기	생존자	김창복
군의회의장	정재학	생존자	고동혁
군의회부의장	이기우	생존자	최한호
군의원	최태윤	생존자	최상용
군의원	신대식	생존자	계익선
군의원	박성중	생존자	이종호
군의원	한의동	삼원산업	박주화
군의원	엄규완		

인제 지구 전투 전적비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산 45-1

건립 1958년 3월 15일

건립기관 육군 제2307부대

시설제원 탑(0.6×0.87×2.2m), 기단(4.9×4.31×2.17m) 지대석(6.75×6.2×0.24m)

이 전투는 중공군의 2월 공세를 물리친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작전 시 아군 제5사단이 봉화동-월하동-장편을 연하는 캔자스 선으로 북진을 하던 중 소양강 선의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하려는 북한군 제12, 15, 45사단과의 전투로써 지형적인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며 일진일퇴의 공방전 끝에 소양강 선을 돌파하고 캔자스 선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전투이다. 이 전투를 기리기 위하여 1958년 3월 15일 육군 제3군단에서 인제읍 합강리 국도변 200평 대지에 세웠다. 그러나 합강리 부근의 국도확장 공사로 인하여 1986년 8월 20일 인제읍 남북리 산 45-1번지 군축공원으로 이설하였으며 1995년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로 다시 철거하였다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충혼비

소재지 인제군 상남면 하남 2리

건립 1981년 6월 26일

건립기관 기린향우회

관리기관 기린향우회

시설제원 비신높이(2.73m) 1층기단(2.53×1.88×1.83m) 2층기단(3.91×3.96×0.74m)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강토가 유린 될 때 이 지역 의 청년들이 향토와 국가를 구출하겠다는 일념으로 결사대를 조직하여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산화하였다. 고귀한 생명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다 산화한 영령들을 위로하고 호국정신을 길이 후손에게 전하고자 기린향우회가1981년 6월 26일에 충혼비를 건립하였다.

현리 지구 전투 전적비

소재지 인제군 상남면 하남 2리

건립 1985년 6월 25일

건립기관 육군 제2307부대

관리기관 육군 제2397부대

시설제원 기단(3.0×2.43×120m), 비좌(1.25×1.90×2.15m), 비(3.2×1.3m)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이 불법남침을 자행 한국전쟁을 도발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던 국군은 이후 미군과 유엔군의 지원에 힘 입어 반격을 개시하여 압록강까지 북진했다.

그러나 중공군이 북한군을 지원 국경을 넘어 인해 전술로 물 밀 듯 남하하여 국군과 유엔군은 어쩔 수 없이 1951년 1월 4일에 후퇴하였다. 그렇지만 국군과 유엔군도 전열을 가다듬고 용감하게 반격하였다. 그러나 1951년 5월

16일부터 북한군 제6군단과 중공군 제12군이 우리 육군 제3군단과 미군 제10군단에 대공세를 취하여 후방의 요지인 보미 고개를 차단하였다.

아군은 22일까지 완강한 방어를 차단하였으나 지형과 기상의 악조건으로 인접 부대간의 협조가 단절되어 끝내 크나 큰 희생만을 치르고 후퇴함으로써 종심 50km의 돌파구를 허용하고 말았다. 이 전투의 패배를 교훈으로 삼고 당시 이름없이 몸 바친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자 육군 제2307부대가 1985년 6월 25일에 이 전적비를 여기에 세우게 되었다.

순직 장병 충혼비

소재지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건립 1956년 5월 30일

이 충혼비는 평화와 조국 통일을 위하여 해발 1,200m의 전방 고지에서 근무를 수행하던 당시 주둔군인 제5사단 장병 59명이 1945년 1월에 내린 2m 가까운 폭설로 참사를 당하자 사단장이었던 육군 준장 박정희(전 대통령)장군이 젊은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자 건립한 것이다.

비의 전면에는『嶺東地區 丙申 雪禍殉職將兵 忠魂碑 師團長 陸軍 准將 朴正熙 謹書』라고 적혀 있고, 후면에는 영현 명단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으며 순직자는 다음과 같다.

◈ 영현 명단

계급	성명	계급	성명	계급	성명	계급	성명	계급	성명
대위	이규홍	일중	이형근		송만석	하사	고광옥	하사	이상호
일상	조귀태		원창식		한윤희		송범용		이수용
이상	김상보		김승봉		이충영		이찬열		서정석
	이전유		이운용		최학만		위상한		이효순
	김회숙		안승식		이유문		안진영		임용석
	하권승	이중	김차기		신상복		한영수		김호택
	김홍덕		석종호		김삼만		성판옥		권희룩
	김승태		김우관		노준영		김태선		김등남
	서병안		노태우	하사	노흥래		김영환		정태성
	정민안		한대규		유상학		박춘일		김종열
	박낙원		박영규		이찬오		곽헌영		김창수
	이기노		김영원		최영수		정진표		

무명 용사 충혼비

소재지 인제군 북면 한계 3리

건립 1967년 9월 29일

6.25때 유서 깊은 이 고장의 격전지에서 산화한 국군 장병들의 넋을 영세 불멸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이 석비는 탑 높이 1.20m, 둘레 0.6×0.15m, 기단 높이 1.67m, 둘레 3.00×3.15m나 되며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본 충혼비는 1950년 6.25동란으로 인하여 호국의 수호신으로 산화한2,726구의 영령을 길이 추모하고 겨레와 더불어 구국의 신념을 고취하여 이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다같이 염원하는 군부와 주민의 뜻을 묶어 이 자리에 건립합니다.』

단기 1967년 9월 29일

제12사단장 육군 준장 이근양

인제군수 엄대현 건립

백인엽 장군 송덕 기념비

소재지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824-2번지

건립 1955년 6월 5일

건립기관 서화면

관리기관 인제군

시설제원 비수(0.83×0.62×0.35m), 비산(가로0.6×높이1.25×폭0.73m)

백인엽 장군의 덕망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당시 제8대 서화면장 정윤식과 건비 기성 회장인 서병선 등 면민들의 힘을모아 1955년 6월 5일 서화면 천도리 680번지에 기념비를 건립 하였다. 1999년 11월 27일 인제군에서는 전적비가 노후, 훼손되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18,662천원을 들여 이곳 천도리 824번지에 이전 복원하였다.

오덕준 장군 송덕비

소재지 인제군 남면 남전 1리

건립 1959년 5월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지역에 수복과 함께 난민이 정착하여 살게 되었는데 당시 관대리에 주둔하고 있던 제3군단장 소장 오덕준 장군은 지역 복구 사업에 다각적으로 지원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택을 지어주었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환경에 직접 동참하여 구호해 줌은 물론 생활 안전에 최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지원해줌으로 그 고마움을 보답하고자 남전리 주민들에 의해 이 비를 건립하였다. 오덕준 장군은 1980년 5월 세상을 작고하였다.

후면에는 황발화지역복구 극빈자구호주택건립 등 이민생활 안정지공 영단기 사이구이년 정월일 남전리민 일동

장병 추도비

소재지 인제군 남면 남전 1리

건립 1959년 5월

이 장병 추도비는 육군 제3군단장 오덕준 장군이 1967년 7월에 세웠으며 거북 등에다 자연석을 세운 석비이며 높이 1.2m, 둘레가 1.3m로 건립되었다. 6.25사변 전투 당시 중동부 전선에서 총칼을 앞세우고 물밀듯이 내려오는 북한군을 맞아 용감하게 구국의 혼신을 다하며 싸우다 이슬처럼 산화한 전우들의 명복을 빌고자 세웠으며 호국의 신으로 산화한 영령들의 의성 정신은 이 고장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 지키리라.

이 고장에 산재해 있는 국방문화재 19개 중의 하나로 이 고장 주민들의 유일한 안식처인 경로정을 찾아오는 행인들로 하여금 남북통일을 이룩할 결의를 새롭게 하여 준다.

전면에 석각되어 있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향로봉 남강 기슭은 옛날 옛 물이로다 / 눈보라 내리치던 처참한 싸움터에 / 쓰러진 전우들의 옛 모습은 간 곳이 없도다』

4290년 7월

제3군단장 육군 소장 오덕준

매봉 · 한석산 전적비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건립 1990년 11월 9일

1990년 11월 9일 13시 30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피아시) 내린천 국도변에서 이진삼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매봉 한석산 참전 전우회 손희선 예비역 소장, 3군단장, 각군 야전군 지휘관과 강원도지사, 교육감, 도경국장 등 도단위 및 군 단위 기관 단체장들과 지역인사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봉 · 한석산 전적비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6.25 당시 이 땅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국군 용사들이 치열한 전투 끝에 8백95명의 적을 사살하고 42명의 생포와 적군 따발총 60여점 등 3백8자루의 무기를 노획하고 매봉(1,066m)과 한석산(1,110m)을 치열한 전투 3일만에 탈취하였으며, 우리 국군도 72명이 전사하고 3백19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이 치열하였던 전투의 전적을 기념하고자 지난 76년 참전용사 1백여 명이 전우회를 결성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6월 회원들의 성금 3백40만원과 2307부대 지원금 등 4천2백21만원으로 공사를 착공해 이 날 준공을 보았다. 매봉 · 한석산 전적비는 넓은 부지 8백평에 높이 8.1m의 화강암 석탑으로 6.25 당시 참전 부대인 9사단 30연대를 상징하기 위하여 탑을 9단으로 쌓았으며 탑의 원형도 30각으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백골병단 전적비

소재지 인제군 북면 용대 3리

건립 1990년 11월 9일

1990년 11월 9일 오후 3시 인제군 북면 용대 3리, 미시령과 진부령으로 갈라지는 삼거리(창바위)의 1천2평의 부지에 세워진 백골단병 전적비 제막식이 있었다. 백골단병은 6.25 당시 육군본부 직할 유격대인 결사 11, 12, 13연대를 통합하여 당시 육군 중령인 채명신 장군을 단장으로 6백40명의 용사로 창단하여 태백산과 오대산, 그리고 설악산을 누비며 적과 교전을 하여 적 69여단의 1급 비밀서류를 빼앗고 괴멸시켰으며 대남 빨치산 사령관 길원팔 중장과 참모장을 생포하는 등 3백여명을 생포하고 5백여명의 적을 사살하는 전공을 세웠고 또 적지의 주요시설을 습격 폭파하고 적을 교란시키는 등 국군이 동부 지역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치열한 교전 속에 숨진 백골병단의 용사 3백60여명이 전사하여 3명의 유골만 찾아 국립묘지에 안장했을 뿐 나머지 용사들의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렬하게 산화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전적비를 세웠다.

칠성탑 七星塔

소재지 인제군 북면 원통 1리

건립 1959년 6월 25일

명장인 보병 제7사단장 하갑청 장군이 민족의 정성인 충용무쌍한 칠성사단장병과 더불어 조국 통일 전선에서 의롭게 순직한 전우들의 명복을 빌고 신라 삼국 통일의 화랑정신을 계승하여 남북 통일을 이룩할 결의를 굳게 다짐하는 뜻에서 당시 제3군단장이었던 오덕준 장군이 건립하였다.

군축령 충혼비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남북 2리

건립 1978년 5월 18일

비의 전면에는 「1977년 전국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어 대통령 부대 표창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1978년 2월 8일 서울로 향하던 모범 용사들이 불의의 차량 사고로 이곳에서 산화하였기에 고인들의 영혼을 추모하는 을지부대 장병들의 뜻을 모아 이 비를 세운다. 1978년 5월 18일 을지부대 장병일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충혼비라고 쓴 비의 대석은 12각형으로 조화되어 있으며(12인의 영령 표시) 여기에는 산화한 12인의 계급과 성명을 적었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 중령 오성호 고 소령 고광남 고 준위 정대복
고 준위 문인주 고 중사 장성열 고 하사 박창신
고 하사 이의형 고 하사 공남두 고 병장 하상수
고 하사 이해구 고 병장 유태석 고 병장 박선하

▲ 비의 크기는 높이 20.4m, 너비 1.8m, 기단높이 2.1m, 둘레 4.6m이다.

남전리 충현비

소재지 인제군 남면 남전 1리

건립 1962년 5월 12일

남전 1리 쪽밭골 약수터 입구에서 홍천 방향으로 약 200m 가다 보면 좌측 국도변에 소재하고 있다.

원래는 관대리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소양댐 건설로 인한 수몰로 이 곳에 옮겨 왔으며 비의 크기는 높이는 1.02m, 너비가 2.32m, 기단 높이가 1.56m, 둘레 6.25m이다.

1962년 5월 12일 당시 제3군단장 육군 준장 최창언 장군에 의해 건립된 유서 깊은 석비이다.

〈비의 전면〉

통일! 너 온 겨레의 소망이여
만주와 공산의 판가름에서 쓰러진
그대 배달의 젊은 꽃들이여!
정의와 승리는 그대의 것, 또 우리의 것
거룩한 그대 얼, 이 겨레를 비치니
고히 눈 감으시라! 편히 잠드시라!

〈비의 후면〉
동부전선에서 공산 역도와 싸우다 쓰러진 장병의 명복을 빌며 그 뜻을 만세에 빛내고자 이곳에 비를 세운다.
서기 1962년 5월 12일
제3군단장 육군 중장 최창언

남전리 위령비

소재지 인제군 남면 남전 1리

건립 1953년 12월 15일

인제군 남면 남전 1리 쪽밭골 약수터 입구에서 홍천 방향으로 200m 가다 보면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다.

6.25당시 자유의 십자군으로 한국전에 출전하여 젊음의 정열을 충절로 이국 땅에다 꽃다운 피를 전선에 뿌리고 산화한 미 제10군단 장병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1953년 12월 15일 관대리에 건립한 것을 소양강댐으로 인한 수몰로 1972년 7월 이곳으로 이건하여 놓았다. 위령비는 다음과 같이 석각되어 있다.

IN MEMORY OF THE MEN OF THE 103rd KSC DIVISION WHO GAVE THEIR LIVES IN SUPPORT OF X U.S CORPS 1951~1953

미 제십사단 지원작전에 있어 생명을 바친 육군 제일십근무사단 장병의 명복을 빔. 미 제십사단 1951~1953

제1야전군 사령부 지지 기념비

소재지 인제군 남면 남전 1리

건립 1953년 12월 15일

위 기념비는 1953년 12월 15일 육군 제3군단에서 관대리 삼거리에다 건립하였던 것을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로 이건하였으며, 비의 전면에는『제3군단 사령부 1952년 2월 5일 이곳에 창설. 1972년 7월 27일까지 주둔하다』고 석각 되었으며, 측면에는『초대 사령관 육군 대장 백선엽』이라고 석각되어 있다.

▲비의 높이 1.85m, 둘레 1.05m이다.

남북통일로 표석

소재지 인제군 남면 신남 1리

건립 1958년 1월 12일

통일 민족으로서 국토를 분단하고 총칼로 목숨을 빼앗던 쓰라린 아픔을 낳게 했던 6.25의 비극을 생각하며 하루 빨리 분단된 휴전선을 허물고 통일의 염원을 기리고자 1958년 1월 12일 제3군단 공병단이 남면 관대리 삼거리에 건립하였다.

그 후 소양강댐의 건설로 이곳이 수몰되자 1972년 7월에 민족 비극의 상징과 통일의 염원을 기리고자 현 위치로 이건 하였다. 남북통일 석비 측면에는『제3군단장 오덕준 지휘 아래 1106 야공단이 건설함. 4291년 12월 미 고문단퀸 대령, 공병단장 임상절 대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8교 표석

소재지 인제군 남면 신남 1리

건립 1953년

자유의 전리품으로 불리우는 남면 관대리 38선에 위치한 38교는 춘성군 북산면 추전리 38교와 함께 동명 이성의 군사 분계선이던 곳.

길이 360m, 폭 7m 목조로 되어 있는데 1953년 미 제10군단에 의해 임시 목교가 설치된 후 제3군단에 의해 철근콘크리트 교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 후 길이 196m의 조립식 교량이 가설되었다.

6.25전까지만 해도 이 곳 소양강에서 교량이 가설되지 않은 채 북의 소련군과 남의 미병 사이에 총격전이 잦았다. 6.25때는 적군과 아군이 흘린 피로 소양강이 푸를 사이가 없었다.

1953년 포성이 맺고 미군들이 동원한 중장비로 교량을 건설하게 되자 근처

마을 촌로들 사이엔 이 다리가 도깨비다리로 불려져 왔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1972년 7월 현 위치에다 이건한 이 38교 표석은 수침 170m선으로 1973년 8월 추곡리 38교는 최저 수치인 12m선으로 잠겼다. 이에 따라 38교 또는 38교 비각은 소양강댐의 건설로 인한 수몰로 남면 신남 1리에서 인제쪽으로 0.5km 떨어진 국도변 닭바위에 "남북통일로" 비각과 함께 나란히 이건해 놓았으며 행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6.25의 많은 전설을 담고 있는 이 38교는 전쟁이 왔었고 또 전쟁이 가버렸으니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표현할 수 없는 갖가지의 사연도 많았던 것이다.

연화동 공비 전적비

소재지 인제군 북면 용대리(연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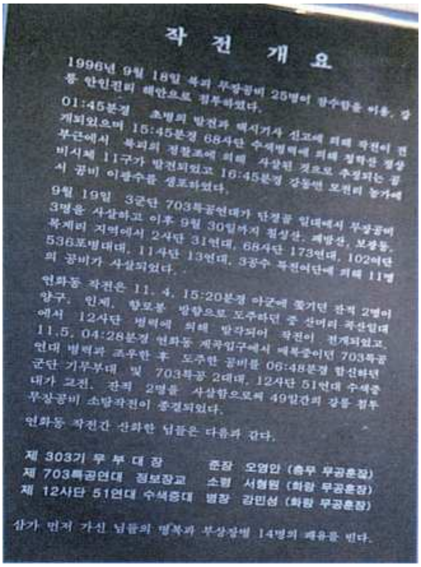
건립 1998년 11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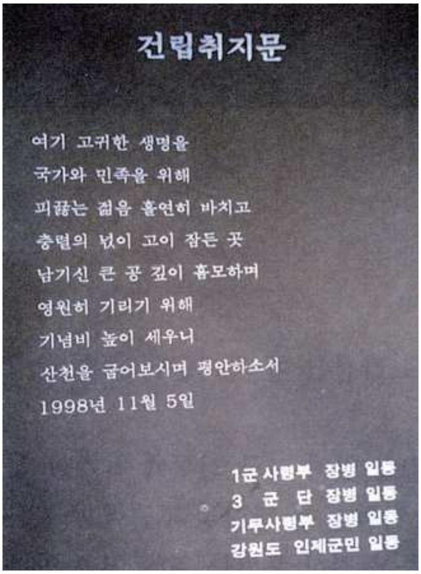
1996년 9월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에 침투한 무장공비 잔당의 최후 섬멸지인 인제군 북면 용대리 용대 자연 휴양림 입구에 안보 공원이 조성되었다. 인제군과 국방부는 2억여원을 들여 용대리 연화동 자연 휴양림 입구 2천 3백평에 안보 공원을 조성하여 1998년 11월 12일 연화동 작전 2주기 추모식과 함께 전적비 제막식을 가졌다.

안보 공원에는 한림대 정장직 교수가 설계한 12.5m 높이의 공비를 도주로와 국군의 추적 상황 등을 기록한 전적비 등이 세워졌으며 주변에는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미시령과 진부령이 갈라지는 용대 삼거리에서 진부령쪽으로 3km 지점에

위치한 전적 기념 공원은 용대 자연 휴양림 입구에 자리잡아 동해안 관광지의 교두보 역할과 함께 고성 통일 전망대, 양구 제4땅굴, 화천 비목공원, 철원구 노동당사 등을 연결하는 안보 관광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리빙스턴교(빨간다리)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합강 3리

건립 1957년 12월 4일

재건립 1970년 12월

이 다리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 제10군단 소속 리빙스턴 소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한국전쟁이 계속되던 1951년 6월 10일 인제 지구 전투에 참가한 리빙스턴 소위의 부대가 인제 북방 2km 지점인 현 합강정 부근에 매복하고 있던 적의 기습을 받아 일대 격전 중 작전상 후퇴를 위해 이곳 인북천을 도하하려고 할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범람, 대부분의 부대원이 거센 물살과 적 사격에 희생되었고 리빙스턴 소위도 중상으로 후송되었으나 끝내는 순직하였다.

그는 임종직전 이 강에 교량이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부하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탄하고 고국에 있는 부인에게 이곳에 사재를 털어서라도 교량을 가설해 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이를 전해들은 부인에 의하여 1957년 12월 4일 길이 150m, 폭 148m라는 현재의 콘크리트로 교량을 가설하였다.

아직 홀연히 서 있는 몇 개의 교각에는 리빙스턴 소위의 자유수호의 투혼과 넋이 서려있어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숙연하게 하고 있다.

10

산성

한계산성

합강산성

서화리산성

성재성

한계산성

1 위치

한계산성은 인제군 북면 한계 3리 산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원도 기념물 제17호이다. 한계산성은 인제에서 한계령으로 가는 44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옥녀탕 휴게소에 주차시키고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옥녀탕 휴게소에서 매표소를 거쳐 옥녀탕 좌측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데 약 20분~30분 걸어 오르면 계곡 좌우로 석벽이 축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계산성이다. 이 산성은 산세가 매우 험해서 산악 구조대의 안내가 필수적이므로 사전 준비와 연락 체계가 완벽해야만 안전하게 일주할 수 있다.

한계산성 위치도

2 구조

한계산성은 북쪽의 안산(1,430m)을 중심으로 좌우로 연결되는 5km 이상의 둘레를 갖고 있는 대규모의 산성이다.

그러나 험준한 자연 지세를 최대한 이용한 산성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성벽을 축조한 구간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성벽을 축조한 구간은 대형 암석을 기점으로 하여 좌우로 성벽을 둘렀다는 것이다. 인공적으로 성벽을 축조한 구간은 남문에서부터 동쪽으로 58km, 산능선을 따라 10m씩 그 구간 도합 20m, 천제단 위의 석벽 축조 끝부분 60m, 남문에서 서쪽으로 계곡 시작 부분 24m, 계곡을 지나 시작되는 서벽 140m이다. 이러한 구조상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한계산성을 보다 쉽게 설명하고자 하면 구간별로 나누어 서술할 수 밖에 없다. 남문은 넓이가 1.6m, 높이가 2.2m로써 상하 문둔테가 남아 있으나 장군목 걸치는 좌측 구영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원 시 잘못된 듯하다. 남문 지역은 현재 토사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서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 남문에서부터 동쪽으로 존 암석까지 58m 석벽이 복원되어 있다. 석벽 높이는 6m로써 30단 내외이고 면석의 크기는 90×30cm, 60×28cm, 37×32cm 등이다. 남문 위 여장은 그 너비가 85cm, 높이가 80cm 이다.

능선상의 제1구간의 석벽은 10m의 협축식으로써 비교적 안정되게 축조하였고 곡선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10단 내외이고 높이가 1.5m, 너비가 1m 이다. 천제단은 세 개의 탑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비석마다 비석과 각 각의 단을 가지고 있다. 중앙탑은 160×220×143cm이고 비석의 크기는 25×84cm 이며 단의 크기는 134×55×130cm이다.

서쪽 탑은 150×130×100cm이고 비석은 75×55cm이며 단의 크기는 140×40×125cm이다. 동쪽 탑은 120×180×115cm이고 비석 크기는 100×67cm이며 단의 크기는 105×47×120cm이다.

제3구간은 천제단 위의 석벽인데 그 길이가 50cm이고 높이가 1.2m, 너비가 1.3m이며 그 면석의 크기가 95×25cm, 55×19cm, 23×13cm 등이다. 대

컬터는 남북 길이가 80cm, 동서 길이가 60m의 완만한 경사지와 평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구간 하단에는 샘물이 현존한다.

이 구간에는 토기편과 옹기편을 볼 수가 있다.

제4구간은 성벽 축조 최종구간인데 암반과 암반 사이에 석벽을 축조하였으며 마무리 부분은 사각 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구간은 대체로 4개의 대형 암반을 중심으로 좌우로 석벽을 연결하였는데 그 길이는 총 60m이고 높이가3m 너비가 1.5m이다.

최종 부분은 4×3cm의 사각형태로 깔끔하게 처리된 느낌을 주고 있다. 남문에서 서쪽 석벽은 서쪽으로 개울 시작 부분까지 24m로써 30단 내외로 축조하였다. 개울의 폭은 43m이다. 개울을 지나 서쪽 석벽 복원 구간은 첫번째 암반까지 70m, 두번째 암반까지 10m, 세번째 암반까지 60m로써 총 140m이다. 서벽 첫번째 구간은 5~6m 30단 내외의 규모를 갖고 있으며 두번째 구간은 길이 10m, 높이 2.5m 내외의 규모이고 세번째 구간은 길이 60m, 높이 2m, 내외의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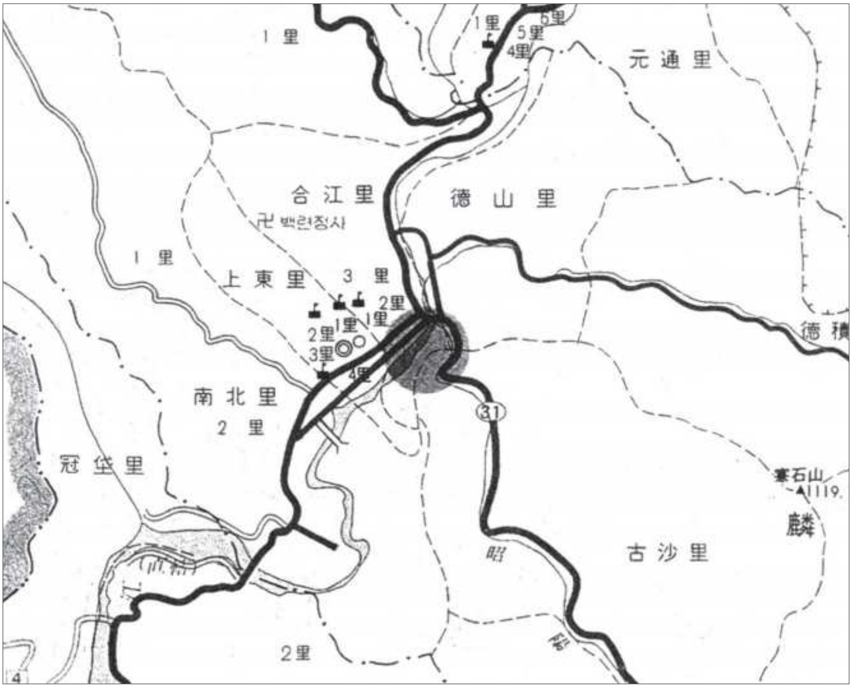
서벽은 올라갈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가파른 경사면을 고려한 축조 방식인 듯하다.

합강산성

1 위치

합강리 산성은 인제군 인제읍 합강 2리 산48-1(해발329m)에 위치하며 그 둘레는 150m 내외이다. 이 산성은 인제군청을 지나는 44번 도로를 타고 가다가 합강 교차로에서 합강교를 건너자마자(31번 국도) 바로 내린천으로 연결되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 내려간다. 합강이란 명칭은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수하여 소양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예전 과수원(일명 옻밭치) 밭을 지나 산으로 오르면 산성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산성은 동쪽(기린면 방향), 서쪽(인



합강리 산성 위치도

제읍 방향), 북쪽(북면 원통 방향) 방향에서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자를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2 구조

합강리 산성은 이중성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산 정상을 중심으로 하는 테뫼식의 내성과 여기서 동북 방향 아래로 연결되는 외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산 정상을 두른 테뫼성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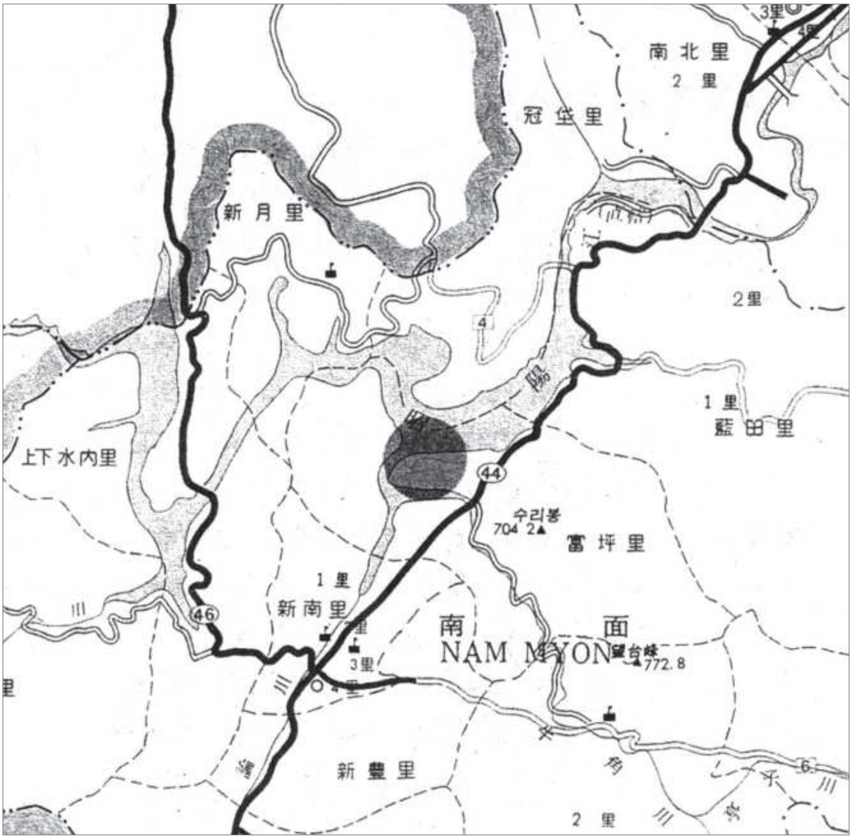
이 산성은 남쪽과 서쪽의 경사가 매우 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축성할 필요가 없었던 듯하며 또 석벽 자취를 찾을 수 없다. 북쪽과 동쪽 방향은 완만한 경사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석벽을 축조했던 듯하다. 그러나 정상에 인공 시설물은 70년대에 설치하면서 평탄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석벽 자취는 지극히 제한된 구간에서만 찾을 수 있다. 정성은 18×20m의 평지로 이루어졌는데 이곳에는 인공시설물이 들어서 있고 또 석벽을 둘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 역시 인공시설물 설치로 인해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단 동북벽 30 내외의 석렬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발견 면적은 34×40cm, 34×30cm이다. 성 내부는 대체로 3, 4단의 평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서 경사면에서 다수의 와편 옹기편을 수습할 수 있었다. 외성은 산 정상에서 동북 방향으로 연결되고 있다. 내린천 방향의 능선을 따라 115m를 내려가서 90° 방향의 좌측으로 회전하여 약 100m 가량 이어지다가 110° 방향으로 꺾여 73m 올라가서 220° 방향으로 60m 오르면 산 정상의 성벽에 도달한다. 외성의 좌우 모서리에는 10m 내외로 토석혼축의 흔적이 완연하다. 추정 문지는 너비가 350cm, 높이가 2m로써 이곳의 좌우 북벽은 현재 토성이 현존하고 있다. 외성의 서북 방향으로는 사방 10m 내외의 평탄지가 2곳 보인다. 서쪽 능선 상으로는 강돌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을 쌓을 당시 아래 강가에서 돌을 운반하여 석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화리산성

1 위치

서화리 산성(당봉산성)은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98번지의 당봉산 (해발 50m)에 위치하며 둘레는 160m 내외이다.

이 산성에 가려면 우선 인제군청을 지나서 44번 국도를 따라가다가 원통에서 453번 지방도로로 좌회전 한다. 453번 도로를 따라 가면서 원통의 칠성고



서화리 산성 위치도

개, 월학리의 정고개, 천도리의 비륵고개를 넘으면 서화리에 들어선다. 당봉산성은 순국장병 충혼비가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산성의 서쪽으로는 서성초등학교가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서화천과 인북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위치하며 이곳에서 서화교가 있다.

2 구조

서화 산성은 1954년에 폭설로 참사 당한 젊은 장병을 위한 순국장병 충혼비를 세우면서 평탄작업을 했기 때문에 산 정상의 모습이 변형되었다. 동남쪽으로는 차량이 통행 할 수 있는 도로가 나있다. 동벽은 도로와 연해있으며 서벽은 축성 시 사용했을 돌들이 붕괴된 채로 흩어져 있다. 남벽은 정상으로 오르는 계단이 위치하며 계단 우측으로 차량 통행로가 나있다. 북벽은 수직에 가까우며 면석으로 축대를 쌓은 흔적이 있다. 면석의 크기는 74×21cm, 48×39cm, 36×28cm이다.

남벽과 동벽 경사면에서는 기와편과 옹기편 등이 많이 수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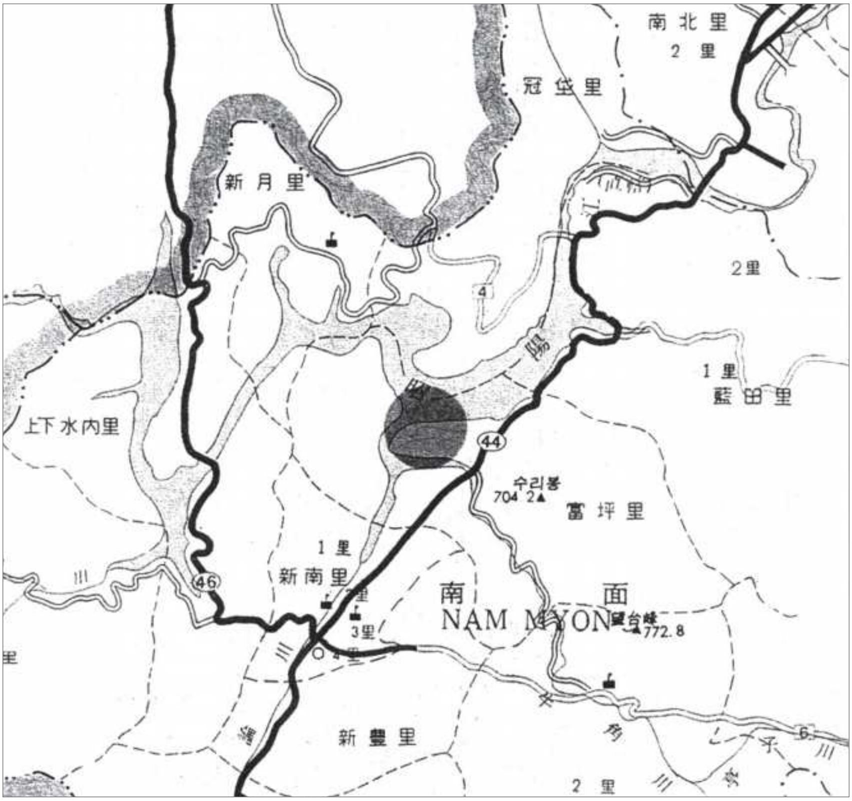
당봉산의 의미는 당집이 있는 봉우리라는 뜻으로 원래는 뾰족하였으나 1956년에 충혼비를 건립하면서 평탄작업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당집은 일제시대까지 현존하였고 미신 타파 정책에 의거하여 당집이 파괴되었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성곽의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서화리는 한국전쟁 이전에 서화면의 중심지였다. 당봉산 우측에는 서화중학교 좌측으로는 서화초등학교 전면으로는 면사무소와 경찰서가 위치하였다. 그러나 휴전협정 이후 면사무소와 경찰서, 서화초등학교가 천도리로 이전하면서 천도리가 서화면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인북촌과 서화천이 합류하고 또 양구와 향로봉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었으며 이 도로와 만나는 인제도로가 바로 당봉산과 현재의 서성초등학교 사이로 나있었다. 따라서 당봉산의 지리적 중요성을 이러한 주변환경과 비교해보면 쉽사리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보다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성재성 成在城

1 위치

성재성은 인제군 남면 부평리 성재(어촌마을)에 위치하며 둘레는 960m이다. 예전에는 삼팔교를 건너면서 부평(일명 모르박)리로 가는 바로 도로위 얕은 산이 되며 지금은 44번 도로가 성재위로 4차선으로 나있다. 남면에서는 부평초등학교를 지나 약 5분정도의 거리로써 좌측에 있으며 마을은 성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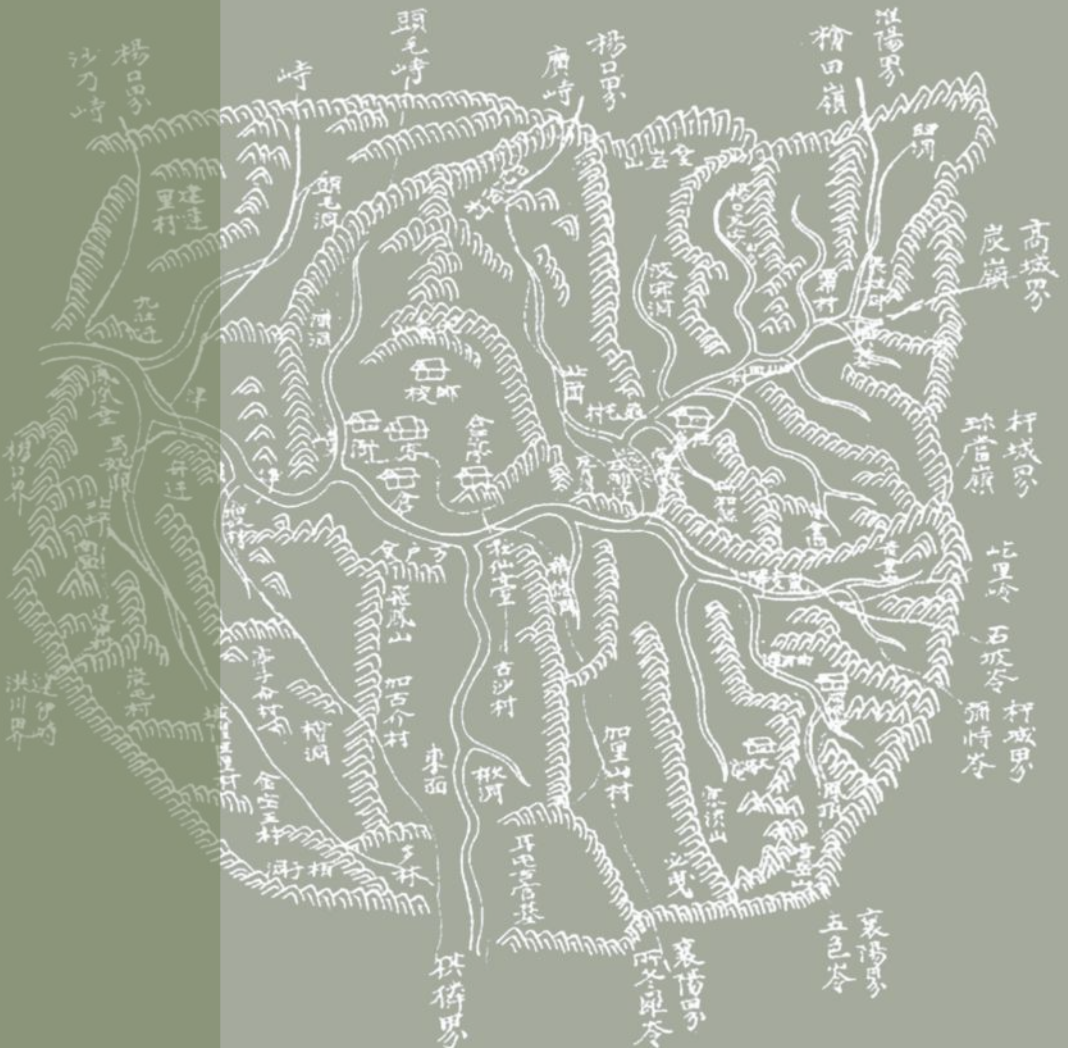


성재성 위치도

2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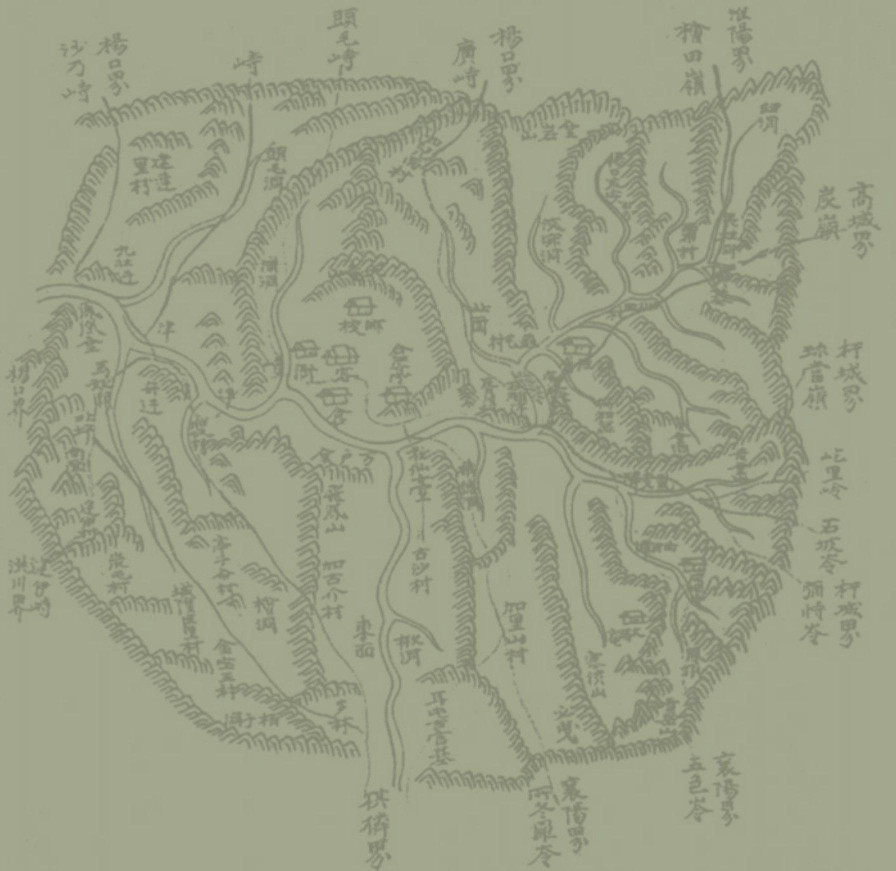
성재성은 삼각형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동벽이 163m, 서북벽이 47m, 남벽이 326m로써 총 둘레가 960m이다. 남벽은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에 연해 있으며 서북벽은 단애를 이루고 있다. 동벽은 "게쎄마니의 집"이라는 푯말을 따라 올라가면 된다. 성내부는 마을과 함께 경작지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게쎄마니의 집"이라는 종교시설이 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세운 기념비가 서있다. 추정 남문지 서쪽편의 붕괴 지역과 동벽 일부에서 성벽의 일부를 발견 할 수 있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성의 흔적을 쉽게 볼 수 없다.

제3장
인제군의 지명



1

우리나라의 지명



가. 지명조사의 연혁

언제부터 지명을 사용해 왔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삼국 이전에는 '연대국도불가고'라는 금도에 따라서 그 이후만을 말할 수 있겠다. 이것은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의 문화를 말살하기 위하여 취한 정책이라고 본다.

삼국시대의 지명은 우리말에 한자를 빌어서 사독이나 향가식 문자에 나타나 있었다. 고구려의 달기성현(고양), 백제의 두급오현(연기), 신라의 갑화량속현(기장) 등으로 붙여졌던 것인데 경덕왕 때에는 모든 지명을 한자어로 바꾸어 버렸다.

고려시대에 다시 한 번 지명이 크게 바뀌었고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지리지가 간행되었는데 여기에 새 지명이 수록되었다.

근세조선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가 간행되었는데 이때 수록된 지명은 8,129개였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대동지지에는 대체로 지명이 2만개 정도가 수록되어 있으나 19세기말 일본이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간행한 한국의 지형도에는 무려 180만개의 지명이 기입되었으며, 일본인들의 사용에 편리한 지명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해방 후 한자교육폐지에 따라 지명의 혼용, 오용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지명 혼란은 드디어 군사면에까지 의외의 혼란을 가져와서 지도상의 지명과 현지음이 달라서 작전상 차질이 막심하였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산하에 지리연구소와 중앙지명제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여 1957년 8월 23일에는 지리연구소와 중앙지명제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58년 5월 29일에 처음으로 26명의 위원으로 된 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시도, 시군, 읍면에도 지명제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명은 남한에만도 124,198개에 달한다.

나. 지명의 특징

지명은 대부분이 조상들의 생활 주변에서 그 지역의 땅 모양, 위치, 색상, 기후, 산물, 교통 관계 등에서 유래되었으며 우리나라 지명의 특징은 순수한 우리말로 명명된 것이 많은 것이라 하겠다. 또 산, 계곡, 내, 돌, 암석, 물과 같은 자연에 대한 지명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과 불교와 오륜에 관계되는 지명이 많은 점 그리고 잦은 지명변경 등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다. 지명의 실례

1) 산지와 평야 지명

가) 산지 지명: 주로 山, 峰, 岳(嶽) 등을 붙여 명명하거나 德, 岩, 嶝, 壇, 項, 洞, 坪, 堂 등을 사용한 독특한 지명도 있다.

- 德: 큰 산이라는 뜻으로 平頂峯에 잘 붙는다. 덕산, 덕적, 운이덕, 봉덕동 등
- 岩: 적암동, 백암, 용암, 장암
- 嶝: 산등이란 뜻이 있으며 낮은 등산에 붙여진다.
- 坮, 臺: 臺는 거암이나 산정상에 잘 붙여지고 坮는 古字이다. 구선대, 칠읍대, 장사대, 만경대
- 壇: 高位平壇面에 가끔씩 붙여준다. 중앙단
- 더미, 퇴미(退眉): 산더미, 무덤과 같이 흙이 쌓인 상태인 더미(덤), 퇴미 등의 지명도 각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 洞: 고을, 시내의 뜻으로 쓰이나 산정의 지명에도 쓰인다. 호동, 송거동, 서호동, 연화동, 백운동, 백자동, 직동, 고석동, 둔덕동
- 坪: 평야, 고원을 뜻하나 고원에 형성된 평단면에 붙여지는 경우도 많다. 율평리, 장평, 맹월평, 아평, 마평동
- 堂: 집과 같이 높은 땅을 뜻하는데 산정에 많이 붙여진 지명이다. 성황당(성황곡)

나) 지질 지명: 흙이나 색상을 따서 붙여진 것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화강암, 석영 등이 많이 분포하므로 각지에 백색의 암석이나 토양이 많아 흰것과 밝음에 연유하는 지명이 많다.

다) 침식지형 지명: 하천의 상류하구에는 구공이 생기는데 이 구멍을 탕(?)이라 불렀고, 내설악의 용탕의 구멍 모습을 잘 표현하는 알맞은 지명이다.

라) 유적지형 지명: 평, 도, 주 등이 많이 붙여진다.

- 坪: 이평리, 소일평
- 島州: 삼각주에는 도와 주 등의 지명이 많이 사용되나 우리 관내에는 없다.

2) 하천 지명

가) 유로, 하천 지명: 물길을 따라 상류냐, 하류냐, 또 남쪽을 앞이라 하여 상, 하, 전자 등을 사용하는 강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지명이 있고, 수원을 나타내는 源, 期, 注 등을 사용하는 지명도 찾아 볼 수 있다.

나) 수치 지명: 물맛에 따라 甘(달다), 達川, 丹月 등을 넣어 지명을 붙였다. 여기서 달, 단, 월 등은 실제 맛과는 무관한 글자들이지만 사독식 지명이라 하겠다. 이 외에도 수량에 따라 豊, 餘, 海 등을 사용하기도 하며 수해와 관련하여 붙여진 이름도 눈에 띈다.

다) 합류 지명: 하천의 합류점은 교통, 상역에 편하므로 시장, 교통이 생기기 쉬운 곳이어서 合, 雨, 口 등의 지명이 많다. 합강리는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류된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라) 곡류 지명: 曲流를 나타내는 지명으로 曲, 回, 石(돌다의 뜻)과 류로의 형태를 나타내는 弓, 乙, 之, 字가 많이 쓰인다.

- 曲: 곡류라는 용어를 제정한 것은 전국에 곡지명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서화면의 수곡리는 강이 심한 곡류를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回: 물이 '돈다' 하여 잘 쓰여지는 이름 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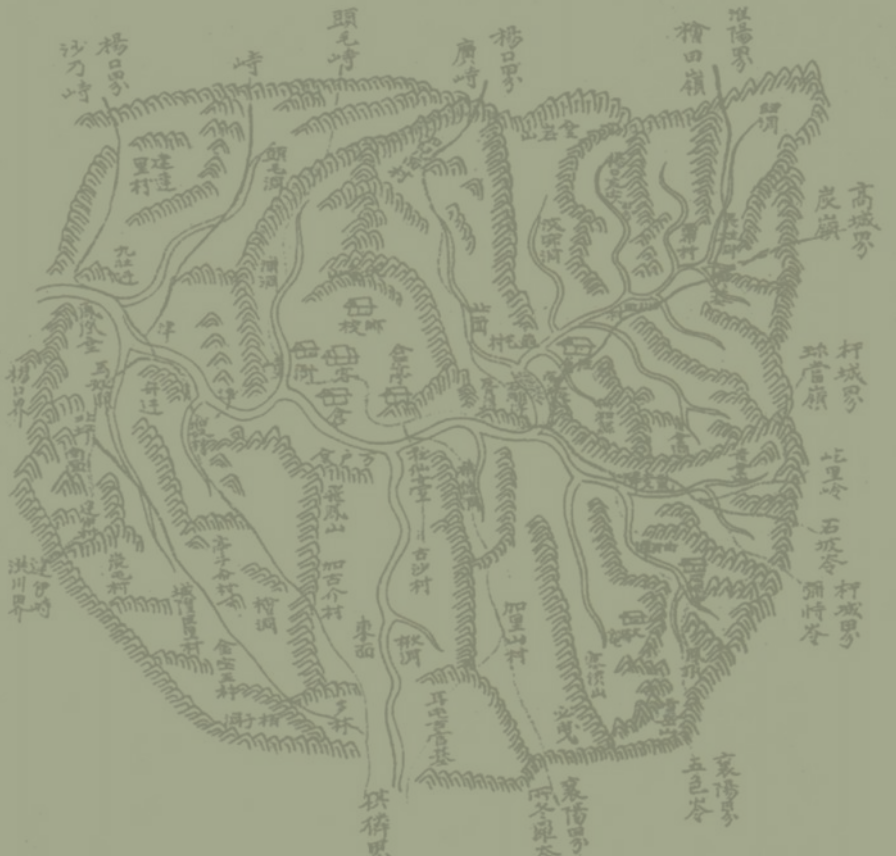
3) 온천과 온정 지명

말 그대로 泉과 井이 소재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우리 관내에는 유일하게 북면에 溫井이 있다고 〈한국지명총람〉에 기록되어 있으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 오색온천과 지층대(해발 693m)가 같은 쇠발골일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이다.

이 외에도 해안 지명이 있으나 우리 관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2

인제군 지명의 변천과정



가. 지명

지명은 땅에 붙여진 이름이다. 인간은 생활의 편리함을 얻기 위해 자연적 환경이나 지형의 특색 또는 당시의 산업이나 사회제도 등을 반영해 땅에 이름을 붙인다.

▶ 우리나라는 벼농사문화권에 속해 천체, 기상과 관련된 지명이나 산, 천, 해 평야 등과 같이 지형을 나타내는 지명이 많다. 천체, 기상과 관계되는 지명으로 양지, 음지, 월일, 칠성 등이 있다. 토지, 세제, 경계, 군사, 행정지명도 있다. 토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정전(井田), 공세(貢稅), 방축(防築) 등의 지명이 있고 조세미를 운반하던 곳에는 창(倉) 지명이 많다. 지방행정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역에는 특히 조선시대에 지계, 지경 등이 쓰였다. 군 주둔 지역에는 진, 보, 둔전 등의 이름이 붙여졌다. 역제도가 발달했던 지역에서는 역촌, 사리원, 조치원, 구파발 등과 같이 역, 원, 파발 등이 붙여있다. 벽란도, 노량진은 나루터가 있었던 교통지역의 지명이다. 관아 지명으로는 세종로가 유명하다. 태릉, 홍릉, 등의 능지명도 있다.

▶ 강과 물에 대한 지명도 많아서 하천의 위치에 따라 수분, 증강, 하단, 하구, 하동, 강서, 천변 등의 지명이 있고 하천이 교류되는 곳에는 합수, 교하, 삼강, 수구, 어구 등이 붙은 지명이 있다.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명이 변경되기도 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한성을 경성으로 바꾸는 등 지명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했으나 광복 후 다시 경성을 서울로 고쳤다.

▶ 일제가 마음대로 고쳤거나 어감이 좋지 않은 도내 18개를 비롯한 104개의 행정구역 이름이 올 연말까지 일제히 정비된다고 한다.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요청이 점점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는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나. 인제군 옛 지명의 일부를 찾아서

1) 인제라고 부르는 첫 번째 설

기룡산을 진산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년전 나라 임금이 국난을 피하기 위하여 친히 이곳에 내려와 있었다고 한다. 이때 왕께서는 나라의 정세를 알아보려고 하고 한양으로 신하를 보냈으나 떠난 신하들은 한결같이 돌아오지 않고 종무소식이었다. 견디다 못한 왕은 마지막으로 심복심하를 보내면서 “너도 인제(이제)가면 언제 돌아올꼬”하고 안타까워했다하여 이때부터 인제라는 유래로 전하는 말이 있다. 인제의 지형은 고구려때 부르던 저족(猪足), 오사회(烏斯回) 신라때의 희제(?蹄) 고려때부터 불러오고 있는 현재의 이름 인제에서 나타나듯 ‘돼지발’이나 짐승의 발굽형에 비유한 지형에서 지명을 따온 듯 하다.

2) 인제라고 부르는 두 번째 설(재경향토인 : 박석균)

「麟蹄」글자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기린의 발굽이다. 뜻을 새긴다면 기린이 남겨놓은 발자국이라는 뜻이 될 것이니 얼마나 좁고 척박하다는 뜻일까? 남면에서 태어난 내가 처음 군축령을 넘어서 인제읍으로 들어갈 때 내려다보이는 읍내를 보면서 기린의 발자국이라는 이미지를 찾아 보려고 애쓰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나 그런 좁고 척박하다는 이미지를 찾는데 실패한 나는 인제란 낱말이 가진 의미가 「발자국」이란 뜻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한때 세속 사람들이 「인제가면 언제오나 원통해서 못살겠네」 운운했던 것은 땅이름의 뜻조차 모르는 일자무식의 상것들이 지껄이는 소리라 아예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소리이다. 「麟」자는 기린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기린면이 있다. 그런데 이 기린은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라 용, 거북, 봉황과 함께 4령이라고 하는 귀하고 성스럽고 상서로운 상상의 동물인 것이다. 동물원에서 보는 목이 긴 아프리카산 기린은 원래 기린과에 속한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동양에서 말하는 기린은 아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기린은 사슴의 몸매, 소의 꼬리, 이리의 이마, 발굽을 가지며 머리에는 살로 된 뿔이 하나 나있고 털은 5색이

고 배의 털은 누런빛을 가졌다고 하는 것으로써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인 것이다. 이 기린은 생풀을 밟지 않는 어진 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기린이 발자국을 남긴 곳이 인제라면 그 땅은 그만큼 신비롭고 깨끗하며 성스러운 곳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건이고개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와 인제군 남면 어론리의 군계 겸 면계가 되는 어론리 입구의 가파르지 않은 고갯길이 '거니고개'다. 거니고개란 이름은 조선조 때 건이원(建伊院)이란 원집이 있었기 때문인데 건이치, 건이현이라 한자로 적고 그리 부르기도 한다. 어론에서 장남리 '원거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다. 고개가 낮아 걸어 다니던 시절 '놀기 좋기는 합강정, 넘기 좋기는 거니고개'란 민요사설이 전해오고 있다.(지금 건이고개는 4차선 도로확장공사로 휴게소 앞산을 깎아내려 넓히고 낮추어 저행을 하고 있다.) 건이고개 아래 골짜기에 있던 마을을 거니촌, 거니골이라 부른다.

숯둔골 예전 어론 2리로써 지금은 인가가 없다

숯둔, 숯둔골, 화탄리(化炭里)라는 명칭과 더불어 불리우고 있는 남면 어론 2리의 총 면적은 342ha 이중 밭 78.7ha, 논 20.3ha로 7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1987년도의 조사한 자료 내용으로 당시 73가구에 마을 인구가 총 296명이었으며 농가 70가구에 284명, 비농가 3가구 12명이 살고 있었던 농촌이었다. 이 숯둔골은 약 300여년 전에 함씨, 지씨, 박씨 성을 가진 세 가구가 맨 처음 이곳에 정착하여 숯을 구워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다 한다. 이에 따라 함지박골이라고도 불리었다 하며 또한 이곳에서 벼농사도 지었는데 벼가 잘 되어 벼화자와 숯탄자를 합쳐 화탄이라 불리워졌다 한다. 일제시대때 숯둔골의 참숯은 전국 최상품으로 소문이 났었다고 일러 주지만 지금의 숯둔골은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마을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약 1km지점(지금 실버타운이 있는 지점)에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가면 작은 비탈 밭이 있었는데 밭

흙이 까맣고 아주 섬세한 숯뎅이 가루뭉치가 있어 옛날을 고증해 주었다.

(지난 1987년 숯굽기 민속사를 발굴하고 인제읍노인회 농악대와 화탄리 주민들로 구성된 출연진으로 화탄분교에서 숯둔골 숯굽기놀이 민속을 박해순(전문화원장)씨 소리지도와 이만철(전문화원사무국장)의 연출 지도로 약 20일정도 연습 후 홍천에서 개최되었던 제5회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같은 해 가을 안양에서 있었던 전국 민속경연대회에서도 종합 우수상(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선녀와 내려와 목욕한 오계탕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오계탕(五溪蕩)'5개의 탕이 잇달아 있어 생긴 이름인데 어론에서 화탄으로 가는 물가가 된다. 오계탕 옆에 있는 빗적바위는 선녀가 목욕을 한 후에 머리를 빗고 참빗을 밀어 넣어 숨겨 두었다는 바위이다. 화탄리가 어론리에 행정구역상 병합되었던 때는 1916년 행정구역이 폐합때라고 한다. 어론리 입구 국도변에 있는 송도령은 산악미가 빼어난 남성적인 산으로 해발 473m의 수려한 경관을 뽐낸다. 이 명산이 송도령이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옛날 이 마을에 살던 가난한 초부의 이름에서 연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했던 송도령은 땔감나무와 사물, 석이버섯 등 산채를 채취하며 생활해 왔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산마루에 줄을 매놓고 줄을 타며 석이를 따다가 지네가 줄을 끊는 바람에 줄에서 떨어져 애석하게 죽고 말았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효자였던 그의 이름을 따서 산 이름을 송도령이라 했다는 유래이다. 이 산의 정상에는 무당이 옷을 펼친 모습의 무당골이 있고 바위 절벽에는 마을의 태평을 기원하던 산제굴이 있다. 청명한 날 이 산꼭대기에 오르면 내설악의 산봉들과 소양호까지 눈 안에 들어와 찌든 마음을 화끈하게 풀어주는 등산코스가 되기도 한다. 어론 북쪽의 '담울이'또는 다무리(多物理) 마을은 집집마다 돌로 울타리 담을 쌓았다고 붙여진 마을 이름이라 하는데 마을 일대가 돌이 많기도 하다. 어론에서 임진왜란때 군사들이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 진을 쳤다는 갑둔, 갑둔리, 갈고개와 수구네미 고개를

넘으면 상남면 김부리에 이르게 된다. 갑둔리, 갈고개는 원갑둔 동남쪽 서낭당이 있던 서낭거리에서 수구네미에 이르는 고개이며 수구네미는 김부리로 넘는 고개여서 김부고개라 일컫기도 한다.(다물리는 ‘다무리’로 어론 북쪽에 있는 마을로 집집마다 돌을 쌓아 울타리를 했었다고 하나 지금은 돌로 쌓은 울타리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위치에 따라 아랫다무리, 웃다무미, 새다무리의 세 마을로 나뉜다라고 지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고구려와 관련된 지명으로 ‘다물(多物)의 뜻은 실지(失地)를 회복한다.’즉 잃었던 땅을 다시 찾는다라는 뜻으로 지명학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비록 다무리라는 지명이 우리 고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똑같은 지명이 많다. 또한 서울에서는 다물연구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행정리로는 인제군 남면 어론리로써 상남면을 가는 입구를 말한다.)

갑둔리 甲屯里

한문자로 갑옷갑, 진칠둔자로써 갑옷을 입고 진을 치다라고 뜻이 된다. 그러므로 이곳에 무리를 지은 병영이 주둔한 사실에 연유하여 갑둔이란 지명이 붙게 되었다는 뜻을 지닌 가운데 한국지명총람 인제편에는 본래 남면 지역으로 임진왜란 때 군사들이 진을 쳤다하여 갑둔이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소치리와 김부동의 일부를 병합하여 갑둔리라 하였으며 행정리는 2개리라고 되어 있다. 1987년도 당시 갑둔초등학교 이태두 선생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갑둔이라 하면 원갑둔, 서낭거리를 포함하여 수거재 서쪽일대를 말한다. 갑둔은 홍천, 인제간 국도에서 10km 옛날 역이 있던 부평에서 16km, 인제에서 30km 떨어져 있고 해발 500~700m의 산간고지로 교통이 불편한 편이긴 하나 땅이 기름지고 산채류가 풍부하여 일제때만 하더라도 약 300호 이상 거주했었다고 한다. 갑둔의 옛 이름은 알 수 없으나 한자로 ‘갑(甲)’자는 ‘갑옷’또는 으뜸의 뜻이 있으며 ‘둔(屯)’자는 ‘둔전’의 뜻이다. 둔전이란 옛날에 군사들이 식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사를 짓던 땅이다. 따라서 갑옷은 군사와 관련이 있고 으뜸 또는

제일의 뜻으로 볼 때 그 옛날에 많은 군사들이 이곳에 주둔하고 훈련하면서 군량을 해결하는 제일 중요한 땅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지역의 지명 유래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추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이 지역은 고대국가인 고구려와 신라의 지역으로 자주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고구려 또는 신라의 군사들에 의해 생겨난 지명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김부리는 이름에 대한 유래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작고 교통이 불편한 마을에 장기간 군사가 주둔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둘째,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신라에서는 왕권다툼이 잦고 부패하자 계승에서 실패한 많은 왕족과 그를 따르던 귀족들이 경주를 떠나 각기 여러 곳으로 흩어졌으며 이들은 한 고을을 차지하고 지방호족이 되어 중앙정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더불어 규합하고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던 일이 많았다. 그러므로 신라의 왕손인 김부라는 사람이 신라의 어지러운 사회를 등지고 현 김부리에 들어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함께 김부리를 근거지로 인근 고을에 세력을 잡고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왕의 칭호를 받았을지 모른다. 셋째,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 태조 왕건에게 바침으로써 신라 천년의 사직이 싸워보지도 않고 없어지게 되자 이를 반대하던 세력이 있었다. 이때 태자는 한을 머금고 삼베옷을 입고 금강산으로 들어가 일생을 마쳤다하며 둘째왕자는 해인으로 가버렸다. 그러나 문헌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왕자나 왕손이 한 무리를 이끌고 김부리에 들어와 이곳을 근거로 군사를 양성하고 세력을 다져가며 고려에 항거했을 가능성도 있다. 넷째. 마의태자가 문헌상으로는 금강산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그 행방이 실제로는 위장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은 잃은 나라를 다시 찾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마의 태자를 왕으로 모시면서 김부리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근거로는 김부리에 대왕각이 세 곳에 있었다하는데 그 중 상단지 골에 있던 대왕각에는 경순대왕일자지신이라는 위패와 많은 호우들이 있었다고 한다. 다섯째, 경순왕은 40세에 고려에 항복하고 고려 태자보다 상위직인 정승의 직위를 받고 43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한다. 이때 권력과 재력이 있

으면 많은 처첩도 있었을 것이며 그 결과 많은 자손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 세상을 등지고 살면서 선대의 왕손임을 내세워 행세하였을지도 모르다. 결론적으로 위 다섯가지 가정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문헌상에 나타나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신라 왕손의 일부무리가 이 지역에 들어와 김부라는 사람을 최고 통치자로 옹립하여 군사를 양성하고 중앙통치를 배제하며 김부리를 중심으로 점차 세력을 넓혀 양구지역까지 진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이 갑둔 곳곳에서 불에 녹은 돌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그 옛날에 쇠를 녹여 병기나 농기구를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확실한 것은 이곳에 이미 1000여년 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김부탑의 명문에서 알 수 있고 그 후로도 이곳의 지형적 여건은 유배지나 도피, 은신자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다. 이는 여러 곳에 발견되는 옛 무덤의 묘비에 '대부'의 직급이 적힌 비문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부(金傅)는 경순왕의 이름

'수구네미'란 고개이름은 김부대왕(김부대왕 '술구(수구)'를 타고 이 고개를 넘었다고하여 유래된 것인데 '수레넘어'의 방언이 굳어진 이름이다. '김부리'란 지명도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김부대왕(마의태자의 아버지이자 신라 56대 마지막 왕이 있던 경순왕의 시호를 올리기 전 칭호는 '김부대왕'이었다고 함)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었으므로 지명이 됐다고 한다. 경순왕은 성은 김, 이름은 부로 김부(金傅)는 견훤에 의하여 왕위에 올랐다. 훗날 왕건의 딸 낙랑공주를 아내로 맞아 경주 사심관에 임명됐고 개성에서 여생을 보냈다. 마의태자는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자부왕의 처사에 한을 품고 일천년 사직을 쉽사리 내놓을 수 없다며 비빈과 수병을 거느리고 개골산에서 생을 마치기 전 김부리에 머물렀었으므로 '김보왕촌(金寶王村), 김보동(金寶洞)'이라고 불렀졌다고 한다. 이때 김부왕을 섬기던 맹장군이 신라를 되찾기 위해 의병을 모아 훈련을 시키고 군량미를 모아 쌓았던 군량고가 있었던 곳이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이다.

옥터골

옥터란 옛날에 죄인을 가두어 두었던 감옥이 있던 곳이라는 뜻이다. 지형적으로 마을에서 격리되어 있고 감시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감옥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통치자가 권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를 추종하는 강력한 집단 세력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이조의 왕정세자에 의한 죄인들은 아니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이 지역의 관성으로부터 교통이나 통신이 매우 불편한 오지이므로 행정적 체제 감시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일반 유배지라면 감옥에 가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옥터골에 있을 감옥은 갑둔리의 김부리에 웅거했던 통치자와 그 집단이 그 체제의 질서유지를 위해 설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옥이 설치되었던 곳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명유래로 볼 때 옥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항병골

항병골은 김부리 남방에 있는데 항병이란 군사들이 싸움에서 싸움의 뜻을 버리고 항복한다는 뜻이다. 어떤 세력 간에 있었던 싸움이며 어느 편이 항복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김부 통치체제와 관련된 것은 분명하다. 물론 고구려와 신라간의 접경지 내였던 이 지역에서 분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첩첩산중인 이 지역이 큰 싸움터였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전쟁이 있어도 소규모의 전쟁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면 김부 통치체제에 의한 싸움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믿어진다.

수거너머

서낭거리와 김부리 사이에 큰 고개가 있다. 오늘날은 자동차 길이 잘 닦여 있는데 옛날에도 이곳으로 통하는 고갯길이 있었던 모양이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김부대왕이 이 고개를 넘어 다녔는데 수레를 타고 넘다가 산이 하도 험하고 칡넝쿨이 많아 수레를 내버려 두고 고개만 걸어서 넘었던 모양이다. 수레 두 대를 만들어 고개 양쪽에 두고 고개만 걸어서 넘어가 평지에서

수레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수레를 남겨두었던 고개 양쪽을 모두 '수거넘어' 라고 부른다. 이 권력자는 칡넝쿨 때문에 다니기 불편하다 하여 부하들에게 칡넝쿨을 모두 없애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갑둔리와 김부리 일대에 칡넝쿨이 매우 드물고 있어도 무성하지 못하다고 한다.

맹개골

맹개골이란 만가란 말의 변한 말로 이 뜻은 우리나라 구전 민요의 하나라서 상여를 메고 갈 때나 죽은 사람을 매장 할 때 혹은 다지면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의 한이다. 이러한 지명의 유래는 고려 초기 이곳에서 살던 사람이 죽으면 맹개골 부근에 묻었는데 이 곳에서 만가가 자주 불렀을 것이다. 얼마전에도 이곳에 상여를 보관하는 화채간이 있었고 이 부근에 여러 기의 고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만가골이란 말이 변해서 매개골이 된 듯하다. 또 하나의 가정은 이 지역에서 맹장군이 신라의 재건을 꿈꾸며 군사를 훈련시켰던 전설이 있다. 따라서 맹장군이나 맹장군의 자손들이 살던 집이 있었던 곳이므로 맹가골로 불러졌고 이 말이 후세에 변해서 맹개골로 되었을지도 모른다.

서낭거리

서낭이란 옛날 사람들이 큰 나무에 신이 있다고 모셔두고 길을 지나가다가도 예를 표하고 지나가며 일년에 한 두번씩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동네에 흉한 일이 생기면 이곳에 와서 빌기도 하던 곳이다. 이 서낭은 예전의 갑둔초등학고 자리 운동장에서 서쪽에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 매우 큰 엄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나 그 밑둥의 크기가 열두사람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나무의 가지로 만든 뒤주를 이홍운씨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름이 1.2m나 되었다고 한다. 서낭 부근에는 일반적인 집이 없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부지에서 도기 파편들이 다수 발견되었던 것으로 보아 성황당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성황당에서 제사를 지낼라면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릇들이 많아 사용되었을 것이며 이것들의 깨어진 조각들도 볼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낭거리의 중심이 되는 길이 서낭 옆으로 나 있었다고 하는데 대개의 서낭은 길가나 고개마루에 있었다.

단지골 斷趾谷

단지골은 김부리 북쪽에 깊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다. 단지라는 뜻은 옛날에 죄인에게 형벌을 주는 방법의 하나인데 발 뒤꿈치를 자르는 벌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김부 통치체제에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던 곳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단죄란 말이 변화된 가능성도 있다.

옥쇄바위

김부리 단지골에 가면 옥쇄바위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다. 큰 바위에 넓적한 바위가 올려져 있는데 옛날에 왕이 이곳에다 옥쇄를 감추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맹창골

맹창골 역시 김부의 충실한 신하였던 맹장군과 관련되어 붙어진 지명으로 보인다. 즉 맹장군이 살던 집이 있던 곳일 것이다. 김부 왕궁이 있었다면 지형적으로 보아 왕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김부리 중심의 양지바른 곳으로 가까운 500m 정도의 거리에 맹창골이 있다.

모루박

인제군 남면 부평리 서쪽 외딴곳에 있는 마을로 우외동, 우외령이라고도 한다라고 지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행정리로는 인제군 남면 부평리로써 수복 후 인가가 많았으며 도로변을 따라 상가도 있었다. 또한 당시에는 이곳으로 홍천방향과 반대로 양구방면 그리고 인제와 속초방면으로 통행하는 도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었으며 관대리 미군부대와 군단이 주둔하였기에 제법

마을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 후 소양강댐의 수몰지역이 되면서 모두 이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모루박이라는 지명이 왜 따르게 되었는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금번 조사를 통하여 살펴본 즉 고구려때의 높은 지역 또는 산을 '달'이라고 했으며 그 후 '뫼'나 '모로'로 변천하였다고 지명 학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모루박은 높은 언덕이 있는 경사진 지역으로 '모루박'으로 변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구만동

소양강댐이 생기기 전 남면 관대리와 부평리를 잇는 바위에 삼팔교 나무다리에 놓여 있었으며 이 다리를 건너 부평리쪽 검문소를 지나 북서쪽 방향에 구만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소양강댐으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주하였다. 예전에는 여러 집이 살고 있었으며 마을 앞 강가 모래언덕에 미루나무가 많았었다. 또한 음양리 북쪽에 있는 구만동은 소양강 굽이 안쪽이 된다. 구만동 그리고 구미동이라는 지명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가 있으며 대개 이 지명들은 강물 또는 냇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는 곳을 명명하며 물이 흐르는 굽 안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굽 안이가 구만이로 불러진 뜻이 된다. 지금은 물이 찰 때는 물바다가 되고 물이 빠지면 허허 벌판이다.

부평리

집안에 보화가 가득차고 좋은 술병이 있는 집은 부잣집이라는 데서 '부자' 나아가'넉넉하다'의 뜻이 있는 부(富)자와 흙 토(土)와 평평할 평(平)을 합친 자로 땅의 평평한 곳의 면적을 잰다는데서 단위인 '평(坪)'을 뜻하는 자로써 부자동네를 말한다. 부평리는 본래 남면 지역으로 북쪽들에 있으므로 북평 또는 부평이라고도 하였는데 1716년 행정구역 개변에 따라 청구동, 구만동, 음양동, 도수암, 모르박을 병합하여 부평리라고 한다.(음양동은 지금 성재마을과 건너편 산 밑에 예전에 있던 마을을 합하여 음양동이라고 하였으며 역시 여러집이 있었다.)

마루 떼둔지

부평리의 붕매동(청구동 : 공동묘지임)밑자락에 떼둔지가 있으며 지금 부평리 선착장에서 동북쪽 위쪽 방향이 된다. 일명 청구동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곳은 관대(관터가 있던 곳)리 건너편으로 통하는 나루터(일명 마노진)였다. 그 옛날 나루터에 선바위라고 있었는데 선바위에는 쇠말뚝이 박혀 있었다고 한다. 이 떼둔지에는 항상 새파란 떼기 이루어진 언덕진 곳이라고 하여 푸를청(靑)자와 언덕구(丘)자를 병합하여 청구동이라고 불리어졌다. 지금 입구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앞강은 소양강 상류로써 항상 물이 많이 차 있어 어촌계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 생계에 보탬을 이어가고 있으며 겨울에는 얼음바다를 이루어 그 위에서 빙어 축제가 해마다 성대하게 열리고 있다.

관대리 관터

관대리는 그 옛날 관가가 있던 터였기 때문에 관대리로 부르게 되었으며 마노역(馬奴驛)이란 역이 있었다. 이 역에는 기마가 2필, 복마가 4필, 관리가 5평, 노비가 15명, 비녀가 8명이 있었다고 한다. 6.25사변 후 수복되면서 군단이 주둔하고 미군부대가 주둔하였다. 또한 홍천방향과 양구방향 그리고 인제방향으로 가는 삼갈래에 버스부가 있었고 신남쪽으로 삼팔교란 나무로 된 다리가 있었다. 양구로 가는 길에는 대흥리가 나오고 그 위에 두무동이 있었으며 두무동 고개를 중심으로 양구군과 경계를 이루어졌었다. 관대리 1916년 행정구역 개변에 따라 개운동, 대흥리를 병합하여 관대라 하였다.

대흥리

관대리에서 외따로 떨어진 마을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이 마을에 인색하기 짝이 없는 김대홍이란 사람이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주승이 찾아와 시주를 청하니 외양간을 치던 김대홍은 “무엇 줄 것이 있어야지. 쇠똥이나 가져가게”하며 쇠똥을 퍼주었다. 이를 본 며느리가 “아버님 개도 안 먹는 것을 주면 죄스럽습니다. 등겨가 있으니 한 바가지 주시지요.”

하는 지라 그도 아까워하면서 허락을 하자, 며느리는 큰 바가지에 쌀을 담고 위에 등겨를 덮어 시아버지의 눈을 속여 시주를 했다. 시주승은 이에 감탄하여 "댁에 화가 있을 것이니 자녀가 있거든 급히 데리고 나를 따르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니 시각을 지체 마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며느리는 황망히 애를 업고 뒤를 따르자 시주승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뇌성벽락이 치며 폭우가 쏟아져 대홍수가 나자 며느리는 집이 걱정되어 돌아다보니 집은 물에 잠겨 자취를 감추었고 시주승의 말을 어긴 탓인지 며느리도 주저앉은 채 돌이 되었다고 한다. 전설이라 치더라도 이 마을에는 얼마 전까지도 김대홍이 살았다는 집이 있던 터를 장자귀미라 부르고 있고 마을 입구에 작은 고개를 부소고개라 하는데 부잣집으로 가는 고개라 하고 동리명도 대홍리라고 했다 한다.

쪽밭골

안제군 남면 남전 2리로써 작은 밭들이 많이 있다고 하여 쪽밭골이라고 불리어졌다고 한다. 약수물이 있는 1969년 6월15일 함경북도 명천출신인 이태근에 의하여 발전된 약수로 국도변에서 약 1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군 내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신남방향으로 조금 가다 새로 놓인 남전교 밑에 고인돌이 1기가 있다. 수복 후 이 골짜기 주변에 통신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군인을 위주로 술집과 상가도 형성되어 있었다. 동쪽으로는 원대리로 가는 도로가 포장을 잘 되어 있어 차량이 그런대로 많이 다니고 있다.

가로리 가네

인제군 남면 남전 2리로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가로리(加路里)와 반장리(半場里)를 병합하여 남전 2리로 하고 있다. 이 남전리는 일제시대에 명명되었던 이름으로 이제는 다시 고쳐야 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가로리는 원래 '가네'로 불렀으며 '가넷'으로도 변전하여 불렀다. 수복 후 가로리에

는 하교대, 전차부대, 운전교육대 등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음 과내리 군단과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상가와 술집, 식당 운영이 잘 되었다. 한편 장공장, 제재소, 양조장 등 큼직한 생산공장이 있었고 군인가족이 많아 마을 경기가 좋았던 때도 있었다. 1973년도 소양댐이 준공되면서 주민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군축령

원래는 '가넷고개'라고 하였는데 수복 후 1958년 군부대에서 산마루를 낮추고 도로를 넓히면서 군인이 닦았다하여 군축령이라 하였으며 정상에 돌표석에다 군축령이라고 새겨 놓았다. 지금은 터널을 뚫어 차량이 다니고 잇으며 군축령은 이용하지 않고 있다. 군축령 산을 아미산이라고도 하고 아미산 정상에는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미산이 매우 아름다워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심술로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어 보기 싫게 하였다고 하고 또한 사람이 죽으면 이곳에 많이 묻었다고 한다.

경로정

군축령 정상을 약간 못 미쳐 좌측으로 약 500m를 들어가 낮은 산줄기 산등에 약 8평의 규모로 지붕은 기오, 기둥은 6개의 나무 기둥, 바닥은 목조 마루바닥으로 터를 잡아 건립되었다. 1958년 5월18일에 준공된 경로정은 다시 제3군단장이었던 오덕준 장군이 관내 노인회원들의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그 후 건물이 오래되어 1985년 인제군에서 시멘트 바닥이었던 것을 현재의 건물로 중수 하였다. 아울러 이곳은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인제읍 시가지를 넓게 볼 수 있으며 절벽 밑으로는 소양강 상류 물 줄기가 굽이굽이 돌아 흐르고 있어 한층 더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사계절 모두 관내 사람들은 물론 외지사람들도 많이 찾아 휴식을 취하며 절경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세인들은 이곳을 가리킬 때 경로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구미 砂丘尾

행정리로는 인제읍 남북 2리이며 자연명으로 사구미 또는 살귀미라고 부르고 있다. 위치로 남북 1리 강건너 귀퉁이의 후미진 곳에 깊숙이 떨어져 있으며 남향을 두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굽이굽이 흐르는 강이 있고 강 옆으로는 약간 경사진 모래가 쌓여있는 언덕으로 이루고 있다. 그래서 사구미라고 지명이 붙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예전에 이 앞 강가에서 사금을 채취하였으며 여기에 따라 사금을 채취하였기에 변전된 말이 사구미로 되었다고 하나 전자가 맞는 지명의 뜻이 된다고 생각된다.

검바리 금바리

인제읍 남북 2리로써 사구미(살구미)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데 일면 금바리라고도 부르며 옛날에 사금을 바리로 실어냈다고 하여 금바리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런데 한글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지명총람에는 검발리(劍發里)로도 되어 있는데 그 연유는 알 수가 없고 한문의 뜻을 살펴보면 무도를 만들었던 곳이거나 연마한 장소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이속에 들어오는 입구인 사구미에서 예전에 사금을 많이 채취하였던 지명으로 보아 금바리라는 지명이 옳은 것 같고 검발리는 금바리의 방언인 것 같다.

갯골

인제읍 남북리로 일명 포곡동(浦谷洞)이라고도 한다. 포곡동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물가 또는 갯가로 이루어진 골짜기라고 해서 갯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위치로는 남북리에서 서북쪽으로 있는 골짜기를 말하며 입구에는 얼음 냉골이라는 샘물이 있는데 무더운 여름에도 샘물이 차가워 냉골물이라고 불러오고 있으며 인제읍 소재지 사람들은 물론 이거니와 외지 사람들도 떠다 먹고 있다. 또한 갯골 막바지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예전에는 남북리 갯골 8반으로 행정구역상 되어 있고 남북리 초등학교의 분교로 조그마한 학교가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화전정리 정책으로 마을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어 학교도 폐지되었다. 수복 후 골짜기의 수림이 좋아 안막

끝에 골짜기에서는 숯을 굽는 가마가 많이 있었다. 또한 골짜기 안 정상은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일명 광치)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말등이라고 부르고 있다.

기룡산

인제읍의 진산으로 그 모습이 용이 엎드려 있는 것 같다하여 복용산이라 하였는데 군민들은 엎드려 있는 용보다 일어나 있는 용이 좋다하여 기룡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 바로 군청 뒤편 골짜기에서 수복 이후 상동리 지역 주민들이 해마다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산치성을 지냈고 지금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뒤편 산 골짜기에서도 합강리 주민들이 산치성을 지냈으나 1970년대 초에 와서 다 없어졌다. 19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등산로와 체력단련장을 만들어 놓아 지역 주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산책을 즐기며 등산과 함께 삼림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정상 헬기장 부근에는 행글라이드가 출발하기 좋게 만들어 놓아 모험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검은소

북면 원통리쪽에 내려오는 인북천과 기린면쪽에서 내려오는 내린천이 합강 합수머리에서 합쳐 다시 약 500m 더 흘러 내려와 깊은 소를 이루는데 이 깊은 소의 물빛이 검게 보인다하여 검은 소라고 불려지고 있다.

합강과 합강정

소양강 상류인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치는 곳이여서 합강이라고 한다. 합강 동쪽의 강가에 합강정이란 정자가 있었으나 6.25때 소실된 것을 1973년 재주수했다. 내린천을 암물, 인북천을 숫물로 하여 암물이 흐리면 홍수가 나고 반대편에서 흐르는 숫물이 맑으면 풍년이 든다고 한해 농사를 점쳐왔다는 유래가 있다. 합강정 앞에서 덕산리로 건너 다니던 나루가 합강배터이다. 이 배터는 기린면으로 가는 리빙스턴교가 놓임으로써 이용 가치를 잃었고

다시 리빙스턴교에 새 다리를 놓아 나루의 구실을 상실했다. 리빙스턴교는 6.25전란때 유엔군으로 참전 군단장이었던 리빙스턴이 적에게 포위되어 인제강을 건너지 못하고 전사하자 그의 유언에 따라 미국에 있던 부인이 사재를 들여 놓은 다리로 축조할 때 이 다리에 붉은 칠을 했으므로 붉은 다리라 부르기도 한다. 리빙스턴교를 바라보며 원통방향으로 가다보면 왼편으로 물안골로 드는 도로가 있다. 소열과 이평리 사이에 있는 이 골짜기는 물이 차고 깨끗해 피석객이 특히 많이 찾는다. 이곳에는 물안골 쉼터가 있다. 소열이는 합강리 북쪽 내린천 변의 들엺 마을이며 이평리는 소열이 북쪽 들엺 마을로 진흙이 많이 있다. 합강리의 두강이 합치는 사이에 형성된 버덩이 '된섬'버덩이다. 섬 양쪽으로 물이 흘러 저절로 섬처럼 되어 '된섬'이라 한다. 된섬 남쪽 비봉산위에 있는 만호대는 조선조 초엽 만호, 첨사가 머물던 터로 성을 쌓았던 자국이 남아 있다.

비석거리

합강 2리의 비석거리는 예전에 20여기의 선정, 송덕비 등이 서있었다. 여러해가 가는 동안 도로가 바뀌어지고 지형이 인위적으로 변하여 지금은 비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합강 1,2,3리 앞을 흐르는 내의 이름은 미륵천이라 했으며 홍진포는 이 일대에 있던 포구였다. 예전에 합강합수머리 물속에서 미륵을 건져 합강정 옆에 세워놓았다가 합강정중수로 산을 깎는 바람에 지금은 군청 안에 세워 놓았다. 지금 이 곳에는 번지점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름이면 관광객들이 몰려와 번지점프를 타며 즐기고 있다.

미륵천

합강의 옛 이름, 예전에 산판을 하던 박명천이라는 사람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내가 합강 물속에 빠져 있으니 건져 달라"고 하여 이상하게 여긴 박명천은 평소 잘 알고 지내온 헤엄을 잘 치는 김성천에게 꿈자리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건져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김성천이 부탁을 받고 물속 깊이 들

어가 보니 밝은 빛을 내는 돌기둥이 있기에 건져내어 주었다. 박명천은 돌기둥으로 미륵을 만들어 집을 짓고 모신 뒤로 모든 일이 잘 되어 큰 부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식을 못 낳는 부인이 정성으로 빌어 아들을 얻은 뒤로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그 후로부터 합수머리 미륵천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합수머리 합강은 예전에 뗏목을 엮어서 광나루로 출발하던 지점이다. 지금은 주위에 번지점프 시설과 낚시터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들며 즐기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합강정 중앙단

합강정 정자가 있는 옆에 중앙단 제단이 있었다. 이곳은 강원도의 중심지로 이조시대에 가뭄이 들거나 질병이 만연할때면 도내 26관 관원(현재의 시장, 군수)이 모여 제례를 올렸다고 한다. 지금은 합강정 옆에 제단을 복원해 놓고 합강제를 맞이할때면 이곳에서 제례를 지내고 온다. 그리고 합강정 주변에는 분수대, 박인환 시비, 휴게소를 비롯하여 정원정리가 잘 되어 있어 지나는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항상 사람들이 많다.

바람굴과 노루목 고개

샘터와 노루목 사이에 발달된 석각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찬바람이 나와 한여름에도 시원하다하여 바람굴이라 하였다. 지금은 도로확포장 공사로 바람이 나온다는 석각 일부가 파손되었다.

여러 지명을 찾아서

합강 건너마을 덕산리(德山里)는 덕산 아랫마을이다. 덕산을 덕봉(德峯)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산세가 덕이 있어 보인다는 산이다. 덕산의 양지말에서 북면 원통리로 넘는 고개가 덕산고개이다. 조선조때 한양사람이 와서 살았다는 한양촌이 내린천가에 있는 마을이며 한양촌에 있었던 한양못은 자취가 없다. 덕산리와 붙은 동편마을 덕적리(德積里)는 덕절이 있던 덕적골이

라 했던 것이 덕적리가 됐다고 한다. 장승이 있었던 장승평(長承坪)에서 장승고개를 넘어 가리산(加里山)으로 가면 가리산 아래 가리산리에 이른다. 해발 519m의 가리봉이 최고봉인 이 가리산은 가리산리와 북면 한계리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전나무가 무성했던 젓바치서 덕전으로 넘어가는 하우고개를 예전에 두 사람이 싸우다가 판가름을 못하고 마침내 원님에게 송사를 하러 가다 이 고개에서 화해를 했다는 유래이다. 하우고개는 도내 여러곳에 있음을 본다. 가아리(加兒里) 작은 터골에서 양구군 남면 광치동으로 가는 커다란 고개가 광치령(廣峙嶺)으로 지금은 터널을 뚫고 길을 넓혀 대로로 닦여 있다. '반쟁이'마을은 상촌마을과 하촌마을의 반절이 되는 지점의 마을이다. 반정(半程)의 방언으로 평창에서 강릉으로 넘는 '원울이재'의 '반쟁이'가 으뜸이나 이곳 반쟁이에도 마을 남쪽 '새술막'에 선술집이 있었다. '고새울'이었던 고사리는 '피야치'라 일컫기기도 하는 이 고개는 덕적리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피아실'이라 하며 피아실에 있던 '명지소'는 명주실 한 꾸러미가 모자랄만큼 깊었다고 한다. 내린천 건너 절벽 아래에서 솟는 '피아치냉천'은 한여름에도 이가 시릴 정도로 차고 맛이 좋은 약수물이다. 춘천부 기린현 소재지였던 귀둔리는 이탄이라고도 했다. 지금도 인제 사람들은 귓둔이라는 발음하고 있다. 군량밭이 있었던 군량동은 쇠물안골 동남쪽 마을인데 마을 앞에 약 7만평의 밭이 있었으며 의병란때 의병들의 양곡을 쌓아 두었다고 한다. 피레(필예)마을은 피란을 와서 난민들이 이룬 마을이며 피레마을 동쪽에 있는 '쉰질매버덩'은 군량밭에 군량을 저장해 놓고 훈련을 시키던 말을 먹이던 곳으로 '소말골'이라고도 부른다. 군량밭에서 '쇠물안'으로 넘어오는 고개라 '군량밭고개'또는 느릅나무가 많았으므로 '느릅재'라 하였다. 이밖에 지형이 곰배(고무래)같이 생겼다는 곰배골이 양지말 동쪽에 있으마 이곳에서 기린면 진동리로 넘는 고개가 '곰배령'이다.

고목이 많아 고목동

인제군 상남면 미산 1리 고목동 마을은 밤나무 고목이 많아서 부르게 된 고

을이름이다. 이곳 밤나무 수림 속에 기생하던 '나도밤나무'한 그루가 조선조 때 이율곡과 율곡의 아버지를 위기에서 구해줬다는 은혜의 나무가 됐다는 전설이 있다. 율곡의 부친이 아들을 데리고 철령을 넘어 와 이곳을 지나다 날이 저물자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밤 부친의 꿈에 도사가 나타나 "너의 아들 수명이 길지 못하다"고 이르매 "어찌하면 수명이 길 수 있느냐"고 묻자 도사는 곧 호랑이로 변한 후 "이 마을 뒷산에 1000그루의 밤나무를 심고 떠나라"고 했다. 율곡의 부친은 꿈에서 시킨대로 몇일을 두고 밤나무를 심었더니 하루는 꿈에서 본 호랑이가 대낮에 나타나 심은 밤나무를 세어보자고 했다. 공교롭게도 밤나무를 세어보니 999그루밖에 되지않자 호랑이는 으르렁대며 "한그루는 어디에 갔느냐"고 해 어찌할바를 모르고 낭패하던 차에 옆에 있던 잡목 한 그루가 튀어 나와 나도 밤나무라고 외쳐 화를 면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 일대는 밤나무가 무성하게 됐고 '고목동'이란 이름도 생기게 됐다. 나도 밤나무는 직경 4mm정도의 거꿀달갈형의 둥근 열매가 달리는 나무로 요즘은 정원수로도 많이 심고 있는 수종인데 여름에는 황백색의 꽃이 피며 열매 또한 붉게 익는다. 밤골 즉 율곡이란 호에서 연한 설화가 깃든 마을이라 하겠다. 상남 3리에서 홍천 내면으로 넘는 고개가 '아홉사리'고개로 고개가 험하고 높아 아흔아홉굽이가 된다고 해서 지은 고개이름이나 실제로 스물 한굽이로 밝혀지고 있다. 가파른 고개를 많이 보수 확장하여 고갯길이 좋아졌다. 방아다리 마을은 마을로 흘러드는 양쪽의 개울이 Y자형인 방아다리 모양으로 갈라져 있어 지세를 따서 지은 지명이다. 방아다리 서북쪽에 있는 자포대(自?垈)마을은 논이 많아 살기가 좋고 부자가 많아 머슴 등 식솔이 먹는 쌀뜨물이 5리를 흘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스스로 실컷 먹고 살 땅이 있어 지은 마을 이름이다. 문안마을은 마을 어귀에 문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의 안마을이란 뜻이다. 자포대 서쪽마을인데 넓은 들이 있어 목장의 적지로 꼽히고 있다. 홍천군 내면 방내리로 가는 '고사리재'는 고사리가 많아 생긴 고개이름으로 미현(薇峴)이라고도 부르는 해발 619m의 고갯길이다. 대암산을 대바위라 하는 것은 이 산의 정상에 대

바위가 있기 때문이다. 대암산 남쪽 봉남대 마을은 커다란 소나무가 있어 '소나무터'라 했다가 '새남의터'라 부르고 있다. 봉남대 동남쪽 상남폭포는 항아리 모양으로 아름답게 파여 있어 떨어지는 물줄기가 서쪽 산을 바치고 있는 듯한 경관으로 폭포아래 용소는 길이가 열길에 가까웠으나 현재는 묻혀 그리 깊지가 않다. 100여년전 이 마을에 살던 할머니의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 "내일 일찍 용소로 오면 나를 보수 있다"고 하여 다음날 아침 손녀를 앞세우고 가서 손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누런 구렁이가 상남폭포를 칭칭감고 있었다는 것이다. 깜짝 놀란 할머니는 되돌아 상남까지 달려왔으나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자욱한 안개 속으로 무지개가 서더니 이 무지개를 타고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 후 이 못을 '용소'라 부르고 있다. 용소가 있는 마을을 엄수동이라 일컫는데 그 유래는 밝혀지지 않는다. 기린면은 고구려때 기지군이었던 것을 고려때 기린현으로 고쳤다. 기린이란 이름은 예전에 인명골에서 개도 아니고 여우도 아닌 짐승이 밤마다 울어 확인해보니 기린처럼 생겨 기린골이라 했다고 한다. 골이 깊어 10리가 되는 이 골짜기에 장수바위가 있다. 현 2리의 하마로는 고려말 판결사와 평장사를 지냈던 박원굉의 묘가 있던 마을로 그 앞에 지날때는 반드시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다고 하는데 말을 타고 지나가면 말굽이 땅에 붙어 지날 수가 없다고 한다. 박원굉은 춘천 박씨의 시조인 박항의 큰 아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내사시랑, 몬하시랑, 중서시랑, 평장사, 문화평장사, 평장정사 등의 평장사 벼슬은 정이품 판결사는 정삼품의 장례원(掌隷院-시비선악을 판결하고 노예의 부적을 맡아보던 관아)의 으뜸벼슬을 말한다. 박원굉은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관직을 버리고 춘천을 거쳐 이곳 현리에 와서 여생을 마쳤는데 이곳 묘에는 그이 부인 순흥안씨와 합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부근에 아낙네들이 빨래를 널면 꼭 빨래 한가지씩이 없어졌고 없어졌던 빨래는 그 다음부터 이근처에는 빨래를 널지 말라는 경구가 쓰여져 다음날 아침 묘앞에 걸려 있었다고 한다. 하마로 마을 동쪽창말은 조선조때 기린현의 창고인 기린창이 있던 마을이다. 창말배터는 창말에서 서리

로 가는 나루터로 내린천을 건너는 배터가 된다. 서리는 기린현의 서쪽이여서 지은 이름이다. 서리에서 남면 정자로 넘어가는 고개가 머구너미로 고개가 길어서(9km) 넘기가 지루하므로 먹을 것을 갖고 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고개에 오동나무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어 머귀넘이 즉 머귀나무(머귀나무는 오동나무이 옛이름으로 고어로 처리함)가 있는 고개(넘이)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소리개'마을은 마을어귀 산위에 약 8m 높이의 큰 바위가 서있어 입석동이라고도 하며 이 바위 근처에는 소리개가 자주 내린다고 한다. 현 6리의 나팔고개는 매화동고개였던 것이 6.25때 중공군이 이고개라루에서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부르게 된 고개 이름이다. 방동과 동리를 병합하면서 방동리(芳洞里)가 됐다. 면소재지였던 방동은 방골이었다. 방골 동남쪽 산골짜기의 아침가리마을은 딸린 밭이 적어서 아침나절에 다 갈수 있었다고 한다. 조선조 초기에 아승이란 스님이 이곳에다 절을 짓고 수도하여 아승가리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침가리에 연하여 있는 마을이 년가리, 연가리옆 마을이 뱅가리마을이다. 방골에 있는 방동약수는 급만성 위장병에 효험이 있는 광천수(鑛泉水)로 식욕을 촉진시키는 이약수의 맛은 사이다와 같은데 기린면 소재지에서 약 7km 동남쪽에 위치래 있으며 주위의 경관도 수려함을 자랑한다. 당귀, 작약 등 한약재가 이리대에서 채취되고 있으며 산삼도 나온 일이 있다. 기린면 방동 2리가 현 주소이다. 방동약수가 처음 발견된 것은 옛날 산삼을 캐러 다니던 심마니의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 "나는 산신령이다. 너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마음씨가 착하니 내가 산삼을 주겠다. 그리고 만병통치약의 물을 줄 터이니 세상에 알려 병으로 앓고 있는 중생이 낫게 하라"고 말함에 다음날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한 동자가 나타나 손짓을 하므로 좇아가보니 동자는 간곳이 없고 커다란 산삼이 있어 캐고나서 산삼을 캔 밑을 파보니 물이 솟아 나왔다고 한다. 해발 1,435m의 방태산에 있는 '배닿는돌'은 옛날 큰 홍수때 배가 떠내려가지 못하게 밧줄을 매다라 놓았던 바위라고 한다. 이 바위에는 그때 정으로쪼아 뚫은 듯한 구멍이 있는데 약 2톤가량 되는 바위이다. 배를 매달았다하여 '배달돌'이라고도 한다. 진동이 기린

면의 막다른 동쪽에 자리한 고을이여서 지은 행정리이다. 섭나무가 무성했던 '설피밭', 꿩이 많이 내렸던 '꿩바치',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바위가 마주보고 서 있어서 부르게 된 '맞바위'등의 자연 부락으로 형성 되었다. 현재 맞바위는 없어졌으며 설피밭은 평안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 때 울창한 잡초를 채취하다가 땔감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들 마을은 현 행정구역상 진동 2리이다. 진동리는 양양서면 오색리 관터로 넘는 고개가 바달재 또는 박달령으로 고갯길이 험하고 길다. 충북 제천시 봉양면에 위치한 박달령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험한 태백 준령이다. 한계령과 함께 내설악에서 남설악으로 넘는 또 하나의 고갯길이다. 진동 1리 쇠나드리는 냇가 마을로 내의 여울이 급하고 바람이 세차서 소조차 건너다니기 힘들다는 마을로 바람이 세서 바람부리라고도 한다. 북면 원통리에서 월학리 새골로 넘는 고개가 새골고개 또는 새재라 하는데 원통 삼거리 북면사무소 앞에서 시작되는 이 고개는 철성고개라 부르고 있고 고개 정상에 있는 고개비에도 이렇게 적혀 있다. 군축령과 함께 옛이름을 찾아 불러야 될 또 하나이 고개이름이다. 칠성고개란 이름은 칠성부대가 주둔했던 당시 고개를 넓히고 닦은 후 고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전하고 있다. 서화면으로 가는 대로로 시내버스가 자주 다녀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고개를 넘으면 인제의 북쪽을 흐르는 인북천의 맑고 푸른 냇물이 명당산 지맥을 감고 도랑 흘러 명경지수의 그림 같은 산수경이 이어진다. 새재에서 송학동으로 가는 재가 걸미재인데 골무처럼 생겼다는 재이다. 원통리는 조선조때 원통역이 있던 곳으로 서화를 거쳐 금강산으로 드는 벼슬아치들이 말을 바꿔타던 역마역이였다. 원통 9리의 세거리는 어두원이와 고원통, 용대리의 정자문리로 가는 삼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세거런이에서 용대리의 남교로 가는 고개가 세거런이 고개인데 잇따라 세 개의 고개가 있었으나 부자로 살던 과부가 돈을 들여 두 고개는 없앴다고 한다. 용대 1리 남교마을은 조선조때 보안도에 딸렸던 남교역이 있었다. 어두원리는 주위의 높은산으로 가려있는데 골짜기가 깊어서 어둡기 때문에 어둔리라고도 한다. 용대 2리 백담사 입구 마을로 도로변을 외가평이라 부른다. 가평 마을

을 가력리, 가력원이라고도 하는데 조선조때 가력원이란 원이 있었던곳이다. 인제경찰서 용대 파견대가 있는 마을이다. 정자문리는 남교 마을 서남쪽 북천변에 있는 마을로 강가에 정자가 있었다고 하며 길옆에는 열여정문이 있었다 한다. 용대 1리 5반 단일로 끝부분에 위치한 마을이다. 원통 1리 서저울마을은 원통 서쪽 개울가에 형성된 마을로 개울에 놓인 다리가 서저울다리인데 인제읍과 북면의 경계가 된다. 서호란 이름은 서쪽 골안으로 밀려든 냇물이 깊어 호수의 형태를 이뤄 부른 이름으로 추정된다. 소나무가 무성했다는 솔거리는 원통 7리로 제재소가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는 객주집이 있어 지나던 나그네의 숙식과 성앳술에 홍청대던 골목이였다. 용의터 용대리는 마을 북쪽에 있는 용바위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서 따온 지명이다. 길 양쪽에 서 있는 용바위는 쌍룡이 하늘을 향해 머리를 쳐들고 있는 형상이다. 용바위 북쪽에 있는 창바위의 창처럼 뚫린 구멍은 용의터에 있던 용이 뚫고 나간 자국이라 전해오고 있다. 창바위가 있는 창암점 마을은 마을에 주점 즉 주막이 있었던 곳으로 6.25 이후 마을이 없어졌다. 용대 2리 백담사는 신라 진덕여왕16년(647) 자장율사가 처음 세웠을때는 한계사라 했다. 여러차례의 화재로 불타고 새로 짓고 하면서 절의 이름을 바꿔왔던 이 절을 백담사로 이름하게 된 것은 여러 번 불에 탄 내력으로 새절을 짓고 이름을 궁리하고 있는데 주지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설악산 주봉인 청봉에서 정자까지의 담수를 세어보라고 하므로 이를 세어 보니 백담이 되므로 백담사라 했다는 유래가 있다. 내설악 관광의 중심지로 연중 인파가 몰리고 있는 대승령 북쪽의 명찰 백담사는 3.1운동때 33인의 한 사람인 한용운선사가 삭발 수도한 곳이다. 민족시인 한용운은 이곳에서 수도 중 님의침묵을 집필하기도 했던 옛절로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이곳에서 운둔생활을 했던 일로 세상에 다시 한번 알려졌다. 백담사 동남 백담리였던 현 용대 2리의 영시동은 조선조 인조 26년(1648)삼연 김창흡이 이곳에 영시암이란 암자를 짓고 살았는데 참모가 호랑이에게 물려갔으므로 호식동이라고도 한다. 창암 동쪽 미시령 아래 있는 도적소는 도둑들이 숨어 있다가 미시령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은 뒤에 이 소

에 빠뜨려 죽였다는 유래이다. 한계산 아래 한계리의 옥녀탕은 선녀가 대승폭포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괴물이 나타나 해치려 하자 이곳으로 피신했으나 다시 해치려고 하자 하늘의 옥황상제가 벼락을 쳐서 괴물을 죽이고 선녀를 구한 곳이며 옥녀탕 위의 고기바위는 옥녀탕에서 목욕을 하던 선녀들이 공기 받기를 하고 놀았다는 기이하게 생긴 바위이다. 한계리에서 양양군 서면 오색리로 넘는 큰 고개가 한계령으로 한여름에도 찬바람을 계곡으로 내리 쏟는 정상이다. 정상에는 설악루, 위령비, 휴게소 등이 있다. 서화면은 고려때 옥기(玉岐), 개차정(皆次丁)이었으며 신라 경덕왕때는 치도(馳道)라 했고 현재의 서화는 고려때 고친 지명이다. 서화면 소재지인 천도리의 남밭구미는 개울 건너 서쪽 후미의 마을로 남씨와 박씨가 살던 마을로 전한다. 서흥리에서 천도리로 들어오는 입구의 고개가 비둑고개이며 비둑고개 아래가 응달말로 미둑고개 뒷산이 가려 응달이 진다. 응달말 맞으편의 강건너 동네가 양지촌인데 여러가구가 응달 양달말에 살고 있다. 음지말은 천도 1,2,3,4반 양지말은 천도 1리 5반이 행정구역이다. 본래 서화면 소재지였던 서화리는 1916년 행정구역 폐합때 대곡리를 병합했었다. 큰 골이라 부르던 대곡리 산두골, 연화리, 봉황촌 등의 부락이 있다. 서흥리는 1916년 행정구역 폐합할 때 창말과 모래내을 병합해 서흥리라 했다. 모래내는 모래가 많은 마을이며 창말은 조선때 인제현의 외창인 서창이 있었던 곳으로 창이 있던 자리를 창터라고 부른다. 서북편 골짜기에 이쓴 잔다리 마을은 조그마한 들로 이뤄진 마을인데 한자로 배월평(盃月坪)으로 적고 있다. 잔다리의 잔은 잘다가 원말로 작다는 뜻이며 다리는 들의 옛말이다.

1843년 가구 및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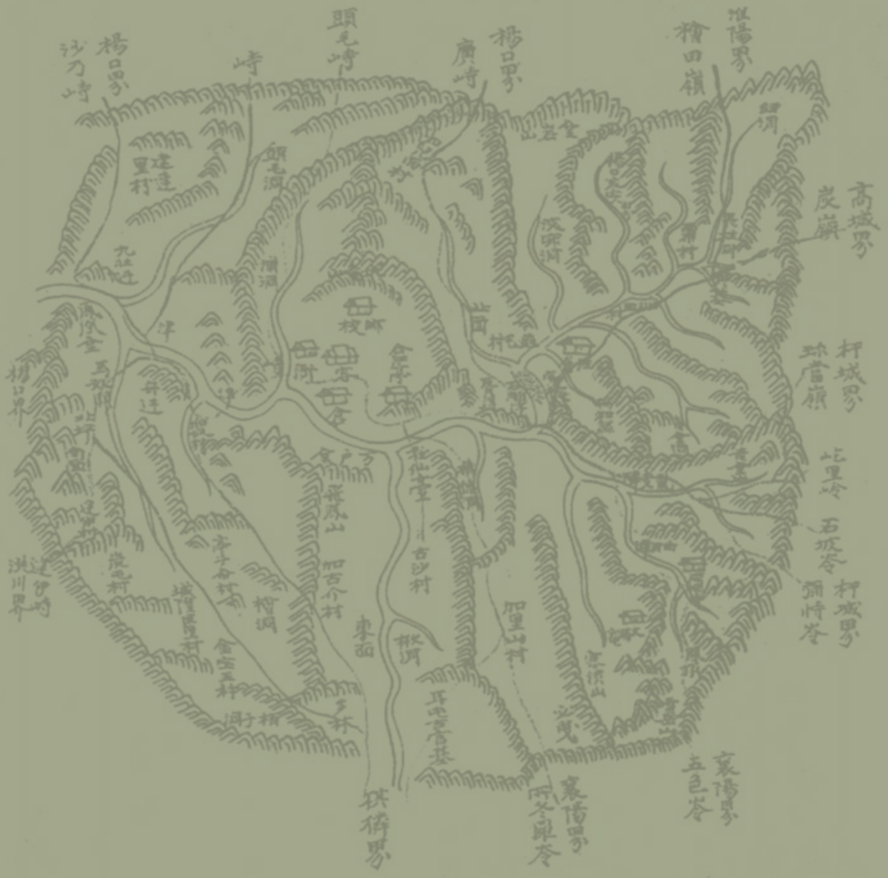
面	里洞	戶數	人口		
			計	男	女
計	38	1,119	4,817	2,244	2,573
縣內面	小計	297	1,238	560	678
	上道里	73	322	141	181
	下道里	126	471	220	251
	德山里	42	162	77	85
	德積里	13	58	27	31
	加里山	15	93	39	54
	淸溪洞	17	83	35	48
	古沙洞	11	49	21	28
東面	小計	80	375	173	202
	院垈里	40	186	84	102
	下楸洞	16	63	30	33
	耳呑里	24	126	59	67
南面	小計	327	1,480	692	788
	藍田里	45	211	102	109
	馬路里	90	393	193	200
	加奴里	27	113	51	62
	北坪里	39	199	93	106
	沙峴里	4	26	11	15
	於論里	22	86	39	47
	所峙里	2	10	5	5
	亭子幕里	11	52	24	28
	金寶皇里	8	42	18	24
	羅加里	9	32	16	16
	建達里	36	154	73	81
	頭毛里	8	29	12	17
	禾屯里	12	61	27	34
	甲屯里	15	72	28	44
北面	小計	191	860	413	447
	寒溪洞	19	49	22	27
	元通里	50	199	115	84
	松鶴洞	28	165	76	89
	楓田洞	21	103	47	56
	崗校驛	36	170	70	100
	加曆里	17	88	42	46
	龍頭里	20	86	41	45
瑞和面	小計	223	864	406	458
	論章里	36	134	61	73
	沙川里	24	60	30	30
	水濟里	43	200	97	103
	瑞和里	70	283	131	152
	西希里	7	34	15	19
	伊布里	25	78	36	42
	龍山里	18	75	36	39
麒麟面	小計	333	924	516	408
	縣里	85	220	129	91
	北里	69	189	110	79
	西里	44	149	82	67
	上南里	49	135	75	60
	東里	27	95	45	50
	鎭東里	59	136	75	61

※ 春川에 속하였던 麒麟面은 正祖 時代의 家口 및 人口 現況

3

읍면 지명

인제읍
북 면
남 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인제읍

군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래 현내면이라 하여 하도리, 상도리, 덕산, 덕적동, 가리산, 청계동, 고사동의 7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906년에 군내면으로 고치고 상도, 동, 남, 북, 합강, 덕산, 이, 가아, 덕적, 고사, 차평의 11개리로 개편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동면의 원대, 하추동, 이탄을 편입하여 귀둔, 하추, 원대, 가리산, 고사, 남북, 상동, 합강, 가아, 덕산, 덕적의 11개리로 개편하고 1916년에 인제면으로 고쳤다.

1948년 38선이 생기면서 38선 이북 10개리가 공산치하로 넘어가고 38선 이남인 원대리 홍천군 신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51년에 다시 수복되어 11개리를 관할하게 되었으며,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에 의거하여 읍으로 승격하였으며 행정리는 19개 리다. 동쪽으로 양양군 서면, 서쪽은 남면과 양구군 남면, 남쪽은 기린면과 남면, 북쪽은 북면에 닿아 있고 군 단위 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행정구역 알람표

區分	법정리	行政里	自然部落
計	44(5)	84	286
麟蹄	11	19	58
南	12	15	70
北	4	17	48
麒麟	5	15	48
瑞和	8(5)	8	9
上南	4	10	43

※(　)내 숫자는 미수복 리수

인제읍 사적 분포도

① 향교 ② 백련정사 ③ 강화사 ④ 보현사 ⑤ 상동리 3층 석탑 및 광배
⑥ 합강미륵 ⑦ 도암 이재 선생 유허비 ⑧ 합강정 ⑨ 경로정 ⑩ 영소루
⑪ 열녀 전주 김씨 정려각 ⑫ 이재화 선생 경로 송덕비 ⑬ 인제군 장학재단 설립기념비
⑭ 퀸 대령 가의 명비 ⑮ 군축령 표석 ⑯ 인제지구 전투전적비 ⑰ 충혼비
⑱ 장병 추도비 ⑲ 매봉 한석산 전적비 ⑳ 군축령 충혼비 ㉑ 박인환 시비

지명(속명)	유 래
上東里[法]	본래 현내면, 군내면 지역으로 상동리, 하도리, 동리로 구분되었으나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상동리로 개칭하였다. 행정리는 4개里다.
기룡산(起龍山)	인제읍의 진산으로 그 모습이 용이 엎드려 있는 것 같아 복용산이라 하였는데 그 후 엎드려 있는 용보다 일어나 있는 용이 좋다하여 기룡산으로 고쳤다.
댕댕이 버덩	남북리와 경계가 되는 산부리 끝에 있는 버덩으로 댕댕이가 많았다고 한다. 현재 한전출장소가 위치한 곳이다.
명당마루	상동리 앞에 있는 큰 돌로 명당의 집터가 있다고 하며 경지면적이 일만여 평이다.
복룡산(伏龍山)	현재의 기룡산으로 와용산으로 불리웠다.
비봉산(飛鳳山)	내린천 건너 산으로 봉이 날아가는 모양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정터	내린천 건너 산 위에 있던 정자터로 경치가 좋아 놀이터로도 이용된다.
상도리(上道里)	상동리를 관통하는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의 길 윗마을을 일컫는 이름이나 지금은 쓰여지지 않는다.
상도리장(上道里場)	인제장
상동(上東)	상도리
상두	상동의 변성 이름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시장께(市場)	인제장이 서는 마을
오사회(烏斯回)	중세기 이후 인제가 맥국의 영향권에 있을 당시의 이름
영소현(靈沼縣)	이조 초엽에 사용했던 인제현의 다른이름
옥토랑	명당마루에 있는 봇도랑으로 지금은 새마을 사업으로 복개가 되었다.
와룡산(臥龍山)	기룡산의 옛 이름으로 대용산이라고도 불렀다.
읍창(邑倉)	이조시대 쌀 창고로 1759년 당시의 규모가 29문이나 되었다.
인제	옛 지명은 猪足, 猪蹄라 하였으나 돼지보다는 기린이 영물스럽다 하여 940년경에 인제로 개칭하였다.
인제향교	본래 상동리 북쪽에 있던 것을 광해군때 현감 이치가 서쪽으로 옮겼다가, 순조때 현감 신진하가 다시 동쪽으로 옮겼는데 1934년 홍수로 인해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인제현	태조 23년에 희제현으로 개칭했다.
저족현(猪足縣)	인제의 옛지명으로 지형이 돼지발같이 생겼다하여 지은 이름이다.

지명(속명)	유 래
하도리(下道里)	상도리 아랫마을
희제현	선덕왕 6년 저족현을 희제현으로 개칭했다.
南北里[法]	본래 동면지역인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살귀미, 조림이, 금발이, 뒤울을 병합하여 남북리라 하고 군내면에 편입되었다. 남리와 북리를 합했다 해서 남북리라 명명하였다. 행정리는 2개里다.
가넷고개	남북리에서 남면 건이원으로 가는 고개로 1958년 군부대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고개마루터에 '군축령'이라 새긴 석비를 세워 지금은 군축령으로도 불리운다.
가넷다리	남북리와 가로리를 연결하는 다리인데 길이는 390m, 높이 20m, 넓이 8.5m로 1972년에 준공되었다. 현재는 군축령 밑에 있다해서 군축교라 부른다.
가로교(加路橋)	가넷다리, 군축교 이전의 소교량으로 1964년 12월에 놓았던 목조교로 길이 190m였다.
갯골	남북리 서북쪽 긴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갯골칠반	갯골팔반 동쪽마을로 행정구역상으로 7반이었으나 지금은 폐동되고 한 가구만 농사철에 기거하고 있다.
갯골팔반	갯골 막바지에 있는 마을이었으나 화전정리 사업으로 폐동되었다.
경로정(敬老亭)	군축령옆 산에 있는 정자로 육군 제3군단장 오덕준 장군이 노인들을 위하여 1958년 8월에 건립하였다.
검발리(劍발里)	금바리
군축교(軍築僑)	가넷다리의 새이름
	가넷고개의 새이름
금바리	살귀미(사구미) 남쪽에 있는 마을로, 검발리라고도 부른다. 옛날에 사금을 바리로 실어냈다고 전한다.
남리(南里)	남북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가운데 돌무더기가 곳곳에 담처럼 쌓여 있었다고 전한다.
남바우뜰	남북리 남쪽에 있는 들
냉골	어름냉골의 줄인 말
담안	남리의 다른 이름
댕댕이	남북리 북쪽 기룡산에 있는 골짜기로 댕댕이가 많았다고 전한다.

지명(속명)	유 래
댕댕이골	댕댕이
동리(東里)	남리 동쪽에 있는 마을
뒤울	남리 뒤쪽에 있는 마을
바우골	비봉산 후미에 있는 골짜기로 바위가 많은데 연유하여 부르는 지명
범골	남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부터 호랑이가 많이 출현하여 범골이라 하였다.
북리(北里)	남리에서 북쪽에 있는 마을
사구미(沙丘尾)	살귀미
사터	절터
사구미교	남북리 본 마을과 살귀미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길이는 168m이고 1989년 2월에 준공했다.
사대(寺垈)	절터
산귀미	살귀미를 말하며 옛날 맛있는 과일이 많이 생산된다고 해서 産貴味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나 강안의 형세로 보아서 沙圧眉가 타당한 지명이다.
살귀미	사구미의 변성 이름으로 금바리 북쪽 후미에 있는 마을이다.
상도리(上道里)	상동리의 상도리와 인접한 마을로 경계를 분명히 지을 수 없으나 1759년 당시(현내면 당시의 행정리)에 93가구에 366명이 거주했다.
서리곡(西里谷)	서릿골
서릿골	남북리 서쪽에 있는 산골짜기로 안막에는 '백련정사'라는 절이 있다.
서릿골절	백련정사(白蓮精舍)
시장께	시장이 서는 상동리 쪽에 있는 마을
아미산(蛾嵋山)	인제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관이 빼어나 1990년 2월 19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어름냉골	갯골입구에 있는 보현사 경내에서 나오는 샘으로 얼음같이 차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인제교	갯골어구에 있는 다리로 1932년에 놓았으나 인제 시가지 도로확포장공사로 1989년에 확장
용소(龍沼)	조림이 앞에 있는 소로 용이 있다하여 용소라 부르고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이 소 부근에서 부정한 짓을 하면 용이 노하여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어 가뭄이 계속되면 재를 올린다.

지명(속명)	유 래
재우덕(在隅德)	절터 북쪽에 있는 마을
절터	살귀미 동남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절이 있었다.
조림리(照臨里)	조림이
조림이	금바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
지소	조림이 서쪽 가로리로 뻗어있는 기다란 沼
태극공원	경로정이 위치한 주변, 오덕준 장군이 육군 제3군단장으로 재직 시 이곳에 경로정을 건립하고 주변에 약간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태극공원이라 명명하였는데 지형이 태극형을 이룬데 연유하였다.
태극산수터	태극공원
팔봉산(八峯山)	조림이 뒤에 있는 산으로 8개의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포곡(浦谷)	갯골의 한자 표기명
포곡동	갯골
포동	갯골
하도리	상동리의 하도리와 인접한 마을로 1759년 당시(군내면 당시 행정리)에는 120가구에 51명이 거주하였다.
화장터	군축령 선착장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화장터가 있었다.
合江里[法]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하는 곳이 되므로 합강이라 하고, 합강정의 이름을 땄다고도 한다.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어평리 일부를 병합하였다. 행정리는 3개里다.
검은소	합강리 서쪽에 있는 沼로 깊어서 물빛이 검게 보인다.
느티나무께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로 나무의 둘레는 15m가 넘고 수령은 500여년이 넘었으며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또 이 느티나무는 영험하여 해로운 일을 하면 마을이나 나무를 해친 사람에게 재앙이 따른다고 한다.
덕산다리	소열다리
된숨이	된숨이 버덩
된숨이버덩	합강리 앞 합강되는 사이에 있는 약 2천평의 버덩으로 양쪽으로 강물이 흘러서 섬처럼 떠 있었으나 지금은 수해로 모두 씻겨나가고 돌무더기만 남아있다.
리빙스턴 교	소일평과 덕산리를 연결하는 다리, 6.25 당시 인제지구 한미합동 작전중 리빙스런 중령(당시 포병대장)이 이끄는 포대병력이 작전상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 해가 1951년이었다. 홍수로 인해 범람하는

지명(속명)	유 래
	급류를 건너지 못한 관계로 많은 인명과 보급품, 그리고 장비의 손실을 보았으며 리빙스턴 중령은 중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사망하였는데 임종 직전에 부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이곳에 다리는 놓아 줄 것을 유언으로 남겨 부인이 놓은 다리로 리빙스턴교라 이름지었다. 당초에는 교량 가설 공사를 미군부대에서 맡았으나 강우량이 너무 많아 공사추진이 불가능함을 판단하고 원대로 복귀하고 한국군 3개 중대병력이 투입되어 가설하였다. 당초에는 아이빔에 목재를 깔아 가설하고 붉은색 칠을 하여 붉은다리로도 불려진다. 현재의 교량은 1970년에 육군 제1107 야전공병단에서 가설한 것으로 길이가 148m에 달한다.
만호대(萬戶垈)	만호터
만호터	된숨이 남쪽, 강물이 합류되는 그 안쪽 산에 있는 만호첨사의 터로 성을 쌓았던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있다.
물안골	소열이와 이평리 사이에 있는 산골짜기
미륵천(彌勒川)	합강리 앞 강의 옛이름
배채 계곡	벼챙이 계곡을 최근에는 배채 계곡이라고 부른다.
버챙이	물안골 북쪽의 벼랑으로 된 산골짜기를 말하며 당초에는 벼랭이라 하였다.
미륵(彌勒)	합강정 터에 있는 돌부처, 나무장사를 하던 박명천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강물에 빠져 있으니 건져달라”하므로 이상히 생각하여 헤엄을 잘 치는 김성천에게 부탁하여 찾아보니 빛을 내는 돌기둥이 있으므로 건져내어 부처를 만들어 집을 짓고 모신 뒤로 모든 일이 잘 되어 큰 부자가 되었을 뿐아니라 자식을 못 낳는 부인이 정성으로 빌어 아들을 얻은 뒤로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붉은다리	리빙스턴 교
소열다리	리빙스턴 교
소열이	합강리 북쪽 내린천 변 들옆에 있는 마을
소일평(消日坪)	소열이
소일평	소열이 앞에 있는 들로 5만 7천여 평에 달한다,
옻바치	옻밭
옻밭	만호터 아래 내린천 강변, 옻나무가 많았다.
이평리	이평이

지명(속명)	유 래
이평이	소열이 북쪽 들 옆에 있는 마을로 진흙 구렁이었다.
절골	소열이 서쪽에 있는 산골짜기로 절이 있었다.
중앙단(中央壇)	현재 합강 정자가 위치한 곳에 옛날에 제단이 있었다. 이 곳은 강원도의 중심지로 이조시대에 가뭄이 들거나 질병이 만연할 때면 도내 26관의 관원(현재의 시장, 군수)이 모여 제례를 올렸다고 전한다.
합강교	합강배터에 놓여진 다리로 1985년 원주 지방 국토관리청 시행으로 ㈜삼호가 시공하였으며 길이는 170m에 달한다.
합강배터1	합강배터 앞에 있는 마을
합강배터2	합강정 앞에서 덕산리로 건너다니는 나루터
합강정1	합강리
합강정2	합강리에 있는 정자
합강정진	합강배터
합강정터	합강 동쪽 강가에 있는 정자로 전망이 매우 좋아 "놀기 좋기는 합강정, 넘기 좋기는 거니고개(홍천군 두촌면)"라는 노래도 있다.
홍진포(洪津浦)	합강정 앞 강에 있는 포구의 옛 이름
加兒里[法]	본래 개면이, 가면이 또는 가야면촌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용솟골, 다소골, 진두루, 반쟁이, 갈밭구미, 텃골, 솔정지를 병합하여 가아리라 하였다. 행정리는 2개里다.
가면이	가아리
가아면	가아리
가아면촌	가아리
갈밭구미	새말 남쪽 모퉁이에 있는 마을
개면이	가아리
광치(光峙)	이조 중엽에 이르기까지 불리오던 광치령의 본명이다.
광치령(光峙嶺)	작은 텃골에서 양구군 남면 광치동으로 가는 큰 고개로 가야면에서 질러 가는 길도 있다.
노전평(盧田坪)	갈밭구미
다소곡(多小谷)	다소골
다소골	진두루 북족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대터골	큰 텃골

지명(속명)	유 래
반장(半場)	반정이라고도 부르며 상촌과 하촌사이 거리의 반절이 되는 곳에 있는 마을
반정(半程)	반장, 반정
반장이	반장
상촌(上村)	가아리 위쪽에 있는 마을로 새덕이, 용숫골, 물안엣골이 딸려 있다.
새덕이	용숫골 밑 둔덕에 형성된 마을
새말	반장이 남쪽에 있는 마을로 양구로 가는 길가가 되는데 술집이 있었다.
새술막	새말
소허곡(小墟谷)	작은 텃골
솔정지	갈밭구미 남쪽에 있는 마을로 큰 소나무와 정자가 있었다.
송정리(松정里)	솔정지
신덕리(新德里)	새덕이
앙금밭	다소 서쪽에 있는 밭으로 토질이 녹말처럼 부드럽다하여 붙여진 이름
연애개	솔정지 북쪽에 있는 냇물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이 곳에서 줄어든다고 한다.
용수곡(龍水谷)	용숫골
용숫골	가면이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용소가 있었다고 한다.
용수동	용숫골
작은텃골	텃골의 작은 마을
장평(長坪)	반장이 서쪽 들에 있는 마을로 진두루 라고도 부른다.
진두루	장평
청계동(淸溪洞)	가아리 가운데 있는 골짜기
청계동포	청계동 앞에 있는 내 이름으로 옛날에는 군대감제로 유명하다.
초당꾸미	가아리와 이평리 경계에 있는 마을로 산 귀퉁이에 초당이 있었다.
큰텃골	텃골의 큰 마을로 가아리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텃골	가아리 서쪽에 있는 마을
하촌(下村)	가아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새말, 다소골, 큰텃골, 작은텃골을 총칭하는 지명이다.
德山里[法]	덕산 아래가 되어 덕산이라 하였으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차평리를 병합하여 덕산리라 하였으며 군내면에 편입되었다.

지명(속명)	유 래
고춧골	선바우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광대목	덕산 동쪽에 있는 산인데 형세가 광대가 노는 형국이라고 한다.
귀영소	웃말 앞에 있는 소로 모양이 구유와 비슷하다.
노루목 고개	덕산리와 고사리의 경계지점으로 내린천변에 있으며 453 지방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바람굴 부근으로 넘어다녔는데 그 고개가 노루목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나 지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늪둔지	덕산 북쪽 끝 둔지에 있는 마을이며 밤나무가 많았다.
덕봉	덕산리 남쪽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덕이 있어 보인다고 한다.
덕산1	덕산리
덕산	덕봉
덕산고개	양지말에서 북면 원통리로 가는 고개
무당소	웃말 위쪽에 있는 沼
사곡(寺谷)	절골
상촌(上村)	웃말
바람굴	샘터와 노루목 사이에 발달된 석각이 있으며 이 곳에서 찬바람이 나와 한 여름에도 시원하다 하여 바람굴이라 하였다. 도로 확포장공사로 바람이 나온다는 석각 일부는 파손되었지만 지금도 이곳을 지나면 시원하다.
박쥐굴	덕산 양지마을에서 동북쪽 3km지점에 있는 자연동굴로 박쥐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피난처의 구실도 되었다.
샘터	합강대교에서 노루목고개 쪽으로 500m지점에서 나는 샘으로 여름에는 매우 차고 겨울에는 얼지 않는다.
선바우	덕산 동쪽 산 위에 우뚝 서있는 바위이며 바위 밑에서는 좋은 샘물이 나온다.
수변촌(水邊村)	아랫말
수병	아랫말
아랫말	덕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내린천의 강변에 위치하였다.
양지말	덕산 양지쪽에 있는 마을로 양지촌, 중촌이라고도 한다.
양지촌(陽地村)	양지말
여네골	덕산 동쪽에 있는 마을로 냇물이 흘러오다가 이곳에 이르러 갑자기 줄어들었음을 연유하여 부른 지명이다.

지명(속명)	유 래
연애골	여네골의 변성된 이름
웃말	덕산 위쪽에 있는 마을로 상촌이라고도 한다.
율평리(栗坪里)	늪둔지
음지말	덕산리 음지쪽에 있는 마을
인골	덕산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난리때 피난처가 됐다고 한다.
인동(人洞)	인골
장군바우	무당소 밑에 있는 바위로 장군이 서 있는 모습이다.
장군석(將軍石)	장군바우
절골	웃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 사곡이라고도 부른다.
중촌(中村)	양지말
진사집터	양지말 서쪽에 있으며 진사 해주 최씨가 살았던 집터를 말한다.
차평리(車坪里)	아랫말 북쪽 들 옆에 있는 마을로 수레가 다니게 될 것이라고 해서 차평리라고 했다.
하촌	아랫말
한양동(漢陽洞)	음지말 남쪽 내린천변에 있는 마을로 이조시대에 한양 사람이 와서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한양못	한양촌에 있었던 못으로 넓이가 4천여평에 달했지만 지금은 매몰되어 자취도 찾아 볼 수가 없다.
한양촌	한양동
德積里[法]	덕절이 있어서 덕절곡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덕적골 또는 덕적동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장승평과 덕산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덕적리라하고 군내면에 편입했다.
간촌(間村)	샛말
갈밭매기	덕적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갈대밭이 있다.
고대(高垈)	높은 터
기령대(起靈垈)	부채바위 밑에 있는 바위
노전동(盧田洞)	갈밭매기
높은터	무나무텃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대가 높아 붙여진 지명
더뜸이	덕적 동남쪽에 있는 산골짜기로 짐승을 잡기위해 덫을 많이 놓았다.
덕적골	덕적리

지명(속명)	유 래
덕적동	덕적리
뒷말	덕적리 뒤쪽에 있는 마을
등지거리	덕적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
무나무 텃골	덕적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나무가 무성한데 연유하여 붙여진 지명
문목곡(門木谷)	무나무 텃골
범바위	범바웃골 가운데 있는 바위로 범과 비슷하게 생겼다.
범바우골	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범바위가 있다.
부채바우	뒷말 북쪽에 있는 바위로 부채처럼 생겼다.
부채바웃골	부채바우가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한다.
샘바치	샛말 뒤쪽에 있는 3만여 평의 밭
샘밭	샘바치
샛말	장승평과 용부터 사이에 있는 마을. 간촌이라고도 한다.
소와골	샛말 동쪽에 있는 마을
솔정지	등지거리 아래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가 많이 있다.
용부대(龍富垈)	용부터
용부터	무나무 텃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덕산리 장군석에서 나온 용마가 이곳에 와서 죽었다는 설화가 있다.
우와곡(牛臥谷)	소와골. 소가 누워 있는 형상이다.
장승고개	장승평에서 가리산으로 가는 고개 갈밭매기 남쪽에 있는 마을로 장승이 있었다.
저뜸이	더뜸이
절골	솔정지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
한석산(寒石山)	고사리와 하추리, 덕적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해발 1,119m 가 넘는다.
古沙里[法]	본래 동면지역으로써 고새울 또는 고사촌, 고사동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합동이라 하였는데 하추동 일부를 병합하여 고사리라 하였다.
고사동	고사리
고사촌	고사리
고새울	고사리
굴바웃골	피아시 남쪽에 있는 마을로 산에 굴바위가 있다.

지명(속명)	유 래
굴아웃골	굴바웃골의 변한 지명
냉정터	피아시 남서쪽 강변에서 샘이 솟는데 그물이 얼마나 찬지 손을 담그고 5분을 견디지 못해 붙여진 지명이다. 생활근거는 고사리가 되지만 행정구역으로는 원대리에 속한다.
노영골	피아시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영골, 영곡이라고도 한다.
다래버렁	고새울에 있는 마을로 다래가 많았다.
대골	순께에서 동쪽 강 건너에 있으며 1960년대까지 민가가 있었으나 지금은 폐동되었다. 생활 근거는 고사리가 되지만 행정구역상으로 원대리에 속한다.
명지소	피아시에 있는 소로 명주실 한 꾸러미가 모자랄 만큼 깊다고 한다.
밤골	방골
방골	노영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산이 사방으로 둘러있어 방처럼 생겼다.
벌바우	장수터 밑에 있는 바위로 벌집이 많았다고 전하나 지금은 확포장공사로 폭파되어 사라졌다.
벌바우소	벌바우 밑에 있는 소
미음밭	냉정터 옆에 있으며 항상 그늘이 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바치	텃말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삼밭이 있었다.
삼밧재	삼바치에서 텃말로 넘어가는 작은 고개
삼전치(參田峙)	삼빗재
섬밭	장수터와 원대리 사이를 흐르는 강안에 섬처럼 떠 있는 밭
순께	고사리 북쪽 내린천 변에 있는 마을로 순채가 많이 자생했다.
순포(筍浦)	순께
숭께	순께
신댕이	순께 앞 강 건너쪽에 있는 마을
영곡(嶺谷)	노영골
영꼴	노영골
용소(龍沼)	장수터에 사는 한씨가 장사를 낳았다가 화를 입을까 걱정하여 죽였는데 이 소에서 용마가 나와 주인을 찾으며 울고 다니다가 이 소에 빠져 죽었다는 설화가 전해져오고 있다.
율곡(栗谷)	방골, 밤나무골이라고도 부른다.

지명(속명)	유 래
장수대(將帥垈)	장수터
장수터	피아시 남쪽에 있는 마을로 이조시대 한씨 집에서 장사를 낳았는데 장사는 역적이 될 우려가 있다하여 부모가 죽였다고 한다.
지름바우	장수터 서남방 내린천 강 건너에 있는 바위로 항시 젖어 있어 미끄럽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원대리에 속한다
지소	순께에 있는 기다란 沼
창바우	장수터 서쪽 강변에 있는 바위로 창과 비슷하다.
텃말	고새울에 있는 마을
피아산 고개	피아실 고개
피아시	피아실
피아실	삼바치 남쪽에 있는 마을로 피아실 고개 밑이 된다.
피아실 고개	피아실에서 덕적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피나무가 무성했다고 한다.
피야치1	피아실
피야치2	피아실 고개
허균재	텃말 위에 있는 마을로 허씨가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한다.
허균치(許君峙)	허균제
院垈里[法]	본래 동면지역으로 院집이 있었음으로 원터, 원대라 했다고 전하고, 觀音院이란 소귀자가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남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원대리라 한다.
간촌(間村)	샛말로 현재 원대초등학교가 있는 골짜기
낡은 텃골	샛말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내삽현(內揷峴)	안삽재
내회동(內繪洞)	안저울
너내물나들이	응달말과 회동의 경계지점으로 물가에 너래가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름고개	다름재
다름재1	박달고치
다름재2	박달고치에서 남전리 反張동으로 가는 고개
달거리	안삽재에서 기린면 토현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지명(속명)	유 래
무등목	응달말 동북 방향에 있는 작은 동산
물안골	안저울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물방아가 있었다고 한다.
물알	간총 아래 마을로 마을에서 흘러내리는 냇물이 내린천과 합수되는 곳을 말한다.
물앙골	물안골
뭔골1	응달말
뭔골2	응달말 서남쪽 산에 위치한 깊은 골짜기
꺽지소	양지말에서 응달말로 가는 내길 위에 있는 소로 꺽지가 많아서 꺽지소라고도 하였으나 지금은 수해로 자취만 남아있다.
미아골	응달말에서 회동으로 가는 길에서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바깥삼재	삽재 바깥쪽에 있는 마을
바깥저울	저울 바깥쪽에 있는 마을
박달고치1	윗고개 북쪽에 있는 마을로 다름재 아래가 된다.
박달고치2	다름재
배터께	장수터에서 원대리로 가는 나루터를 말하나 1976년에 교량을 설치하여 지금은 나룻배를 사용하지 않는다.
분고개	안저울과 바깥저울의 두 마을 중심에 있는 고개로 분치라고도 한다.
분치(分峙)	분고개
붕고개	분고개
비로꼴	비록골
비록골(飛鹿谷)	지형이 사슴이 날아다니는 형상이라 하여 지은 이름으로 응달말에서 회동으로 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비록동	비록골에 있는 마을이었으나 폐동되었다.
삽재1	응달말의 다른 이름이다.
삽재2	삽재 마을에서 고사리의 장수터로 가는 고개
샛말	간촌 응달말과 원대 사이에 있는 마을(지금의 학교가 있는 마을)
삽현(揷峴)1	삽재
삽현(揷峴)2	삽재
선유동(仙遊洞)	옛날에 선녀들이 놀던 곳이라 하여 지은 이름이다.

지명(속명)	유 래
수침동(수침동)	물안골
싸리재	싸리가 무성하다고 해서 지은 고개 이름
안두래	안두리라 하는데 지도상에는 안두래로 표기되어 있다.
안두리	내리천이 굽이쳐 흐르는 안쪽에 있는 들이라하여 원래는 안뜩이라 불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안두리로 변하였다. 들의 면적은 이만여 평이 넘으나 실제 경작지는 만여명에 불과하다.
안삽재(內揷峴)	응달말 동쪽에 있는 마을
안저울(內檜洞)	저울 안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잣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양지말(陽地洞)	샛말
역논	응달말 중안에 있으며 면적은 천여평에 불과하다. 이조시대에는 역 준전이었다고 한다.
역답(驛畓)	역논
와현(瓦峴)1	왓고개
와현(瓦峴)2	왓고개
왓고개1	원대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왓고개 밑이 된다.
왓고개2	원대리에서 남면 남전리로 가는 고개로 옛날에 기와점이 있었다고 하나 자취를 찾을 수가 없다.
외삽현(外揷峴)	바깥삽재
외회동(外檜洞)	바깥저울
왜갈산	응달말과 양지말 사이에 있는 산으로 왜가리가 많이 서식했다해서 붙여진 이름
왜골	응달말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원대	샛말과 와현 사이에 있는 마을로 원터라고도 한다.
원터	원대
음지동	응달말
응달말	삽재, 바깥삽재, 응달마을, 음지촌이라고도 하나 지금은 응달말, 뭔골이라고도 부른다.
장군바우	장군석
장군석(將軍石)	구한말 어느 장군이 큰 반석을 옮겨 놓았다하여 불려진 이름 이며 이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굴이 있는데 6.25 당시 지방 인사와 경찰관들이 피난하였다고 한다.

지명(속명)	유 래
저울(橧洞)	바깥저울, 안저울을 통칭하는 이름
절골(寺谷)	윗골과 바깥저울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3m 높이의 돌탑이 있다. 이곳에 있었던 절 이름이 문헌상에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觀音院'이었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으며 사학자였던 고 김종관씨는 원대리가 陰里로 표기된 고적 자료를 들어 "숨은 곳에 있는 절"이라 설명하고 신라 말기에 낙랑공주과 죽방부인 박씨가 머물러 있던 '둔도암'일 것이라는 해석을 한 바 있다.
정자동(亭子洞)	정짓골
정짓골	안삽재에서 기린면 북리 다락구미로 넘어가는 골짜기를 말하며 옛날에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조동(鳥洞)	샛말, 새마을의 잘못된 한문표기로 〈한국독립사〉 하권에 실린 무장항쟁 일지 내용 중 "1908. 7. 1 50인 인제 동북방 조동에서 교전"으로 기록된 것은 샛말의 잘못된 표기임.
조롱고개	외삽현에서 내삽현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가 낮아 조롱하며 넘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
쪽박골	열녀 삼척 김씨묘가 있는 골짜기
천연대동(千年代洞)	천연덕골
천연덕골	샛말과 윗고개 사이에 있는 마을
천연터골	천연덕골
청량골(靑陽谷)	내삽현과 배터께로 이어지는 골짜기
청량동	청량골
풍덩골	샛말 남쪽 골짜기
해기네터골	천연덕골 건너 마을
학인대동(學人垈洞)	해기네터골로 불리웠으나 지금은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화채간터	응달말 중앙을 흐르는 물가를 말하며 상여집이 있었다.
下楸里[法]	본래 동면지역으로 추동의 아래쪽이 되므로 하추동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싸리목이, 농금이, 닥밭구미, 박수터, 더디미, 샛말, 검은석을 병합하여 하추리라 하였다
가래울	하추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가래나무가 많이 있었다.
간촌	샛말
갈터	가래울

지명(속명)	유 래
거무세기	검은석의 변화된 지명
검은석	하추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검은 빛깔의 돌들이 있다.
노루목	싸리목과 박수터 사이에 있는 고개로 노루사냥의 목이 되었다.
농금대	농금이
농금덕	농금이
농금이	싸리목이 북쪽 산 위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거문고를 타는 형국이라고 농금대라 했다
닥밭구미	박수터 동북쪽 후미에 있는 마을로 닥나무밭이 있었다고 한다.
더디미	검은석 동쪽에 있는 마을로 더디밋재 아래가 된다.
더미밋재	더디미에서 기린면 북리 하답으로 가는 고개로 나무와 숲이 우거져 낮에도 어두워서 더듬으며 넘어 다녔다해서 더듬이라 했다.
도대미	더디미의 변절된 이름
박수대(泊水垈)	박수터
박수터	하추 동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큰 장마로 마을이 전부 떠내려가고 모래만 널려 있었다고 한다.
배나뭇골	박수터 뒤에 있는 마을로 돌배나무가 많이 있었다.
상추동	추동리 윗마을
새덕이	닥밭구미 옆에 있는 마을
샛말	싸리목과노루목사이에 있는 마을
싸리메기	싸리목이
싸리목	싸리목이에서 농금이로 가는 고개로 싸리나무가 많았다.
싸리목이	하추북쪽에 있는 마을로 싸리목고개 아래가 된다.
추동(楸洞)	가래울
축항	싸리목
축항동	싸리목이
하추동	하추리
흑석리	검은석
貴屯里[法]	본래 춘천부 기린현이 있었던 곳으로 귀둔이라 하였는데 1415년 기린현의 소재지를 지금의 방동으로 옮기면서 인제군 동면으로 편입되고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피래, 군량밭, 양지말, 용숫골, 오작골, 홀넬, 곤배골과 기린면 북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귀둔리라 하여 인제군 인제읍에 편입되었다. 행정리는 2개 리다.

지명(속명)	유 래
가칠봉(加漆峰)	기린면 진동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봉으로 해발 1,164m 가 넘는다
개용소	용숫골 동북쪽사이에 있는 작은 沼
곤뱃령	곰뱃골에서 기린면 진동리의 강선리로 가는 큰 고개로 목초지가 발달되어 있고 산채와 약초가 다량으로 산출된다.
곰배령	곤뱃령
곰뱃골	양지말 동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곰배(고무래)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구렁뚝	귀둔에 있는 들로 구렁이 졌다.
군량동(軍糧洞)	쇠물안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군량을 생산해 내는 밭이 있었다고 한다.
군량밭1	군량동
군량발2	군량동 앞에 있는 7만여평의 밭으로 의병난때 의병들이 양식을 쌓아 두었었다고 전해온다.
군량밭 고개	군량동에서 쇠물안골로 가는 고개
군량전	군량밭
귀둔	귀둔리
내우재	내위재
내위재	쇠물안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내위재 고개 밑이 된다.
내위재 고개	내위재에서 쇠물안골로 가는 고개
느릅재	쇠물안골에서 군량동으로 가는 고개로 느릅나무가 많았었다.
대선봉(대선봉)	용수동 북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가 1,167m나 된다
때방골	낭떠러지가 곳곳에 있어 지은 골짜기
말등바우 고개	황골에서 버덩말로 가는 고개로 모양이 말등과 같은 바위가 있다.
불난바우	장터거리 서쪽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로 바위틈에서 샘물이 솟아난다.
버덩말	양지말 옆 버덩에 있는 마을
본용소	용숫골에 있는 소로 폭포 아래에 있으며 용이 등천했다는 전설이 있다.
쇠말골	쇠물안골
쇠물안골	의병난때 의병들이 소와 말을 먹이던 곳
쉰질매버덩	피래 동쪽에 있는 버덩으로 의병들의 소와 말을 쉬게 하였던 곳이다.

지명(속명)	유 래
양지말	피래 서남쪽 양달에 있는 마을
역답	버덩말에 있는 들로 경지 면적은 3만평에 달하고 이조 시대에 역둔전이었다.
오작골	귀둔리에서 정동쪽에 있는 마을
오작동(五作洞)	오작골
옥답터	귀둔 동쪽에 있는 옥터로 기린현의 옥이 있던 곳이다.
용소	용숫골 동북쪽에 있는 소로 용마가 있다고 하여 가뭄시에는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용수동	용숫골
용숫골	곰배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용소가 있다.
우마동(牛馬洞)	쇠물안골
유현	느릅재
이둔(耳屯)	귀둔리의 옛 이름
이탄(耳呑)	귀둔리의 옛 이름
장단너머	장터거리 남쪽에 있는 논
장터거리	버덩말 안에 있는 마을로 5일장이 선다
절골	버렁말 옆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
점봉산(點鳳山)	귀둔과 기린면 진동리와 양양군 서면의 경계를 이루며 해발 1,424m가 넘는다. 전설에 의하면 이조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산속에서 사수전을 만들어 냈는데 망치질하는 소리가 “점봉산 돈 닷돈, 점봉산 돈 닷돈”하는 소리로 들려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다 결국 관가에서 알게 되어 처형당했다고 한다.
정당골	정동, 곰배골
정동	곰배골
정산령	곤뱃령
큰샘물터	장터거리 남쪽 산 밑에 샘이 나는 곳이며 이곳에서 산골이 났었다.
평지촌	버덩말
풍곡리(豊谷里)	현내면 소재지에서 동쪽 40리에 위치한 마을로 1759년 당시에는 14가구 62명이 거주하였으나 1843년 이전에 폐동되고 지금은 지명조차 불리워지지 않고 있다.
피래	난리에 피난와서 이룬 마을. 지금은 두 가구가 살고 있다.

지명(속명)	유 래
필예(必曳)	피래
향교 둔지	향교터
향교터	버덩말 서쪽에 있는 기린현의 향교가 있던 터
황골	장터거리 위에 있는 마을
可理山理[法]	본래 동면지역으로 가리산 아래 있다고 해서 가리봉, 가리산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우풍개, 젓바치, 굴아우를 병합하여 가리산리라하고 군내면 인제읍에 편입되었다.
가리봉1	가리산
가리봉2	가리산리
가리산	가리산리
굴아우	가리산 서쪽에 있는 마을로 산에 바위 굴들이 많이 있다.
대맥이	대복이
대목이	가리산 동쪽에 있는 마을로 대목이 고개 밑이 된다.
대목이 고개	대목이에서 귀둔리의 피래로 가는 큰 고개
대묵이	대목이
안 가리산	가리산 안쪽에 있는 마을
옥녀탕	대목이 큰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둘레는 한평 정도이고 수심은 3m 정도이며 큰 길에서 동쪽으로 10리 부근에 있다.
우풍개	젓바치 너머에 있는 마을로 개가 있었다고 하여 우풍포라고도 한다.
우풍포	우풍개
젓바치	전나무가 무성했던 마을
진무대(陣茂垈)	진무터
진무터	대목이 남쪽에 있는 마을
하령산 고개1	하우고개1
하령산 고개2	하우고개2
하우고개1	하우고개 밑에 있는 마을
하우고개2	젓바치에서 덕적동으로 넘어가는 큰 고개로 옛날에 두 사람이 싸우고 원님에게 소송을 하러 가다가 이 고개에서 화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하우현(下雨峴)	하우고개
회전동(檜田洞)	젓바치

南 面

남 면

군의 남쪽에 있어 남면이라 하였으며 두모동, 건달리, 신촌리, 가노촌, 북평, 청구, 음양, 구만, 유목정, 소치, 어론, 화탄, 소치, 갑둔, 금보왕촌, 정자막, 성황거리, 백자동, 감전동, 마노역, 숯둔촌, 반장터의 12개 리를 관할하는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기린면 상남리의 일부를 편입하여 두무, 신월, 원대, 부평, 신풍, 어론, 갑둔, 김부, 정자, 감전리 10개 리로 개편 관할하다가 1945년 38선이 생김에 따라 감전, 두무, 원대리는 공산치하에 들어가고 부평, 어론, 정자, 갑둔, 신풍, 신월, 김부리 7개 리와 인제읍의 원대리와 인제면의 북리, 진동리와 함께 그 해 9월 19일에 홍천군에 편입되어 신남면이라 하고 신풍리의 북쪽 일부를 떼어 신남리를 새로 만들어 8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951년 수복되어 군정아래에 있다가 1954년 11월 17일 행정 이양에 따라 민정으로 돌아와 두무, 신월, 부평, 신풍, 어론, 정자, 기부, 갑둔, 남전, 원대, 신남리를 관할하다가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인제군 남면 두무리를 양구군 남면으로 양구군 남면 상산내리와 하수내리, 춘성군 북산면 수산리를 인제군 남면으로 승격되면서 남면 김부리가 상남으로 편입되어 12개 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행정리는 15개 리다.

동쪽으로 기린면, 서쪽으로 양구군 남면, 남쪽으로 춘성군 북산면, 북쪽은 인제읍에 닿아 있다. 인제군의 관문이기도 하다.

남면 사적 분포도

① 장수사　② 마의태자 유적지비　③ 오덕준 장군 공덕비　④ 남전리의 충현비
⑤ 남전리의 유령비　⑥ 제1야전군 사령부 지지 기념비　⑦ 남북통일로 표석　⑧ 38교 표석

지명(속명)	유래
於論里[法]	본래 남면지역으로 어론이라 하였으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화탄리를 병합하여 어론리라 하였다. 동리 사람들 중에 말다툼이 많아서 어론이라 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행정리는 2개리다.
간인현(艮寅峴)	거니고개라고 많이 부르며 지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고니고개	어론 남쪽에서 두촌면 건남리로 가는 고개로 인제군과 홍천군의 경계가 된다. 이조때 고개 아래에 건이원이라는 원집이 있었으며 고개가 낮아서 '놀기좋은 합강정, 넘기좋은 거니고개'라는 노래가 있다.
건이골	거니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에 예전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건이촌	건이골
건이치	거니고개, 건이현으로 표기할 때도 있다.
건이현	거니고개
곽골	절골 옆에 있는 마을
깃대봉	웃말 동쪽에 있는 산으로 세부 측량때 측량 표준기를 꽂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다무리	어론 북쪽에 있는 마을로 집집마다 돌을 쌓아 울타리를 했었다고 하나 지금은 돌을 쌓은 울타리는 찾기 힘들고 위치에 따라 아랫다무리, 웃다무리, 새다무리의 세 마을로 나눈다.
다물리	다무리
사곡	절골
상다물리	웃다무리
쌍솔배기	쌍 소나무가 있는 곳
새다무리	아랫다무리와 웃다무리 사이에 있는 마을
속새매기1	화탄리 남쪽에 있는 마을
속새매기2	속새매기 마을에서 두촌면 괘석리의 신흥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속새풀이 많았다.
숯둔	어론쪽 안 마을로 숯을 많이 구었다고 전해오며 1988년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숯둔골 숯굽기 놀이"에 출전하여 놀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신수곡(新修谷)	신수골
신수골	화탄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
신수리	신수골

지명(속명)	유래
아랫다무리	다무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
아랫말	웃말 아래쪽에 있는 마을
양골	절골 뒤에 있는 마을로 양을 많이 길렀다고 한다.
어론	어론리
어론장	웃말에 서는 장이었으나 지금은 서지않는다.
오계탕(五溪湯)	어론에서 화탄리에 가는 물가에 있는 탕으로 잇달아 다섯개의 탕이 있다고 하여 지은 이름이며 경관이 좋아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했다고 전한다.
웃다무리0	다무리 위쪽에 있는 마을로 상다무리라고도 한다.
웃말	어론의 위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장이 섰다고 하여 장거리라고도 한다.
장거리	웃말
절골	어론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
중다무리	새다무리
탄곡(炭谷)	숯둔
탄촌	숯둔
하다무리	하랫다무리
화탄리(禾呑里)	어론 동쪽에 있는 마을
회곡현(檜谷峴)	횟골고개
횟골고개	절고에서 상수내리로 넘어가는 고개
新豊里[法]	본래 남면지역으로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소치리와 유목정의 일부를 병합하여 신풍리라 하였다. 1945년 38선이 생김에 따라 피난민이 급증하므로 북쪽 일부와 다릿골, 줄뚜루, 유목정, 진뚜루를 떼어 신남리로 신설하였다.
모래고개	새잿골과 신남리 사이에 있는 고개로 지금은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다.
사치(沙峙)	모래고개
사치리	새잿골
시현	새잿골
사현	모래고개
새재	모래고개
새잿골	신풍 뒤에 있는 마을로 모래고개 아래가 된다.

지명(속명)	유래
신풍	신풍리
지내비골	지내비골, 비내미글로 불리우고 있으며 지네가 많아 부르는 이름이라고도 하고 쥔애비가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쥔애비가 살아서 '쥔애비골'이라 부르던 것이 지내비골로 변했다는 것이 더욱 실감난다.
新南里[法]	본래 남면 신풍리 지역이었으나 1945년 38선이 생김에 따라 피난민이 급증하여 신풍리 북쪽 일부(절뚜루, 다릿골, 느릅정이, 진뚜루)를 떼어 남면의 중심지가 된다고 해서 신남리라 하였으며 행정리는 2개 리다.
교동	다릿골
남면장	신남리에 서는 장으로 6.25동란 후에 개시되었으며 지금도 5일장이 선다.
느릅정	양지말 앞에 있는 마을로 유목정, 유목동이라고도 한다. 느릅나무가 많았다.
뒷골	양지말 뒤에 있는 마을
다릿골	신남 북쪽에 있는 마을로 어귀에 큰 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사평(寺坪)	절뚜루
성제바우	장군바우 옆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상제와 비슷하다고 한다.
신남	신남리
양지말	절뚜루 북쪽 양지에 있는 마을로 양지촌, 양지평이라고도 한다.
양지촌	양지말
양지평	양지말
유목동(楡木洞)	느릅정
유목정	느릅정
장군석	신남 서쪽 산 밑에 있는 바위로 장군이 서 있는 형상이라고 한다.
장자골	신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장자가 살았다고 한다.
절뚜루1	신남 옆에 있는 들로 면적은 2천5백여평이고 절이 있었다. 소양강댐으로 인하여 수몰되기전에는 이곳에 석불좌상이 1기가 있었으나 인제읍 서릿골에 있는 백련정사 주지 강석천스님이 지금의 백련정사 뒷켠으로 옮겨 모셨다.
절뚜루2	절뚜루 옆에 있는 마을
진뚜루	상베바우 들 옆에 있는 마을로 군인들이 진을 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명(속명)	유래
닭바우	절뚜루 마을 건너편에 있는 바위로 닭의 벼슬 모양이라고 한다.
닭바우 고개	유목정 남쪽에 있으며 닭바우가 있는 고개를 말한다. 지금은 도로가 훤하게 나 있어 고개라고 할 수가 없다.
탑뚜루	탑뜰, 절뚜루
후곡(後谷)	뒷골
富坪里[法]	본래 남면지역으로 북쪽 들에 있으므로 북평 또는 부평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청구리, 구만리, 음양리와 유목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부평리라 하였다.
가마소	가매소
가매소	도수암 서쪽에 있는 소로 안에 큰 바우가 있다고 한다
구만동(九萬洞)	음양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소양강 굽이 안쪽이 된다.
구만리	구만동
끊는소	가매소 위에 있는 소로 위에서 물이 굽이굽이 떨어져서 마치 물이 끓는 것 같다고 한다.
길뚝거리	아주 오래전에 큰 길이 있었다고 하여 불리던 이름이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늘목고래	도수암에서 갑둔리의 소치로 가는 고개로 밋밋하여 힘들이지 않고 넘는다 한다. 텃골
대동(垈洞)	텃골
도둑바우	도수암 어귀에 있는 큰 바위로 뚫려 있는데 도둑이 살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수암(道水岩)	부평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반석위에 냇물이 흐르고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남면의 소금강이라고까지 불리우며 지금은 외지에도 널리 알려져 많은 피서객이 찾아든다. 아주 오래전에 이곳에는 ‘도수암’이라는 암자가 있었으며 이 암자의 이름을 따서 도수암이라고 명명했다는 설이 전해오고 있다.
뗏둔지	부평 동북쪽 둔지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전까지만 해도 떼가 많았었다.
뒷재	동리 뒤에 있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지명
매고개	이 고개에 매가 많이 서식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모루박	부평 서쪽 외딴 곳에 있는 마을로 우외동, 외평이라고도 한다.
방아골	오래 전에 물레방아가 있었다 하여 지은 이름이다.

지명(속명)	유래
뱃막께	청구리에서 관터로 통하는 나룻터였다고 한다. 현재는 소양강댐으로 침수가 되었으며 부평 선착장 시설이 되어있어 춘천과 인제를 운행하는 페리호가 1일 2회씩 운항하고 있다.
보아구 숲평	음양동에 있는 숲
부평	부평리
부평리	부유한 촌락으로 논밭이 비옥하다는 뜻에서 지은 지명이다.
소동	청구리 남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솟탱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냇물이 탕을 이루면서 마을 앞을 흐른다.
송노골(松老谷)	노송과 바위가 있었다고 하여 지은 지명이다.
쇳골	오래 전에 이곳에서 무쇠가 났다고 해서 생긴 지명이다.
시댓골	옛날에는 집이 없었던 골짜기였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붙여진 지명이다.
수리봉	칠백사(704) 고지
우동(牛洞)	소동
우외동(隅外洞)	모루박
우외평	모루박
울때소	음양동에 있는 소. 밀림지대에 있어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육팔이 고지	부평리 서쪽에 있는 높이 682m의 고지로 동란때에 한국군이 주둔했었다
음양동(陰陽洞)	부평리에 있는 마을로 음지쪽과 양지쪽의 두 마을이 있다.
음양리	음양도
중앙동	부평리 중앙에 있는 마을
청구동(靑邱洞)	떼둔지
청구리	떼둔지
칠백사 고지	부평리 동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 704m의 고지. 수리가 새끼를 치고 살았다고 해서 수리봉이라고도 한다.
텃골	도수암 동쪽에 있는 마을
파랑소	솟탱이에 있는 소
甲屯里[法]	본래 남면지역으로 임진왜란때 군사들이 진을 쳤다하여 갑둔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소치리 김부동의 일부를 병합하여 갑둔리라 하였으며 행정리는 2개 리다.

지명(속명)	유래
갈고개	서낭거리에서 수구네미로 넘어가는 고개
갑둔	갑둔리
갑둔탑	탑둔지에서 발견된 탑으로 갑둔초등학교에 옮겨져 있다.
김부리 고래	수구네미
김부리 5층 석탑	탑골에 있는 탑으로 1987년 5월 5일 갑둔 향토사적 연구회원 이태두씨가 하대석과 오신 일부를 발견하여 오미자농원 정운희 사장과 성금지원으로 동년 10월 21일에 복원한 탑이다. 기단부의 면석에는 음각된 해서체의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4행 34자로 되어 있다. 태평이란 연호는 성종 10년(1030)까지 사용했으나 교통 통신이 매우 불편했던 당시 실정으로 보아 건립 당시에 연호가 바뀌었음을 몰라서 계속 사용하였으리라 추측되며 태평 16년은 1036이 되므로 신라 패망 백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마의태자 나이 121세로 사망하던 해와 공교롭게도 같아서 김부대왕과 마의태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마의태자의 전설이 전설은 아닌 사실로 밝혀졌다.
맹가곡(孟家谷)	맹가골
맹가골	맹씨가 많이 살았다고 해서 지은 이름으로 마의태자 휘하에 맹장군이 있었는데 장군의 후손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주민들은 말한다.
맹개골	맹가골
맹창골	유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맹가골 내용과 유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늠바우1	소재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늠바우가 있다.
늠바우2	늠바우 마을 위에 있는 바위로 문처럼 생겼다고 하여 문바위라고도 부른다.
떡갈봉	성황거리 북쪽에 위치한 산봉으로 떡갈나무가 무성한데 연유하여 지은 지명이다.
맞는물	샛골에 있는 약수로 피부병에 좋다고 한다.
문바우	늠바우2
문암동(文岩洞)	늠바우가 있는 마을
문지방소	미약골과 원갑둔 사이에 있는 소로 문지방처럼 생겼다.
미야동(美也洞)	미약골
미약골	갑둔리 서북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
병바우	문지방소 옆에 있는 바위이며 벼랑을 이룬다.

지명(속명)	유래
병바위굴	문지방소 옆에 있으며 굴의 길이가 20m, 넓이 5m로 6.25때 패망한 인민군이 후퇴 당시 한때 은거했다 한다.
샛골	소재와 원갑둔 사이에 있는 마을
서낭거리	원갑둔 동남쪽 들 옆에 있는 마을로 성황당이 있었다. 현재는 이 위치에 학교가 들어서 있다.
성황거리	서낭거리
성황평	서낭거리
소재	원갑둔 북쪽 취봉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소치(所峙	소재
소치리	소재
수구네미1	서낭거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수구네미 고개 밑이 된다.
수구네미2	수구네미에서 김부리를 가는 고개로 김부대황이 수레를 타고 넘어 다녔다 한다
수레너미1	수구네미1
수레너미2	수구네미2
술구너미1	수구네미1
술구너미2	수구네미2
오미동(오미동)	오미잣골
오미자동	오미잣골
옥개골	욕개글
옥토골	서낭거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
옥토봉	옥토물에 있는 산봉으로 형상이 토끼와 유사하다고 한다. 옛 날에 이곳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결혼한 지 3년이 되어도 슬하에 자녀가 없어 김부대왕께 찾아가 소원을 빌었더니 절을 짓고 부처님께 백일기도를 드리라고 일러주었다. 부부는 토끼봉에 절을 짓고 백일기도를 드려 두 남매를 얻게 되었으며 이들 남매는 김부대왕이 죽은 후에 은혜를 갚기 위해 김부 대왕각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으며 지금도 토끼봉에는 전설의 주춧돌이 남아 있다고 한다.
오미잣골	수구너미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오미자가 많이 자생했다고 하며 지금도 오미자농장이 있다.
욕개골	소재 동북쪽에 있다.

지명(속명)	유래
욕개동	욕개골
원갑둔	갑둔의 원 마을
원막골	서낭거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하며 농막이 있었다고 전한다.
차유현(車踰峴)	수구네미2
천지골	한자표기는 알 수 없으나 토끼봉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갑둔 향토사적 연구회원 이태두씨는 천지곡(하늘의 뜻, 임금의 뜻), 천제곡(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골짜기), 천기곡(임금님의 사업의 기초)으로 김부대왕이 구국의지를 세우고 다진 골짜기로 풀이 하면서 김부대왕과 관련되어 생긴 지명으로 추측하고 있다.
촛대바우	원막동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촛대와 비슷하다.
탑골	옛날 탑이 있었다 하여 지은 이름이다.
탑두루	탑둔지
탑둔지	갑둔지에서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으로 탑이 있었으나 일부는 훼손되고 일부는 갑둔초등학교 교정에 옮겨 놓았다.
탑뜰	탑둔지
토끼봉	옥토봉
亭子里[法]	본래 남면지역으로 정자가 있었으므로 정자막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통골, 셋말, 아랫말, 기령골을 병합하여 정자리라 하였다.
기령골	길영고개 밑에 있는 마을
길영고개	기린면 서리로 넘어가는 긴 고개
길영동	기령골
단지골 고개	정자리에서 상남면 김부리의 단지골로 가는 고개
대통골	큰 통골
더렁재	아랫말에서 상남면 김부리로 가는 재
도토골	산돼지와 토끼가 많아서 도토골이라 불렀다고 하나 지도상에는 도화동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또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도화동(桃花洞)	정자막 동남쪽에 있는 마을
매고개	매봉재
매봉재	양지말 뒤 매봉산에 있는 재로 정자리에서 상남면 하남리로 가는 길목이다.

지명(속명)	유래
먹구네미 고개	길영고개
범골	아주 오래전 이곳에 살던 한 여인을 범이 물어 갔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다.
샛말	아랫말과 매봉재 사이에 있는 마을. 간촌
석장골	옛날 어떤 유명한 풍수가 산자리를 볼 때 돌로 만들어진 천연적이 곽이 있으나 아직 임자가 나타나지 못하여 그곳을 알려줄 수 없지만 이 골짜기에 분명히 있다면서 증거로 이곳을 파면 범 모양의 돌이 나온다고 파 보라고 했다. 그 곳을 팠더니 정말 범 모양의 돌이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장차 이 곳은 석곽 속에 장사를 지내는 일이 생길 것이라 믿고 석장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소통골	작은 통골
아랫말	정자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
애맥골(愛麥谷)	이곳은 다른 곡식도 잘 되지만 특히 보리가 잘되므로 붙여진 지명이다.
양지말	정자리 동북쪽 양지에 있는 마을
응봉치(應峰峙)	매봉재
작은 통골	소통골
정자막	정자리
정자막리	정자리
지령골	기령골
큰 통골	대통골
통골	정자막 북쪽 큰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대통골과 소통골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藍田里[法]	본래 남면지역으로 남밭골 또는 남전동, 남전리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가로리, 반장리를 병합하여 남전리라 하였다.
가노진(加奴津)	가로리 서쪽 후미에 있는 나루터. 1973년 소앙강댐 준공을 보게 되어 침수지역이 되고 말았다.
가노촌	가로리로 남밭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소양강댐건설로 일부가 침수되었다.
가로교	군축교가 놀이기 전에 있던 소교량으로 길이가 40m에 불과 했으며 지금도 교각의 잔해 일부가 남아있다
가로리	가노촌

지명(속명)	유래
가마소	동아실 어귀 폭포 아래에 있는 소로 가마솥과 비슷하다
개양포(皆陽浦)	하루종일 햇볕이 있는 나루터로 인해 지은 지명이나 침수되었다.
군축교	가로교를 군인이 놓았다하여 군축교라 하였으나 지금의 교량은 남강토건에서 1973년에 준공한 길이 303m, 높이 20m의 교량으로 옛 이름을 따서 군축교라 명명하였다.
남밭골	남전리
남전교(藍田橋)	남전리 앞에 있는 다리였으나 침수되어 자취를 감추고 현재의 교량은 1972년 동원건설에서 준공한 교량으로 길이가 150m 이다.
남전동	남전리
남전리	쪽나무가 많이 자생하여 남전리라고 하며 반자동 서쪽 물가에 있다.
남전포	남전리
도화실	동아실
돌산골	암석의 돌출함이 많아 붙여진 골짜기 이름
동아실	남밭골 동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는 복숭아나무가 마을을 뒤덮다시피 많았다고 한다.
반장동(半張洞)	반장리
반장리	남밭골 동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상촌과 하촌과의 거리가 반절이 된다하여 지은 이름이다.
상촌	반장동 웟마을
오목골	동아실 동쪽 오목한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
쪽밭골	남전리
쪽밭골 약수터	1969년 6월 15일 함경북도 명천 출신 이태근에 의하여 발견된 약수로써 국도변에서 약 1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군내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항골	항아리 모양으로 골 안이 넓고 길쭉하다는데 연유하여 지은 지영이다.
冠垈里[法]	본래 남면지역으로 이조시대에 마노역이 있었으며 관터 또는 관대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개운리, 대흥리를 병합하여 관대리라 하였다.
개륜	개운이
개륜이	개운이
개운교	대흥리 앞에 놓였던 다리였으나 소양강댐 공사로 침수되어 자취를 감추었다.

지명(속명)	유래
개운리	개운이
개운이	대흥리 옆에 있는 마을
관대	관대리
관터	관대리
군량동	임진왜란때 군량미를 저장한 곳
대흥교(大興橋)	개운교
대흥리	관대리에서 외따로 떨어진 마을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이 마을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김대흥이란 사람이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주승이 찾아와 시주를 청하니 외양간을 치던 김대흥은 "무엇 줄 것이 있어야지. 쇠똥이나 가져가게"하며 쇠똥을 퍼 주었다. 이를 본 며느리가 "아버님, 개도 안먹는다는 것을 주면 죄스럽습니다. 등겨(살겨)가 있으니 한 바가지 주시지요"하는지라 그도 아까워하면서 허락을 하자, 며느리는 큰 바가지에 쌀을 담고 위에 등겨를 덮어 시아버지의 눈을 속여 시주를 했다. 시주승은 이에 감탄하여 "댁에 화가 있을 것이니 자녀가 있거든 급히 데리고 나를 따르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니 시각을 지체 마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며느리가 황망히 아이를 업고 뒤를 따르자 시주승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뇌성벼락이 치며 폭우가 쏟아져 대홍수가 나자 며느리는 집이 걱정되어 돌아다보니 집은 물에 잠겨 자취를 감추었고 시주승의 말을 어긴 탓인지 며느리도 주저앉은 채 돌이 되었다고 한다. 전설은 전설이라 치더라도 이 마을에는 지금도 김대흥이 살았다는 집이 있던 터를 장자귀미라 부르고 있고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고개를 부소고개라 하는데 부잣집으로 가는 고개라 하고 동리명도 대흥리라고 했다고 하나 지리원에서 낸 〈한국지명총람〉에는 부소고개를 부소현으로 표기하고 있어 전설 내용과는 뜻을 달리하고 있다.
뒤뜰	후평
뒤버덩	후평
마노진(마노진)	관터 앞에 있던 나루터. 청구리로 건너다녔으며 지금도 학생들의 통학을 돕기 위해 장학선이 운행되고 있다. 이조시대 때 관대리에 있던 역으로 기마가 2필, 복마가 4필, 관리가 5명, 奴가 15명, 婢가 8명이 있었다.
마리역(瑪璃驛)	마노역의 다른 한문 표기명
배남동	마을이 남향을 등지고 있다하여 지어진 이름

지명(속명)	유래
부소고개	관터 서남쪽에 있는 고개
부소현(梟巢峴)	관터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통상 부소고개라 불렀다. 물오리 집이 많이 있다하여 지은 이름
삼팔교	북위 38선에 1955년에 놓여진 다리였으나 소양강댐 수몰지역으로 자취를 감추고 38교라고 조각된 석비는 현재 닭바위 고개로 옮겨 놓았다.
후평	대흥동 뒤 버덩을 말한다.
新月里	본래 남면지역인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신촌리와 건달리를 병합하여 신월리라 하였다.
건달리(建達里)	월산 밑에 있는 마을로 내촌과 외촌의 두 마을로 나뉘어 있다.
건답리(乾沓里)	신월리의 옛 지명으로 모든 논이 천수답이어서 모내기를 적기에 못한 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이다.
건달리촌	건달리
내건리	내촌
내촌	건달리 안쪽 마을
신촌리	신월리에 새로 생긴 마을로 수몰되어 일부만 남아있다.
외건리	외촌
외촌	건달리 바깥쪽 마을
월리고래	신촌에서 양구군 남면 월리로 넘어가는 고개
월산	월리고개 뒤에 있는 산
월산치	월리고래
진팔리	신월리의 옛 지명
水山里[法]	본래 춘성군 북산면에 속했으나 1973년 7월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남면으로 편입되었다.
내곡동	박달골
덕가리(德街里	덕거리
덕거리(德巨里)	춘성군 북산면 대동리와 무학동 박달골로 갈라지는 삼거리에 위치한 마을로 이조시대에는 이곳에 주막이 많이 있어 양구와 춘성을 오가는 행인들로 붐볐다고 한다.
도래골	예전에 산에 개복숭아나무가 많아서 桃峽골이라 했다고 하고 거룻배가 들어오는 골짜기라 해서 도래골이라 했다고도 하나 어느 것이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현재는 소양강댐 담수로 인하여 배가 닿을 수 있게 된 것이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지명(속명)	유래
무학동(無鶴洞)	예전에 학이 많이 서식했다고 한다.
박달골	예전에는 이 마을에 박달나무가 숲을 이루어 박달골이라 했다고 전하며 이 마을에는 떠꺼머리 총각이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박달나무를 이용하여 비행기를 만들어 타고 다녔으며 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당시 면장은 난리가 나면 비행기로 쉽게 피난할 수 있다하여 애지중지 길러 온 외동딸을 떠꺼머리 총각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이야기가지금도 전해오고 있다.
배나무골	돌배나무가 많이 자생한 데 연유하여 지은 지명이다.
빙골(氷谷)	샘골에 있는 골짜기로 산이 높고 골이 깊어 항시 그늘이 지므로 늦봄까지 얼음이 안 녹는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다.
샘골	빙골 아래 있는 마을로 샘이 난다고 한다.
수산리(水山里)	물과 산이 많아서 수산리라고 불렀다
수청동(數靑洞)	물푸레나무가 무성하여 늘 푸르다하여 지은 지명이다.
시녀골(侍女谷)	이곳의 아리따운 처자 한 사람이 궁중 나인으로 들어간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이다.
절골	예전에 절을 짓기 위하여 터를 잡았다하여 절골이라 부르고 있지만 현재까지 절을 짓지는 못했다고 한다.
정자동	정지골
정지골	아주 오래 전에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통골(洞谷)	수산리에서 최초로 마을이 형성된 곳
上下水內里[法]	본래 양구군 남면지역으로 1945년 해방이후 수내리를 제외한 전역이 38선 이북으로 공산치하에 들어가자 이남인 수내리는 춘성군 북산면으로 편입되었다가 1954년 수복직후 임시조치법 공포로 양구군 남면으로 환원되었으며 1973년 소양강댐 완성으로 인한 행정구역개편시에 일부 수몰되지 않은 상하수내리가 본군 남면으로 편입되면서 상수내리와 하수내리를 병합하여 상하수내리라 하였다.
난근호(蘭根乎)	난뿌리라고 부른다.
난뿌리	옛날 난초가 많이 자생했다고 하며 물미 건너편에 있는 마을
남부리	난뿌리가 난부리로, 난부리가 다시 남부리로 변형된 이름이다.
막장골(幕帳谷)	서낭댕이에서 강 건너에 있는 마을
물미	상수내리의 으뜸 되는 마을
배나무골	배나무가 많이 있어서 지은 이름이다

지명(속명)	유래
상수내리	수내리의 위쪽 마을을 말하며 1916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춘성군 북산면의 수하리 일부를 병합하여 상수내리라고 하였다.
상수내외리	상수내리
서낭댕이	하수내리의 중심마을로 큰 성황당이 있었다.
수내리	물안에 있는 마을
수문리	1750년경에 상수내리를 수문리라 부르기도 했다.
수상리(水上里)	물 위에 있는 마을로 본래 춘성군 북산면 관할이었으나 1916년에 상수내리와 병합하였다.
아랫수내리	하수내리
양구대교	신남에서 양구방면으로 약 8km쯤 되는 거리에 있으며 1972년 태백산 국토건설 시행으로 현대건설에서 시공한 교량으로 길이가 393m이고 높이가 48m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다.
옥산동(玉山洞)	난뿌리 남쪽에 있는 마을
옥산포	옥산동
웃수내리	상수내리
하수내리	수내리의 아래쪽이 되므로 아랫수내리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막장골을 병합하여 하수내리라고 하였다.
하수내외리	하수내리

北 面

북 면

군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북면이라 하였으며 본래 원통, 가력리, 용대리, 풍교역, 창암, 온정, 송학동, 한계동, 풍전동의 9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한계, 원통, 월학, 용대의 4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945년 38선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1년 탈환하여 군작전지구로 되었다가 1954년 11월 17일 행정 이양에 따라 민정으로 돌아왔으나 지금도 용대리의 일부는 군용지로 쓰이고 있으며 행정리는 17개 리다.

동남쪽으로 기린면, 서쪽으로 양구군 동면, 남쪽은 인제읍, 북쪽은 서화면과 인접해 있으며 상업, 관광, 군사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다.

북면 사적 분포도

① 한계산성 ② 백담사 ③ 오세암 ④ 봉정암 ⑤ 석황사 ⑥ 한계사지 ⑦ 영시암지
⑧ 충성암지 ⑨ 봉정암 석가사리탑 ⑩ 운흥사지 운막암 석탑 ⑪ 암자동 석탑
⑫ 장수대 ⑬ 설악루 ⑭ 만해 한용운 시비 ⑮ 황장금표 ⑯ 무명용사 충혼비
⑰ 백골병단 전적비 ⑱ 칠성탑

지명(속명)	유래
元通里[法]	이조시대에 원통역이 있었으므로 원통이라하였고 1916년 행정구역 개편시에 어둔리와 하동 일부를 병합하여 원통리라 하였다. 행정리로는 8개 리다.
갈골	원통리쪽에 있는 마을로 갈대밭이 있었다고 한다.
노동(蘆洞)	갈골의 다른 이름
봉화동	월학리 말걸리 뒷산으로 이조시대 봉수대가 있었다.
삼거리	인제, 서화, 속초로 가는 삼거리로 현재 네거리가 있는 부근을 말한다.
삼거현(三巨峴)	세거런이 고개라고도 하는데 세 개의 큰 고개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원통 8리에서 남교리로 가는 도중에 있다. 40여년 전에 부자 과부가 자기 돈으로 두 고개를 낮췄다고 전해 온다.
새골고개	월학리 새골과 원통리 사이에 있는 고개
서저울	원통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강이 흐르고 있다.
서저울 다리	서저울에 있는 구다리로 1940년에 놓았고 1976년에 새로운 교량을 가설하여 지금의 쌍다리라고 부른다
서호교(西湖橋)	서저울다리
서호동	서저울의 다른 이름
상서호동	서저울의 윗마을
하서호동	서저울의 아랫마을
세거리	어두원이, 고원통, 용대리의 정자분리로 가는 거리 마을
세거런이 고개	삼거현의 우리말 이름
솔거리	원통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객주집이 있었고 소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송거동(松巨洞)	솔거리의 한문명
어두교(魚頭橋)	어두원이 앞에 놓인 다리
어두리	어두원이의 한문 표기명
어두원이	어두리의 한글 표기. 가평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높은 산이 솟아 있고 골짜기가 깊어서 어둡다고 한다.
조곡치(鳥谷峙)	새골고개의 한문 표기명으로 월학리와 원통 사이에 있는 고개로 사이에 있다하여 샛골이라 불렀는데 일제시대에 한문 표기 과정에서 잘못된 이름이다.
제주도	원통 6리 마을로 제주도처럼 뚝 떨어져 있다고 하여 최근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명(속명)	유래
둔지말	원통 7리 마을로 둔덕진 마을이란 뜻이다.
둔지마을	둔지말
마현	옛날 삼을 많이 재배한 곳으로 붙여진 지명이나 지금은 잘 쓰여지지 않고 있다.
뇌탄천(磊灘川)	원통역 앞 15리 떨어져 흐르는 어두원천의 옛 지명이다.
다래골	월하동, 하동이라고도 부르며 상동 아래쪽에 있으며 지대가 높다. 법정리로 따지면 월학리에 속한다.
아전사리	12사단 뒤 방축골천이 흐르는 마을
방축골	버스터미널 뒷골로 물을 막기 위하여 둑을 쌓았다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월하동	다래골의 다른 이름
月下里[法]	1916년 행정구역개편시에 송학동과 월하동의 일부를 병합하여 월학리라 명명하였다. 행정리는 3개 리다.
건미치(建尾峙)	걸미재의 한문 표기식 지명이다.
걸미재	새재에서 송학동으로 가는 재로 골무처럼 생겼다.
구미동(九美洞)	풍전동 동남쪽 후미에 있는 마을로 이전에는 수기의 고인돌이 발견되어 마을 형성이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양소	다래골 북쪽에 있는 마을
김장소	김양소의 다른 이름
다래골	법정리로 따지면 월학리에 속하나 행정리 상으로는 원동 2리에 속한다.
남양허(南陽墟)	남양이란 사람이 개척한 마을
남양터	남양허와 같은 이름
논골	논다래의 다른 이름으로 논이 많이 있는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이다.
논다래	소재골과 인제읍 가아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
누더기 바위	말거리 앞 강가에 있는 바위로 여러 개가 흩어져 있어 누더기처럼 보인다.
대태	송학동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대나무가 무성한데 연유하여 지은 지명으로 대터의 변한 발음상의 이름이다.
도리도리	말거리 북쪽 강가에 있는 마을
도리촌(桃李村)	도리도리의 다른 이름

지명(속명)	유래
말거리	월하동 북쪽 들 옆에 있는 마을이며 뒷산이 말의 형국이라 한다.
마평	말거리의 한자 표기명
마고리	말거리의 발음 변화에 따른 이름
두멍소	앞배냥 끝에 있는 소로 두멍처럼 생겼다.
띠두루	송학동 북쪽 들 옆에 있는 마을로 띠밭이 있다.
모평(茅坪)	띠두루의 한자 표기명
명당산(明堂山)	월학리 서쪽에 있는 산
부엉소	부엉이가 서식하던 바위 밑에 있는 소
사천교(沙川橋)	새재에서 사천리로 가는 다리로 길이 60m이다.
새재	도리도리와 걸미재 사이에 있는 마을이며 사현동이라고도 한다.
상동	송학동의 다른 이름이며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새골	월학리 동쪽에 있는 마을
조곡(鳥谷)	새골의 한자 표기명
새재다리	사천교의 우리말 이름
서재골	장재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효자비가 있었다. 본래 효자골이었으나 구전되어 오면서 효자가 소자로 소자는 다시 소재로 변성된 이름이다.
소재	소재골
효자곡	소재골의 한자 표기명
송학동(松鶴洞)	월학동 위쪽 마을로 소나무가 울창하고 학이 많이 있었다고 하여 지어진 지명이나 옛 이름은 상동이라 하였다.
안소재	소재골 안마을
앞배냥	말거리 앞에 있는 벼랑으로 길이가 100m에 달한다
어구소재	소재골 입구 마을
위내	띠두루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는 큰 냇물이 흐른다.
위천(渭川	위내의 다른 이름
월하동	다래물의 다른 이름이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은곡(隱谷)	응골의 한자 표기명
응골	김장소 뒤 서쪽에 있으며 옛적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6.25 동란 후 폐동되었다.

지명(속명)	유래
장재골	위내 서쪽에 있는 마을로 장재동이라 한다.
직소(直沼)	소재골 북쪽에 있는 소로 폭포가 곧바로 떨어진다.
풍전동(楓田洞)	송학동 서쪽에 있는 마을로 땅이 비옥하다.
칠성고개	원통과 새재 경계에 위치하며 6.25직후 칠성부대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칠성고개라는 석비를 세움으로써 붙여진 이름이다
칠성령(七星嶺)	칠성고개의 한자 표기명
장승고개	1920년 무렵까지 이적표로 세워놓은 장승이 있어서 지어진 이름이었으나 8.15해방 후 장승이 자취를 감춘 후 지명 또한 우리들 기억속에서 사라져갔다
사천리(沙川里)	사천교 건너 서흥리쪽의 마을
사현동(沙峴洞)	새재라고도 부르며 두부공장이 있다.
백마촌(白馬村)	사천교를 건너기 이전의 마을로 본래는 잔디가 많아서 띠두루라 하였는데 6.25직후 9사단 주둔 당시 사단장 백인엽장군이 이 곳에 주택을 지어 주민을 입주시키고 부대마크인 백마를 따서 백마촌이라 하였다
寒溪里[法]	한계산 아래 마을이라 해서 한계동이라 하였으며 1916년 행정구역개편시에 구원통, 관벌, 재내, 쇄리, 자양밭을 병합하여 한계리라 했다. 행정리는 3개 리다. 신라 김씨 대종원의 기록을 보면 마의태자 일행이 서울을 떠난 것은 단기 3268년(935) 10월 히순이고 지금의 한계리에 도착한 때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와 눈보라가 심한 겨울이었다고 했는데 이들 일행이 몹시 추웠던 것을 되새겨 한계란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관내에는 마의태자와 관련한 많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감사놀이터	느와우 동북쪽 냇가에 있는 넓은 바위로 감사가 이 곳에서 놀았다는 전설이 있다.
갈지기	한계리 남쪽에 있는 마을
갈직촌(葛直村)	갈지기의 한자 표기명
감투봉	두문골 막바지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감투와 같다.
거북바위	부엉산 아래 강가쪽으로 솟아있는 바위
고원통	한계 북쪽에 있는 원통리의 원마을로 이조시대에 역이 있었다. 인제읍지(1843)의 기록을 보면 기마가 1필, 복마가 2필, 노 4명, 비 1명이 있었다.
공기바우	옥녀탕 위에 있는 묘하게 생긴 바위로 옥녀탕에 왔던 선녀들이 공기받기를 하고 놀았다 한다

지명(속명)	유래
관벌	고원통 남쪽 들 옆에 있는 마을로 이조시대에 관청이 있었다.
고나평	관벌
구선대(九仙垈)	탕숫골 안 칠음대 밑에 있는 너럭바위로 골짜기 물이 아홉 군데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아홉선녀가 춤을 추는 듯하다.
구용소	남교 동쪽 골짜기 어귀에 있는 여러 개의 소로 구유와 같다.
구원통	고원통
느와우	한계리에 있는 골짜기
늪재1	쇠리와 모늦골 사이에 있는 마을로 늪재 아래가 된다. 백담사 전신인 운흥사가 이 곳에 있었다.
늪재2	갈지기에서 내설악으로 가는 재로 매우 높다
못재	늪재와 같은 이름
단일로(單一路)	고원통에서 남교리간 도로를 단일로라 했지만 1987년 2차선으로 광포장됨으로써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지명이다.
대승령(大勝嶺)	자양밭에서 백담사로 가는 높이 1,210m 되는 큰 고개로 등산로에서 대승폭포가 있다.
대승암터	대승폭포 상류에 있던 옛 암자터
대승폭포	자양밭 동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로 높이가 88m이다. 폭포 맞은편 언덕 반석에는 '九川銀河'라고 큰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조 선조때 양봉래가 썼다고 하는데 삼연 김창흡, 소유 권상객, 은원여사 등이 크게 칭찬하였다고 전한다. 전설에는 대승이라는 총각이 동아줄에 의지하여 폭포 아래에서 석이를 따고 있는데 "대승아, 대승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들려와서 위로 올라가 보니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커다란 지네가 동아줄을 쓸어 곧 끊어지게 되어있음을 발견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궐터	한계성내 높은 곳에 있는 언덕으로 된 터로 전설에는 경순왕이 산성을 쌓아 대궐을 짓고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나 기록으로나 시간적으로 경순왕이 축성하였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고 경순왕이 第一子인 마의태자 김부가 축성했다는 전설이 옳다고 본다.
독탕	탕숫골 위에 있는 탕으로 독과 같다고 한다.
옹탕	독탕의 다른 이름
두문골	독탕 위쪽에 있는 길고 큰 골짜기
두문곡(杜門谷)	두문골의 한자 표기명

지명(속명)	유래
두문폭	두문골에 있는 폭포
모늦골	못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삼척 김씨네 산소가 목단꽃같이 생겼다고 해서 목단동이라고 했다고 전한다.
모노골	모늦골의 변성된 음
목단곡(牧丹谷)	모늦골의 다른 이름
무지개탕	북탕 위에 잇는 탕, 긴 폭포 아래에 있어서 폭포에 무지개가 서며 비친다고 한다.
민박촌	쇠리 마을에 새로 형성된 집단촌으로 민박을 하는 마을이다.
홍탕(虹湯)	무지개탕의 한자 표기명
봉바우	봉정암 뒤에 있는 높다란 바위로 봉황새의 모양이다.
부림역(富林驛)	원통역의 다른 이름으로 철종 12년(1861)에 간행한 〈대동여지도〉에서 부림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부엉산	재내 앞에 있는 산
부흥동(復興洞)	재내 마을의 다른 이름
재내	한계의 중심 마을이며 옛날에 이곳에서 기와를 구웠는데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서 물 흐르듯 기와를 날랐다고 해서 재내라 명명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북탕	독탕 위에 있는 탕으로 북처럼 생겼다.
사중폭포	대승폭포 아래에 잇달아 있는 네 개의 폭포
산주소(散珠沼)	남교 동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비스듬히 떨어지는 폭포로 너럭바위에 물이 부딪히고 미끄러져 한 알이 되었다가 다시 마주쳐 흩어지는 경관이 금강산 산주연과 비슷하다고 한다.
삼선봉(三仙峯)	삼장군봉 위에 있는 산으로 봉우리가 셋이고 매우 수려하다.
삼장군봉	느와우에 있는 웅장한 세 봉우리로 세 장군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형상이라고 한다.
소마전(小麻田)	우와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삼밭이 있었다고 한다.
소삼밭	소마전의 우리말 이름
쇠리	쇠발골 밑에 있는 마을. 우와형상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쇠밭골	쇠리 위에 있는 골짜기로 개울바위에 소발자국이 새겨져 있으며 우족골이라고도 부른다.
송곳봉	학서암 북쪽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송곳같이 뾰족하다.

지명(속명)	유래
승소(僧沼)	승폭 아래에 있는 소로 승려가 빠져 죽었다고 한다.
승폭	탕숫골 위 2km 되는 산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로 높이가 35m 정도이다.
안들바우	구용소 위에 있는 바위로 120도쯤 기울어져 있어서 이곳을 지나는 사람은 이 바위를 안고 돌아가야 한다.
양반바우	송곳봉 옆 냇가에 있는 바위로 바위 위에 서 있는 나무가 마치 사람이 말을 타고 앉은 것 같다.
유홍굴(俞弘窟)	이조시대 영조때 각 고을의 읍지를 집대성한 대동여지도(영인본:1979) 인제현 편의 고적으로 한계령 도로 포장 공사시 훼손되어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유홍은 기계인으로 자는 지숙이고 호는 송당, 익 충목이며 중종 19년 갑신(1524) 출생으로 명종 계축(1553)에 문과에 급제하고 경인(1590)에 광국일등에 신묘(1591)에 평난이등으로 축숙되고 기성부 부군으로 대하였다. 임진(1592)에 좌상에 오르고 선조 27년 갑오(1594)에 작고 하였다.
어은골	소삼밭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옆에는 학모봉 학자봉이 있다.
어은곡(魚隱谷)	어은골의 한자 표기명
연현(淵峴)	늪재의 한자 표기명
옥녀탕(玉女湯)	장수대 어귀에 있는 탕. 옛날 선녀가 대승폭포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커다란 지네가 나타나 해치려하므로 이 탕으로 쫓겨왔는데 지네가 이곳까지 쫓아와 해치려 하자 옥황상제가 벼락을 쳐 선녀들을 구했다는 전설이 있다.
선호암(仙護岩)	옥녀탕 바로 밑 국도상에 있는 커다란 바위인데 옥황상제가 옥녀탕에서 목욕을 하던 선녀들을 지네로부터 보호하려고 벼락을 칠 때 떨어진 바위라고 해서 박종문 전 강원지사 재임시 이 곳을 지나다가 명명하였다.
용탕(龍湯)	탕숫골 제일 위에 있는 탕으로 뒷벽에 큰 바위굴이 있으며 이 곳에서 용이 나왔다하여 가뭄이 계속되면 기우제를 올렸다 한다.
용혈(龍穴)	용탕 뒷벽에 있는 바위굴
와천(瓦川)	재내의 한자 표기명
와촌	옛날에 기와를 굽던 마을이라 하여 지은 이름이다.
응봉(鷹峰)	구선대 위에 있는 산
응봉폭	응봉 아래에 있는 폭포
자양밭	우와리 동남쪽 한계령 아래에 있던 마을이었으나 1975년 산림내 불법건물 정리시 폐동되었다.

지명(속명)	유래
자양전	자양밭
장수대(將帥臺)	삼군단장으로 있던 오덕준장군이 6.25 동란 당시 희생된 장병들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1959년에 한옥산장을 세우고 장수대라 명명한 후에 붙여진 지명이다.
조탁암(鳥啄岩)	광계 아래에 있는 큰 바위로 새들이 바위틈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쪼아 놓아서 패였다고 하며 주변에는 쪼아 놓은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다고 한다.
지리실(地理室)	남교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약 5km이다
지리곡(地理谷)	지리설의 다른 표기명이며 지리골이라고도 부른다. 오래전까지 이곳에는 제단이 있었고 가뭄이 심할때면 기우제를 올렸다고 한다.
청동벼래	어두원이 동남쪽에 있는 큰 벼랑. 화천에 있는 비금사를 지금 백담사의 전신인 한계사로 옮길 때 청동화로를 떨어뜨렸던 곳이라는 전설이 있다.
칠음대(七音臺)	승소 위쪽 골짜기에 있는 너럭바위. 물이 바위위로 일곱구비를 지어 흐르는데 그 소리가 칠음을 낸다고 한다.
탕수동(湯水洞)	탕숫골
탕숫골	지리실 위에 있는 골짜기로 지금은 십이선녀탕이라고 부른다.
학모봉(鶴母峯)	학자봉 뒤에 있는 산. 학자봉의 어머니와 같다고 한다.
학자봉(鶴字峯)	재내 뒤에 있는 산. 학모봉 앞이 된다
한계령(寒溪嶺)	자양밭 동쪽에서 오색리로 가는 큰 고개로 해발 1,004m이다. 인제, 양양의 군계를 이룬다.
한계폭포	대승폭포의 다른 이름
龍垈里[法]	본래 북면지역으로 용바우 아래가 되어 용의 터 또는 용대동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남교리 창암, 가역리를 병합하여 용대리라 하였고 행정리는 3개 리다.
가역리(加歷里)	가평
가역원	가평
가엽봉(加葉峰)	봉정암 북쪽 독성 나한봉 아래 있는 산으로 석가봉을 향하여 읍하고 있는 형상이다. 가섭봉이라고도 부른다.
가야동(伽倻洞)	영시암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가평(加坪)	암자동 서쪽에 있는 마을로 이조시대에 가역원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자취도 찾아볼 수 없고 관광지로 급성장하고 있다.

지명(속명)	유래
간령(間嶺)1	소간령1
간령(間嶺)2	소간령2
거북 못	수렴동 안에 있는 거북이 모양의 못
고든 백운	백운동 왼쪽에 있는 골짜기
광탄리	당정곡 동쪽에 있는 마을
광협동(廣峽洞)	암내동 서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사방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이 좋은 곳이라고는 하나 폐동되었다.
교곡동(橋谷洞)	다릿골
구만동(九萬洞)	구만이
구만이(九萬里)	평촌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구만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 한다.
구분 백운	백운동의 오른편 굽은 골짜기
구연(龜淵)	거북 못
구절터	백담사 동남쪽 골짜기에 있는 옛 절터
기린봉	봉정암 동쪽에 있는 산으로 기린처럼 생겼다
남계(嵐溪)	남교
남교	당정곡 서남쪽 길가에 있는 마을로 이조시대에 보안도에 딸린 남교역이 있었다.
남교리	남교
남교역	이조시대에 남교리에 있던 역으로 복마가 3필, 노가 5명, 비가 3명 있었다.
내가평(內加坪)	가평의 안쪽 마을로 가력원이 있던 곳이다.
노동(路洞)	백담의 북서쪽에 있던 마을이었으나 6.25때 폐동되었다.
다릿골	용대 남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다리가 있었으므로 교곡동이라고도 한다.
단일로(單一路)	용대 앞에서 한계리의 고원통 앞까지의 길로 1.6km 구간이 좁아서 차 한대가 겨우 운행 가능하며 용대와 고원통에 초소를 두고 서로 전화로 연락한 뒤에 운행하고는 했으나 1987년 도로 확포장공사를 마쳐 그 이름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당정곡(堂亭谷)	광탄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이조시대에 어느 선비가 이곳에 정자를 짓고 놀았다 한다.
대간령(大間嶺)	고성군 토성면 포원리와 경계를 이루는 령으로 포원리에 위치한다.

지명(속명)	유래
도적소(盜賊沼)	창암 동쪽 미실령의 큰 고개 아래에 있는 소로 도적들이 지키고 있다가 미실령을 넘어 다니는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은 뒤 이 소에 빠뜨려 죽였다고 한다.
독성나한봉	봉정암 북쪽에 있는 산
마득령	오세암에서 설악동으로 가는 길에 있는 큰 고개로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며 해발 1,327m로 설악산의 주봉인 청봉 다음으로 높고 매우 가파라서 산턱을 어루만지며 오른다는 뜻에서 마등령이라 한다. 정상에 오르면 멀리 동해바다가 보인다.
마장터(馬場垈)	옛날에 말장이 섰다하여 마장터라고 부르며 현재는 산 세대가 살고 있다.
말마리	정자문리 서남방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금은 이 지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고 다만 지도상에만 표기되어 있다.
미시령	미실령
미실령(彌失嶺)	고성군 토성면 고암리 경계에 있는 고개로 고암리에 위치한다.
바람불이	바람이 심하게 불어 붙여진 이름으로 풍취동이라고도 한다.
백담리(百潭里)	백담사 동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었으나 폐동되었다.
백담사1	백담사가 위치한 마을
백담사2	가평 동남쪽 8km지점 곧 대승령 북쪽에 있는 절. 신라 진덕여왕 16년(647)에 한계리에다 자장율사가 세우고 한계사라 하였는데 소실되고 그 후 원성왕 6년(790)에 종연, 광학, 영조가 30리 아래로 옮겨 짓고 운흥사라 하였다가도 불탄 뒤에 고려 성종 6년(987)에 형훈, 준의가 북쪽 60리에 옮겨 짓고 심원사라 하였으나 또 불탔으며 이조 세종 16년(1434)에 추웅이 다시 30리 아래에다 짓고 선구사라 하였으나 또 불에 타고 세종 29 년(1447)에 서쪽 10리쯤 떨어진 곳에 옮겨 짓고 영취사라 하였다가 또 불에 타자 세조 2년(1457)에 재익, 재화, 신열이 옛 절터 위 20리 지점에 새 절을 짓고 백담사라 하였다. 영조 48년 (1772)에 다시 불에 타고 영조 51년(1775)에 최붕, 대현이 다시 세워 심원사라 하다가 정조 7년(1783)에 다시 백담사라 고쳤는데 1915년에 160여 간의 절집이 모두 불탔으며 1919년에 인공이 지금의 자리에 75간을 다시 세웠으나 6.25동란때 모두 불탄 것을 1957년에 다시 세웠다. 전설에는 본래 낭천(지금의 화천)에 있던 비금사였는데 절 근처에서 사냥꾼들이 자주와 사냥을 하여 불도에 어긋난 짓을 하므로 이곳 한계리에 옮겨 지었다 하는데 옮길 때 춘천 근처에서 절구를 떨어뜨려서 그 곳을 절구골이라 하며 또 한계리 근처에 청동화로를 띨어뜨려 그곳을 청동벼래라 한다고 전해오며 옮긴 후에

지명(속명)	유래
	9차례의 화재를 보아 이곳 저곳에 옮겨 새로 지었으며 지금의 자리에 새 절을 짓고 이름을 붙이려하는데 주지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청봉에서 이 곳까지 못을 세어보라"선몽하여 그 말대로 못을 헤아리니 백개가 되어서 백담사라 했다고 한다. 또 이 절에는 만해 한용운 선사가 묵으며 많은 집필을 하셨으며 지금도 사찰 뒤편에는 한용운 선사가 팠다는 우물이 보존되어 있다.
백운도(白雲洞)	쌍폭동의 남쪽 골짜기로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고 골마다 폭포가 쏟아져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다.
버덩말	외가평 남쪽 들 옆에 있는 마을
범바우	할미봉 위에 있는 바위로 된 산이며 모양이 범처럼 생겼다 한다.
봉정암(鳳頂菴)1	백담사 동남쪽 대청봉 아래에 암자가 있는 곳
봉정암(鳳頂菴)2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자장율사가 짓고 오층돌탑을 세워 사리를 모셨는데 문무왕 17년(677)에 원효가, 고려 고종 13년(1226)에는 보조국사가, 이조 중종 13년(1518)에는 환적이, 인조 10년(1632)에는 설정이 각기 수리하였으며, 6.25동란때 불에 타서 근년에 다시 작은 암자를 지었다.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암자로 더욱 유명하다.
상암(裳岩)	치마바우
석가봉(釋迦峯)	탑바우
석가사리탑	봉정암에 있는 돌로 된 5층 탑으로 사리가 봉안되어 있다.
성황곡(城隍谷)	남교 북쪽에 있는 마을로 서낭당이 있으며 지금도 이곳 주민들은 산삼을 캐거나 산채채취 등을 목적으로 입산할때는 서낭당에 제사를 올리고 있다.
성황당(城隍堂)	성황곡
소간령(小間嶺)1	창바우 북쪽 소간령 아래에 있는 마을
소간령(小間嶺)2	대간령 서쪽에 있는 고개
수렴동(水簾洞)	영시동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폭포가 있는데 그 모양이 발을 쳐 놓은 것 같다고 한다.
쌍룡폭(雙龍瀑)	용폭동 제일 위에 있는 두 가락의 폭포로 한 가닥은 높이 150척이나 되고 또한 가닥은 높이 70척이 되는데 마치 쌍룡이 하늘로 치솟는 듯이 매우 웅장하다.
쌍폭동(雙瀑洞)	수렴동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쌍룡폭이 있다.

지명(속명)	유래
쌍폭	쌍룡폭
암내동(庵內洞)	암자동
암자동(庵子洞)	내가평 안에 있는 마을로 백담사로 딸린 작은 암자가 있었으며 이곳에는 해체된 석탑이 있었으나 1987년에 지금의 백담사로 옮겨 복원되었다.
양지동	평촌 북쪽 양지쪽에 있는 마을
연화동(蓮花洞)	용대 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연화부수형이라 한다.
영시동(永矢洞)	백담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6.25때 폐동되었다. 이조시대 인조 26년(1648)에 삼연 김창흡이 이곳에 영시암을 짓고 살았는데 6년 되는 해에 찬모가 호랑이에게 물려가 호식동이라 하기도 한다
영시암터	영시동에 암자의 터. 김창흡의 부친이 숙종 15년(1689)에 기사사화로 죽임을 당하자 세상의 뜻을 잃고 다시는 속세에 나가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뜻에서 영실암이라 했다고 한다. 1691년 설정이, 1926년에는 기호가 증수하였으나 6.25동란때 불에 타 버렸다. 암자 서쪽에는 6.25이후에도 삼연선생유적비가 남아 있었으나 언제 누구에 의해서인지 도난당하여 지금은 자취만 남아있다.
오세암(五歲庵)1	원명암 서남쪽 마등령 아래에 있는 암자터
오세암(五歲庵)2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자장율사가 암자를 짓고 관음암이라 하였는데 인조 21년(1643)에 설정이 헐어진 것을 다시 세워 오세암이라 고치고, 고종 25년(1888)에 백하가 다시 증수하였으나 6.25동란때 불에 탔다. 매월당 김시습이 이조시대 단종이 물러나자 충절을 참지 못하여 미친 시인이 되어 강산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이르러 오랫동안 머물렀으므로 그의 별호 오세신동을 따서 오세암이라 했다고 전하고 또 신라때 매월대사가 두 살 된 조카를 데리고 와 이곳에 암자를 짓고 지내다가 늦은 겨울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눈이 많이 내려 그 이듬해 봄이 된 뒤 비로소 돌아와 보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조카가 살아 있으므로 이상히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뒤에 흰 옷 입은 젊은 부인이 나타나 아이를 보살피고 파랑새가 되어 날아가므로 다섯살 된 아이가 불도에 통한 곳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라는 전설도 전해오고 있다. 암자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마모된 석물들이 즐비하게 널려져 있어 암자의 고풍스러움을 더해 주고 있다.
오세폭포	오세암터 아래에 있는 폭포
옥녀봉(玉女峯)	수렴동에 있는 산으로 산세가 순하고 아름다운 옥녀같다 한다.
옥수골(玉水谷)	옥같이 맑은 물이 흐른다하여 옥수굴이라 한다.

지명(속명)	유래
와룡 여흘	가야동에 있는 여울
와가평(外加坪)	가평 바깥쪽에 있는 마을
용대동(龍垈洞)	용대리
용두(龍頭)	용바우
용바우	용대 북쪽 길 양쪽에 우뚝 솟아 있는 큰 바위로 쌍룡이 머리를 들고 있는 것 같다 한다.
용손폭(龍孫瀑)	쌍폭동에 있는 세 폭포 중 가장 작은 폭포
용아폭(龍兒瀑)	용손폭포보다 큰 폭포
용암(龍岩)	용바우
용이터	용대리
원명암(圓明庵)	오세암터와 영시암터 사이에 있는 백담사의 속암으로 숙종 2년(1676)에 설정이 세우고 1897년에 원호가 크게 고쳤으나 6.25때 소실되었다.
원벌	가평 북쪽 400m에 있는 10만여평의 들로 이조때 가력원이 있었다.
원평(院坪)	원벌
윗남교	남교 윗마을
이레가리	윗 남교에서 당정골 사이에 있는 논밭을 말하며 넓이가 약 7,000여평에 달하여 소 한마리로 7일을 간다는 뜻에서 부르는 지명
장경바우	장경바웃골에 있는 큰 바위로 대장경을 쌓아 놓은 것 같다.
장경바웃골	봉정암 북쪽 골짜기에 장경바우가 있다.
점심 청	수렴동에 있는 넓은 바위로 선녀가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한다
정자문(亭子門)	남교 서남쪽 북천가에 있는 마을로 강가에 정자가 있었고, 길 옆에는 열녀정문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자도 정려문도 찾아볼 수 없다.
장자문리	정자문
지장봉(地藏峯)	봉정암 북쪽에 있는 산으로 지장보살상과 같다고 한다.
창바우	용바우 북쪽에 있는 큰 바위로 창처럼 구멍이 뚫려있는데 용이 뚫고 나간 자국이란 한다.
창암(窓岩)	창바우
창암점	창바우가 있는 마을로 주막이 있었으나 6.25때 폐동되었다.
처음터	내가평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6.25때 폐동되었다

지명(속명)	유래
천왕문(天王門)	가야동 어귀에 있는 벼루로 된 바위로 문처럼 생겼다.
초대동(初垈洞)	처음터
축성암터	영시동 남쪽 골짜기에 있는 암자터. 백담사의 속암으로 이조 고종 21년(1884)에 한암이 세원 축성암이라 하였으나 6.25때 소실되었다.
치마바우	쌍룡폭 맞은편 벼랑으로 된 바위로 모양이 치마를 두른 것 같다.
칠경동(七耕洞)	이레가리
탑바우	봉정암 북쪽에 있는 웅장한 산으로 석가모니의 이름을 따서 석가봉이라고 한다.
평촌	버덩말로 구만동 동쪽에 있는 마을
풍취동(風吹洞)	바람불이
하남교(下嵐校)	남교 아랫마을
한문(寒門)	한문안
한문안	연화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큰 바위가 마치 문처럼 솟아 있다
할미봉	봉정암 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할머니상이라 한다.
호식동(虎食洞)	영시동
황철골	몇십년전까지 마을 입구에 황절나무숲이 우거져 있었고 그로 인해 황철골이라 불렀다.

기린면

군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래 고구려의 기지군으로 신라 진흥왕(540~574)때에는 신라의 영토에 속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안변도 호부 춘주군 속현으로 기린현이라 하였으며, 이조시대에는 춘천도호부 춘주군 속현으로 현내동, 광조전, 구을동, 오리동, 답동, 어리, 하남, 죽천, 신전, 금포, 상남, 왕동, 문현동, 치전동, 동리, 방동, 북리 17개 리를 관할하다가 광무 10년(1906)에 인제군에 편입되었다.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남리의 일부를 남면 김부리에 넘겨주고 군내면의 하추동 일부를 편입하여 진동, 상남, 하남, 현, 서, 북, 방동 7개 리로 개편 관할하다가 1945년 38선이 그어짐에 따라 진동리와 북리의 일부가 38선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들어가고 나머지 진동리와 북리의 일부와 상남, 하남, 현, 서, 방동 5개 리는 남면의 신풍, 어론, 갑둔, 신월, 정자, 김부, 부평의 7개 리와 인제읍 원대리와 함께 그 해 9월 18일에 홍천군에 편입되어 신남면의 일부가 되었다.

1954년 수복지구 행정이양에 따라 인제군에 환원되어 진동, 상남, 하남, 현, 서, 북, 방동 7개 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1973년 7월에는 홍천군 내면의 미산리를 편입시켰으며 1983년 기린면 관할이었던 상남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되면서 미산리 하남과 상남이 상남면 편입되어 현재는 5개 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행정리는 15개 리다.

동쪽은 양양군 서면, 서쪽은 남면과 홍천군 내촌면, 남쪽은 홍천군 내면과 인접해 있다.

기린면 사적 분포도

① 보덕사 ② 려조평장사 박원굉 묘비 ③ 고려대광문하평장사 춘천 박원굉 신도비
④ 효행 이영순 정려각 ⑤ 효열부 순천 김씨 정려각 ⑥ 열녀 김해 김씨 정려각
⑦ 5인 부사 선덕 불망비 ⑧ 조위순 청덕불망비 ⑨ 이일천 영세불망비
⑩ 이용선 영세불망비 ⑪ 김경균 청덕불망비 ⑫ 한진동 불망비 ⑬ 홍유순 애민 선정비
⑭ 기린면장 방범주 선정비

지명(속명)	유래
縣里[法]	본래 기린면지역으로 현이 있었던 곳이므로 현동이라 했는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북리와 하남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현리라 하였으며 행정리는 6개 리다.
가래골	가래나무가 번성하여 기인한 이름이나 가래로 잘못 표기되어 왔다.
기지군(基知郡)	고구려때 불렸던 이 고장 최초의 지명
기린(基麟)	고려시대 춘주군 속현으로 있을 때 기지군이라 했다.
기린(麒麟)	태종 13년(1413) 춘천군의 관할로 있으면서 기린현으로 개칭하였다.
광대버덩	진다리 서쪽에 있는 넓은 들로 경지면적이 3만여평에 이른다.
나팔고개	매화동 고개에서 6.25 당시 중공군이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나팔고개라 부른다.
남전곡(南田谷	덕교 남쪽에 발달한 골짜기에 비옥한 밭이 있어 지은 지명
냉천(冷川)	백암동 서남쪽 산골짜기에 있는 샘으로 피부병에 좋다고 한다.
덕교(德橋)	덕다리
덕다리1	하마로 남쪽에 있는 마을로 다리가 있다
덕다리2	덕다리 마을에 있는 다리
도곡(桃谷)	복숭아나무가 많은 골짜기라서 지은 지명
두루미골	조롱고개를 지나 강을 건너 오른쪽으로 1km 가량 들어서면 위치한 골로 예전에 두루미가 도래한데 연유하여 지은 지명
매화동(梅花洞)	용포 동쪽 들 옆에 있는 마을로 매화락지형의 묏자리가 있다 하여 불러 온 지명
박원굉 묘	하마로에 있는 고려말엽의 판결사 박원굉의 무덤으로 말을 타고 이 곳을 지나려면 말굽이 붙어 움직이지 않는다하여 말에서 내려 지났다고 한다.
방태교(芳台校)	덕다리
백암(栢岩)	잣바우
백암동	잣바우가 있는 마을
상덕교	상덕다리
상덕다리	덕다리 위쪽에 있는 마을
서바수	현리 서쪽 강가에 있는 마을
서호(西湖)	서바수

지명(속명)	유래
수진암(水鎭岩)	덕다리에서 조롱동 동쪽으로 500m 지점 기암괴석에 한 스님이 '수진암'이라 새겨놓고 언젠가는 이곳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떠난 후에 수진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스님의 예언대로 1930, 1965, 1966년에 대홍수로 이곳까지 물이 찼으나 도로확장공사고 후 '수진암'이라 조각된 기암괴석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시양곡(始陽谷)	햇빛이 맨 먼저 비치는 골짜기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기린 중고교에서 내린천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어은동(魚隱洞)	첩첩산중으로 쌓여있어 어디서 보나 인가가 있을 것 같지 않아 피난처로 적합하다. 강물에 약을 풀어 고기를 잡아도 살아남는 고기가 있듯이 병란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 하여 은골이라고도 하고 어은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용포(龍浦)1	용포 옆에 있는 마을
용포(龍浦)2	내린천에 있는 소로 용이 살고 있다고 하여 가물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우정거리	소시장이 있었다고 하여 지은 지명
은골	어은동
이교(泥橋)	진다리
잣바우	백암동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잣과 비슷하다.
조롱고개(嘲弄峴)1	현리 장터에서 남동쪽으로 방태산을 향하여 양쪽으로 약 2km에 자리잡은 마을
조롱고개(嘲弄峴)2	조롱고개에 있는 고개로 약 500m의 오르막 고개여서 단숨에 넘기 힘들어 사람을 조롱하는 고개라 하여 지은 이름이나 지금은 훤하게 도로가 생겨 자취를 감추었다.
진다리	마을 어귀에 있는 다리
창동(昌洞)	창말
창말배터	창말에서 서리로 가는 나루터
하덕(下德)	하덕다리
하덕다리	덕다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
하마로(下馬路)	현리 남쪽에 있는 마을
현동(縣洞)	현리
호암동(虎岩洞)	마을 어귀에 위치한 바위의 모습이 마치 호랑이와 유사한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

지명(속명)	유래
芳東里[法]	본래 기린면지역으로 1916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방동, 동리를 병합하여 방동리라 하였으며 행정리는 2개 리다.
가나골	댓골
간촌	샛말
곁가리	매봉령 밑에 있는 마을
곁가리 토성	1885년 무렵에 추씨가 70호 가량 거주하였다. 힘이 장사인 김용관의 행패가 극심하여 토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현재는 자취만 남아있다.
곁가리 피난굴	옛부터 삼가리 피난굴로 곁가리, 아침가리, 연가리를 지칭하였으나 현재까지 피난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높은집 폭포	마당바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폭포로 밑에는 두 개의 구멍이 뚫어져 있어 홍천군 내면으로 통한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으며 이곳에 살고 있던 김순봉씨가 굴을 탐험하려고 했으나 좌절되었다고 한다
대학동(大鶴東)	댓골
댓골	방골 서남쪽 방대산의 큰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도석골	석전촌
도채동(道採洞)	도채울
도채울	방동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현리에서는 동쪽이 되며 숫돌이 난다.
동리(東里)	현리 동쪽에 있는 마을. 도채울로 많이 불린다.
두응대(斗應垈)	두응터
두응터	방골 뒤에 있는 마을
둔덕동	방골 앞 둔덕에 있는 마을
뒤인대	두응터
마당바위	곁가리로 가는 길가 소계곡에 발달한 바위로 마치 마당처럼 넓은 면적을 차지한 데 연유하여 마당바위라 부르며 유람지로 유명하다.
명지가리	큰 소가 있던 마을
명지가리 약수	명지가리 건너 개울가에 위치한 약수
명지거리	명지가리
방골	도채울 남쪽에 있는 마을로 광무 10년(1906)까지 기린면사무소가 있었으나 그 후에 현리로 옮겼다
방동(芳洞)	방골

지명(속명)	유래
방동약수	방골에 있는 약수로 옛날에 어느 마음씨 착한 심마니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나는 산신령이다. 너는 가난하지만 정직하므로 내가 산삼을 주겠노라. 그리고 또 만병통치 약물도 줄 터이니 세상에 널리 알려라.”하여 그 이튿날 그곳을 찾고 있는 데 한 아이가 나타나서 손짓을 하므로 쫒아가보니 아이는 없고 큰 산삼이 있어 캐고 나니 그 밑에서 약물이 나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지금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병 치료차 이곳을 찾고 있다.
배 달은 돌	배 닿은 돌
배 닿은 돌	옛날 대홍수때 배가 떠내려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2톤가량의 커다란 돌에 구멍을 뚫어 배를 매달았다 하여 지은 돌 이름
봉두사(鳳頭寺)	방대산 양지 기슭에 있었던 절이나 6.25 당시 소실되고 지금은 자국만 남아있다.
사동	절골
샛말	둔덕동과 오류동 사이에 있는 마을
석전촌(石田村)	예전에 구둘장 돌의 채취장으로 알려져 부르게 된 마을 이름
선바우	오류동 북쪽에 있는 바위로 높이가 20여미터쯤 되는데 길 옆에 우뚝 서 있다
아들바위	잉태하지 못하는 아닥들이 이 바위에 기도를 드리면 아들을 낳았다는 전설이 있어 부르게 된 이름이다.
송응대(松應垈)	두응터라고 더 많이 불려지는데 이곳을 최초로 개간한 사람이 송씨라는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이다.
아롱가지	방동교가 있는 곳
아침가리	방골 동남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밭이 적어서 아침나절에 다 갈 수 있다고 한다.
양원이 고개	현리에서 방동으로 통하는 구 도로변에 있던 고개로 이곳에는 춘천박씨로 양동의 효행정려비가 있으며, 이조말엽 통사랑을 역임했었다
양은이 고개	양원이 고개
오류동(梧柳洞)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앞에 다섯그루의 큰 버드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오류동	오류동
용각석(龍角石)	전구두평 앞에 있는 큰 바위로 용의 뿔처럼 생겼다고 한다. 예전에 전구두평이 부촌이었는데 지나가던 중이 “이 바위를 장군석이라고 고치고 한달동안 큰 잔치를 베풀면 더 큰 부자촌이 되고 큰 인물이 나리라”하여 그대로 하였더니 부자는 커녕 재해가 끊이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까닭모를 병으로 죽어 다시 용각석으로 고쳤더니 그 뒤에는 재난이 없어졌다고 한다.

지명(속명)	유래
자작나무골	곁가리로 들어가는 골짜기로 자작나무가 무성한데 연유하여 부르는 이름
전구두평(奠九斗坪)	샛말 앞에 있는 들. 오래전에는 큰 마을이 있었다
절골	감촌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절이 있었다.
절말	절골
조경동(朝耕洞)	아침가리
지석바위골	지석모양의 바위가 있는 골짜기
창바우	곁가리 길가에 있는 큰 바위로 창처럼 끝이 뾰족하다.
큰무랑골	곁가리로 들어가다가 있는 큰 골짜기
큰물안골	큰무랑골로 발음한다.
北里[法]	본래 기린면 지역으로 현리의 북쪽에 있다하여 북리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군내면의 하추동 일부와 서리 일부를 병합하여 다시 북리라 하였으며 행정리는 3개 리다.
간촌	샛말
갈강지골	하역골 앞 음지쪽 골짜기로 '갈가지'가 많이 서식하였다 하여서 지은 이름
고색골	고석골
고석골	돌이 많은 골짜기
고석동(古石洞)	고석골
궁글버덩	궁동산 앞 버덩에 있는 마을
궁동(弓洞)1	궁글버덩
궁동(弓洞)2	궁동산
궁동산	북리에 있는 산으로 활모양이다.
누구미(樓口尾)	다락구미
다락구미	기린면과 인제읍 경계에 있는 마을로 길이 아래 후미진 곳이다.
담배골	하역 앞골을 가리키며 담배를 많이 재배하였다하여 지은 이름
답동(沓洞)	복리에 있는 마을로 논이 많다.
마래기 고개	옛날 말이 지나가다가 추락한 곳이라 하여 마락곡이라 불렀는데 오래 전해오면서 마래기 고개로 변하였다.

지명(속명)	유래
망태골	북리와 진동리 경계에 위치한 골로 그 지형이 망태에 유사한 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
물아곡(沕我谷)	상답에 있는 골짜기
상답	답동 위쪽 마을
상역	역골 웃말
샛말	상답과 중답 사이에 있는 마을
섬바위	상역골 중간 지점에 있으며 볏섬 쌓듯이 바위덩어리가 첩첩이 쌓였다하여 지은 이름
석장곡(石葬谷)	죽은자들을 장례치를 때 나무관 대신 돌을 사용하여 묻었다고 지은 이름
속새매기	이 곳에 속새풀이 무성한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으로 지금도 속새가 많이 자생하고 있다.
역골	진다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이조시대에 역이 있었다고 한다.
역동(驛洞)	역골
연락촌(連絡村)	옛날 관가에서 연락을 다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쉬어 가기도 하고 말발굽을 고치기도 하고 다른 말을 바꿔 타고 다니기도 하였다해서 부르게 된 지명
우리덕	운이덕
운리덕(雲裡德)	운이덕
운이덕	역골 동북쪽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로 구름에 덮여 있다고해서 지은 이름
운이산	운이덕 북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가 799m이다.
인명분(麟鳴分)	기린면 동북쪽에 있는 역골을 가리키며 이 골짜기에서 기린이 울었다고 해서 인명골이라고도 하고 기린면이 이곳에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이 사슴이 이곳에서 백일을 묵으면 기린이 된다고 믿었다 한다.
장수바위	인명곡에 있는 바위로 장수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다.
접저울	상역골 중간 마을
중답(中沓)	상답과 하답 중간에 있는 마을
중역	역골 중간 마을

지명(속명)	유래
칡시골	침이 곧게 뻗어 나간 곳을 응달 칡시골, 양지쪽으로 뻗어 나간 곳을 양지 칡시골이라고 부르며 현재 포사령부 앞 골을 말한다.
토현(土峴)	흙고개
하답(下沓)	답동 아래쪽에 있는 마을
하역	역골 아랫말
한곡(閑谷)	풀이 무성하여 꼴을 쉽게 벨 수 있어 남은 시간을 한가한 기분으로 쉴 수 있다하여 지은 이름
할미바위	하역 앞 골에 위치하였으며 모양이 할미꽃과 비슷하다 하여 지은 이름
함정골	산짐승이 많아 짐승을 잡기위해 주민들이 함정을 판 자리가 많아서 함정골이라 한다.
황개골	옛날 이 곳에 살던 심운석이란 사람이 누런개를 많이 사육했다는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
흙고개1	흙고개 밑에 있는 마을
흙고개2	하답에 있는 고개로 돌이 없고 황토흙으로만 되었다.
鎭東里[法]	본래 기린면지역으로 1916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신전리, 치전리, 문치리를 병합하여 옛 기린현의 동쪽에 있다하여 진동리라 하였으며 행정리는 2개 리다.
갈터	꽝바치 남쪽에 있는 마을로 가래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100여 년전 동지사벼슬을 한 전씨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았는데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갈 곳은 이곳밖에 없다고 하여 갈터라 하였는데 한문으로 표기가 어려워 갈자는 秋자로 하고 곳은 터라고 垈자를 따서 갈터라 했다는 설도 있다.
강선리(降仙里)	북암리 서쪽 높은 지역에 있는 마을로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고해서 지어진 이름
곰백령	점봉산에 이어져 있는 고개로 강선리로 내려오는 도로변에는 자작나무가 무성하다.
곱돌나드리	진동리 동남쪽 다리 옆에 있는 마을로 동쪽에 있는 산에는 곱돌이 난다.
광어리	삼거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었으나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꽝바치	갈터 북쪽에 있는 마을로 꿩이 많이 내리는 밭이 있다고 해서 꿩바치라 하였는데 발음하기 쉽게 꽝바치로 불려지고 있다.

지명(속명)	유래
단목령(檀木嶺)	박달령
도암(道岩)	맞바우2
두무대	두무터
등매곡(登梅谷)	번이터 동쪽 오목한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
두무터	매화나무가 분포된 곳을 따라 올라가는 골짜기라 해서 부르는 이름
말등바위	방동과의 경계에 있으며 바위의 형태가 마치 말의 등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
맞바우1	번이터 동북쪽에 있는 마을
맞바우2	맞바우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바위가 마주 서있어서 문과 같다고 한다.
문고개	문산리
문산리(문산리)	새왕동 입구에 옹립한 암석의 형태가 문짝을 세워 놓은 듯하여 지은 이름
문현(문현)	맞바우1
바람부리	쇠나드리
박달령	진동리에서 양양군 서면 오색리로 넘어가는 크고 험한 고개
배판이	삼거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배씨가 많이 살았다고도 하며 지형이 배처럼 생겼다고 해서 지은 이름
번이(番伊)	번이터
번이터	갈터와 두무터 사이에 있는 마을
복죽령(福竹嶺)	산죽이 무성한 데 연유하여 부르는 이름
북암령(北岩嶺)	진동리에서 양양군 서면 오가리의 송어리로 가는 고개
북암이	북암령 아래에 있는 산 골짜기
비석거리	비석 수기를 병립해 놓아 부른 이름이었으나 지금은 비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삼가리(三街里)	삼거리
삼거리(三巨里)	양양군 서면과 방동 인제읍 귀둔리로 가는 세 갈래 길에 있는 마을
상치전(上雉田)	웃꽁바치
새왕	두무터 안에 있는 마을
선목리(先木里)	선목이

지명(속명)	유래
선목이	진동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앞에서 강선리까지 나룻배가 다녔다고한다.
설피밭	북암리 남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섶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쇠나드리	진흙리 동쪽 냇가에 있는 마을로 마을안에 있는 내의 여울이 급하고 바람이 세어서 소가 건너다니기 힘들었다고 한다.
신왕리(新王里)	새왕
신전리(薪田里)	설피밭
아래꽁바치	꽁바치 아래쪽에 있는 마을
연가리	맞바우 동쪽에 있는 마을로 뱅가리와 아침가리에 연하여 있으며 연초를 경작했다고 한다.
연경리(煙耕里)	연가리
오기점곡(五基點谷)	골짜기에 묘 다섯기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옹기점골의 잘못된 한문 표기명이다.
옹기점골	예전에 옹기를 구워냄으로 지은 이름이나 지금은 자취를 찾기 힘들다.
우탄동(牛灘洞)	쇠나드리
웃꽁바치	꽁바치 위쪽에 있는 마을
적암동(適岩洞)	맞바우1
적암리	맞바우2
제당곡(祭堂谷)	제당이 소재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지당골로 더 많이 불려진다.
지당골	제당곡
조침령(鳥寢嶺)	삼거리에서 양양군 서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높아서 새도 하루에 넘지 못하여 자고 넘는다하여 지은 이름
진동(鎮洞)	진동리
진흙동	진흙리
진흙리	맞바우 동쪽에 있는 마을로 토기를 굽는데 쓰는 진흙이 많이 난다.
추대(楸垈)	갈터
치전동(雉田洞)	꽁바치
풍전바위	주민들이 이 바위에서 풍년제를 올렸다 하여 지은 이름이나 지금은 올리지 않는다.

지명(속명)	유래
하치전(下雉田)	아랫꽁바치
활석리(滑石里)	곱돌나드리
西里[法]	본래 기린면지역으로 옛 기린현의 서쪽에 있으므로 서리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북리로 군내면의 하추동 일부를 병합하여 다시 서리라 하였으며 행정리는 2개 리다.
거릿말	양지마을
갈밭골	서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갈밭이 있다.
곡촌(곡촌)	골말
곡촌청용안	골말과 은골 사이에 형성된 마을
광대바위	양지마을 동북쪽 산모퉁이에 발달한 바위
골말	양지말과 음지말 사이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김부터(金富垈)	1930년 무렵 3백만원 상당의 산삼을 이기일 집터에서 캐낸 후 부르게 된 지명이다.
냉장터	아랫대내 끝쪽에 있는 샘터로 물이 매우 차며 이 물에 씻으면 피부병이 낫는다고 한다.
노전동	갈밭골
대내	서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앞으로는 내린천이 흐르고 시누대 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돌부처	아랫대내에 있는 바위로 높이가 4척이나 된다고 한다
들은독골	봉덕동 서쪽에 있는 마을로 문덕동으로 더 알려져 있다
막골(莫谷)	축전령의 기슭에 있는 골짜기로 농막이 있었다.
머구너미	서리에서 남면의 정자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가 길어서 지루하므로 무엇을 먹든지 먹고서야 넘는다고 하여 지은 이름. 골짜기마다 오동나무가 있었다하여 오동골이라고도 한다.
문덕동(聞德洞)	예부터 덕을 쌓아 그 미담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부른 지명이다.
봉덕동(鳳德洞)	웃대내 서쪽에 있는 마을로 산 정상에 위치한다.
봉덕리	봉덕동
봉운동(鳳雲洞)	봉 윗마을이라 부르다가 한자로 쓰게 됨에 따라 봉운동으로 표기하게 되었으며 분지가 마치 봉의 둥우리같다고 하여 봉덕동이라고 했다고 한다. 지금은 봉운동보다는 봉덕동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명(속명)	유래
봉은동	봉덕동 앞에 있는 마을
상대내	웃대내
상죽천(上竹川)	웃대내
소릿고개	고개의 경사가 완만하며 오가는 사람들이 "골은 깊다 해도 오르기에는 이곳이 편한 곳이야!"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다녔다는 곳이라 하여 지은 이름. 다른 이름으로는 소래고개라고도 한다.
소리개	봉덕동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입구 산위에 높이가 8미터에 달하는 바위가 있는데 소리개가 잘 깃든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소석각곡(小石角谷)	옛 지명으로 어은곡에 있는 바위의 형태에 유래하여 부른 골짜기 이름
아랫대내	대내 아래쪽에 있는 마을
양지말	웃대내 양지쪽에 있는 마을
양지촌	양지말
어리(於里)	봉은동과 봉덕동에 걸쳐 있는 마을
어은곡(魚隱谷)	옛부터 피난처였다고 하여 지은 이름으로 '은골'이라고도 한다.
오동곡	머구너미
웃대내	대내 위쪽에 있는 마을
은골	어은곡
음지말	서리 동쪽 음지쪽에 있는 마을
음지촌	음지말
응달말	음지말
입석동(立石洞)	소리개
죽천	대내
죽천령(竹川嶺)	하죽천의 건너편에 있는 험하지 않은 고개로 정상에 오르면 서리와 북리 궁동 일대를 관망할 수 있다.
하대래	아랫대내
하죽천	아랫대내
항성골	향음곡
항음곡(亢陰谷)	노전동에 있는 골 이름으로 항성골이라고도 부른다.

서화면

군의 최고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래 고구려의 개차정현 또는 옥기현이였으나 신라 경덕왕때 치도현으로 개칭하여 양려군의 속현으로 되었다가 고려시대에는 서화현으로 고쳐 안변도호부에 속하였고 다시 북쪽 일부는 회양, 남쪽 일부는 춘주군에 이속되었다가 이조시대(1424) 세종때 인제현에 이속되었다.

그 뒤 서화면이 되어 심적, 장승동, 가리, 사천, 론장, 수제, 서화, 서포, 이표, 용산 10개 리를 관할하다가 1916년 행정구역 페합에 따라 서홍, 천도, 서화, 심적, 가전, 서포, 장승, 이포 8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으나 1945년 38선의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1년 수복이 되었다.

1955년전까지는 군 작전지역으로 쓰이다가 그 해 5월부터 민간인이 천도리와 서흥리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1958년 3월에는 서화리에도 살게 되었으며, 1954년에는 양구군 해안면이 인제군으로 편입되었는데 1963년에는 해안면과 서화면을 병합하여 서화면이라 하였으나 1973년 7월 해안군 관할이었던 현리, 오유리, 만대리, 후리, 월산리, 혼지리를 양구군에 환원하고 지금은 서흥리, 천도리, 서화리, 가전리, 서포리, 심적리, 이포리, 장승리 8개 리를 관할하고 있으나 가전리, 서포리, 심적리, 이포리, 장승리는 미수복지구로 행정권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관할하는 행정리는 8개 리다.

동쪽은 고성군의 수동면과 간성면에, 서쪽은 양구군 해안면에, 남쪽은 북면과 인접해 있고 북쪽은 휴진선에 접해 있는데 그 길이가 12.7km에 달한다.

서화면 사적 분포도

①순직 장병 충혼비 ②백인엽 장군 송덕기념비

지명(속명)	유래
天桃里[法]	본래 서화면지역으로 천도 또는 천도촌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수제를 병합하여 천도리라 했다. 1945년 38선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1년 국군이 탈환하여 군용지로 사용하였는데 1955년 5월부터 민간인이 입주하였다. 행정리로는 4개 리다.
군인 마을	응달말 옆에 있는 마을로 1951년 수복 당시 육군장교들의 사택이 있었다.
남박골	남밭구미
남박구미	천도 서쪽 후미에 있는 마을로 남씨와 박씨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남밭구미	남박구미
남전구미	남박구미의 다른 이름
덕세산(德世山)	양짓말 서남쪽에 있는 산으로 해발 747m이고 덕이 있다고 한다.
모래소	남박구미에 있는 소로 모래가 많다.
비덕현(飛德峴)	비둑고개
비둑고래	응달말에서 서흥리로 가는 고개
수리봉	천도리 서쪽에 있는 산으로 수리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수제(水濟)	양짓말의 다른 이름으로 물 건너에 있다고 하여 지은 이름
애기바우	군인 마을 앞산 밑의 바위로 산짐승의 피해를 막고 맥을 때우기위해 매년 정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
양지촌	양짓말
양짓말	수제라고도 하나 현재는 양짓말로 더 많이 시용된다.
연애(煙崖)	연앳골
연앳골	천도 동쪽에 있는 마을로 냇물이 흘러오다가 이곳에 이르러 줄어든다고 한다.
연촌(煙村)	연앳골
웨기바우	이 바위에서 외치면 부근 세 마을에까지 들린다고 한다
을지관사	을지부대에서 영외 거주 장병들을 위하여 백동의 관사를 짓고 입주한 후에 부대명을 따서 을지관사라 하였다.
음지촌	응달말
응골	조그마한 골짜기로 아침이 되면 항상 안개가 은막처럼 휩쓸고 있다가 10시경이면 물이 흐르듯 곱게 흘러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은곡이라 불렀는데 전해 내려오면서 응골로 변했다.

지명(속명)	유래
응달말	응달쪽에 있는 마을
점고개	응달말에서 서화리로 넘어 가는 고개
점재	점고개
점현	점고개
직동	양지촌 서북쪽 골안 마을로 폐동되었다.
천도(天桃)	천도리
천도촌(天桃村)	천도리라고도 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세상에서 처음 보는 커다란 복숭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 여겨 복숭아가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불과 몇 해 되지 않아 큰 부자가 되었으며 이 사실이 인근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게 되어 마을이 형성 되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복숭아가 떨어진 곳이라 천도리라 불렀다고 한다.
하음지	응달말 아랫동네
피양골	음지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피양동	피양골에 형성되었던 마을이었으나 6.25동란으로 폐동되고 현재는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瑞興利[法]	본래 서화면지역으로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논장, 사전을 병합하여 서흥리라 하였는데 1945년 38선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1년 수복되었으나 군용지로 사용되다가 1955년 5월부터 민간인이 이주하게 되었으며 행정리는 2개 리다.
고암동	논장리 동쪽 골짜기안에 있는 마을로 설피동 밑이 된다
귀신이 고개	월학리 백마촌에서 서흥리 앞골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 소나무가 울창하여 항상 어둡고 음습하여 귀신이 나온다고 하여 불려진 이름
논장교(論章橋)	논장리 앞에 있는 다리 이조시대에 서화현의 쌀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대용포	큰 용늪
뒷골	서흥리 앞산 뒤에 있는 마을
매월당	잔다리의 다른 이름
모래내	앞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모래가 많았다.
무쇠점	앞골 앞 개울 건너에 있는 마을로 2백여년전에 무쇠점이 있었다고 한다.

지명(속명)	유래
무수동(無愁洞)	무쇠점
배월평(盃月坪)	잔다리
사천교(沙川橋)	서화면 서흥리와 북면 월학리 새재와 연결하는 다리로 면 경계가 된다.
사천동	모래내
서창(瑞倉)	창터
서흥(瑞興)	서흥리
서피동	설핏골
설핏골	서흥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도로가 개통되기 전 간성방면의 지름길이었는데 겨울철 행객들이 적설이 심하면 설피를 신고 다녔다해서 지은 이름
설포동(雪浦洞)	설핏골의 다른 이름
설피동	설핏골
소용포(小龍浦)	작은 용늪
알미봉	논장리 서쪽에 있는 산으로 새알처럼 동그랗게 생겼다.
앞골	뒷골 앞에 있는 마을
이만골	설피동의 다른 이름으로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만냥어치의 산삼을 캤다하여 불려지는 이름이나 각종 기록에는 설피동으로 표기된다.
이탕소(李湯沼)	예전에 이씨네가 사천리 도수로를 내면서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하여 부르는 이름
임천역(臨川驛)	이조시대에 서화현에 있던 역으로 지금의 논장리에 있었다.
작은 용늪	큰 용늪 밑에 있는 작은 소
잔다리	서흥리 서북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
전동	앞골
지예촌	알미봉 서쪽으로 인북천 건너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민가가 없다.
창말	논장리
창터	논장리 앞 논 가운데 있는 창터로 이조시대에 인제현의 외창 곧 서창이 있었다.
큰 용늪	서흥리 서북쪽 산밑에 있는 큰 소로 작은 용늪 위가 된다.
瑞和里[法]	본래 서화면지역으로 서화현의 소재지가 되기 때문에 서화라 하였고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대곡리를 병합하여 서화리라 했다.

지명(속명)	유래
구구골(九九谷)	1945년 38선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있다가 국군이 탈환하여 군용지로 사용했는데 1958년 3월부터 민간인이 입주하게 되었으며 행정리는 2개 리다.
구십구골	수복이후 이곳에 99포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는데 연유하여 '구구골, 구십구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금수동(錦樹洞)	신촌 남쪽에 있는 마을
당봉(堂峰)	6.25사변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성황당이 있어서 마을에서 제사를 해마다 지냈으나 소실되고 1956년 5월 육군 제5사단에서 '순직장병충혼비'를 건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육군 제5사단 장병들이 해발 1,500m의 고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59명이 1954년 1월에 내린 폭설로 인해 참변을 당하자 당시 사단장이던 박정희 준장(전직 대통령)이 이들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설화 순직비'를 세웠다 비문은 박정희 장군의 자필로 음각되어 있다.
대곡(大谷)	큰골
대골	큰골
동갯골	서화 남쪽 냇가에 있는 마을
동계동(東溪同)	동갯골
봉황촌	현촌 남쪽에 있는 마을
산두곡(山頭谷)	산둣골
산두곡산	산둣골 산
산둣골	큰 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큰 산뒤에 있다.
산둣골산	산둣골 동쪽에 있는 산으로 해발 1,019m
새마을 촌	1980년 민북개발사업으로 77동의 주택을 새로 건설하여 주민이 입주하므로써 새로 마을이 형성되었다하여 지은 이름
신촌(新村)	새마을 촌
연화리(蓮花里)	큰 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연화유수형이라 한다.
은동(隱洞)	탑동 동쪽에 있는 마을. 동쪽에 응봉산이 있다.
잿마을	금수동의 옛 지명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하였다 한다.
적계리(籍溪里)	큰골 동쪽에 있는 마을
점고개	천도리의 '점재'

지명(속명)	유래
제주도	점고개 너머 강변 쪽으로 외지게 떨어져 있는 첫동네로 수복 직후 20여호가 살았으나 현재는 5가구만 살고있다. 현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동계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골짜기가 70여리나 된다.
큰골다리	큰 골 어귀에 있는 다리
탑동	동계동 남쪽 점고개 아래 있는 마을
현촌(峴村)	서화 남쪽에 있는 마을로 접고개 아래가 된다.
加田里[法]	본래 서화면지역으로 가전리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서화리 일부를 병합하여 가전리라 했다. 1945년 38선 이북으로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3년에 휴전협정에 의하여 위수지대가 되었다.
가전	가전리
개고개	중배에서 서화리로 가는 고개
둔평(屯坪)	가전 북쪽에 있는 마을로 서화천이 마을을 돌아서 흘러간다. 6.25 동란때 폐동되었다.
배양(倍養)	수곡리 남쪽 벼랑 아래에 있는 마을
부연구(釜淵口)	부영동 어귀에 있는 마을
부연동(釜淵洞)	가전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가미솥처럼 생긴 소가 있다.
상배양(上倍養)	배양 윗마을로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수곡리(水曲里)	가전 남쪽 서화천 굽이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중배양(中倍養)	상배양과 하배양 사이에 있는 마을
포현(浦峴)	개고개
하배양(下倍養)	배양 아랫마을
西希里[法]	본래 서화면지역으로 서희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가전리 일부를 병합하여 서희리라 했다. 1945년 38선 이북으로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3년에 휴전협정에 의하여 위수 지대가 되었다.
도미현(道味峴)1	서희 동쪽에 있는 마을로 도미현 고개 밑이 된다.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도미현(道味峴)2	도미현에서 성내동으로 가는 고개
매봉	서희 북쪽 매봉 아래에 있는 마을로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박달(朴達)	서희 북동쪽 박달령 아래에 있는 마을이었으나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지명(속명)	유래
박달령(朴達嶺)	박달에서 이포리 구례동으로 가는 큰 고개
서희(西希)	서희리
서희구(西希口)	성내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서희리 어귀가 된다.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서희령(西希嶺)	서희에서 이현리로 넘어가는 큰 고개
성내동(城內洞)	
쌍두동(雙頭洞)	도미현 동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쌍룡거두의 형국이라 한다.
쌍두령(雙頭嶺)	쌍두동에서 양구군 동면 사태리로 가는 고개
쌍룡고지	쌍두동 북쪽 휴전선 위수선에 걸쳐 있는 능선. 1953년 6월 7일부터 3일동안 악전고투끝에 중공군을 완전히 격퇴시킨 곳이 다.
왈동(曰洞)	성내동 북쪽에 있는 마을
深積里[法]	본래 서화면 지역으로 심적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서화리 일부와 다릿골, 신촌, 평촌, 장바우를 병합하여 심적리라 했다. 1945년 38선 이북으로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1년 수복되었으나 북쪽은 위수선에 닿아서 군용지로 사용되고 있다.
교동(橋洞)	다릿골
내심적(內深積)	심적 안쪽에 있는 마을
다릿골	심적 북쪽에 있는 마을로 다리가 있었다.
배나무골	신촌 북쪽에 있는 마을로 돌배나무가 많았다.
신촌	평촌 남쪽에 새로 된 마을이었으나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심적(深積)	심적리
외심적(外深積)	심적 바깥쪽에 있는 마을
이목동(梨木洞)	배나무골
장바우1	심적 서쪽에 있는 마을
장바우2	장바우에 있는 마당처럼 넓은 바위
장암(場岩)	장바우1
장암동(場岩洞)	장바우2
평촌(坪村)	심적 동북쪽 들 옆에 있는 마을이었으나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伊布里[法]	본래 춘천부에 딸린 이포소가 있던 곳인데 이조 세종 6년 (1424)에 인제군에 이속되고 그 후에 이포리가 되었다. 1916년 행정구역개편

지명(속명)	유래
	으로 양지촌, 용산, 화학동, 지남, 갈문, 대정동, 능동, 화중동, 이곡, 돌모루를 서화면에 병합하여 서화면에 편입되었으나 38선 이북이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3년 휴전협정에 의해 위수지대로 남게 되었다.
갈문(葛文)	양지촌 서쪽에 있는 마을로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구례동(九禮洞)	대정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내갈문(內葛文)	갈문 안쪽에 있는 마을로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능동(陵洞)	이포 서쪽에 있는 마을로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대정동(大正洞)	병풍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돌모루	이포 남쪽 산모퉁이에 있는 마을로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병풍동(屛風洞)	돌모루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앞산이 병풍을 두른 듯 하다고 하는데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새덕현	화중동에서 고성군 수동면 흑연리로 가는 고개
석우촌(石隅村)	돌모루
싸리재령	대정동에서 양구군 청송리로 가는 고개인데 싸리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양지촌	이포 북쪽 양지쪽에 있는 마을로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외갈문(外葛文)	갈문 바깥쪽에 있는 마을로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용산	용산골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용처럼 생겼다.
용산곡	돌모루 북쪽 용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이포(伊布)	이포리
이포소(伊布所)	이포리
지남(地南)	용산곡 북쪽에 있는 마을로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진수동(進水洞)	양지촌 동쪽에 있는 마을로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축치령	싸리재령
화중동(化中洞)	지남 북쪽에 있는 마을로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화학동(化鶴洞)	양지촌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학같다고 하나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長承里[法]	본래 서화면지역으로 장승이 있었다고 하여 장승동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대방곡, 장평, 대평, 어우실, 장항, 조전평을 병합하여 장승리라 하였다. 1945년 38선 이북으로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3년 휴전협정에 따라 위수지대로 남게 되었다.

지명(속명)	유래
갈밭구미	갈전평 남쪽 후미에 있는 마을로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갈전평	송노평 남쪽에 있는 마을로 갈밭이 있었다.
노루매기	대평 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고 하며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노전평(蘆田坪)	갈전평
대방곡(大房谷)	장평 남쪽에 있는 마을
대평(大坪)	장승동 앞들 옆에 있는 마을로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송노평(松老坪)	철미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어우실(御牛室)	홍가곡 북쪽에 있는 마을로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오가덕(吳家德)	대평 북쪽 둔덕에 있는 마을로 오씨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장승동(長承洞)	장승리
장평(長坪)	대평 서쪽 긴 옆에 있는 마을이었으나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장항(獐項)	노루매기
직곡(直谷)	홍가곡 북쪽 곧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었으나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홍가곡(洪哥谷)	장평 서쪽에 있는 마을로 홍씨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나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철미동(鐵尾洞)	황기 남쪽에 있는 마을로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황기(黃基)	노루매기 남쪽에 있는 마을로 6.25 동란으로 폐동되었다.

上南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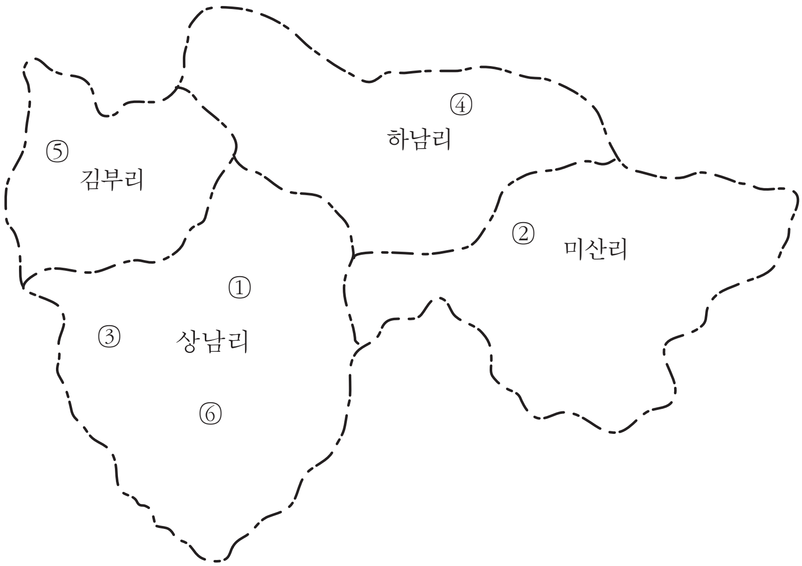
상남면

군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래 고구려의 기지군이었다가 신라시대에는 신라의 영토에 속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안변도호부 춘주군의 속현으로 기린현이라 하였으며, 이조시대에는 춘천도호부 춘주군의 속현으로 있다가 광무 10년(1906)에 인제군 기린면에 편입되고,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남리의 일부를 남면 김부리에 넘겨주고, 1945년 38선이 그어짐에 따라 상남과 하남은 그 해 9월 18일에 홍천군 신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54년 수복지구 행정이양에 따라 다시 인제군 기린면으로 환원되었다.

1973년 7월에 홍천군 내면의 미산리가 기린면으로 편입되었으며 상남 1리에는 기린면사무소 상남출장소를 두어 상남리와 미산리를 관할하였다. 1983년 1월 10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거 상남리, 하남리, 미산리와 남면의 김부리를 편입시켜 기린면 상남출장소에서 상남면으로 승격되었으며, 초대 면장에는 박남원이 취임하였다.

행정리는 10개 리다. 동, 남, 서쪽으로는 홍천군 내면, 내촌면에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기린면과 남면에 인접해 있다.

상남면 사적 분포도



① 용궁사지 ② 효열부 강릉 김씨 정려각 ③ 열녀 전주 이씨 정려각
④ 참봉 유재구 불망비 ⑤ 양교회 불망비 ⑥ 황덕신 기념비

지명(속명)	유래
上南里[法]	본래 기린면 지역으로 옛 기린현의 남쪽 위가되므로 상남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엄수동, 미다리, 방아다리, 아홉다리, 자포대, 봉남대를 병합하여 상남리라 하였으며 1945년 38선이 그어짐에 따라 그해 9월 18일에 홍천군 신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54년 수복지구 행정이양에 따라 다시 인제군 기린면으로 환원되었으며 1983년 1월 10일 기린면출장소가 상남면으로 승격되면서 편입되었다. 행정리는 3개 리다.
가득봉(可得峰)	자포대 남쪽에 있는 산으로 해발 1,060m 이며 약초와 산채가 많이 난다.
고사리재	고적평에서 홍천군 내면 방내리로 가는 고개로 높이는 619m이며 고사리가 많이 났었다.
고석들	고석평
고석평(古石坪)	엄담골 동남쪽 들 옆에 있는 마을로 아주 오래전에 김씨와 이씨가 살았는데 마을 이름이 없었다. 지관의 풍수설에 의하면 이 마을이 금반형이라 고석을 세우면 마을이 번창한다하여 사방 4m가랑 되는 넓은 판돌위에 고석을 세우고 마을 이름을 고석평이라 했다고 전하며 현재 고석은 없으나 판돌은 아직도 묻혀 있다고 한다.
구곡현(九曲峴)	아홉사리
다랑골	자포대 동남쪽에 위치한 골짜기
문내(門內)	문안골
문내곡(門內谷)	문안골
문안골	자포대 서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어귀에 문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미교(美橋)	미다리
미다리	상남리 서남쪽 끝에 있는 마을로 작은 다리가 많았다
미달동(美達洞)	미다리
미력동	엄수동 서쪽에 있는 마을로 미륵이 있었다.
미현(微峴)	고사리재
방아다리	아래미달 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방아다리와 같다.
박술이터	박술이라는 장군이 선조때 왜군을 무찌르다 국운이 쇠퇴함을 한탄한 나머지 이곳에서 자결한 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백제동	봉남대 위쪽에 있는 마을로 현재 봉남초등학교가 있는 마을 이다.

지명(속명)	유래
봉남대	부수동 위쪽에 있는 마을로 큰 소나무가 있었으므로 소나무 터라고 하다가 변하여 새남의 터 또는 봉남대가 되었다고 한다.
부수동(浮水洞)	용소폭포 아래에 있는 마을로 무슨 연유로 부수동이라 명명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갑둔향토사적연구회 회원 이태두씨의 김부사적기 내용을 인용하면 옛날에 마의태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 김부리에 웅거하고 있을 때 김부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서쪽 관문이 되는 갑둔과 소치를 우두머리 장수인 맹 장군이 지켰다면 동쪽 길목인 부수동은 부장수 즉 부수가 지켰을 것이기 때문에 부수동이라 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이곳에는 절터가 있는데 이 절의 이름이 부수사였기 때문에 부수동이라 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부숫고개	부수동에서 남면 정자리로 가는 고개
상남폭포	봉남대 동남쪽 산골짜기에 있는 폭포로 흰돌기둥이 서쪽산을 떠받들고 있는 것 같다.
새남의터	봉남대
선가매골	자포대 서쪽에 있는 골짜기
소나무터	봉남대
솔봉	문안 북쪽에 있는 마을로 송현 아래가 된다.
솔봉리	솔봉
송봉리(松峯里)	솔봉
송현(松峴)	솔봉에서 김부리 상평으로 가는 고개로 소나무가 많다고 한다.
신촌	방아다리 옆에 새로 취락을 한 마을
아래미달	미다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
엄달골	엄수동 남쪽에 있는 마을
아홉사리	홍천군 내면으로 가는 고개로 높고 험해서 99굽이나 된다고 한다.
엄달동(嚴達洞)	엄달골
엄수동(嚴水洞)	용소폭포가 있는 마을로 옛날에 엄씨 형제가 이곳에 들어와 개척을 하고 촌락을 번창시켰는데 형이 살던 곳을 상엄수동, 아우가 살던 곳을 하엄수동이라 하였으며 중간지점에는 함정 모퉁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형제들이 만나러 다니는 길에 호랑이가 자주 나와 호랑이를 잡기위하여 함정을 파 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미재	상남 북쪽에서 하남 뒷버덩으로 가는 재로 오미자가 많이 자생했다고 한다.

지명(속명)	유래
오미치	오미재
용남이 고개	상남폭포 북쪽에 위치한 고개로 남면 신남리로 통한다.
용소(龍沼)	상남폭포 밑에 있는 소로 옛날에 엄수동에 살던 한 할머니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내일 일찍 소로 오면 나를 볼 수 있다"하므로 이상히 생각하여 손녀를 앞세우고 가다가 손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누런 구렁이가 상남폭포를 칭칭 감고 있었다. 무서움으로 상남까지 뛰어오니 갑자기 천둥벼락이 치고 안개가 자욱한 사이로 무지개가 서더니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전해 오고 있으며 날이 가물때면 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내는데 개를 잡아 피를 폭포 벽에 칠하면 비가 내린다고 한다.
용소폭포	상남폭포의 다른 이름
자포대(自飽垈)	방아다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논이 많아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전해 오는 전설에 의하면 부자들이 살던 마을로써 노비와 식구들이 먹을 쌀 씻은 물이 5리나 흘렀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스스로 배부른 터'자포대라 명명했다고 한다.
장재터(長財垈)	자포대 본동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부자가 살았다는 데 연유하여 지은 지명이다.
중버덩	아래미달
중평	아래미달
침교(砧橋)	방아다리로 돌다리가 많았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나 지금은 도로가 생겨 돌다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토교동(土橋洞)	옛날 토기를 만들어 사용할 때 흙을 구워 다리를 놓았다고 해 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정포(黃町浦)	옛날 황정이라는 벼슬아치가 귀향살이를 와서 처음으로 개척한 곳이라 하여 부르게 된 지명이다.
美山里[法]	본래 강릉군 내면 내삼리지역으로 미산, 미산동이라고 불렀으나 광무 10년(1906) 인제군에 편입되었다가 1916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용연동을 병합하여 강릉군 내면으로 환원되었으며 1939년에 다시 인제군에 편입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38선을 경계로 양분되면서 홍천군 내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인제군 기린면으로 환원되어 기린면 상남출장소 관할하에 있었다. 1983년 1월 10일 상남출장소가 상남면으로 승격되어 상남면 미산리라 하였으나 행정리는 2개 리다.
개인리(開仁里)	칠앗 동북쪽 개인산 기슭에 있는 마을

지명(속명)	유래
개인산(開仁山)	칠앗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약수터가 있다
개인약수	개인계곡을 따라 올라가며 개인산 중턱에 있으며 1891년 지덕삼(함북인)이 수렵생활을 하다가 발견하였다.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며 위장병에 특효라고 한다.
계수동(桂水洞)	칠앗 남쪽에 있는 마을로 앞뒤가 기암절벽으로 형성된 곳으로 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답다.
고목동(古木洞)	고목이 많다하여 명명한 마을로 남밭골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도 밤나무 고목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 곳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율곡선생의 부친이 율곡을 데리고 이 곳을 지나다 주막에서 하루를 머무르게 되었는데 꿈에 도인이 나타나 “너의 아들 수명이 길지 못하다”고 말하고는 무서운 호랑이로 변하더니 외치면서 “이 마을 뒷산에 천 그루의 밤나무를 심고 떠나라.”하기에 며칠 동안 밤나무를 심었다. 어느 날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 밤나무를 세어 보자기에 세어보니 한 그루가 모자라는 99그루였다. “한 그루는 어디에 있느냐?”고 호랑이가 다그치자 옆에 있던 상수리나무가 튀어나오며 “나도 밤나무”라고 외쳐 화를 면했다고 한다. 지금도 남아 있는 밤나무 고목은 율곡선생이 심은 밤나무라고 전해오는데 인제군에서는 〈전래 마을 되찾기 운동〉으로 1988년에 이 마을에 천 그루를 지원하여 식재토록 하였다.
곰의골	고목동의 다른 이름
구미동(九尾洞)	운정동 동북쪽 후미에 있는 마을
구보(舊洑)	새로 만든 보 보다 먼저 만든 보
구용덕봉(九龍德峯)	개인리 동북쪽에 위치한 산
남밭골	남전동
남전동(南田洞)	속사동 동쪽에 있는 마을로 양지바르고 토질이 비옥하다. 예전에는 쪽나무가 무성했다고 한다.
봉미소(鳳美沼)	주변 지형이 봉황새 형태로 아름답기 때문에 지은 이름이라 고한다.
빈지동(賓地洞)	속사동 북쪽 반반한 곳에 있는 마을로 빈지천이라고도 한다.
빈비미치	빈지동
빈치전	빈지동
선래곡(仙來谷)	옛날에 선녀가 내려와 놀았다고 전한다.
설내골	선래곡
설내동	선래곡

지명(속명)	유래
속사동(束沙洞)	여차울 동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속새가 무성하였다고 한다.
속새	속사동
솔계동	양지촌 동쪽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가 무성한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
송계동(松契洞)	솔계동
수리바위	한니동 북쪽 방태산 중턱에 있는 바위로 수리같이 생겼다고 해서 지은 이름
승두촌(蠅頭村)	파리먹이의 다른 이름
식전동(食田洞)	양지촌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산삼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신보(新洑)	새로 신설한 보
심바치	식전동의 다른 이름
양지동	식전동 동남쪽에 있는 마을
양지촌	양지마을
어유소(魚遊沼)	개인리 동북쪽 곧 구용덕봉 밑에 있는 골짜기로 뒤에 높이 산이 솟아 있고 골이 깊어서 늘 어두운 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 칠앗 남쪽에 있으며 고기가 노는 것을 항상 볼 수 있다하여 지은 이름
왕성곡(旺盛谷)	빈지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왕씨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용바위	이조말엽에 이곳에 살던 가난한 부부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자 용마가 나타나서 밤낮 울어대므로 마을의 흉조가 하여 압사시켰다하여 부르게 된 바위 이름이라고 한다.
용연동(龍淵洞)	빈지동에서 20리 떨어진 북쪽에 있는 마을로 약 3천여평 되는 용늪이 있었으며 구룡덕봉에서 난 용마가 주인이 죽게 되자 이 늪에 와서 빠져죽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운정동(雲井洞)	구미동 남쪽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로 양지의 샘이 있다는 데 연유하여 지은 지명
재대곤(才垈坤)	이곳에서 산사람은 모두 부자행세를 하며 뽐냈다는데 연유하여 불려지는 지명
절골	왕성골 안에 있는 마을로 절이 있었다고 한다.
절터	절골에 있는 절터로 고려시대에 절이 있었다고 하나 자취를 찾기가 어렵다
청소굽이	속사동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푸른 소가 있고 물이 굽이 쳐 흐르는 데 연유하여 지은 지명이다.

지명(속명)	유래
칙바치	칠앗고개 기슭에 있으며 옻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칙알고개	칠앗고개
칠앗재	칠앗고개
칠전(漆田)	칙바치
칠전현	칙알고개
파리먹이	남밭골 동쪽에 있는 마을로 파리머리와 유사한 바위가 있다는데 연유하여 지은 지명
파리메기	파리먹이
파리먹이 바우	파리먹이에 있는 바위로 파리머리와 유사하다고 한다.
한니동(寒泥洞)	빈지동 동쪽 방대산 아래 있는 마을로 고산지대에 속한다.
下南里[法]	본래 기린면지역으로 기린현에서 남쪽 아래가 되므로 하남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광조전, 다릿골, 방평동, 해화리를 병합하여 하남리라 하였다. 1945년 38선이 그어짐에 따라 그 해 9월 18일에 홍천군 신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45년 수복지구 행정이양에 따라 다시 인제군 기린면으로 환원되었으며, 1983년 1월 10일 기린면 상남출장소가 상남면으로 승격되면서 상남면으로 편입되었다. 행정리는 3개 리다.
가산(佳山)	매화리 남쪽에 있는 낮은 산
가산동(佳山洞)	가산 밑에 있는 마을
간대(間垈)	새터
광주동	광주앗
건지터	예전에 사평동으로부터 양식을 가져다 먹었다하여 지은 이름
광조전(光助田)	광주앗
광주앗	다릿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좋은 밭이 있다.
교동	다릿골
구만동(九萬洞)	다릿골 동남쪽 넓은 터에 있는 마을로 아흡집이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한다. 6.25 당시 〈기린면 한청결사대〉 활약이 대단하였는데, 이곳에서 북한군을 120명이나 집단으로 사살한 바가 있다.
깊은골	하남 서쪽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
다릿골	하남 서북쪽 냇가에 있는 마을로 어귀에 다리가 있다.

지명(속명)	유래
대바위	남면 정자리로 넘어가기 전에 큰 바위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뒷버덩	후평동
마릿고개	마릿골에서 현리의 서바수로 가는 고개
마릿골	매화리
막동(寞洞)	선래동과 하남 광주동 중간 지점을 말하며 앞뒤가 막힌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
매화리(梅花里)	용포 동쪽 넓은 들 옆에 있는 마을로 해화락지형의 묏자리가 있다한다.
매화현(梅花峴)	마릿고개
미기동(美基洞)	미깃들
미깃돌	광주앗 건너쪽에 있는 마을로 들이 비옥하여 살기가 좋다고 한다.
사평골	사평리에 있는 골짜기
사평동(沙坪洞)	사평리
사평리(沙坪里)	하남 서북쪽 냇가에 있는 마을로 모래가 많았다.
새터	사평골과 윗골 사이에 있는 마을
선래동(仙來洞)	홍천군 내면과 경계되는 곳에 있는 마을로 수리봉 아래가 되는데 경치가 좋아서 신선이 내려와서 놀았다고 한다.
심곡동(深谷洞)	깊은골
옷밧골	의식동
의식동(衣食洞)	후평동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옷과 밥을 걱정안할 만큼 살기가 좋다고 한다.
와야동(瓦野洞)	왯골
왯골	새터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기와를 구웠다고 한다
용포교(龍浦橋)	하남에 있는 다리로 기린면과 경계지점에 있다.
절골	이 골에 봉두사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은 지명이다.
직금현(織錦峴)	이조때부터 내려오는 지명으로 후평동에서 의식동으로 넘어 가는 낮은 고개로 베틀 형국이라서 지은 이름
직은이 고개	직금현
칠전동(漆田洞)	의식동의 옛 지명
추갑산(秋甲山)	선래동에서 5리정도 올라가 있는 산으로 옛날 추갑산이라는 포수가 호랑이를 총으로 쏘아 잡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지명(속명)	유래
하남	기린면 현리에서 남쪽 아랫마을
후평동(後坪洞)	하남리 뒷버덩에 있는 마을
金富里[法]	본래 남면지역으로 김부동, 김보왕촌, 김보왕동으로 불리웠고 1843년에는 김부리라 하였으며 1916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백자동과 기린면 상남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김부리라 하였다. 행정리는 2개 리다
각시소	신랑소 옆에 있는 소
갈밭무기	갈대가 많은 마을
감재밭골	김부리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감자밭이 많았다.
거릿말	황병골, 단지골, 갑둔리로 가는 곳에 있는 마을
고든골	김부리 동쪽 곧은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
구현(鳩峴)1	비둑재1
구현(鳩峴)2	비둑재2
길향리(吉香里)	단지골 북쪽 길항산 아래 있는 마을
김보리(金寶里)	김부리
김보왕촌(金寶王村)	김부리
김보왕동(金寶王洞) 김부동(金富洞) 김부리(金富里)	신라 56대 경순왕의 아들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신라 재건을 이룩하고자 김부대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모집하여 양병을 꾀했다고 불려지는 이름이다.
노전동(蘆田洞)	갈밭무기
단지곡(丹芝谷)	단지골
단지골	김부리 북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로 단지라는 뜻은 옛날에 죄인을 벌하기 위하여 발을 자르는 것을 뜻하는데 김부대왕 통치 하에서 죄지은 사람을 벌하던 곳이라 하여 지은 이름이 아닌가 생각된다.
달밭골	김부리 동쪽 양지쪽에 있는 마을
대왕각(大王閣)	거릿말에 있는 사당으로 김부대왕을 위하여 음력 5월 5일과 9월 9일에 취떡과 제물을 차려 놓고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제사를 지내왔으며, 현재는 단오절에 마을 주민들이 제사를 지내고 중량절에는 신라 김씨 종무원 부안 김씨 대종회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대왕각에는 "경순대왕일자지신위(敬順大王一子之神位)"라 기록된 위패가 모셔져 있었으나 1978년 부안 김씨 후손들에 의해 신라경순대왕태자김공일지신위(新羅敬順大王太子金公鎰之神位)로 고쳐 모셨으며 철제마상 2점이 있다.

지명(속명)	유래
대왕당(大王堂)	대왕각
말등바우	옥새바우 북쪽에 있는 바우로 말등과 비슷한 모양이다
문고개	문재
문재	갈밭무기에서 신남으로 가는 고개로 문처럼 생긴 바위가 길 좌우로 우뚝 서 있는데 연유한 이름이다.
문현(文峴)	문재
발딱고개	김부리에서 정자리로 넘어가는 고개. 옆에 큰 바위가 발딱 일어서 있는 데 연유한 이름
백자동(栢子洞)	백재동
백재동	비둑재 밑에 있는 마을로 큰 잣나무가 있었다.
비둑재1	비둑재가 있는 마을
비둑재2	거릿말에서 백재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산비둘기 집이 많이 있다고 한다.
상단지곡(上斷趾谷)	상단지골
상단지골	단지골 위쪽 마을
상평(上坪)	웃버덩
솔모정	백재동 가운데 있는 솔숲
수금동	갑둔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수구네미 밑에 있는 마을로 갑둔리의 수구네미와 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신랑소	각시소 동쪽에 있는 소
옥새바우	하단지골 북쪽 산 밑에 있는 바위로 2개가 포개져 있는데 김부왕이 옥새를 감췄던 곳이라 하며 여러 빛깔의 뱀이 가끔 나와 돌아다니는 데 마을사람들은 옥새를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용소(龍沼)	지랭이 서북쪽에 있는 소로 근처 바위에는 용이 등천한 자국이 있다고 한다.
웃버덩	거릿말 툴 옆에 있는 마을
응달말	자당꼴
자당꼴	음지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제당이 있다.
지랭이	지형이 지렁이처럼 길게 생겼다.
직동(直洞)	고든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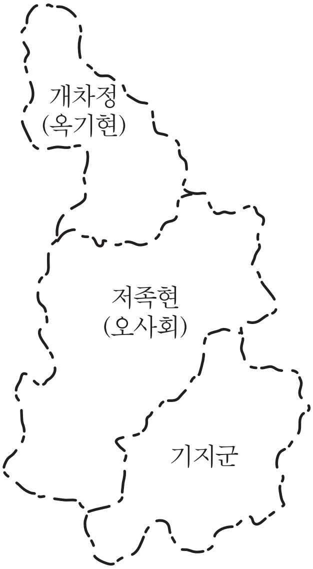
지명(속명)	유래
진소	하단지골에 있는 긴 소
찧소	황병골에 있는 소로 폭포 아래에 있는데 폭포에 떨어지는 물 모양이 방아를 찧는 것 같다고 한다.
하단지골(下斷趾谷)	하단지골
하잔지골	단지골 아랫마을
황병현	황병고개
황병골	황병골의 다른 이름
황병고개	황병골에서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로 가는 고개
황병곡(黃丙谷)	황병골
황병골	김부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황병나무가 무성한 데 연유하여 명명된 지명이라고 하지만 갑둔 향토사적연구회 회원 이태두씨는 항병골로 싸움에서 항복한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김부대왕 통치 체제에 의한 싸움에서 유래된 지명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호랑박골	달발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새끼를 낳고 살았다는 유래에 의하여 지은 지명

참고문헌

1. 신증동국여지승람〈경문사〉
2.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3. 한국지지〈건설부 국립지리원〉
4. 강원총람〈강원도〉
5. 강원도지〈강원도〉
6. 인제읍지〈강원도〉 1843
7. 인제향토지〈인제군 교육청〉
8. 향토의 전설〈강원일보사〉
9. 태백의 읍면〈강원일보사〉
10. 인제향토지〈인제향토지편집위원회〉
11. 한국사대계〈삼진사〉
12. 인제군지〈인제군〉
13. 춘주지〈춘천시 춘천군〉
14. 양구군지〈양구군〉
15. 임영지〈임영지발간위원회〉
16. 인제문화 4〈인제문화원〉
17. 김부사적기〈갑둔 향토사적 연구소〉
18. 홍천군지〈홍천군〉
19. 국사대사전(개정증보판)〈교육도서〉
20. 대동여지도

역대 행정 구역 약도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 양려군 속현
  - · 희제현(선덕왕 6년 : 637년)
  - · 치도현령(경덕왕 : 742~764년)
  - · 양구현이 인제현에 영속(1663년)

조선 시대

* 초기에 서화현 일부 회양부에 이속

1896년

* 인제현이 군으로 승격(1896.8.14.)

1917년

* 춘주군 기린면이 편입(1906년)
  · 동면 현내면 통합(1914년)
  · 현내면을 기린면으로 개칭(1916년)

193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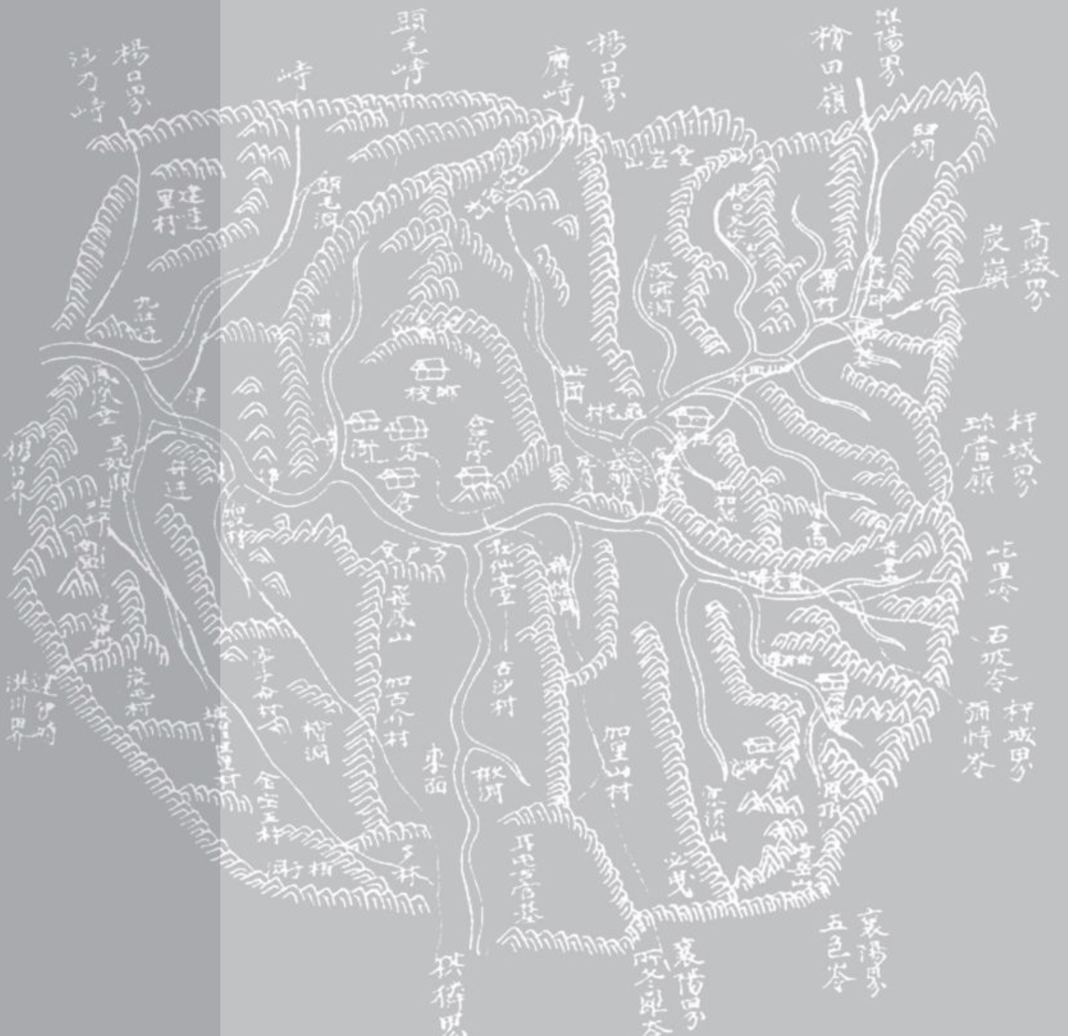
* 강릉군 내면이 편입

1983년

＊ 기린면 상남출장소가 상남면으로 승격

제4장

인제군의 전설



인제읍 전설

麟蹄邑 傳說

인제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정 종 암**

• 가리산의 하우고개

인제읍 가리산리 하우고개 하영산 고개 또는 하우현에 얽힌 전설로 옛날 600여년전 "피래"라는 고장의 주민들간에 사소한 언쟁으로 사람을 죽인 과실 치사가 있었다.

잘못하여 사람을 죽인 쪽과 죽음을 당한 가족 사이에는 잘 잘못을 해결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관가에 이 사실을 가리고자 피래를 출발하여 원님께 소송하려고 백여 길을 걸었다.

두 쪽 사람들은 서로 적의를 가지고 마을을 떠났으나 백여리를 걸어서 이 고갯마루에 오르고 보니 서로 피로하고 기진맥진하여 서로의 옆에 앉아 쉬게 되었다.

관가에까지 가자면 앞으로 갈 길이 아득한 데다가 또 사소한 언쟁으로 과실치사를 한 사이고 보니 서로 상대방의 사정을 듣고 협의한 끝에서로 하우(和解)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 고개를 하우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

• 갓 쉰동이의 전설

고구려때 연국혜(淵國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 쉰이 되도록 후사를 얻지 못하여 항상 슬하에 혈육이 없음을 한탄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부부는 항상 부처님께 아들 하나를 점지해 달라고 빌었다. 이들의 정성에 부처님도 감동했음인지 그의 나이 쉰이 되던 해에 마침내 귀여운 옥동자를 하나 낳았다. 갓 쉰동이가 일곱살이 되던 해 봄, 행각승 한사람이 뒤뜰에서 놀고 있는

갓 쉰동이를 보고 “아까운지고 정녕 아깝구려”하고 한탄하는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연대감은 그 연유를 행각승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그 행각승은 갓 쉰동이는 장성하면 반드시 부귀영화를 누릴것이나 타고난 수명이 짧아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행각승은 갓 쉰동이의 명을 길게 해주려고 15년간 부모의 슬하를 떠나 집을 그리워하게 되면 그 액을 때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연대감은 즉시 하인을 불러 곱게 키워 온 갓 쉰동이를 두메 산골로 보내고 뒷날 아들을 찾기 위한 표적 삼아 먹실로 등 위에 갓 쉰동이란 석자를 새겨 두었다. 갓 쉰동이를 버린 곳은 인제땅 두메산골이었는데 그 동리에는 큰 부자인 유씨가 살고 있었다. 유씨는 갓 쉰동이가 버려지던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커다란 황룡이 구름을 타고 자기집 우물가에서 하늘로 날으는 것을 보았다. 유씨는 당장 우물가로 달려가 주위를 살펴보고 또 한번 놀랐다. 한 사내 아이가 우물가에 기대서 자고있는 것이 아닌가? 유씨는 이 아이를 집에 데려다 귀엽게 여기고 키우기 시작했다. 갓 쉰동이는 자랄수록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영특했으나 그의 내력이 알려지지 않아 천인 대접을 받고 있었다. 갓 쉰동이가 머슴으로 일하고 있던 어느날 하루는 뒷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청아한 퉁소 소리가 들렸다. 그는 빈 지게를 내려 놓고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백발의 도사가 앉아 퉁소를 불다가 갓 쉰동이를 보고 “너는 언제까지나 남의 머슴살이를 할 것이냐?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기세를 펴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니라”고 나무라고 자기에게 와서 공부하라고 일러 주었다. 갓 쉰동이는 그날부터 도사에게서 글과 무술을 배웠다. 해가 질 무렵 갓 쉰동이는 나무를 하지 않은 것이 걱정이 돼 지게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랬더니 지게에는 누가 해 주었는지 이미 나무가 한 짐 지워져 있었다. 갓 쉰동이는 도사에게 감사하며 나무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부터 갓 쉰동이는 매일 도사를 찾아가 공부를 했으며 공부가 끝나면 누가 해주었는지 지게에 한 짐 실려있는 나무를 지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원래 주인 유씨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그 중 셋째딸인 연화라는 아가씨가 제일 아름답다고 착했다. 연화와 갓 쉰동이 사

이에는 어느덧 사랑이 움텄다. 갓 쉰동이는 연화의 격려에 힘입어 사내로써의 포부를 세상에 펴려고 주인 유씨의 집을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연화는 지니고 있던 패물을 팔아서 갓 쉰동이의 여비를 마련해 주었다. 그때 고구려는 달달국의 침입에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갓 쉰동이는 달달국에 들어가서 그 나라 왕의 비복이 되었다. 갓 쉰동이는 그 나라에서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 나라의 문물을 몸소 익혀 가지고 그 나라를 벗어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 고국에 돌아온 갓 쉰동이는 연화 아씨의 내조에 힘 입어 부모를 다시 찾고 벼슬을 얻었다. 그는 연화 아씨와 결혼한 이듬해 달달국을 쳐 들어가 크게 승리하여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 한다.

• 고사리의 장수터

인제읍 고사리 앞을 흐르는 내린천 물은 예부터 맑고 깨끗하게 유유히 흘러내려 심산유곡의 적막을 이루는데 큰 몫을 다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복지개봉 골짜기에 졸졸 흘러내리는 도랑 옆 양지바른 언덕 위에 중년부부가 한가로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다 한다. 이 집 주인이 김덕용이요, 아내가 안옥녀였다. 봄이면 복숭아, 살구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고, 가을이면 오색 찬란한 단풍잎이 곱게 물드는 이곳 부부는 나이 45세가 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어 자식 하나 보았으면 원이 없겠다고 개탄하여 "자식 하나 점지하여 주십시오"하고 매일같이 정성껏 기도드린 보람이 있어 안씨 부인은 태기가 있게 되었다. 아들 낳기만을 고대하던 중 마침 소망이 이루어져 사내 아이를 낳게 되어 이름을 칠성이라 지었다. 온 동리의 축복을 대단하게 받은 그 아이의 울음 소리는 우람하고 귀골이 장대하여 장사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다. 그런데 괴이한 사실은 출생한지 삼일만에 어머니가 재워놓고 빨래 갔다가 돌아와보니 칠성이가 문고리를 잡아뽑으려고 힘을 쓰고 있지 않겠는가? 그 후 8일만에 높다란 선반 위에 올라가 매달리고 뛰어내리는 것이다. 이 엄청난 장난에 놀란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늘어놓자 남편은 "지성이면

감천이지” 하면서 기뻐하기만 하였다. 다음날 일터에 나간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이나 하듯이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듣고 있던 사람들이 큰일 났다는 것이 아닌가? “자네 그것 큰일났네. 틀림없이 장사를 낳았는데 장사를 낳으면 다섯 살 안쪽에 부모를 해치고 집을 뛰어나가 인적 없는 심산구중에 들어가 도를 닦고 무술을 연마 한다네. 그러니 어서 크기 전에 처치해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화를 입을 걸세” 하고 이구동성이다.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한 것이 오히려 등골이 오싹해지고 무서워졌다. 김씨는 아내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여 칠성이를 없앨 것을 결정하고 아랫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칠성이 가슴 위로 큰 맷돌짝을 짓눌러 놓았다. 이 순간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맷돌짝이 굴러 떨어지고 칠성이는 한번 뒤집어 눕는 것이 아닌가?

이에 당황한 김씨는 어차피 저질러 놓은 일이라 노끈으로 다시 수족을 묶어 놓고 맷돌짝을 또 올려 놓았다. 그리하여 칠성이는 난지 9일만에 부모의 손에 숨지고 만 것인데 그날 저녁에 이상하게도 하늘에는 서리가 뻗치고 하늘에서 용마가 내려와서 집 주위를 돌며 노성 벼락같은 목소리로 울기를 3일, 마침내 용소강을 뛰어 넘어 산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용소 앞 벼랑에 치솟은 바위에는 돌 뚜껑을 한 장수 우물이 생겼다고 하여 그 후부터는 이곳을 장수터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전해 오고 있다.

• 귀둔리의 용소

인제군 인제읍 귀둔 2리에 있는 자연소 이야기이다.

옛날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전 이곳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자주 용마가 찾아와 울었다 한다. 그 후 용마가 없어진 뒤로 이곳에는 깊은 소(沼)가 생겼으며 이 소의 길이는 약 600척이나 되었다 하며 또한 비가 계속 올 때는 용마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옛 사람이 있었다 한다. 또한 예전에는 이 지방에 가뭄이 들면 이 소에다 개를 잡아 넣으면 급작스레 날씨가 흐려지며 소낙비가 내렸다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비석거리

인제읍 합강 2리 합강정 밑 국도인 포장도로에는 고려시대부터 이조 시대에 걸쳐서 선정을 베풀었던 인제 고을 현감인 박종복을 비롯한 이세억, 김창국, 한배후, 홍은변, 김현초, 이인회, 박종영, 정숙종 등의 선정 송덕 유사비가 20기 가까이 서 있는데 연유하여 이 고장 사람들은 예부터 비석거리라고 불러왔다. 그러나 최근 국도의 확장과 포장공사로 인해 매몰되어 한기도 찾아볼 수 없다. 한때 이 지역의 소열, 차평리, 덕산리, 덕적리 마을의 장꾼들이 오고 가고 할 때마다 유일한 휴식처로 고인돌의 행적들을 찾아 보았건만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 백운과 제후(白雲과 除厚)

삼국이 통일된 후 한창 시국이 안정되어 태평세를 누릴 때의 일이다. 신라 진평왕 24년 인제에는 우애가 두터운 두 친구가 아래 윗집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아내는 같은 때에 모두 아기를 배었다. 그들은 어느쪽이건 딸을 낳으면 서로 약혼을 하여 두 집의 정의를 계속 하자고 다짐했다. 날이 가고 달이 가자 두 부인은 해산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부인은 똑같은 시간에 아기를 낳았다. 박진사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백운이라 지었고 권진사는 딸을 낳아 제후라고 이름을 지었다. 두 이웃은 갓난 어린애를 그 자리에서 약혼해 놓고 말았다. 백운과 제후는 차츰 자라서 백운이 어느덧 국선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런데 백운에게는 이때부터 비운이 닥쳤으니 그의 부모가 이름 모를 괴질에 걸려 앓게 된 것이다. 백약을 구해 부모의 병구환을 했으나 결국 그의 부모는 가산을 다 탕진하고 1년만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백운은 주야로 상정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눈 앞이 캄캄하여 통곡하기를 49일. 바로 그날 백운은 까무라치고 말았다. 백운이 깨어보니 권진사의 집에서 간호를 받고 있었으며 놀랍게도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다. 백

운이 불행히 실명하게 되자 제후의 아버지는 마음이 변했다. 딸을 재산도 없고 눈먼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었던 것이다. 제후의 아버지는 백운의 아버지가 살았을 때 맺었던 약혼을 깨고 딸을 금산 태수로 있던 이교평에게 시집 보내기로 한 것이다. 나이 15세가 되어 철이 들은 제후는 생각다 못해 어느날 밤 백운의 집을 찾아갔다. 제후는 금산으로 백운을 따라오기를 당부하고 부모가 보내는 대로 금산 태수에게로 갔다. 거기에서 그녀는 좋은 날을 택하여 성혼하기로 하고 그 동안은 별거하자고 했다. 그러는 동안 백운이 금산으로 찾아왔다. 제후와 백운은 산속 깊숙이 들어가 함께 살기로 하였다. 갖은 고생을 하며 두 사람은 개녕군 송방리란 곳에 자리를 정하였다. 앞 못보는 백운은 제후와 함께 논밭을 일구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날 백운과 제후가 밭을 가는데 오래된 석불 하나가 나왔다. 백운은 석불 앞에 앉아 그 석불을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제후의 생각도 한가지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백운의 눈앞에는 희미하게 석불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백운은 자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부처님께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빌었다. 그는 석불을 보고 합장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신기하게도 밭에만 나가면 희미하던 눈이 광채를 받아 조금씩 앞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몇 달이 지나자 백운은 멀쩡하게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 부부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들은 석불을 고이 집 근처에 모셨다. 그러자 그 후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 의해 이 석불이 신통력이 있음이 널리 알려졌으며 석불이 밤에는 서광을 비친다는 소문까지 났다. 석불이 있는 백운 제후 부부의 집에는 병을 비는 사람, 자식을 원하는 부부 등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석불에게 빌면 이루어진다고 믿어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찾아 들었다 이들은 공양으로 쌀을 가져오느니 베를 가져오느니 향촉과 음식을 올리느니 하며 법석댔다. 그리하여 부부는 주인 노릇을 하며 시주가 늘어 기와집을 짓고 석불을 모실 큰 절을 지으려고 마음 먹게끔 됐다. 양반집이나 대감집에서도 노소부녀가 모두 와서 기도를 올리고 심지어는 현감과 조정 대신까지 석불 앞에서 지식을 빌고 병을 낫게 하여달라

고 정성을 드렸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암행어사가 지나게 되었다. 암행어사는 이것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민가에 큰 피해가 될 것으로 알고 아졸을 보내어 집을 부수었다. 그러나 암행어사도 백운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 그래서 백운 부부는 다시 집을 짓고 석불을 모셨다. 그랬더니 해가 거듭할수록 집안은 더욱 번창하였고 자손들도 늘어나 흥성했다.

• 아미산의 명당자리 천지연못

1945년 해방되기 이전의 일제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이곳 인제군 인제읍 군축령 아미산 령에는 운치가 아름다운 천지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부러워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심술궂게 이 명당자리 천지 연못을 없애기 위하여 이곳에다 아카시아 나무를 심고 공동묘지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지금도 이곳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고 묘자리가 있다고 한다.

• 인제와 기린

인제 고을은 아득한 옛날인 고구려시대(BC 37~660)에는 지형의 형국이 멧돼지 또는 사슴 무리 발자국에 유사하다 하여 저족(猪足)이라고 불러오다 청나라 지명의 명명형식에 따라 오사회(烏斯回)로 개칭하였다. 신라시대(BC 57~935)에 들어와서 양록군(지금의 양구)의 속현일때 지형의 형국이 돼지 발굽에 유사하다 하여 희제현으로 재차 개칭하여 불러 오다가 고려시대(BC 918~1392)에 들어서 지금의 인제현으로 하였다가 이조 초엽에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산수에 영이 비친다하여 영소현으로 부르다가 다시 인제로 환원되는 등 수차에 걸친 개칭을 거듭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산에 영

기가 많다고 하여 일본인들이 절정에다가 영기를 막는다고 하여 철창을 박아 놓았다.)

한편 500여년 전 왕이 국난을 피하기 위해 이 지역에 들어왔다가 정세를 알아보기 위해 신하를 한양에 올려 보내면 무소식이고 해 마지막 심복 신하를 보내면서 “너는 인제가면 언제 오겠나”면서 안타까워해 그때부터 이 지역이 인제라고 불렀다는 전설이 있으나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을 길이 없다. 우리나라 고사에 기록되어 있기를 옛말에 사슴이 100년 묵으면 기린이 된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또는 사슴뿐 아니라 여러 동물에 대해서 어떤 신성한 이유를 붙여서 결코 죽이지 않는 풍습이 숭앙하여 왔다. 가령 백조나 거위 같은 조류는 여러 영혼이 그런 새의 탈을 쓰고 나타난 것이라 하여 죽이지 않았다. 기린은 세계 동물 분포상 아프리카의 중부 사하라 수단에서 남아프리카 서해안의 천림 초원에서 군서하는 야생동물로 개화된 후인 일제시대의 중엽 무렵에 창경원 동물원에 처음 도입되므로 첫 선을 보인 동물이며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래야 볼 수 없는 희유한 동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들이 면, 향리의 명칭에다 「麒」자와 「麟」자를 많이 동요시켰다. 사슴은 울창한 밀림을 피하여 산골짜기와 깊은 산에서 오래 전부터 군서 생활로 먹이를 찾으며 산지성 지점을 골라 서식하는 습성인데다가 외부적 감각으로 후각과 청각이 잘 발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쾌우아는 놀랄 정도이며 신속한 동물로 인간 생활과 밀접한 면이 많다. 기린은 고구려 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기지군으로 불러 오다가 고구려 때는 기린(940, 期麟) 이조 때는 기린(1413, 麒麟)으로 춘천 도호부의 속현을 걸쳐 춘천군에 속해 있다가 1906년 처음 인제군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어쨌든 인제와 기린은 시대적인 행정구역의 수차에 걸친 변천에 따라 당시의 지형의 형국(형태)이 동물 분류학상 유제류(有蹄類)에 속하는 돼지, 사슴, 강아지 등의 짐승 무리에다 비유한 것이다.

• 인제읍 전설

기룡산을 주산으로 아미산이 규봉(規峯)하며 합강정을 청용(靑龍)하며 경노정을 백호(白虎)하며 와우산을 안대(案帶)하며 소양강 상류인 인제강을 요대(腰帶)하니 삼태기의 형국이라.

삼태기는 모든 물질을 끌어 담는 그릇이다. 타지에서 살다가 이곳에 빈손으로 이사를 하여도 살아가는데는 입을 것, 먹을 것, 잠잘 곳은 무난히 해결하며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고장이다. 이 고장에서 부자가 되어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많아지고 가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 원대리 열녀 김씨 기일제

이조시대인 인조 14년 병자호란(1636)때 경기도 양주군 풍양현에 기골이 장대하고 인품이 고귀한 조옥립이란 장군이 있었다. 병조판서를 역임한 바 있는 이 장군은 병자호란때 관군을 지휘하고 되놈과 분투하였으나 대세가 불리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의 기회를 보기 위해 인제읍 원대리에 은신하였다. 이 장군에게는 삼척 김씨의 부인이 있었다. 조옥립 장군의 뒤를 따라 들이 닥친 되놈들은 김씨에게 조장군이 있는 곳을 밝히라고 두 손바닥에 쇠로 구멍을 뚫는 등 갖은 고문을 했다. 그러나 김씨는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되놈들은 마당에 장작을 쌓아 놓고 김씨를 화형에 처하려고 불을 질렀다. 그 순간 돌연 폭우가 쏟아져 뇌성병력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다 이렇게 되자 되놈들은 무서움에 떨며 도망을 쳤으며 김씨는 끝내 남편이 있는 곳을 적에게 알려주지 않아 남편을 구했다는 것이다. 조장군의 후손들은 삼척 김씨가 10여일 후 죽자 그녀에 의해 그들이 대를 이을 수 있었다고 하여 김씨의 기일 음력 10월 1일이면 문중에서 제사를 매년 올리고 있다.

▲ 인제읍 원대리 안삽재에 열녀문이 있으며 제13대 손으로 조남식(1936~)을 비롯한 조씨 20호가 거주하고 있다.

• 점봉산과 주전

인제군 인제읍 귀둔 2리와 기린면 진동 1, 2리 경계로 하고 있는 점봉산(1,424m)에 얽힌 일화이다.

이조때 상평통보의 엽전을 나라에서 만들어 백성에게 쓰게 하던 시절에 이 점봉산(속칭 덤봉산) 깊숙히 들어 있는 골짜기의 바위굴에 숨어 어떤 사람이 사주전을 했다고 한다. 깊은 산 속에서 이렇게 엽전을 만들었으나 이 비밀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져서 뚝딱뚝딱 망치질하는 소리가 마치나 "덤봉산 돈 닷돈, 덤봉산 돈 닷돈"하고 울렸다 하여 동요가 되고 전파되니 이 기이한 동요에 관인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자 사주전 하던 일당들이 발각되어 표박되어 간 후에 처형되었다 한다. 그래서 지금도 인근에서 꽹가리를 처음 배우는 이들이 "덤봉산 돈 닷돈" "덤봉산 돈 닷돈"하고 친다고 한다.

• 청계동의 권대감제

인제읍 가아리 청계동 골짜기에 얽힌 전설이다.

이조 세조때 단종대왕이 영월로 귀향살이를 가게 되자 나라 사람들이 세조의 부당한 처사에 울분을 참지 못했으며 당시 고관과 많은 신하들은 세상을 등지고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거나 또는 방랑생활에 들어갔다. 특히 단종의 외숙인 권전이라는 분은 이 난을 피할 겸 아주 깊은 산골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 가다 가다가 당도한 곳이 인제의 청계동인데 이곳에 초막을 짓고 은거 중 하루는 잠시 이웃을 다녀오기 위하여 말을 타고 길을 떠났는데 산중에서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사슴 한 마리에 깜짝 놀란 말이 달아나는 바람에 권전은 그만 말에서 떨어지면서 칡덩굴에 걸려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 분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하여 마을의 주신으로 모시고 또 지방의 화나 복을 이 분의 영혼이 좌우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태평을 위해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제사를 지내왔다고 하나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다.

• 풍년을 점치는 합강수

인제읍에 소재한 합강리를 지나 멀리 소양강으로 유입하는 하천을 예부터 미륵천(彌勒川)이라고 불러왔다.

이 미륵천을 古記에 「在縣北自官門五里一派基來一派白雲岳至元通合驛瑞和水流至亭前合江稱名彌勒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강물이 합강정 앞에서 합류하므로 대부분의 이 고장 사람들은 합강정으로 통용되고 있다. 천년을 하루같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이 하천은 장마철에 들어서면 합류지점은 그 수심이 매우 깊으며 지형적인 특수한 연유로 강물이 역류하고 있음이 기이하다. 그래서 이곳에 온 이는 신비한 감동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 또한 합류지점에서 건너편 만호대 기슭 강변을 지나는 내린천(암물)은 물빛깔이 흐리고 인북천 물보다 맑으면 홍수가 나고 반대쪽인 인북천(순물)에서 내려오는 물이 맑으면 풍년을 기약한다고 한다.

• 합강미륵

인제 지방은 옛적부터 산이 많은 관계로 산림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그 중 목재와 화목 등 건축의 수요를 이곳 인제 지방에서 운반하여 사용하였으며 교통수단으로 뗏목을 이용하였다. 뗏목의 작업과정은 합강 합수머리에서 작업을 하여 운반하였는데 옛날 어느날 박명천이라는 목상이 있었는데 하루는 길몽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내가 이 강물 속(합강 합수지점)에 묻혀 갑갑하기가 참을 수 없는 지경이니 나를 좀 건져달라.”는 꿈을 꾸었다. 잠을 깨고 아침 일찍 일어난 박명천은 꿈도 참 이상하다 생각한 끝에 잠수를 잘 하는 친구 김성천이란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그로 하여금 물 속에 들어가 살펴 봐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친구되는 김성천은 약속을 하고 즉시 준비를 하여 합강물 제일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 살펴보던 중 수척이나 되는 석주가 광채를 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와 박명천에게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박명천

은 사람을 동원하여 이으고 석주를 물 속에서 건져내어 미륵불을 만들고 그 옆에 조그마하게 누각을 짓고 그 속에 미륵불을 세워 모셨다. 그 후부터 박명천과 김성천은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창하여 부자로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 황조막과 박진사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은 고종황제 때의 일이다.

때는 늦은 봄이었는데 나라에서는 과거를 실시하고 있을 무렵이다. 박씨들의 씨족촌인 인제현 하추리에 서로 6촌간인 삼형제가 과거에 응시하게 되었다. 이 세사람은 준희, 순칠, 준회란 청년들로 그 중 준회는 인제 고을에서 글재주가 뛰어나서 소문이 자자하였고 준희는 어려서부터 조숙하더니 청년이 되자 천하장사였고 또한 키가 구척장신이었다. 그리고 순칠은 집이 빈곤하여 어깨 너머로 추귀권(抽句券)이나 읽는 전지였다. 이들은 과거를 보기 위해 많은 짚신과 노자를 짊어지고 길을 드디어 떠났다. 한양을 향해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늦은 봄이건만 한 여름장마처럼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 흙탕의 장마물을 건너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래서 구척 거구인 준희의 허리에 순칠이와 준회를 밧줄로 연결하여 매고 개울을 건너가는데 급류의 물살이 너무 강해서 준회와 순칠이가 넘어져 물위에 뜨게 되었다. 그러나 밧줄을 당겨 두 사람의 멱살을 양손에 움켜쥐어 번쩍 들고 무사히 강을 건넜다. 정말 천하장사였다. 그들은 오늘날의 경기도 양평 고을에 이르러 주막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되었다. 인정 많은 주막 주인 덕택에 편히 잘 수가 있었다. 다음날 순칠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꿈 자랑을 했다. 꿈에 푸른 버드나무 숲에서 황금 같은 꾀꼬리 두 마리가 날아와 양 어깨에 앉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칠이는 자기가 과거에 장원급제 할 징조라고 좋아했다. 그러나 얘기를 듣고 있던 주막주인이 “허허! 애석합니다.” 하면서 해몽을 하는데 꾀꼬리가 머리에 앉았으면 당신이 급제하는 것인데 양어깨에 앉은 것

은 옆 사람이 급제할 징조라 했다. 그 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꿈의 해몽이 적중하여 준회는 소과에 급제를 하고 준희는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제수 받았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 다시 들려 주인에게 많은 사례를 하고 그 주막을 황조막(黃鳥幕)이라고 했으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서 황조의 꿈을 꾸고 과거에 급제했다하여 황조막 또는 황조가라 불렀다고 하나 지금은 그 흔적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하추리에서 그들의 후손들은 꾀꼬리 꿈만 꾸면 길조라고 믿고 경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 크게 기뻐하는 것이다.

남면 전설

南面 傳說

인제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심 상 흠**

• 가마산과 입산기도

가마산은 인제군 남면 김부리 서쪽에 있는 해발 1,180m의 높은 산으로 산림이 울창하고 풍치가 있는 장엄한산으로써 예부터 유명한 산신령님이 깃들어 인간세상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일이 잘 안되어가는 사람들이 이 가마산을 찾아와 빌면 안되는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산신령님이 잘 돌봐 주는 산으로 유명하였다 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주적은 사람들로써 혹간 찾아 들고 있으나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 머물면서 기도를 드리던 자리와 자연석으로 돌탑을 쌓은 흔적이 있다고 한다. 또 한가지 이상한 전설은 이 산에는 그 옛날 김부대왕이 전쟁시에 사용할 소금을 구해다가 많이 묻었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갑둔리

현재는 갑둔리라 하면 갑둔초등학교 소재지인 서낭거리와 원갑둔 그리고 소치리 일부에서 편입된 갑둔 2리를 통틀어서 말한다. 그러나 1916년 이전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까지는 서낭거리는 김부리에 속해있었고 갑둔 2리는 소치리에 속해 있었으며 현재의 원갑둔만을 갑둔이라 불렀었다. 갑둔은 홍천, 인제간 국도에서 10km, 옛날 역이었던 부평에서 16km, 인제(현)에서 30km떨어져 있었고 해발 500~700m의 산간 고지로 교통이 불편한 편이긴 하나 땅이 기름지고 산채류가 풍부하여 일제시만 하더라도 약 300호 이

상 거주했다고 한다. 갑둔의 옛이름은 알 수 없으나 한자로 “甲”자는 갑옷 또는 으뜸의 뜻이 있으며 “屯”자는 둔전의 뜻이다. 둔전이란 옛날에 군사들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사를 짓던 땅이다. 따라서 갑옷은 군사와 관련이 있고 으뜸 또는 제일의 뜻으로 볼 때 그 옛날 많은 군사들이 이곳에 주둔하고 훈련하면서 군량을 해결하는 제일 중요한 땅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정이 사실이라면 어떤 통치자나 권력자가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 지역은 고대국가인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역으로 자주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고구려 또는 신라의 군사들이 주둔해 있던 곳으로써 생겨난 이름일 수도 있고 또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은거하면서 항쟁하였던 곳으로써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 두 경우 어느 것도 타당성이 적다. 왜냐하면 이곳은 교통이 불편하고 작은 마을로써 이 마을의 지형적 여건으로 보아 싸움에서 공격적인 요새이기보다는 방어적인 즉 숨어서 장기간 주둔하기에 알맞은 곳으로 볼 때 삼국시대의 분쟁이나 임진왜란 때의 군사활동 근거지로 보기에 이해가 좀 안가는 이야기가 되겠다.

• 김부 대왕 묘

김부대왕 묘 터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곳은 오미자골 입구 도로변에 있다. 옛날에 김부대왕 묘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최씨네 가묘를 썼다고 한다. 최씨 집안은 이곳에 묘를 쓴 후 그 자손들이 벌을 받아 죽고 망했다고 전해 오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는 쓰러진 망부석과 묘비가 남아있다 한다. 묘 비문에는 “ … 통정대부 최씨 · … 숙부인 …”의 글자가 보인다. 통정대부는 이조때 정3품 직위로 그 직책은 오늘날의 차관급에 해당된다. 이곳에 묻힌 사람은 나라에 죄를 지어 이곳에 유배되어 왔거나 당쟁을 피해 이곳에서 은거하다가 죽어 여기에 묻혔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사복최씨 … 라고 씌여진 묘비가 2개 발견되고 있는데 “사복”이란 관직은 고려와 조선조 때 임금의

수레나 가마를 관리하던 것인데 이것은 김부대왕의 전설 술구네미와 어떤 연관이 있을 법도 한다. 이곳은 풍수지리에 의하면 묘터로써 명당이라 한다. 그런데 상당히 넓은 공간지역을 남겨두고 제장도 없이 산마루 끝에 묘를 써야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 공간지역에 김부대왕 묘가 있었을 것으로 가상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이곳은 김부탑과 갑둔탑을 좌우로 거의 같은 거리를 두고 술구네미 절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퍽 의미있다 하겠다. 1973년 이곳 앞으로 자동차 길을 내기 전까지는 묘 앞에 연못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연못을 메우고 길을 낼 때에 굉장히 큰 비석이 묻혀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현재 이곳 주위에는 평창이씨네 묘가 산 위쪽에 있다.

• 김부리와 식량리

신라가 고려 당나라에 항복을 한 뒤의 일이었다.

김부왕 마의태자는 부왕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일천년 사직을 경하게 내놓을 수 없다하여 항의하다가 실패하니 천추의 원한을 가슴에 품은 채 비빈과 수십명의 수족병을 거느리고 쪽으로 향하여 왕도 경주를 떠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의 남면 김부리까지 와서는 피로한 몸을 쉬기 위하여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었다. 이러해서 뒷날 이곳을 김보옥촌 김보동(金寶玉村 金寶洞)으로 부르다가 김부리(金富里)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수족병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맹장군이 의병을 초모하여 왕건의 군사를 물리치는 것이 상책이라고 김부왕께 고하자 김부왕도 이것을 찬성하여 곧 좌우의 여러 신하들을 여러 고을로 보내어서 의병을 초모해 오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지금의 양구 군량이 넓은 벌에서 초모해 온 의병을 일변 훈련을 시키고 한편으로는 그 곳에다 군량고를 쌓고 군량미를 거두어 들였다. 그러나 이 거사를 하기 전에 맹장군은 한 많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므로 장군을 잃은 수백인의 의병들은 비통한 나머지 가슴을 쳤을 뿐이고 맹장군의 유골을 묻은 뒤로는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뒷

날 군량고가 있었던 곳을 군량리라 하였다고 한다. 남면 김부리에는 당시를 입증하는 대왕당(大王堂)과 애화가 전해오고 있다.

• 김부 대왕각 동제

대왕각은 김부리 일대에 3곳이 있었는데 매년 단오와 중양절에 동리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드리는 행사를 천년간이나 이어오고 있다. 제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리 자체로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을 운용하여 그 이자로 재물을 만들어 동제를 지내 왔다고 한다. 김부대왕각 동제에 빠짐없이 마련하는 제물 중에 미나리적과 취떡이 있었다고 한다. 미나리적은 김부대왕이 무척 즐겨먹던 음식이었으므로 꼭 제상에 놓았다고 하며 취떡은 동제가 끝난 후 갈잎에 싸서 몰래 근처의 나무 가지에 올려 놓은 것을 젊은이들이 서로 찾아 먹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자가 찾아 먹으면 글 공부를 잘하게 되고 여자가 찾아 먹으면 길쌈을 잘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다. 제사 지내는 방법은 동리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제주가 되어 제물을 차려 놓고 향을 피웠으며 축을 고하였고 온 동리 사람들이 함께 절을 하면서 동리의 안녕과 집안의 복을 기원했다. 제사가 끝난 후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즐겼다고 한다. 1983년부터는 부안 김씨와 통천 김씨 문중에서 그들의 관 시조인 김부 마의태자의 사당으로 모셔 제향을 올리고 있다. (9월 9일) 특히 항병골 대왕각에는 위패가 있었는데 위패를 쓸 사람이 없어서 창호지를 나뭇가지에 걸어 놓고 제사를 지냈으며 제사에 쓸 술은 미리 대왕각 옆 땅속에 항아리를 묻고 술을 담갔다가 사용하였고 향로는 오목한 자연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소원이 있으면 이곳에 메를 지어 놓고 빌기도 했다는 것이다.

• 김부리 옥새 바위

인제군 남면 김부리의 거짓말 북쪽 골짜기인 하단지골 북쪽 산 밑에 위치하고 있는 바위가 있으니 약 1000년 전부터 이 바위에 얽힌 전설이다.

신라 경순왕 9년 10월에 왕이 군신회의를 열고 고려에 귀속하기를 제의 하였을 때 군신 중에는 혹 가하다고 하는 파가 있었고 혹 불가하다는 파도 있었다 한다. 특히 왕자(속전 마의태자)는 비분한 어조로 말하되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으니 오직 마땅히 충신과 의사와 더불어 민심을 수습하여 스스로 나라를 굳게 하다가 힘이 다한 때에 말 것이니 어찌 천년사직을 일조에 쉽사리 남에게 내어줄까 보냐」하였다. 그러나 왕은 시랑 김봉휴로 하여금 국서를 가지고 가서 귀부(歸附)를 청하였으니 신라는 역대 56왕, 992년으로 붕괴하였다. 왕자는 통곡하며 부왕을 작별하고 개골산(지금의 금강산)으로 들어가 일생을 마치기 전에 남면 김부리에 여러 해 동안 머물렀다. 이때 신라의 뒤를 이으려고 김부대왕이라 칭하였는데 이곳 김부리에는 형태가 두 개로 포개져 있는 바위가 있었으니 이 바위에다 옥으로 만든 임금의 도장인 옥쇄를 감췄던 곳으로 여러 빛깔의 뱀이 가끔 나와 돌아다니는데 옥쇄를 지키는 것이라 하여 그 후부터 이 바위를 가리켜 지금도 옥쇄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인근의 거짓말 서북쪽 산에는 대왕각이 있어 김부왕을 위하여 음력오월 오일과 구월 구일에 취떡과 제물을 차려 놓고 마을 사람들이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 등 이곳에 얽힌 옛이야기가 많이 전해오고 있다.

• 남면의 송도령(松道令)

남면의 소재지인 신남리에서 신풍리를 지나 어론리로 들어서는 초입새의 국도 건너 오른편에는 기암절벽의 남성적인 육중한 산이 웅립하고 있으니 이 산을 예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송도령(473m)이라고 불러오고 있다. 그런

데 아득한 100년전 이 고장에는 매우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송도령이라는 초부가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부모에 효성이 지극하여 산야를 찾아다니면서 땔나무와 풀나무와 석이버섯 등을 따서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어느날 이 초부는 이 산의 중턱에 발달한 5,000평 가량되는 평탄한 놀이터로 올라가 그 정산에 이르기까지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는 석이버섯을 따기 위해 생각한 나머지 줄을 매놓고 작업을 계속하였다 한다. 의외로 석이버섯을 많이 따 내어 기쁨을 감추지 못한 이 송초부는 곤충류의 다족류에 속하는 지네가 줄을 끊어버려 그만 추락하여 죽게 되자 그 후부터 이 고장 사람들은 초부의 이름을 부처 송도령이라고 불러왔다고 〈완고한 가문에서 태어난 어론 1리 경주인 김성규씨라는 어론초등학교 교장(1980)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었다고〉 전해준다. 정상에는 마치 무당이 흰옷을 펼친 모습과 같은 모양을 한 무당굴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이르기까지 마을의 태평을 기원하기 위해 산신제를 지내왔다는 산제굴이 절벽에 위치하고 있어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신풍냉천과 함께 주위의 자연경관이 하도 절승하여 봄부터 가을에 이르러 관람객으로 줄을 잇는다. 뿐만 아니라 이 무당굴과 산제굴에 얽힌 일화도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어 행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 동학교도 은거 집터

인제군 남면 원갑둔리 초가골 맞은편 산 밑에 작은 집이 있다.

현재 이 집에는 황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집터를 동학교도 은거 집터라고 전해오고 있다. 조선말기 1894년 전라도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동학혁명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자 이에 참가했던 동학교도 중의 한사람(김씨)이 이곳에 숨어들어 은신하며 동학을 전도했다고 한다.

• 부자가 망한 대흥동

인제군 남면 관대리에 인색하기 짝이 없는 부자 김대홍에 대한 전설이다. 부러운 것 하나 없이 살고 있던 김대홍 집에 하루는 남루한 옷을 걸친 스님이 와서 시주를 청했다. 때마침 외양간을 치우고 있던 그는 「무엇을 줄게 있어야지. 외양간에 있는 쇠똥이나 가지고 가시오」하며 쇠똥을 스님의 바랑에 담아주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이것을 본 며느리는 당황하여 만류하는 말이 「개도 안 먹는 것을 사람에게 주시면 죄송스럽습니다. 등겨(쌀겨)가 있으니 그것이나 한 바가지 주시어 보내지요」하고 며느리는 그것도 아까와 하는 시아버지를 설득하여 광에 들어가서 시아버지 몰래 쌀을 큰 바가지에 가득 담고 그 위에 등겨를 덮어 스님의 바랑에 넣어 주었다. 그랬더니 스님은 감동하여 「댁에 화가 급습할 것이니 자녀가 있거든 엎고 나를 따르면 그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시각을 지체 마시오」하고 알려 주었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아기를 업고 스님을 따라 집 뒤 능선으로 올라가는데 스님이 말하기를 도중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신신당부 하였다. 그러던 순간 어찌던 일인지 갑자기 무시무시한 뇌성의 벼락이 일며 소나기가 퍼부어 큰 홍수가 나려 했다. 집안일이 근심이 된 며느리가 스님의 다짐을 잊고 떠나온 집을 뒤돌아 보았다. 홍수는 이미 집을 뒤덮고 집이흔적도 없었다. 이를 보고 망연 실신한 며느리는 마침 스님의 말을 어긴 탓인지 화석화되고 말았다 한다. 후세의 사람들은 인색한 부자 김대홍이 살던 마을이라 하여 대흥동이라 부른다 한다. 현재 대흥동은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수침으로 관대리 정착장에서 배편으로 건너가서 2km쯤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 수거너머(술구네미)

인제군 남면 갑둔리 서낭거리와 김부리 사이에 큰 고개가 있다. 지금은 자동차가 교차하며 원활히 잘 다닐 수 있도록 넓게 도로가 잘 닦여있지만 옛날에는

수레만 억지로 다닐 수 있는 소로의 길로 고개가 있었다한다. 전설에 의하며 옛날에 김부대왕이 이 고개를 넘어 다녔는데 수레를 타고 넘다가 산이 하도 험하고 칡넝쿨이 많아 수레를 내버려 두고 걸어서 넘어가고 평지에서는 수레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수레를 남겨두었던 고개 양쪽을 모두 수거너머라고 부른다. 이 권력자는 칡넝쿨 때문에 다니기가 불편하다 하여 부하들에게 칡넝쿨을 모두 캐어 없애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갑둔리와 김부리 일대에는 칡넝쿨이 매우 드물고 있어도 무성하지 못하며 자생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 고개를 "술구네미" 고개라고도 하는데 술구네미는 수레너머의 사투리다.

• 신남리의 닭바위와 망한 부자

인제군 남면 신남 1리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형태가 닭처럼 생긴 바위에 얽힌 전설이다. 신라시대에 김씨라는 부잣집이 있었는데 하루에도 지나는 길손 및 손님이 20여명씩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 집 며느리는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을 접대하기에 골머리를 앓던 중 하루는 노승이 들려 시주를 원하니까 시주는 얼마든지 할 터이니 손님이 안드는 묘책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노승은 앞산에 있던 닭처럼 생긴 바위를 가르키며 닭 벼슬로 보이는 곳을 도끼로 깨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며느리가 즉시 도끼로 깨어버리자 피가 흘러 내렸다고 한다. 그 후 이상하게도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고 따라서 몇 해 동안 계속 집안에 변고가 생겨 김씨 집안은 망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 지역 노인들은 첫 새벽에 닭우는 소리가 들리면 흉년이 온다고 불길해 하고 있다.

• 오개탕(五個蕩)

인제군 남면 어론 1리 44번 국도에서 어론 2리(화탄마을)로 약 6지점에 비포장길 밑으로 위치하고 있다. 깊은 계곡을 이루고 흘러 내리는 물은 오랜 세

월에 걸쳐서 넓은 암반 위에다 5개 웅덩이를 만들어 놓았다. 굽이 돌아 흘러 내리는 물과 암반의 조화가 신비하리만큼 아름답고 화려하여 여름철에는 피서객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곳에 설화가 전해오고 있는데 그것은 먼 옛날 선녀가 목욕을 하러 이곳에 내려왔다가 목욕을 깨끗이 하면서 머리를 빗고 참빗을 바위를 밀어 열고 넣어 두었다는 빗적 바위도 있다 특히 이 탕위 에는 75가구가 옹기조기 집을 이루고 있고 또한 인심이 후박함은 물론이며 마을 단합이 잘 되어 무슨 일이든 합심하여 일을 잘 해나가는 마을이다. 오개탕 위에 조금 올라가면 도로 옆에 소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이를 쌍솔배기라고 하며 마을 뒷편으로는 산 정상으로 바위가 넓적하게 보이는데 이를 번개석이라고 한다.

• 토끼봉의 전설

인제군 남면 갑둔초등학교 동쪽에 천지봉에서 북쪽으로 벋어 내린 해발 600m의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마치 토끼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고 이 산 북쪽 냇가에 우뚝 솟은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두꺼비바위라고 부른다. 옛날에 이곳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3년이 되어도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 한이었다. 이 부부는 생각다 못해 김부대왕께 찾아가 그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김부대왕은 이들의 딱한 사정을 들은 후 이들 부부에게 절을 짓고 부처님께 백일 기도를 드려보라고 일러 주었다 그날부터 이 부부는 지금의 토끼봉과 두꺼비 바위 사이에 절을 짓고 탑을 세웠다. 절을 다 지은 다음 곧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 깨끗한 물로 메를 지어 부처님 앞에 놓고 정성을 다하여 빌었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떡 두꺼비 같은 아들과 토끼 같은 딸을 얻게 해주십시오 …” 이렇게 빌고 또 빌어 100일째 되는 날에는 하얀 시루떡을 해다 놓고 마지막으로 빌었다. 이때 천지산에 있던 토끼와 천지골에 있던 두꺼비가 매일같이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보면 부처님께서 밥을

혼자 먹어치우기 때문에 항상 입맛만 다시고 돌아갔었다. 100일째 되는 날도 토끼와 두꺼비가 와보니 먹음직스러운 시루떡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웬 일인지 부처님은 그 떡을 토끼와 두꺼비에게 먹으라고 하였다. 토끼와 두꺼비는 어찌나 반가웠던지 서로 많이 먹으려고 하였다. 부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충생들의 못난 것들이구나!"라고 말하면서 떡시루를 집어 개울 건너로 던져 버렸다. 토끼는 부끄러워서 머리를 돌렸고 두꺼비는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앞발을 쳐들었다. 이때 하늘에서는 번개가 일고 천둥이 쳤다. 그러자 토끼와 두꺼비는그대로 굳어 버렸고 던져버린 떡시루는 세조각으로 갈라져 큰 바위가 되어 버렸다. 그 후 이들 부부에게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과 토끼 같은 딸을 쌍둥이로 낳아 잘 기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김부대왕이 죽은 후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김부대왕 각을 짓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며 동리 사람들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대왕각에 가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이곳에 탑과 절 주소만 남아있고 토끼가 앉아 있는 모습의 토끼 모양의 바위(일면 촛대바위)가있고 냇가 건너편에 떡바위가 있다.

• 형관(亨冠) 스님의 현몽

경기도 의정부 소재 원오선원(절:암자) 소속 형관스님의 황당무계한 것 같으면서도 불가사의 한 꿈 이야기이다. 형관스님이 1986년 여름 수도하기 위해 계룡산에 들어가 생활하던 어느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점잖은 스님 세 분이 나타나 왕자를 구하고 살리기 위해 사당을 짓고 땅 속에 묻힌 구슬 3개를 찾아야 한다며 인제의 어느 산을 오르는데 어떤 묘를 지나 골짜기 물을 따라 올라가니 우물이 있고 평평한 곳에 이르렀다. 그 스님들의 말이 "3년 후 6, 7월이 되면 빛이 나는 구슬(보물)한 개는 쉽게 찾겠으나 두 개는 찾기 힘들겠다"라고 말할 때 서쪽에서 눈부신 강한 빛이 비치어 꿈을 깼다고 한다. 그 후 형관스님은 꿈이 잊혀지지 않아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신념이

생겨 1987년도에 인제군 기린면 현리 부근까지 와서 꿈속의 지형을 찾으려다 실패하고 돌아갔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계룡산에 다시 들어가 기도를 하던 중 또 꿈을 꾸게 되었는데 황비라는 사람이 나타나 왕자를 살릴 사람을 천년동안 찾았으나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했었는데 이제 나타났으니 자기를 떠난다며 사라졌다고 한다. 그때 서산에 강한 빛이 비쳐 눈이 부시므로 손으로 그 빛을 막으려 했으나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3년 전 꿈속에서 본 똑같은 산골짜기인데 왕족의 집이라는 곳을 지날 때 키가 작고 갑옷과 투구를 쓴 20세 전후의 남자 2명이 나타나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하였다. 안 따라 가겠다고 했으나 꼭 따라 와야 한다고 하므로 결국 따라 가게 되었다고 한다. 얼마쯤 따라가 보니 큰 바위 밑에 우물이 있었고 그 옆에 왕자의 집이 있었다. 우물에 물을 떠먹으려고 손을 넣었으나 닿지 않으므로 나뭇잎으로 끈을 엮어 우물 안으로 다시 넣으니 그 끈을 잡고 왕자가 나타나 하는 말이 "이제 나를 구하고 빛을 줄 사람을 만났다."고 하므로 "앞으로 정성을 다하여 모시며 빛나게 하겠습니다."하고 약속하니 역시 서쪽에서 섬광이 일어 깜짝 놀라깼다. 그런데 형관스님이 이곳 김부탑을 알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다.

갑둔리 오미자 농장 및 서울 호원당 사장 정운희 선생의 친척인 여자교수가 원오 암자에 예불하러 갔다가 우연히 형관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인제" 이야기가 나오니 형관스님이 깜짝 놀라며 꿈에 가 본 인제이야기를 하며 꼭 가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정운희 사장과 인연이 닿았고 꿈속에서 본 김부탑지의 지형을 말하는데 맞더라는 것이다. 김부탑에 제례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스님의 권고에 따라 1988년 6월 29일에 김부탑에 예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스님의 결론적 이야기는 자기가 꿈에 와 본 지형과 이곳 현장이 너무도 똑같아 놀랐다면서 이곳에 오기 전에 꿈에서 본 지형도를 그려가지고 왔더라면서 자기의 꿈이야기가 진실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여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마의태자의 사당을 먼저 짓고 집을 건립해야 한다며 김부탑 부근에 어떤 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화탄리 마을

행정 마을로는 인제군 남면 어론 2리이며 위치로는 어론고개(거니고개)에서 인제 방면으로 약 1km 오다 우측으로 비포장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오개탕이 있고 조금 더 오르면 쌍솔배기라는 소나무 두 그루가 보이며 조금 더 오르면 화탄리 중심가이며 분교가 있는 마을이 있다. (국도에서 약 811km정도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 이곳에 처음으로 함씨, 지씨, 박씨의 성을 가진 세 사람이 정착하여 살게 되었으며 이 삼씨 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위환경 여건에 따라 나무가 울창한 연유로 숯을 구어 생계를 연명하며 살아왔다고 한다. 물론 강원도 어디서나 숯을 구어 당시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 살아갔지만 인제 지방은 특히 산이 많고 나무가 울창하여 숯 굽기 생활이 주 생활로 유명하였던 곳이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지금도 당시를 이어오면서 몇 십년전까지 숯을 굽던 흔적이 이 마을 입구의 밭 가운데에 검은 흙과 숯 조각이 역력히 증명해 주듯 오고 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있다. 그 후 또한 벼를 심어 농사를 지어보니 벼도 매우 잘 되어 정착민이 늘어나 여러 가구가 잘 살아가는 마을로 번창하여 왔다고 한다, 그래서 군에서는 민속예술 발굴사업으로 1987년도에 이 고장 화탄마을의 유래을 찾아 발굴하여 이곳 주민들이 직접 출연하는 민속놀이를 만들어 그 해에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홍천에서 개최) 출연하여 종합 최우수상을 받았고 같은 해에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안양시)에 출연하여 우수상으로 문공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북면 전설

北面 傳說

인제문화원 향토사연구소 고문 **정 형 석**

• 내설악 영시암의 애화

이조 숙종 15년(1689)의 일이다. 이 해에는 나라의 큰 혼란이 빚어졌으니 유명한 장희빈 사건이다. 숙종의 정비 인현왕후 민씨께서는 왕자가 없어 숙빈 장씨가 숙종 14년 9월에 왕자를 낳았다. 숙종이 장씨에게 혹해지니 서인들이 간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았다. 숙종 15년에 장희빈의 소생을 세자로 책봉하려 하자 영의정 김수홍과 같은 “세자를 가르치는 문제가 급하지, 세자 책봉이 급하지 않다.”고 김수항과 함께 반대하니, 숙종은 장씨의 소생을 왕자로 대하고 숙빈 장씨를 희빈으로 대하니 서인들이 들고 일어났으나 숙종은 격노하여 김수홍과 김수항, 송시열을 귀향 보냈다가 그 해 3월에 김수홍의 관직을 박탈하고 3월에 탕사하였다. 이때 송시열도 귀향 갔다가 이 해 6월에 사약하였다. 이때 김수항의 아들인 삼연 김창흡은 세상의 인연을 끊고 설악산의 영시암을찾아 산수를 즐기고 영원히 세상에 나가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다. 그리고 이곳에 정자를 짓고 맹세한다는 뜻에서 영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삼연은 아버지 김수항의 영을 위해 조석으로 기도를 드렸다.

• 내설악의 대승폭포

옛날 대승이라고 불리워지는 총각이 북면 한계리에 살았다 한다. 대승은 석이를 따서 그것으로 생업을 삼았는데 하루는 폭포가 있는 돌기둥 절벽을 동아줄을 매고 내려가서 석이를 땄다. 잔뜩 석이를 따 놓은 참인데 절벽 위에

서 "대승아! 대승아!"하고 부르고 있었다. 대승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외침에 소스라쳐 동아줄을 타고 올라갔으나 어머니는 간 곳이 없고 동아줄에는 신짝만한 지네가 매달려 동아줄을 뜯고 있었다. 동아줄은 막 지네에 뜯겨 끊어지려는 참이었다. 대승은 동아줄을 급히 타고 오르느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으나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다. 후세에 사람들은 죽어서도 아들의 위험을 가르쳐준 대승의 어머니의 외침이 메아리 친다하여 이 폭포를 대승폭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 대승폭포의 길이는 800m가 되며 북면 한계 3리에 있으며 장수대 입구에서 대승령 방향으로 약 2km지점에 있는 폭포로 한국 3대 폭포의 하나이다.

• 내설악의 오세암

신라가 삼국 통일 후 불교가 국교로써 숭봉 왕성할 무렵 선덕여왕 시절에 자장이 자경을 전하고 구령의 대도를 찾고자 창건하였던 것을 인조때에 雲禪이 중건하고 부모를 잃은 자기 조카인 다섯살 난 옥동을 데리고 심산 유곡을 찾아 들었더니 이곳이 곧 백담계곡인 설악 산하로써 매월암이라 칭하고 어느 해 늦가을 스님은 눈이 쌓이기 전에 겨울날 양식을 마련하려고 영동지방의 양양 도호부로 떠나게 되었다. 스님은 산중 암자에 혼자 있게 될 어린 조카에게 "관세음 보살을 외우고 있거라, 그러면 3일 이내에 돌아 오겠다."고 이르고 평길을 넘어 양양으로 떠났다. 그런 것이 그날부터 눈이 내려 산과 같이 쌓여서 평길이 통할 수 없게 되자 스님은 하는 수 없이 통탄 속에 그 해 겨울을 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듬해 3월이 되어서야 비로서 암자에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망동대에 올라 매월암을 굽어 보니 신기하게도 그윽한 종소리, 불측의 기적에 측은한 마음을 먹고 암자에 이르니 동자는 대사를 반겨주고 동자가 있던 방에는 영향이 그윽하게 차 있고 방에서 청조 한 마리가 창 밖으로 날아가고 있으매 대사는 그 연유를 조카에게 물은 즉 자애스럽고 인후스러운 여인의 품에 포옹되어 젖을 빨고 있었으며 그 여인의 말이 "나

는 너의 어머니"라고 하며 동자가 다시 반문하기를 "그러면 관음 보살이시나요?" 한즉 "오냐 너와 명춘까지 같이 있겠노라"하였다한다. (백의 부인이 관음봉에서 내려와 동자의 이마를 어루만지고 청조로 변하여 날아갔다.) 그리하여 매월대사는 다섯살 된 동자가 불법에 오득 통달한 것이라 하여 그 후부터 이 암자를 오세암이라 부르게 되었다한다.

▲ 백담사 부속암인 이 암자는 신라가통일 후 선덕여왕 때 세운 암자로써 당초의 이름은 관음암이었다.

• 선녀 쫓긴 옥녀탕

먼 옛날 북면 한계 3리 장수대 입구에서 대승령 방향으로 약 2km에 있는 대승폭포에 월궁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곳에 지네라는 괴물이 나타나 옥선녀를 해치려고 하자 선녀는 쫓기어 다른 곳으로 옮기었다. 둘째 소까지 쫓겼으나 지네가 다시 쫓아와 여전히 해치려고 하였다. 선녀는 갈 곳이 없어 지네로부터 막 해침을 당할 판국이 되었다. 그 순간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옥선녀의 편을 도와 벼락을 내렸다. 지네는 그만 벼락을 맞아 죽고 옥선녀는 생명을 구했다고 한다. 후세 사람들은 이곳에서 옥선녀가 놀았다고 하여 옥선녀탕이라(옥녀탕)이름 지어 부른다고 한다.

• 설악산과 길두목

본래가 씨름을 잘하여 수십 마리의 황소를 끌어오기도 한 길길도 두목은 지성까지 겸비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양반이 되지 못하여 자신을 비관한 영특한 사내가 결국 세상을 등지고 설악산 설악동에서 남쪽으로 마주 보이는 깎아지른 듯한 기암절벽의 암석 정상에 자리잡고 있는 권금성에 숨어 비적질을 하며 울분을 달랬다는 전설이다. 길두목이 이끄는 비적떼들이 권길성을 은거지로 삼아 활약하게 된 시대는 그 훨씬 이후인 이조시대 연산군때다. 성

이야 언제 누가 어떻게 쌓았든 길두목 일당에게 있어서는 다시 없는 훌륭한 근거지가 되고 있었다. 당시 동해안, 양양, 속초 등지에 사는 사람들이 한양을 가기 위하여 꼭 그 길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권금성은 더욱 비적들의 은거지로 적소였다. 정고평, 마등령, 원통, 인제, 홍천을 거쳐 한양으로 향하였고 또한 이곳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가기 위해 넘나드는 길목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암석 위 정상에 자리 잡은 비적들은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계곡 밑의 관도 옆 주막촌과 은밀한 연락을 취하며 비적질을 했다. 원래가 첩첩산중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는 나그네는 꼭 주막촌(현재의 무명 용사비)에 들려 시장기를 채우고 걸직한 탁주로 컬컬한 목을 축이곤 했다. 그렇지 않으면 멀고 험한 계곡을 넘을 수가 없었으며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형편이면 그 주막촌에서 하룻밤을 쉬어야만 넘어갈 수 있기도 했다. 인접한 곳에 다른 마을이라곤 전혀 없었으며 깊은 산골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주막촌과 긴밀한 연락이 취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비적들로 보아 다시 없도록 좋은 조건이었다. 그 주막촌의 주모들 가운데는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더 많았으며 비적들과 공공연히 정을 통하여 그 마누라 구실을 했는데 이 여자들이 바로 비적들의 소식통이 되어 있었다. 관도를 지나는 손님이 주막에 들어오면 불을 피워 비적에게 그 사실을 알리므로 위로는 마등령, 밑으로는 인제가 바로 비적들의 활동무대로 되어 있었다. 비적들은 힘이 더 월등한 과객을 만나 오히려 당하는 경우는 한 번 이외는 거의 없었다. 비적들은 우선 지나가는 과객들을 없애는 것이 상습이었다. 그러면서 보신상 조정의 정보를 입수해가면서 행패하는 것이 상습으로 되어 있었다, 조정에서는 나날이 거센 폭풍이 이는 가운데 강원도 산골의 비적들은 그야말로 호경기를 만났다는 것이다. 길비적 두목은 심복 부하로 떡쇠 외에 많은 졸개를 거느리고 있었으면 정고부락의 "분"이와 성대하게 혼인을 하고 3년이 지나다 보니 어느덧 자식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 뒤를 이어 20세가 넘었다. 중종 즉위 14년(1519)에는 기미사화가 마침 일어나자 이때 청빈하기로 소문난 강원도 관찰사 - 그전에는 양양 도호부 부사를 지낸 - 이광열은 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양양군 서면 갑천리에 초라한 집을 짓고 생활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 길두목은 이대감의 집 앞에다 고래등 같은 80칸 집을 지어 놓고 살다가 어느덧 대감과 인연이 닿게 된 후 많은 것을 배우고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모든 죄상을 뉘우치므로 그 인간성이 완전히 변해 비적 생활을 청산하게 된 것이다. 양양군서면 갑천리 마을 입구에는 부사와 감찰사를 역임한 이광열 대감의 비석이 있었는데 그 산소 옆에 또 하나의 산소가 생겼고 그 비석에 엉뚱하게도 「백장 길길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여운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북면 용대리 미시령 중턱에 소재하고 있는 도적소도 이 무렵에 도둑들이 미시령을 넘어 다니는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은 뒤 소에 빠뜨려 죽게 하였으므로 붙여진 지명으로 전해져 온다.

• 호랑이 득실댄 호식동

삼연 김창흡(1653~1722)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으로 인제군 북면 용대리 내설악 영시동의 영시암 근처에 호식동이라는 곳이 있다. 이 곳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 먹었다 하여 '호식동'이라고 한다. 삼연은 이곳에 와 있을 때 밥 짓는 종을 한 사람 데리고 와 있었는데 어느 날 영시암 뒤에 있는 골짜기에 나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 갔다. 이리하여 이곳을 호식동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밥 짓는 사람이 없고 보니 침식에 불편도 있었지만 자기 때문에 와 있다가 불의의 화를 당한 종이 불쌍하여 인정으로도 차마 그곳에 그대로 머물 수 없어 여기 온지 6년만에 이곳을 떠나고 말았다. 이곳은 유심(幽深)한 계산(溪山)이기에 양기(養氣)하기가 알맞아 사기에 「휴식하려는 사람들이 만리에서 찾아오고 야기하려는 사람들이 구름 모이듯 찾아 든다」라고 적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들었다 한다.

• 용대리 백담사

당초 이 사찰은 낭천(지금의 화천) 땅에 비금사라는 이름으로 있었다 한다. 당시 포수들이 짐승을 잡으러 자주 몰리는 등 불도에 어긋난 일들이 이 절 근처에서 자주 일어나 할 수 없이 북면 한계리에 절을 옮기고 한계사라 칭하였다. 이 절을 옮길 때 낭천에서 한계까지 하룻 저녁에 옮겼는데 옮기는 도중 청동 화로 하나와 절구를 떨어 뜨리고 왔다 한다. 춘천군의 절구골은 이 때 절구가 떨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한계리 부근의 청동골은 청동 화로가 떨어진 곳으로 전해진다. 한계리에 온 이 절은 이곳에서 다섯 차례나 화재를 만났는데 화재를 만날 때마다 주지 스님의 꿈에 도포를 입고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 절터를 옮기고 이름을 고쳐 보라고 일러주곤 했다. 화재를 자주 만난 이 절은 그 부근인 용대리 양자동에 옮겨 영취사라고 이름을 고치기도 하였으나 이곳에서도 화재를 만났다. 여기서 또 다시 화재를 보자 주지 스님은 절 이름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을 알고 이를 고치려고 애를 썼다. 그러던 하룻밤, 주지 스님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청봉에서 절까지 담수를 세어 보아라」고 일러 주었다. 여기서 암시를 받은 스님은 그 이튿날 청봉에서부터 절 자리까지의 물 굽이를 세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 수는 꼭 일백개 였다. 그래서 주지 스님은 절을 지금의 자리에 다시 세우고 그 절의이름을 백담사라 명명하였다. 그랬더니 그 후부터는 이 절에 화재가 전처럼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서화면 전설

瑞和面 傳說

인제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심 병 관 · 심 미 성**

• 가전리의 개고개

인제군 서화면 천도 4리에서 북쪽으로 12km지점인 미복구 지역으로 가전리에 소재하고 있는 그리 높지 않은 고개이다. 중부에서 서화리로 가는 고개 아래에 큰 갯가가 있는데 이 갯가에 얽힌 전설이다. 70여년전 가전리 마을에 사는 촌로가 술을 마시고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석양길을 되돌아오다 고개 밑 잔디밭에 누워 잠이 든 사이에 원인 모를 산불이 발생하자 따라오던 검둥이 개가 주인을 구출하기 위하여 냇가로 달려가 털에 물을 묻혀 되돌아와 잔디를 적시기를 수없이 하여 주인을 불 속에서 살린 개는 지쳐 쓰러져 타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으니 이 고개 밑에는 주인을 위해 죽은 개 무덤이 있다고 한다.

• 서화 천도리

인제군 서화면 천도 4리에 얽힌 전설이다. 옛날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큰 복숭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것을 본 마을의 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 생각해서 복숭아가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집을 지었다 한다. 그랬더니 그 곳에 집을 짓고 사는지 불과 몇 해 되지 않아 그 지방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인근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모두 모여 와서 집을 짓기 시작하여 몇 해 안가 이곳에 한마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웃 마을에서는 이 마을을 하늘로부터 복숭아가 떨어진 곳이라 하여 천도리(天桃里)라고 불렀다고 한다.

• 서흥리 도깨비 화로

서화면 서흥 2리의 밭 가운데에 있다. 이 마을에 함부자로 통하는 대농의 가족이 살았다. 근면 성실한 함부자는 수년 동안 자기 집 앞에 있는 밭 가운데다 돌을 주어서 쌓아 큰 형체의 돌무덤을 만들었다. 어느 해 겨울 이 돌무덤을 들어내기 위해 온 집안 식구들이 나와 작업을 했는데 제일 중심부를 치우게 될 단계에서 6척 정도의 뿔 달린 뱀이 둥지를 틀고 동면을 하고 있었다. 함부자는 설상사(雪上蛇)가 몸에 특효임을 아는 터라 즉시 잡아 토막내어 뱀술을 담갔다 100일 후에 뱀술을 먹으려고 항아리를 열었는데 모두 발효가 되었어야 할 뱀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생생하여 기이하게 여긴 함노인은 그것을 항아리째 강물에 띄워 버렸는데 밤마다 석달 열흘을 흥흥하더니 10년내에 그 마을에 살던 함씨일가 22명이 모두 죽어 갔으며 지금도 함부자가 살았다는 집터는 서흥리에 있다고, 당시 살았던 김수배씨는 전해 주었다.

• 서흥리의 장가바위

장가바위는 서화면 서흥 1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바위 밑으로 흐르는 물의 수심이 매우 깊어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명주실 한 타래가 모자랐다고 한다. 예전 어느 날 큰 황소를 끌고 이곳을 지나던 나그네 한사람이 이 바위 옆에다 황소를 매두고 시장끼가 있어 주막에 들어가 술과 밥으로 배를 채우고 나와 황소를 끌고 가려고 와 보니 황소는 간데 없고 쇠고삐만 이 깊은 물에 잠겨 있어 나그네는 쇠고삐를 잡아 당겨 보았다. 그러나 황소는 안보이고 커다란 이무기 한 마리가 물 곳을 맨 돌더라는 것이다 그 후에 장씨성을 가진 노총각이 이곳 물에 빠져 죽었다 하여 장가(張家)바위로 불려지고 있다.

• 설퍼덩과 머슴

인제군 서화면 소재지인 천도 4리에서 북서쪽으로 태백산맥 최북단의 명산인 향로봉(1,299m)중턱의 설퍼덩이란 곳에 얽힌 전설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서화리 당촌에 머슴이 있었다. 그의 몸은 낳을 때부터 얼굴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털로 덮혀 있었는데 자기를 대해주는 사람이 없자 소와 친해져 계곡을 누비며 놀았으나 동네 사람들이 이를 알고 놀려대자 머슴은 부락을 등지고 향로봉의 "설퍼덩"으로 들어갔다. 몇 달이 지나도록 산으로 들어간 머슴이 소식이 없자 궁금히 여기니 동네 사람들은 그를 찾아 향로봉 중턱을 헤매다가 통나무 집을 발견하자 안을 들어다 보고는 깜짝 놀랐다. 옷이라고는 걸치지 않은 털복숭이 머슴 옆에는 키가 9척이나 되는 산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생리적 조건까지 여자를 닮았으나 말을 전혀 못하는 여인이었다. 여체의 괴물은 동네 사람들의 놀림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털복숭이 머슴을 가볍게 업고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두 벌거숭이는 그 후 열흘이 못 돼 어디론가 영영 사라졌다. 그 뒤부터 이 지방 사람들은 '바보와 미화'라는 표현으로 '미산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당지에서 70여 년 살아왔다는 목격자 김수배씨는 전해 주었다.

• 천도리의 범바위

인제군 서화면 천도 2리에 있다. 옛날 어느 장엄한 무사가 홀로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게 되었다. 무심코 지나다가 말을 갑자기 멈추었다. 무사는 무슨 연고로 말을 갑자기 섰는지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앞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벼랑 밑을 내려다보며 으르렁대고 있었다. 벼랑 밑에는 멧돼지 한 마리가 있었다. 이때 무사는 벼랑 밑 멧돼지를 노려보는 호랑이를 갖고 있던 활로 쐈다 화살은 호랑이의 앞가슴을 정통하여 호랑이는 마침내 벼랑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무사는 다시 한번 호랑이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벼

랑 밑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화살을 맞은 호랑이가 벼랑으로 떨어지면서 멧돼지의 목을 물어 두 마리가 같이 죽어 있었다, 그 후부터 화살 한 발에 두 마리의 짐승을 죽였다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 뒤부터 범바위로 불리어지고 있다.

기린면 전설

麒麟面 傳說

인제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정 세 덕 · 최 광 윤**

• 기린 북리의 인명골

아득한 예전에 북리의 어느 골짜기에 개도 아니고 여우도 아닌 짐승이 밤마다 시끄럽게 울었다고 한다. 그 동물이 흡사 기린처럼 생겼다하여 지금의 "기린"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고 전한다. 이 골은 길이가 4km 이상이나 되며 옛날사람들이 사슴이 100년 이상 묵으면 기린이 된다고 믿는 하나의 토착 과학에 연유한 까닭으로 이 골짜기를 가리켜 기린이 울었다하여 인명골(人鳴谷)이라고 불러오고 있다. 또한 이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 "장수바위"에는 이조 말엽 명장들이 한양에서 영동지방으로 넘어갈 때면 들려서 자연을 구가하며 놀다 가곤 했다하며 시대차 흐름에 따라 지금은 옛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옛 전설을 반역해 줄 뿐이다.

• 내린천의 수진암

기린면 현 2리와 5리의 경계선에 소재한 현리교에서 조롱동쪽으로 200~600m 지점간은 내린천에 접하고 있는데다가 괴암 괴석의 절묘함과 높은 고개가 발달하여 방동쪽으로 가자면 매우 험한 오솔길로 알려진 곳이다.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먼 옛날 어느 한 스님이 이 곳을 지나가다가 암벽에다 "水鎭岩" 이라고 새겨 놓고 어느 때에 가서 이곳이 물에 침수된다는 말 한마디만 남겨 놓고 지나갔으니 그로부터 그 바위를 가리켜 수진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 스님이 과연 선견지명이 뚜렷하여 그러한지 그 후 이 고장에는 의외로 1930년과 1965년, 1966년 3차에 걸친 대홍수로 수진암 부근

까지 물이 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4년 10월부터 4개월간에 걸친 육군 공병대의 도로 확충이란 대역사로 괴암 괴석의 절묘함과 높은 고개마저 붕괴되어 옛 자취를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끔 평도화 되었다. 지금부터 70년 전만 하여도 이 부근은 유서 깊은 전설에 얽힌 150~200년생 소나무가 무성하였던 곳인데 주변의 각종 신축 건물이 도시의 인상을 풍기고 있어 자취를 반증해 준다.

• 미륵불암과 보살암

기린면 현 5리의 조롱고개에서 3km의 가벼운 보행을 하면 국도 연변의 절골과 오류동 두 마을 사이의 왼편에 높이 20m, 넓이 5m되는 웅장한 모습을 보여 주는 암석이 옹립되어 있다. 예부터 노촌들은 마치서 있는 듯하다고 해서 "선바위(선바우)"라고 불러왔다 한다. 이 고장을 처음 지나는 행객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바위를 바라보기가 일쑤이고 인근 주민에게 이 바위에 얽힌 고사와 전설을 캐 왔다. 저 바위는 서 있다고 해서 선바위라고 설명하면 "기불유명평인데 어찌 유명한 암석에 이름이 없습니까?" 하고 반문한다는 것이다. 두 번 다시 물을 때 대답할 밑천이 없어서 수치감을 면치 못하였다고 한다. 이 고장에서 태어나 이 고장의 정기를 이어받고 타향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나 혹은 가출한 아낙네들이 고향의 향수를 달래며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에서 "나는 선바위가 있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고 제각기 고향이야기를 할 때마다 선바위 이야기를 빼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 높고 골이 깊은 대자연 속에 위치한 이 바위를 김우성은 한탄한 나머지 그 늠름한 모습이 미륵과 같다고 해서 미륵불로 개칭하고 병술 3월 1일(1946)에 석공을 불러 사재를 털어 암석의 벽에다 54자의 글을 새겼고 또 미륵불암에서 약 1km 가량 떨어진 절골 어귀에 흡사 승려와 같은 암석이 있어서 미륵불의 배필로 삼아 "보살암"이라고 새기고 매년 4월 8일 석가탄신일이면 아침 일찍 신수를 드려왔다고 그 후손인 광화(光和)는 전해주고 있

다. 인근에는 방동 약수를 비롯하여 한진사의 불망비 방동 송림 유람지가 소재하고 있어 봄, 가을 유람객이 많이 오고 가는 편이다. 김우성은 방동에서 태어나 대성 양조장을 경영하다가 왜정 말에 배일사상으로 1944년 11월 초순 투옥 중 1945년 4월 28일 가석방 된 바 있으며 2월 29일 경기도 여주군에서 작고하였다.

• 방골 김용관과 토성

기린면 방동 2리 큰 골로 들어서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매봉령(1,095m) 기슭에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장사인 김용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다. 평소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며 인가가 있는 곳을 찾아 다니며 양식과 술을 약탈하는 행패를 즐거운 낙으로 삼고 살았다고 한다. 가끔 피해를 받고 있는 70호에 가까운 곁가리 주민들은 이 원흉의 행패를 못이겨 70호의 주변에다 토성을 쌓아 방위를 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 놈을 언젠가는 살해하고 말아야겠다는 주민들은 지혜를 모은 끝에 교제술이 뛰어난 최씨를 시켜 먹음직한 식량과 패물을 갖고 찾아가 모의한 그대로 큰 절을 올리고 대접하게 하였다. 푸짐한 음식과 술을 대접받은 이 놈은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때 숲속에 은신한 곁가리 마을 청년들은 재빨리 뛰어나와 밧줄로 동여매고 불태워 죽임으로써 화를 면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아들도 차츰 성장하여 1907년 무렵에 있었던 의병대에 가담하여 이 마을 사람들은 두려운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아무런 행패도 없었다고 당시 방도 2리 석전골에서70여년 간을 살고 있다는 김순도씨는 소상히 알려주고 있다.

▲ 곁가리에는 추씨가 60여 호 살고 있었으나 지금은 화전정리로 인가가 없으며 다만 토성의 자취만을 찾아 볼 수 있다.

• 방대산의 배 닿는 돌

방대산은 예부터 송림이 빽빽하게 들어선 산으로 옛날 한 때는 이 산에서 송림을 벌목해 내린천을 이용하여 인제읍 합강리까지 떠내려 보내 뗏목을 엮어서 한양(광나루)까지 운반하여 재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표고 1,435m의 방대한 정상에 약 2톤가량 보이는 암석이 있다 여기에는 순전히 예전에 정으로 조아 뚫은 구멍이 있는데 옛날 어느 땐가 대홍수가 났을 때 이 곳에다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 밧줄로 매달았다고 하여 그 돌을 가리켜 배 닿은 돌이라고 부른다. 그 당시를 입증해 주기라도 하듯 방대산 정상은 평담하고 바위 틈바구니의 흙이나 모래 속에서 조개껍질이 지금도 출토돼 신기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이 암석 이름을 “배(船) 닿은 돌”로 불리우고 있다. 날씨가 맑게 개인 날 이산 정상에 오르면 동해가 육안으로 보여 매우 장관이며 지금도 정산에 큰 바위 몇 개가 굴고 있다고 전해 오고 있으나 실제로 답사하면 찾아볼 수 없다.

• 심뫼마니와 금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60여년 전인 1930년 무렵 인제군 기린면 서 2리 오동골에 있었던 심뫼마니에 얽힌 실화이다. 이 동동골에는 이기일(李起日 : 1905~1960)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라한 오막살이에서 쓸쓸하게 살고 있었다. 이웃집도 없어 마을은 일도 없고 일년내내 찾아오는 사람이래야 해마다 먼 곳에서 찾아와 산 봉양과 산삼을 캐는 심뫼마니들이 사랑방에서 묵고 가는 숙소로 번번히 제공해 왔었다고 한다. 10월 어느날 밤 이 집에 홀로 묵고 있던 어느 심뫼마니는 꿈에 백발 도사가 나타나 산삼을 먼 곳에가 캐지말고 바로 묵고 있는 집 우물가에 있으니 정성껏 캐라고 암시해 주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튿날 길몽에서 깨어난 심뫼마니는 양심있는 인간이라 집주인을 찾아가 내가 만약 집터를 중심으로 산삼을 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하

자 어서 걱정말고 캐라고 흔쾌히 승낙하였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 심뫼마니는 우물가로 찾아가 조심히 돌아보니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과연 늠름한 산삼 한뿌리가 보였던 것이다. 심뫼마니는 캐낸 이 산삼을 서울로 가서 당시에 300만원 호가로 팔려 톡톡히 한 몫을 보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호기에 넘친 심뫼마니는 정직한 사람이라 다시 산삼 캐던 집주인을 찾아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기린면 장에 데려가 마음에 드는 소 한 마리를 택하라기에 집주인은 작은 송아지를 골랐더니 심뫼마니는 그보다 더 큰 황소를 골라 주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산삼 캤던 오동골의 이 집터를 금부터(金富垈)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 심뫼마니와 방동약수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 전의 일로 전해져 오며 심뫼마니인 한 노인이 사시사철 이 산에 이르러 몸을 단정하고 매일같이 산신에게 정성을 드렸다 한다. 하루는 심뫼마니의 꿈에 하얀 도복을 입은 백발 노인이 나타나더니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사시사철 정직하게 나에게 지성을 다하니 내 어찌 너의 지성을 지나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산삼을 주리라 그리고 그 산삼이 있는 곳, 깊은 땅 밑에 만병통치수가 있으니 세상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어 그 약수로 하여금 병들은 사람들을 먹게 하여 낫게 끔 하라"고 한 후 백발 노인이 사라지고 꿈에서 깨어났다. 이상히 여긴 심뫼마니 노인은 다음날 여느 때와 똑같이 심을 캐러 가는데 갑자기 동자가 나타나서 손짓으로 오라고 하기에 그 곳에 가보니 동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육구만달(제일 큰 산삼)산삼이 있더라는 것이다. 심뫼마니는 정성들여 산삼을 캐어 홀치기에 담아 놓고 다시 꿈에서 만난 백발 노인의 말대로 땅 밑을 파보니 땅 밑에서 약수가 솟아났다. 심뫼마니 노인은 그 후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만병통치의 약수를 알리면서 살아왔고 병들은 사람들은 이 약수를 먹으면 즉시 효력을 보았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방동약수에는 찾는 이가 늘어났으며 지금도 널리 도처에서

피서 겸 찾는 행객이 줄을 서고 있다. 약도로 말하면 기린면 현리에서 현 5리 덕다리에서 좌측으로 약 8km들어가면 방동 2리 약수터가 나온다.

• 용각석과 장군석

기린면 방동 1리의 낙촌(落村)인 막구두평(寞九斗坪)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은 당시에 부촌이었다고 한다. 시대는 알 수 없으나 옛날 하루는 평화스러웠던 이 마을에 한 스님이 제일가는 부잣집을 찾아가 시주를 권하다가 하는 말이 “앞산에 있는 저 바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하고 묻기에 주인이 대답하기를 “용각석이라고 합니다”하였더니 그 스님이 하는 말이 “그 바위를 용각석이라고 하는 것보다 장군석이라고 개명하면 이 마을이 지금보다 더 부촌이 되고 훌륭한 인재가 배출될 것이니 그 명당이 사래에 떨치게 되리라.”하여 이 주인은 곧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어 많은 시주를 하고 개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 스님은 그 이름을 고치려면 바위 밑을 통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야 개명할 수 있다 하므로 마을 사람들은 재산이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돈과 쌀 등 곡식을 거출하여 약 한달 동안 이 길을 오고 가는 행객에게 잔치를 베푼 후 그 바위 이름을 장군석으로 개명하였다 한다. 그러나 그 후 훌륭한 인재와 부촌은 고사하고 여러 해가 가지 못하고 마을에는 재해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여 인명의 피해는 말할 수 없고 파산하여 망하는 집이 속출하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여 논쟁 끝에 바위 이름을 고친 것이 이 마을의 패망의 길이였다 하여 다시 용각석으로 고쳤다고 전해오고 있다.

• 조롱동 서생과 장홍노

기린면 현 5리 덕다리에서 좌측길로 들어서면 방동으로 가는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약 2km를 가면 조롱고개가 있고 조롱고개에서 약 500m를 더 가

다 보면 좌측으로 황색 암반 위에 커다란 글씨로 "張弘弩"라고 새겨놓은 글씨를 볼 수 있다. 장홍노라는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서 살다가 이곳에 찾아와 살았는지는 그 신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고장의 촌로와 주위 사람들의 구전에 의하면 장홍노라는 사람은 이곳에 와서 한학 교육에 여생을 보낼 것을 다짐하고 후진들의 한학 교육에 몸 바쳐 왔다고 한다. 장홍노는 서생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다가 세상을 뜨자 제자들이 묘를 가까운 곳에 마련하고 생전에 스승의 은혜를 추념하고 또한 연고인이 언제라도 이 고장을 지나면 찾게 될 날이 올 것이라 상상하고 이와 같이 바위에 장홍노라고 새겨놓았다고 전해온다. 스승님은 영영 가셔도 고색 짙은 그 이름만은 풍우를 가리지 않고 선명하게 보여주니 빛을 잃어가는 현대인의 애향심을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었다.

• 하마로와 박대감

하마로(下馬路)는 현재 기린대가 들어서 있는 자리이고 박대감은 고려말 평자사를 역임한 박원굉 선생을 말한다. 박대감은 1246년 춘천군장본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고려 원종때는 문과에 급제하여 중서문하성에 보선되었다. 당시 고려는 몽고에 30여년 간 수차례의 침략에 시달려 왔고 또한 몽고는 나라이름을 원이라 고치고 일본을 정복하고자 1차, 2차 침략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때에 충열왕으로부터 3등 벼슬을 받았다. 충신인 박원굉은 임금을 받들어 섬기고 오다가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에 왕위에 오르게 되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거역하여 역적으로 몰려 춘천군을 거쳐 인제, 기린, 현리로 정착하였다. 이때 기린은 춘주군의 속현이 였으며 박원굉은 이 지방의 만호로 임직하였으며 동해안, 양양으로부터 침입해 오는 왜군을 물리쳐 오다가 1310년에 서거하시었다. 박원굉은 문무를 겸비한 능관으로 충신이였으며 서거 후에는 이 지방의 수호신으로 후세 사람들이 받들어 예경하니 묘소 앞을 지나는 길이 "하마로"로 명명되었다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부부

가 합장되어 있는 부근에 영월 엄씨를 비롯한 묘가 많이 들어서서 후손들이 선조의 묘를 알 수 없게 되었을 때 후손 중 한 사람의 꿈에 박원굉이 나타나 “주변의 묘를 다른 곳으로 다들 옮기라”고 하여 다른 묘소들을 다 옮기도록 조치하고 남은 박원굉의 모소를 다시 찾게 되었다. 그 후 묘 부근에다 아낙네들이 빨래를 널면 꼭 한가지씩 없어졌다는데 다음날 볼 것 같으면 빨래 널은 장소에 “다음부터는 이 근처에 빨래를 널지 말라”는 금기의 글이 쓰여져 있고 묘굴에서 잃어버린 빨래를 되찾게 되었다 한다. 그리고 이 묘가 생긴 후부터는 가마, 영구, 말 같은 것이 지나면 꼭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또 한가지는 기린 현감이 새로 부임하여 나귀 등에 높이 올라 앉아 이 묘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묘소 앞에서 나귀의 발굽이 땅에 붙어서 꼼짝도 못하게 서있자 현감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동행하였던 수행원에게 사연을 알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이때 한사람이 “예, 소인이 아는 바를 아뢰려고 합니다.”라고 하자 현감은 “네 아는 바를 직고하라”고 하자 수행원은 “예, 아뢰옵기 죄송하오나 여기는 승마고좌 하고는 지나지 못하는 곳이옵니다.” 그제야 현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귀 등에서 내리면서 “옳도다. 평장공께서 예 계신 줄은 미처 몰랐었노라.” 현감은 깊이 깨우치고 이곳을 걸어서 지나갔다. 현감은 다음날 이곳에다 하마비를 세웠다. 이로부터 누구나 이 앞을 지날 때면 반드시 보행하였으며 지명을 하마로라고 하게 되었다.

상남면 전설

上南面 傳說

인제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오 일 주**

• 미산의 용바위와 용마

이 전설은 이조말엽부터 있던 일로써 지금의 상남면 미산 1리 북쪽에 용연동(용늪)이라고 있었는데 약 3천평의 넓은 곳 산 길가에 가난하게 살던 부부가 있었다. 어느 해 아이를 낳았는데 자라면서 일찍부터 상당히 드세며 살고 있는 지형이 산속이라 매우 험한데도 3살 된 아이는 험한 산을 뛰박질을 하며 오르내리고 한 번 집을 나가면 며칠씩 돌아오지 않고 나가 지내는 것이 허다하기 일쑤였다. 두 부부는 암만해도 자식에게는 정이 없고 두려움만 앞설 뿐 큰 걱정과 근심을 이기지 못하여 마을사람들에게 수소문하니 마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집안은 물론 마을이 망할 흉조라고 한결 같이 다들 말하였다. 두 부부는 생각하다 못해 그 아이를 잡아 죽였다. 그때 그 아이의 겨드랑이에는 비늘 3개가 붙어 있었는데 그 비늘을 이용하여 험준한 산을 쉽게 올라다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부터 얼마 안되어 용바위에 용마 한 마리가 자주 나타나 몇일씩 울어대어 마을 사람들은 그 또한 흉조라 하여 또다시 그 용마를 잡아 죽였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 미산의 파리먹이

미산 1리 고목동(古木洞) 어귀의 파리먹이에 얽혀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이조 선조때 어느 날 이율곡 선생의 부친이 지날 때 해가 저물어 캄캄하기에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하루는 보행으로 고단하여 깊은 잠에 들

었는데 부친의 꿈에 갓을 쓰고 흰 옷을 입은 도사가 나타나더니 “너의 아들이 수명이 길지 못하다”고 하였다. 부친은 다시 묻기를 어떻게 하면 아들의 수명이 길게 할 수 있느냐고 도사님에게 묻자 도사는 다시 호랑이로 변하더니 “이곳에다 밤나무 천 그루를 심고 떠나라”고 하며 사라짐과 동시에 꿈에서 깨어났다. 부친은 이율곡 선생과 아침부터 서둘러 며칠을 묵으면서 밤나무를 구하고 심었으며 마지막 심던 날 낮에 꿈에 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 밤나무 천 그루를 다 심었느냐고 묻기에 부친은 다 심었다고 하자 다시 호랑이는 밤나무를 세어보자고 하기에 같이 세어보니 999그루 밖에 안되어 호랑이는 한 그루는 왜 안 심었느냐고 묻자 부친은 당황하여 멍하니 정신을 잃고 있는데 옆에서 잡목 한 그루가 나타나더니 “나도 밤나무”라고 하여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라졌고 부친은 잡목 때문에 화를 면했다고 한다. 튀어나온 밤나무는 열매를 맺으나 알맹이가 없다 하고 지금도 여러 밤나무와 같이 있다 하며 오래된 밤나무가 많기에 고목동이라고 하고 이곳 지형이 파리먹이와 비슷하다는데 연유하여 파리먹이로 와전되어 전설로 내려오고 있다.

• 상남 수동의 황용등천

아주 옛날 상남면 수동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 “나를 보려거든 내일 아침 일찍 늪으로 오라”하였고 꿈에서 깨어났다 할머니는 꿈이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 손녀를 데리고 딸네 집에서 오는 길에 늪이 있는 곳에 가 보았다. 그 순간 어린 손녀가 놀라면서 “할머니 저게 뭐에요?” 하고 손짓으로 할머니를 가리켰다. 할머니는 손녀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보니 누런 황용이 돌기둥을 칭칭 감고 있었다. 할머니는 무서워서 말문이 막히고 발이 땅에 붙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당황하고 있다가 나지막한 소리로 “용이다”하고 손녀를 데리고 걸음아 나 좀 살려라 하고 뒤로 돌아 땀을 뻘뻘 흘리며 달아났다. 얼마만큼 가는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더니 또 다시 안개가 자욱하게 퍼지며 오색 무지개가 서더니 그 늪에서 보았던 황용이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향하여 올라가 사라졌다. 할머니는 그 후 오랫동안 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자주 이야기 해주었다. 그 후부터 이곳은 "황용등천(黃龍登天)" 또는 용폭과 용소라 부르며 전해지고 있다. 이 용소에서 추운 겨울에 얼음 속으로 흐르는 물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괴이한 소리로 들리게 한다.

• 상남의 엄수동

연대는 미상이나 먼 옛날 이곳 엄수동(嚴水洞)이라는 마을에 엄씨 성을 가진 두 형제가 살았는데 두 형제는 체격이 좋고 매우 건강하며 형제간의 의리도 매우 두터운 사이였다. 평소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어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집안을 이루어 생활하였으며 자식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 집안이 번창하였다. 그 후 이곳에 이사를 와서 사는 사람들이 차츰 늘어나자 제법 큰 마을이 형성되어 마을은 두 개 지역으로 나누어 먼저 형성된 마을은 상엄수동이라고 하고 형이 장악하였으며 나중에 형성 된 마을은 하엄수동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또한 상하 엄수동 사이에는 큰 함정이 있는데 옛날 엄씨 두 형제가 자주 이곳에서 만난 마을과 그 외 여러가지 일들을 의논하였다는 말과 또한 어느날 호랑이가 나타나 이곳에 앉아서 구덩이를 파 놓았다는 말도 있어 지금도 이 마을은 전통 예절을 잘 지켜 효도 마을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효행상을 받은 마을 사람들이 많고 협동심이 강하며 잘 사는 마을로 손꼽히고 있다.

• 상남의 학 칠령곡

옛날 이 고장의 상남 3리에 살던 어떤 사람이 아버지 상을 입었다. 그는 아버지를 명당에 모실 생각으로 지관에게 산소 자리를 보아 줄 것을 부탁했다.

그랬더니 그 지관은 산소 자리를 내가 잡아주되 내 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먼저 다짐했다. 상주는 그렇게 하겠다고 쉽게 약속했다. 지관은 양지바른 한골을 묘지로 잡아 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산자리를 파 들어갈 때 넓적한 돌이 나오면 더 이상 파지 말고 하관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손 중에 귀인이 나와 집안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묘지를 팔 때 아무리 친한 사람이 찾아와도 아는 체 하지 말고 인부들이 바위를 뒤적이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하고 일러 주었다. 장사날이 와서 그 상주는 지관이 가르쳐준 골에 묘를 팠다. 상주는 인부들이 묘지를 파고 있을 때 처음에는 지관의 말을 지키느라고 살펴보았으나 펑펑한 돌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관의 이야기가 차츰 믿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럴즈음 찾아온 이웃 주민이 있었다. 상주는 지관이 명심하라는 이야기는 잠깐 잊고서 찾아온 이웃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인부들이 파고 있는 묘지를 지켜보지 않았다. 이때 묘자리를 파던 인부들은 때를 맞추어 나타난 넙적한 돌을 파헤졌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학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올라 고개 너머로 날아갔다. 그 후 묘자리를 보아준 지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상주의 후손에는 지관의 말처럼 그 집안을 일으킬만한 인재가 태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묘지에서 학이 나와 산 너머로 날아갔다고 하여 이곳을 “학칙령”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 칙령과 비슷한 전설로 양구군의 “실학(失鶴)고개”가 있다. 이와 같은 전설은 신라 말 도선으로부터 시작된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로 우리 민족의 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

• 추갑산과 구미호

강원도 산골 하남 2리 선래동(仙來洞)은 앞뒤가 산과 바위로 막힌 벽촌이다. 그러나 기암절벽과산수의 경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 예부터 -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놀던 곳이라서 - 선래동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 같다. 이곳은 인가가 드문 곳으로 7세대가 정착해 살고 있다. 때는 이조 중엽으로 이

마을에 추씨라는 사람이 사냥에 의존하여 하루하루 생활을 영유해 나가고 있었다. 하루는 이 추씨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산을 헤매다 마침 흰털을 가진 짐승을 발견하여 가지고 간 총으로 정 조준하여 짐승을 쏘았다 그러나 웬일인가? 죽은줄 알았던 짐승은 총알을 받아 땅에 떨어뜨리고 태연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추씨는 다시 연발로 짐승에게 쏘아댔다. 그러나 짐승은 그 많은 총알을 발로 받아 땅에 수북하게 쌓아 놓고 꿈쩍도 안하고 있었다. 추씨는 기진맥진한 가운데 지쳐서 그만 정신없이 땅에 눕게 되었다. 이때 집에서 있던 아들 갑산은 사냥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고 총소리만 계속 들려오기에 찾아 나갔다 총성이 들리던 곳으로 가다 보니 아버지가 지쳐서 누워있기에 놀란 갑산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는 이미 죽은 몸이지만 너만은 살아야지" 하면서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하였다. 아들 갑산은 아버지의 사연을 다시 들으면서 있을 때 주변에 흰털이 있는 짐승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앞에 총알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또 다시 저 짐승은 아무리 총을 쏘아도 총알을 받아 땅에 놓으니 어서 피하라고 하셨다. 아들 갑산은 의지가 강한지라 아버지의 총을 갖고 화약만 넣은 채 총을 사정없이 계속 쏘아댔다. 그 짐승은 아들의 총 쏘는 묘기에 놀라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쓰러진 짐승은 꼬리가 아홉개가 달린 백호였다. 이 호랑이는 그 당시100년을 이곳에 살면서 인간에게 피해를 주었다 하여 그 후부터는 구미호(九尾虎)로 불리워졌고 이 산을 아버지 추씨와 아들 갑산의 이름을 따서 그 후부터는 추갑산(秋甲山)이라고 불려져 내려온다는 전설이다.

• 하남리의 구만동

상남면 하남리 하남고개에서 좌측으로 있는 충혼비 입구를 지나 산 위로 나있는 차도를 따라 조금 들어가면 아늑하고 양지바른 마을이 있는데 이곳이 예부터 불려져 내려오는 구만도(九萬洞)이다. 구만동의 지명 전설 이야

기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예부터 풍수지리설에 많이 의존해 온 노인들께서는 저마다 이구동성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그 연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곳에는 예부터 9가구가 정착하여 살아왔고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현재까지도 9가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예부터 촌로들에 의해 구만동이라고 전해져 오는 마을 이름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또 다른 연유된 이야기는 이 마을 앞을 흐르고 있는 내린천 물구비가 마치뱀이 구불구불하게 가듯이 구비구비 돌아 흘러 내려가는데 비유하여 구만동이라는 마을 이름이 붙여져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 마을은 6.25당시 북한군이 쳐들어와 주둔하고 있었으며 당시 이 고장을 지키던 기린지역 청년 결사대가상남과 하남간의 기점으로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과수 차례의 교전이 이루어졌으며 나중에는 인민군 120명을 생포하여 집단 사살시킨 유명한 전적지이다. 이제는 기린대가 한 자리에 102병원이 들어서 있다가 지난해 홍천지역으로 이동했다.

• 하남의 미 기동

미기동은 약 350년 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로 “미기들”이라고 불려져 왔으며 그 연유는 인접해 있는 의식동(衣食洞)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치는 곳에 어종의 1종인 “미기”라는 고기가 이곳에 많이 서식하는데 기인하여 미기동이라고 불려져 내려왔다고 한다. 그 후 이곳에는 지형적으로 살기 좋아 곳곳에서 이사를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한 주변 산수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마을 사람들은 물고기 이름의 “미기”에서 연유된 “미기동” 이름을 다시 아름다운 곳을 칭하는 뜻으로 바꾸어 미도동(美基洞)으로 부르면서 살아왔다. 이에 기인하여 현재까지 ‘아름다운 곳에 터를 잡고 산다’고 하여 미기동으로 부른다.

| 향토 소개 |

잊혀지는 내고장 유래

인제군 기린면 현 3리 1반

정 종 암

미산분교장에서 북동쪽으로 1km쯤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우측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이름하여 '쪽박골'이라 한다. 이 마을에 '장사집'이라 불리는 집이 있다. 이 집과 주변의 지명에 얽힌 전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득한 옛날 이 집에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흘이 되던 어느 날 부모가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아이가 없어졌더란다 자세히 찾아보니 천장에 붙어 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 부모는 아이가 장사임을 알고 관가에 알렸다고 한다. 당시의 세속으론 장사가 나서 자라면 부모를 죽임은 물론 나라에 대역죄인이 된다고 하여 나라에 고발하게끔 되어 있었다. 고발을 접한 관원들이 떼어내려 했으나 도저히 불가 · 능하여 무릎 등의 관절을 끌로 파니까 피를 흘리며 떨썩 떨어지자마자 밖으로 내 뛰더니 슬피 울면서 하는 말이 "내 장성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의 큰 일꾼이 되려했더니 이 지경이 되었구나. 여력으로 부모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죽겠습니다." 하더니 강변으로 나가 피를 흘리며 큰 돌을 주어다가 울타리를 쌓는다며 집 뒤에 갖다 놓더란다. 울타리를 다 쌓지 못하고 그 날로 앞강의 소에 빠져 명을 다하였다. 그 후 며칠이 지났을까, 난데 모를 용마(날개 돋힌 비마)가 나타나서 장사집 주위와 장사가 돌을 줍던 강변을 오르내리며 사흘 밤낮 피를 토하고 울부짖다가 용마 역시 장사가 빠져 죽은 소로 사라졌다고 한다. 이 때에 장사와 용마가 피를 흘리며 다녔던 쪽박골 맞은편을 '핀늪(핏늪)' 이라고 하여 마을 이름이 되었다. 핀늪은 소의 바로 위에 접한 마을이기도 하다. 그 이후로 장사와 용마가 빠져 죽은 곳을 '용소'라 부르고 있는데 지금도 물빛이 검게 보이는 것

이 무서울 정도이다. 또 '장사집'이라고 하는 집 뒤에 보통 사람으론 움직일 수 없는 육중한 돌 여러 개가 울타리처럼 쌓여있다. 당시에 용과 용마가 동시에 나왔다고 하는데 출호는 두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중의 한곳은 '파리먹이' 윗마을 '한이동'에서 방태산(표고 1436m) 정상에 이르는 골 즉, '용늪골'이라고 한다.

또, 다른 한 곳으로는 '용소'에서 11km쯤 강을 따라 올라가면 '용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 나왔다고도 한다.

1990년 본인이 '용바위'를 가보고 그 형상의 기이함에 새삼 감탄하여 조금 설명하고 싶다. 강 가운데 너럭바위가 있고 중앙에 가마솥 모양으로 움푹 파인 바닥에 1km쯤 물이 괴였고 위로는 아치형의 석문이 하늘을 향해 뚫린 것이 장관이다. 그 뒤의 오른쪽에 용의 알이 있다고 하여 보니 마치 방아확 같은 석굴에 큰 달걀처럼 보이는 석란이 있었다. 동행했던 촌로의 말씀이 정말로 알과 같던 것은 몇 년 전에 군모장성께서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위 이야기는 본인이 6.25를 전후하여 8년간이나 고향처럼 살아오면서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전현권님께서 집필하신 기린향토지(1977) 및 인제군지(1980)에 게재되지 않았음을 추기하는 바입니다.

인제의 옛이야기

유적 · 지명 · 전설

인쇄 2016년 8월
발행 2016년 8월

발행인 남 덕 우
편집인 백 창 현

발행처 인제문화원
강원도 인제군 비봉로 44번길 100 하늘내린센터 4층
033.461.6678

인 쇄 도서출판 산책
강원도 춘천시 우두강둑길 23
033.254.8912

※ 이 책은 군비 보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